

연구보고서 2020-05-0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개발

- 청년 불안정 노동자 연구

김기태

정세정·김현경·강예은·최권호·최한수·남재욱·조자영·김윤민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책임자】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강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최권호 경북대학교 교수

최한수 경북대학교 교수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조지영 동국대학교 교수

김윤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05-0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개발

- 제1부 청년 불안정 노동자 연구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고려씨엔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ISBN 978-89-6827-717-7 93330

발|간|사

한국은 압축 성장을 통해 발전한 나라다. 복지국가로 발전한 것도 그러했다. 그런 만큼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복지국가의 뼈대를 갖춘 국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과연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안전망에서 배제됨이 없이 안정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주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외면하거나, 모르는 척 눈감거나, 미처 보지 못한 집단들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배제된 집단 말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렇게 배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 가운데서도 내국인 청년 집단과 이주노동자 집단에 주목했다. 첫 번째 청년 집단은 가장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집단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는 이들을 사회보장의 대상으로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시장에서 이들이 노동을 수행하는 한, 상대적으로 건강한 집단인 청년층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흔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그리고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던 가족, 지역 및 학교 공동체의 기능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청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심각한 경쟁에 내몰리면서 정서적으로도 몹시 메말라가고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을 받아주는 곳은 따뜻한 일터가 아니라, 휴대폰과 노트북을 통해 업무지시와 수행이 이뤄지는 플랫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의 노동이 어떻게 보호받고, 어떻게 배제되는지를 살펴보고 정책 제언을 시도하고자 했다.

두 번째로 상정한 배제 집단은 이주노동자 집단이다. 이주노동자는 한

국에서 이미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 보고서에서 초점을 두는 비전
문취업(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등 체류 자격을 갖춘 이주노동
자만 해도 100만 명에 육박한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기피되는, 이른바
3D 업종을 채우면서 어느새 경제의 밑바탕에서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복지는 이들의 건강권, 노동권, 사회보장
권을 보호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물론 이것이 한
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사회권은 ‘시민권’에 근거
를 두는바,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갈수록 늘어나는 이주노동자의 인구수와 정주화 경향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사회정책을 어떻게 전개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
서 이들을 위한 노동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주거권 등의 실태를 살펴보
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했다.

이 보고서에는 김기태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본원의 정세정 부연구위원,
김현경 연구위원, 곽윤경 부연구위원, 이주미 전문연구원, 강예은 연
구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또한 정기선 전 이민정책연구원 원장, 김석
호 서울대 교수, 주유선 계명대 교수, 김철효 전북대 박사, 최한수 경북대
교수,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최권호 경북대 교수, 조자
영 동국대 초빙교수, 김윤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책임연
구원이 외부 필진으로 참여하였다.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2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서 언

한국은 지난 199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서구의 복지 국가들이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축적한 복지국가의 뼈대를 한국은 단 시간에 세웠다. 그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아동수당 같은 제도들을 도입했다. 1990년대 이후 복지정책의 초점은 일부 달랐지만, 사회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확대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안전망에서 배제된 집단이 계속 목격되고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사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듯 한국 복지국가의 틀 안에서 배제되는 집단들이 꾸준히 관찰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배제된 집단들에 주목하고,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것은 다년도 연구의 두 번째 해에 해당하는 연구다. 지난 2019년 제1차 연구에서는 사회배제 개념 및 실태를 파악한 뒤, 한국 사회에서 배제된 집단으로 난민인정자를 처음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 취약계층, 소수자 문제 등을 세부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올해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청년 불안정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청년층의 경우, 미래산업의 발달과 자동화, AI의 등장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되면서 청년층의 실업 및 빈곤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 증가 등이 예상되고 있다.

“청년층(19~34세)의 빈곤과 물질적 박탈수준은 높지 않지만 노동시장 배제는 빈곤과 물질적 박탈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완 외, 2019, p.168)”. 세부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고졸이 대졸에 비해,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노동 시장 배제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서는 청년의 노동과 삶을 더 깊게 들여다보기 위하여 노동의 불안정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 집단-플랫폼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는 일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집단 중 대표적인 집단으로 고용과 소득·임금, 사회보험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일의 형태이며, 초단시간 노동과 단시간 노동은 최근 청년층 노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 중 하나다.

노동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청년 집단은 이 세 집단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세 집단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규모, 접근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집단의 취약성은 “하지 않는 연구”(신영전, 2019)의 문제를 드러낸다. (초)단시간 근로나 플랫폼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노동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노동정책뿐 아니라 숙련(교육훈련) 문제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크레딧, 현금급여를 포함하는 종합적 차원의 사회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청년층이 한국 복지국가 내부에서 은연중 배제된 집단이었다면, 이주 노동자는 한국 복지국가의 경계에서 배제된 집단이었다. 이들은 복지국가의 ‘시민권’ 테두리 밖에 놓인 탓이다.

마셜(Marshall)의 시민권 가운데 첫 번째인 공민권은 특히 길드 중심의 오래된 독점에 대항하여 부각된 권리였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장인법은 특정한 직업을 특정한 사회계급에 국한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 마을의 고용을 그 마을의 구성원으로만 제한하는 지역적 규제가 있었다. 또한 도제를 이용한 것은 성원을 모집하기보다 외부인을 배제하는 도구로

가능했다”(Marshall, 2013, pp.224-225).

유럽 대륙의 작업장 중심, 기업 중심, 지역 중심 복지모델은 이와 같은 전통의 유산이었다. 마셜은 배타적인 수급의 권리를 확장하여 시민권을 구성하고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전지구적 규모로 노동자들이 국경선을 넘나드는 지금, 어쩌면 마셜의 시민권을 재구성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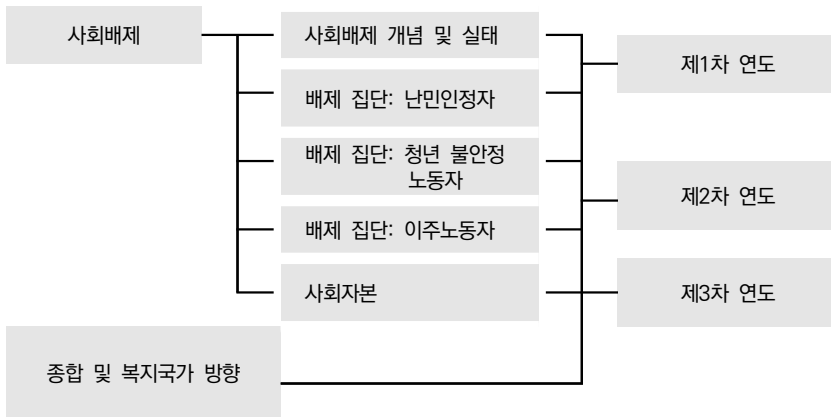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 ‘인사이드’는 비스마르크 유형의 복지국가에서는 기여자이고, 베버리지 유형에서는 국민이었다. 이 논리를 따라가면, 외국인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복지국가 형성의 이론적 배경이 됐던 마셜의 시민권 논리도 외국인을 배제하는, 배타적인 논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마셜의 시민권 개념은 과거 일부 엘리트만 독점하던 시민권을 모든 국민에게 돌려줬다는 측면에서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개념이었다. 그러나 인구 이동이 잦은 국제화 시대를 맞아 보편적 복지가 더 이상 보편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Soysal(2012)은 이와 같은 상황을 “사회정의와 사회통합 사이의 끈이 끊어졌다.”고 표현했다. 과거에는 배제된 이들까지 ‘시민’의 이름으로 통합하는 사회정의, 사회정책이 곧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주민과 같은 ‘아웃사이드’가 늘어나자 사회통합이라는 새로운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사회정의의 원칙에 따라 이들을 통합할 경우, 기존 인사이드들의 반발로 사회통합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즉, 사회정의의 원칙을 버려야 사회통합이 이뤄지는 모순이 발생한 셈이었다. 이와 같은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그중에서도 사회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사회권을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다년도 연구의 두 번째 해에 해

당하는 연구다. 제1차 연도에서는 사회배제의 개념 및 실태를 짚고, 배제된 집단 중 하나인 난민인정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 있다. 올해 연구를 거친 뒤에는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자본의 개념과 실태를 짚고자 한다.

[그림 1] 과제의 주제 및 흐름



3차 연도에 걸친 이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배제 현황을 짚고, 장기적으로 한국 복지국가가 나아가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1부에서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를 다루고, 2부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다룰 것이다. 편의상 연구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 글에 묶어서 제시한다. 1부와 2부에서는 서론의 나머지 내용 및 본론과 결론을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했다.



I 부 - 청년 불안정 노동자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19
제2장 주요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25
제1절 주요 논의 검토	27
제2절 청년 노동의 실태 및 쟁점	38
제3장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일 실태	79
제1절 조사 개요	81
제2절 청년 플랫폼 노동자	88
제3절 청년 시간제 노동자	144
제4절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의사 분석	170
제4장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일 경험과 삶	209
제1절 연구 개요	211
제2절 청년 플랫폼 노동자	217

제3절 청년 초단시간 노동자	272
제4절 청년 단시간 노동자	305
제5장 결 론	333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335
제2절 정책 제언	340
참고문헌	347
부 록	355
[부록 1]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조사표	355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1〉 청년층(15~29세),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4
〈표 1-2-1〉 연구의 구성과 방법	21
〈표 2-1-1〉 청년 일자리 정책 핵심 사업과 사업 내용의 분류	29
〈표 2-1-2〉 2020년 1~4차 추가경정	30
〈표 2-2-1〉 연령별 경제활동상태(2019년 8월)	40
〈표 2-2-2〉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고용보조지표(2019년 8월)	43
〈표 2-2-3〉 청년의 교육이행상태별·연령별 경제활동상태(2019년 8월)	44
〈표 2-2-4〉 2019~2020년 분기별 청년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46
〈표 2-2-5〉 연령별 시간제, 초단시간 임금노동자 비율(2019년 8월)	48
〈표 2-2-6〉 연령별·교육이행상태별 시간제 비율(2019년 8월)	50
〈표 2-2-7〉 연령별 시간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수준(2019년 8월)	51
〈표 2-2-8〉 연령별 시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수준(2019년 8월)	53
〈표 2-2-9〉 연령별 사회보험 가입률(2019년 8월)	54
〈표 2-2-10〉 청년의 교육이행상태별 사회보험 가입률(2019년 8월)	55
〈표 2-2-11〉 연령별·교육이행상태별 비자발적 시간제 비율(2019년 8월)	56
〈표 2-2-12〉 시간제 취업 사유(2019년 8월)	59
〈표 2-2-13〉 청년의 교육이행상태별 시간제 취업 사유(2019년 8월)	61
〈표 2-2-14〉 연령별·산업별 시간제 비율(2019년 8월)	63
〈표 2-2-15〉 연령별·산업별 초단시간제 비율(2019년 8월)	65
〈표 2-2-16〉 연령별·산업별 시간제 비중(2019년 8월)	67
〈표 2-2-17〉 청년의 시간제 일자리 주요 산업의 직종 비율(2019년 8월)	69
〈표 2-2-18〉 플랫폼 노동자 성별·연령별 분포(2018년)	72
〈표 2-2-19〉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노동 비율(2018년)	72
〈표 2-2-20〉 플랫폼 노동자 지난 3개월간 근무일 수 분포와 하루 평균 노동시간(2018년)	73
〈표 2-2-21〉 플랫폼 노동자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소득(2018년)	74
〈표 2-2-22〉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2018년)	75
〈표 3-1-1〉 표집단계별 조사 진행 과정	83

〈표 3-1-2〉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의 조사 내용	86
〈표 3-2-1〉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93
〈표 3-2-2〉 응답자 직종 분류	94
〈표 3-2-3〉 플랫폼 노동 청년의 성별·연령별 직종	95
〈표 3-2-4〉 플랫폼 노동 청년의 지역별·학력별 직종	96
〈표 3-2-5〉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겸업 여부	97
〈표 3-2-6〉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간	99
〈표 3-2-7〉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시간 관련 추가취업 의사	101
〈표 3-2-8〉 직종별 평점 유무 및 평점에 대한 플랫폼의 조치	102
〈표 3-2-9〉 직종별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여부	103
〈표 3-2-10〉 직종별 업무상 상해 경험 및 산재 인정 여부	104
〈표 3-2-11〉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관련 부정적 경험	107
〈표 3-2-12〉 직종별 근로계약 및 부당행위 경험	108
〈표 3-2-13〉 직종별 노동조합 가입 여부	109
〈표 3-2-14〉 직종별 노동조합 가입의사	110
〈표 3-2-15〉 플랫폼 일자리를 선택한 이유	112
〈표 3-2-16〉 직종별 노동시간 유연성 비교: 원치 않을 때 일하지 않을 수 있음	113
〈표 3-2-17〉 직종별 노동시간 유연성 비교: 갑작스러운 일감으로 인한 생활상 부담	114
〈표 3-2-18〉 직종별 노동시간 유연성 비교: 일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	115
〈표 3-2-19〉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	116
〈표 3-2-20〉 플랫폼 노동 청년의 월평균 소득	119
〈표 3-2-21〉 플랫폼 노동 청년의 본인명의 금융자산	120
〈표 3-2-22〉 플랫폼 노동 청년의 시간당 소득분포	121
〈표 3-2-23〉 플랫폼 노동 청년의 본인명의 금융자산	123
〈표 3-2-24〉 플랫폼 노동 청년의 본인명의 부채	124
〈표 3-2-25〉 플랫폼 노동 청년의 본인명의 주택	125
〈표 3-2-26〉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고용 영향	126



〈표 3-2-27〉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	129
〈표 3-2-28〉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상세 현황	131
〈표 3-2-29〉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교육훈련(학교 외) 경험	135
〈표 3-2-30〉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향후 교육훈련(학교 외) 의사	136
〈표 3-2-31〉 향후 희망하는 교육훈련의 유형	137
〈표 3-2-32〉 자신의 교육수준 대비 현재 주된 일의 수준	139
〈표 3-3-1〉 시간제 노동자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1	145
〈표 3-3-2〉 시간제 노동자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2	147
〈표 3-3-3〉 코로나19의 경험	148
〈표 3-3-4〉 일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경우	149
〈표 3-3-5〉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일과 관련한 청년의 경험	150
〈표 3-3-6〉 산업안전(1)	152
〈표 3-3-7〉 산업안전(2)	152
〈표 3-3-8〉 산업안전(3)	153
〈표 3-3-9〉 일과 관련한 청년의 경험	153
〈표 3-3-10〉 노동조합 관련	154
〈표 3-3-11〉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지급 관련 경험	155
〈표 3-3-12〉 일자리 만족도	156
〈표 3-3-13〉 현재의 주된 일자리를 선택한 이유(1순위)	159
〈표 3-3-14〉 소득, 부채, 자산	161
〈표 3-3-15〉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분석 결과: 청년 가구 재산과 부채	161
〈표 3-3-16〉 소득	162
〈표 3-3-17〉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 상태	163
〈표 3-3-18〉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	164
〈표 3-3-19〉 임금노동자의 일자리 특징별 국민연금 미가입 사유	164
〈표 3-3-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분석 결과: 청년 취업자의 사회보험 사업장 기반 가입률	165

〈표 3-3-21〉 지난 1년간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	166
〈표 3-3-22〉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의사	167
〈표 3-3-23〉 받고 싶은 영역의 교육훈련	168
〈표 3-4-1〉 주요 변수 설명	177
〈표 3-4-2〉 응답자에게 주어진 가상 설문(고용보험)	181
〈표 3-4-3〉 국민연금 가입 현황	184
〈표 3-4-4〉 고용보험 가입 현황	184
〈표 3-4-5〉 국민연금 미가입 및 연금 기여금 미납 이유	186
〈표 3-4-6〉 응답자에게 주어진 질문(국민연금)	188
〈표 3-4-7〉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소득, 자산, 부채 기초 통계량	189
〈표 3-4-8〉 국민연금 가입의사 결정 요인	198
〈표 3-4-9〉 고용보험 가입의사 결정 요인	199
〈표 3-4-10〉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의사	200
〈표 3-4-11〉 고용보험료 부담의사	201
〈표 4-1-1〉 조사대상자의 참여 기준	211
〈표 4-1-2〉 주요 인터뷰 질문	213
〈표 4-1-3〉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16
〈표 4-2-1〉 플랫폼 노동의 진입 경로	220
〈표 4-2-2〉 플랫폼 노동 경험과 의미	231
〈표 4-2-3〉 플랫폼 노동 청년의 미래와 사회에 대한 인식	255
〈표 4-3-1〉 초단시간 노동 경험과 의미(1)	274
〈표 4-3-2〉 초단시간 노동 경험과 의미(2)	280
〈표 4-4-1〉 단시간 노동 청년의 노동 경험과 의미	308
〈표 4-4-2〉 단시간 노동 청년의 미래와 사회 인식	319
〈표 4-4-3〉 단시간 노동 청년의 질적 연구 분석 결과	331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1-1-1] 청년층(15~29세),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13
[그림 1-1-2] 청년층(15~29세) 고용률	15
[그림 2-2-1] 연령별 고용률(2019년 8월)	41
[그림 2-2-2] 고용보조지표 구성요소	42
[그림 2-2-3] 연령별 시간제, 초단시간 임금노동자 비율(2019년 8월)	49
[그림 2-2-4] 성별·연령별 비자발적 시간제 비율(2019년 8월)	57
[그림 2-2-5] 플랫폼 노동 직무 만족도	77
[그림 3-1-1] 1차 표집에 활용한 한국리서치 마스터 샘플 구성	82
[그림 3-2-1] 20~30대 임금노동자와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	118
[그림 3-2-2]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비율의 커널밀도추정	128
[그림 3-2-3] 청년 플랫폼 노동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132
[그림 3-2-4] 국민연금 미납자의 미납 사유	133
[그림 3-3-1] 초단시간, 단시간 노동 청년과 취업 청년의 일과 관련된 경험 비교	150
[그림 3-3-2] 전체 임금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을 하는 청년들의 소득 만족도	157
[그림 3-3-3] 전체 임금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을 하는 청년들의 근로시간 만족도	157
[그림 3-3-4] 전체 임금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을 하는 청년들의 장래성 만족도	158
[그림 4-2-1] 플랫폼 노동 청년의 노동 경험과 사회인식	271
[그림 4-3-1]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청년지원정책의 대상과 내용 확대 흐름	299
[그림 4-3-2]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취업성공패키지의 수정·보완 내용	301
[그림 4-3-3]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의 노동 경험과 의미, 미래와 사회인식	304
[그림 4-4-1] 단시간 노동 청년의 삶과 노동	332



Abstract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a New Welfare State for Coping with Social Exclusion

Young Precarious workers

Project Head: Kim, Kitae

This report attempts to provide policy direction for young precarious workers who are engaged in part-time work and platform work.

To this end, we analyzed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and the Korean Labor Panel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young precarious workers. Also, we surveyed the conditions of work and life of 929 young precarious worker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8 precarious workers, as w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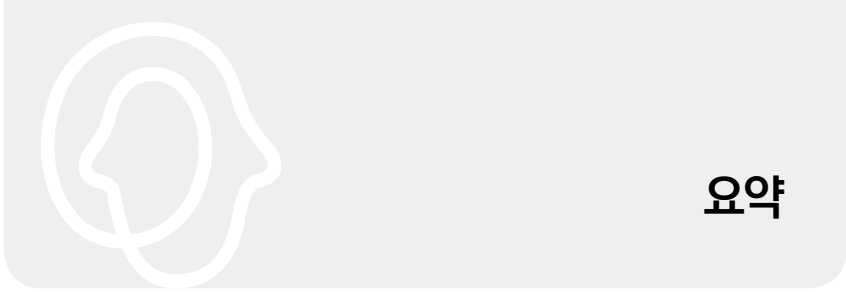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young precarious workers have been being excluded from income security, job security, and social insurance. 2) COVID19 has affected the income decline and work losses of young precarious workers. 3) They have high levels of needs to join a union and education/training. 4)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determining factors for willingness to enroll in the national pension and employment insurance.

Co-Researchers: Cheong, Sejeong · Kim, Hyunkyung · Choi, Hansoo · Choi, Kwonho · Nahm, Jaewook · Cho, Jayoung · Kim, Yunmin · Kang, Ye Eun

2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개발 - 청년 불안정 노동자 연구

This report suggests a couple of policy implications: 1) the necessity to guarantee of basic working condition of youth, 2) reorganizat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come security, social insurance, and social service) and expansion of education opportunity and training program for young precarious workers, 3) enhancing efforts to increase bargaining power of them, 4) the necessity of policy to prevent long working hours and protect minimum wage for young platform workers.

* Key words: young precarious worker, platform work, part-time work



1. 서론

청년층 배제는 노동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코로나 19는 청년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불안정 노동을 하는 청년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에 주목하여 플랫폼 노동과 시간제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의 일과 삶을 양적·질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상과 문제에 따른 정책적 쟁점과 대응방안을 찾고자 했다.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2장에서는 청년정책 환경 변화와 일자리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여 청년 노동의 현황을 파악했다. 3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인 청년 불안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실시하여 일 실태를 진단하고, 사회보험 가입의사 및 지불용의를 분석했다. 4장에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일과 삶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5장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 제언을 시도했다.

3. 주요 연구 결과

2020년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의 시행과 코로나19로 인한 시대적 여건이라는 두 축의 환경 변화에 놓여 있다. 청년기본법의 시행으로 청년정책은 장시간의 법적 공백기에서 벗어났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명시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

을 발주하고 관련 논의들을 진척시키고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은 2020년 1~4차 추가경정예 포함되었다. 공급량의 확대에 의한 대상자 증가 자체가 정책 대응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나 장기 전략의 부재, 구체화되지 못하거나 실행된다 하더라도 실제적 변화를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 그 변화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제기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2장에 보이듯이 코로나19의 영향이 20대 청년층 취업난에 고스란히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고용 유지에 집중되면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에게 더욱 혹독한 노동시장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시간제 노동의 경우, 초기 청년과 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재학/휴학 중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고졸 청년의 비율은 초대졸 청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0~34세 여성의 초단시간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시간제 노동은 청년에게 질 낮은 일자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일제 일자리보다 시간제 일자리에선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15~24세, 25~29세 가입률이 매우 저조해 청년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이 됨에 따라 이들을 사회보험제도 내로 편입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청년층의 경우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 비율은 낮은 편이었지만, 시간제 노동을 선택하는 이유는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고졸 청년의 경우엔 1/3이 전일제를 구할 수 없어서 시간제로 일한다고 응답했다. 25~34세 남자의 경우 이 비율은 과반에 이르렀다.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여 플랫폼 노동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자 비율이 과반을 넘겼고 청년층보다 중장년층 비중이 높았다. 근무환경을 살펴보면 청년층의 취업일 수는 많지 않았고,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35세 이상 노동자에 비해 짧은 편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35세 이상 노동

자에 비해 청년층의 50만 원 미만 구간 비율이 높은 데 반해, 300만 원 이상 구간 비율은 낮았다.

서베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 초단시간 노동, 단시간 노동을 하는 청년의 일과 생활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청년의 경우 플랫폼 노동은 겸업의 비중이 높았다. 주된 일과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경우뿐 아니라, 특히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겸업이 많다는 것은 청년 플랫폼 노동의 특성 중 하나로, 단시간 노동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이 자발적 결정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청년 플랫폼 노동자는 대부분 근로시간 결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동시에 시간 관련 추가취업을 희망했고, 일감을 얻지 못할까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일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느끼지만, 산재보험 같은 최소한의 보호막이 있어도 그 밖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권’이라는 측면에서도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이런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지만, 청년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접근성은 낮다. 총소득으로 보나 시간당 소득으로 보나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은 낮았으며, 시간당 소득은 직종의 숙련수준과 일치하지 않았다.

코로나19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의 소득과 일자리 상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사회보장제도 밖에 놓여 있어서 소득이 감소했다더라도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이들의 문제는 ‘실업’이기도 하지만, ‘소득감소’이기도 하다. 또한 플랫폼 노동과 시간제 노동을 하는 청년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으며, 특정 직종에 필요한 훈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에 따르면,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은 일자리에서의 부정적인 경험 비율뿐 아니라 업무상 상해 경험 비율이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일 경험이 있

는 청년에 비해 더 높았다. 또한 사업장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게 나타났고, 이들의 소득 대비 부채와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은 높게 나타나 생활의 불안정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들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현황 및 각 사회보험 가입의사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다중 회귀분석 결과,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각기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고용보험의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정책과 비재정정책의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크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본인 지불용의 면에서 두 사회보험 공히 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제일 중요했다.

4장에서는 플랫폼 노동과 시간제 노동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삶과 일, 일과 삶의 연결성, 사회보장제도의 경험과 인식, 청년지원정책의 경험과 인식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노동형태와 상관없이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일은 자아실현과 관계된 일과 그렇지 않은 일로 구분되었다. 불안정 노동이라 하더라도 자아실현과 관계된 일은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자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일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은 누적된 실패 경험과 그로 인한 제한된 선택, 그저 불안하고 소모되는 노동을 의미했다. 또한 불안정 노동자라는 정체성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계층과 개별적 상황(예: 연령)에 따라 자신들의 일을 저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청년지원정책을 경험한 청년들은 현 청년정책의 한계, 특히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노동 관련 서비스의 양과 질의 충분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청년정책에 억제기제가 내재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보면, 정부의 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책임 회피,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급여, 처우와의 상이성으로 인한 열악성이 발견되었으며, 청년들은 연대체의 부재와 낮은 경험치로 인해 폭언, 폭행, 부당한 경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4. 정책 제언

연구를 통해 제시한 정책 제언은 ① 청년기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로의 포괄, ② 연대체를 통한 보호의 경험 제공 및 연대체 권한 강화, ③ 교육훈련제도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양적·질적 차원의 정비, ④ 근로연령층 사회보장제도 재편의 필요성, ⑤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 설계 및 추진이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내로 청년 불안정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방안을 고민함에 있어서는 노동시장에서 권력을 갖기 어려운 청년기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에서 보듯, 청년의 일은 졸업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노동의 동기는 생계, 미래에 대한 탐색 등 다양하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자체는 청년들이 불안정 노동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청년의 불안정한 노동이 소득의 불안정뿐 아니라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되는 계기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권력을 갖지 못한 특성상 고용주의 가입 거부나 정보 부족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으로부터 배제되고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생겨도 사회보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청년이 사회보장제도로 편입되고 경험을 통해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불안정한 일을 할 때가 아닌 안정적인 일을 할 때이다. 따라서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을 사회보장체계로 포괄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용주 거부로 인한 미가입 문제에 대한 대처, 정부 신뢰, 보험료 지원이 요구된다. 이때, 분석 결과는 사회보험의 종류와 지원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세분화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정책과 비재정정책의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국민연금 가입의사의 주된 요인으로 밝혀진 국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기금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국민연금이 실질적 보호기제임을 느낄 수 있도록 생각해봐야 한다.

둘째, 청년 불안정 노동의 문제는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과 노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연구 결과를 보면 남성 청년은 신체적·언어적 폭력에, 여성 청년은 성적 폭력에 빈번히 노출되었다. 생애 초기 일, 더 나아가 사회에서 경험한 폭력과 상해가 청년들의 향후 노동 이행과 정신건강 등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 사업장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는 높게 나타났다. 양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동조합 가입의사는 고용보험 가입의사와도 관계가 있었다.

사업체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뿐 아니라 각 지역사회 청년센터, 협동조합 등 연대체는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 기성 노동조합과 노동법, 사회정책 유관자들은 이러한 시도들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청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하는 청년들이 이러한 연대체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집단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그 목소리를 현장에 반영,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를 만들어내는 데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이행기에 가장 크게 요구되는 교육과 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은 장래성에 대해 만족도가 낮고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욕구는 청년 일반에 비해 높다. 따라서 이들의 이행기 노동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과 진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은 플랫폼 기업이 일정할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은 특정 직종에 필요한 훈련을 가장 선호했으며, 이행기 특성상 직업훈련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한정되지 않는 것을 선호했다. 자기개발에 대한 욕구가 다변화해가는 사회환경 내에서 안정적으로 추구, 충족될 방안이 필요하다. 현실에서는 발생 여부와 지속 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이행기 청년의 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된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 또한 강구될 필요가 있다.

심층인터뷰에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들은 상담기간의 연장 과 커리큘럼의 체계성,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심층인터뷰를 통해 청년정책에 억제기제가 내재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정부 포털 사이트의 접근성의 한계, 수급 자격의 까다로움과 증빙 문제, 정작 정책이 필요한 대상들이 묘하게 배제되는 문제는 사회정책을 설계할 때 나타나는 수요억제와 공급억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연구에서 확인한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해 근로연령 사회보장제도를 재편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청년 불안정 노동까지 빠른 시일 내에 포괄할 수 있는 방안뿐 아니라 근로연령 층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논의와 작업이 각계에서 여러 방식으로 검토될 필요도 있다(노대명 외, 2020). 분명히 주지

해야 할 것은 각각의 정책이 대상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개별화된 정체성이 뚜렷하며 이행을 생애과업으로 삼은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 무엇과 공통된 욕구를 파악하려는 강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노동은 단지 소득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다. 심층인터뷰에서 확인된 청년들에게 일이 주는 의미를 돌아볼 때 이는 더욱 분명하다.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일은 자아실현과 관계된 일과 그렇지 않은 일로 구분되었다. 불안정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행, 즉 자아실현과 관계된다면 청년들은 그 일에서 의미를 찾는다. 또한 서 있는 곳, 이를테면 계층과 연령에 따라 청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다르게 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설계, 제공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교육, 훈련 및 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청년의 욕구와 개선점을 파악해야 함을,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주요 용어: 청년 불안정 노동자, 플랫폼 노동, 시간제 노동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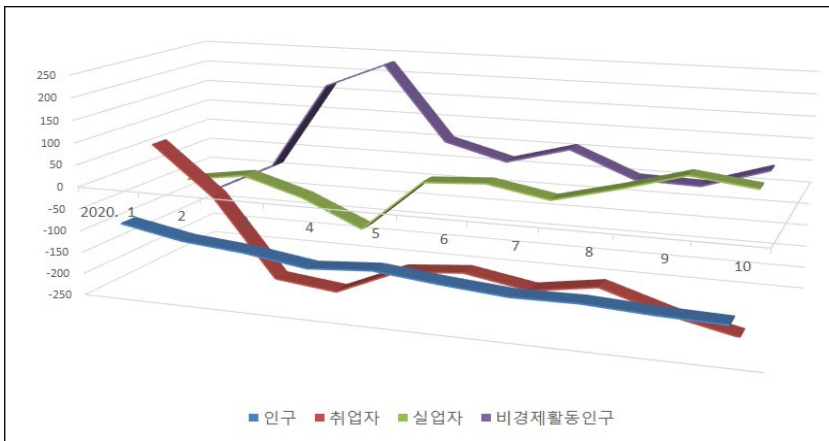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차 연도 연구에 따르면(김태완 외, 2019) 청년층 배제는 노동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경제활동상태와 종사상 지위, 계약형태 등을 고려하여 측정한 청년의 노동배제수준은 빈곤율과 물질적 박탈수준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는데, 혼자 사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최근의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만 봐도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림 1-1-1] 청년층(15~29세),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단위: 전년 대비, 천 명)



자료: 통계청(2020a).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495에서 2020. 11. 20.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2019년과 2020년 동월의 경제활동인구 증감을 살펴보면, 2020년 청년 인구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지속적 감소세를 보였으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세를 보였다. 가장 최근인 2020년 10월 청년층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3,000명이 증가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4만 2,000명이 증가했다.

〈표 1-1-1〉 청년층(15~29세),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전년 대비 증감)]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2020년 1월	8,988	(-88)	3,956	(65)	329	(-50)	4,703	(-104)
2월	8,983	(-115)	3,857	(-49)	381	(-29)	4,745	(-37)
3월	8,962	(-128)	3,671	(-229)	402	(-71)	4,889	(172)
4월	8,941	(-149)	3,653	(-245)	373	(-134)	4,915	(230)
5월	8,934	(-139)	3,770	(-183)	426	(-11)	4,738	(56)
6월	8,918	(-154)	3,750	(-170)	451	(-2)	4,717	(18)
7월	8,903	(-166)	3,802	(-195)	406	(-28)	4,695	(58)
8월	8,886	(-164)	3,811	(-172)	316	(9)	4,758	(-1)
9월	8,867	(-172)	3,732	(-218)	364	(51)	4,772	(-5)
10월	8,855	(-176)	3,748	(-250)	341	(33)	4,766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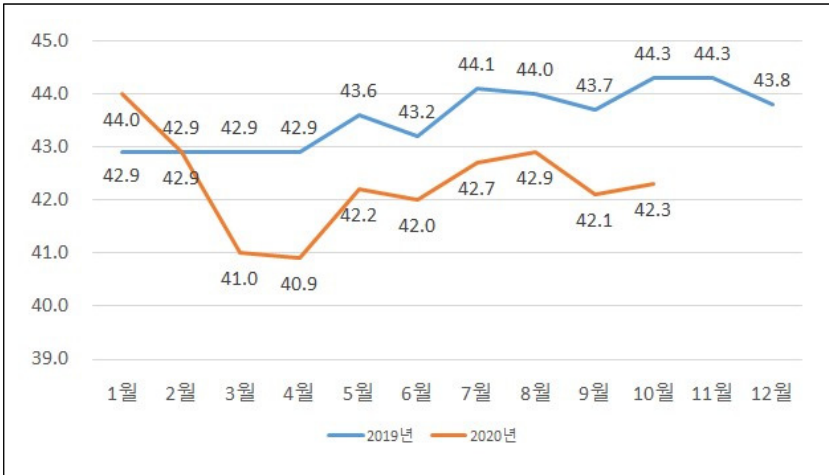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0a).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495에서 2020. 11. 20.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그뿐만 아니라 15~29세 인구 전체를 분모로 두는 고용률의 경우, 2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이 겪고 있는 노동 영역의 어려움은 청년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된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때문에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청년층 비율이 높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이 타격을 입었을 뿐 아니라 고용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노동시장으로 신규 진입해야 하는 청년층도 타격을 입은 것이다. 고용노동부(2020a)에 따르면,

2020년 2~3분기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채용 인원은 23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1만 3,000명)가 감소했다.

[그림 1-1-2] 청년층(15~29세) 고용률

(단위: %)



자료: 통계청(2020a).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495에서 2020. 11. 20.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청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오삼일과 이상아(2020)는 청년층(15~29세)은 비청년층(30세 이상)보다 필수적이지 않거나, 재택근무를 할 수 없거나, 고대면접촉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음을 추정해 바 있다. 그러나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ILO(2020)는 팬데믹이 청년층에게 고용, 교육훈련, 노동시장 진입 방해라는 세 가지 쇼크(triple shock)를 가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으며, EU 회원국 또한 청년층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Sanchez, Parra, Ozden, Rijkers., 2020).

이처럼 노동 영역에서 청년층의 취약성과 팬데믹의 영향을 고려할 때,

청년 불안정 노동자를 살펴보는 것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수립해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를 고용, 소득, 사회보험에 있어 취약성을 갖는 자로 규정했으며, 청년 불안정 노동자 중 플랫폼 노동과 시간제 노동을 주업으로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플랫폼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는 일은 하고 있지만 고용과 소득, 사회보험 차원에서 불안정성이 내재된 대표적 집단이다. 이들은 상용직보다는 임시직이거나 일용직일 확률이 높고, 계약형태로는 직접고용보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계약을 맺고 있을 확률이 높다. 플랫폼 노동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판별하기 어렵다. 노동시장에서 정의되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는 고용안정성, 사회보장 문제와도 연결된다.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팬데믹과 같은 사회위기 상황에서 일 또는 일감을 잃거나 소득이 감소할 위험에 노출되고, 아프거나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도 쉬기 어렵다. 모두가 처음 겪는 어려움이었으나, 어려움의 크기는 모두에게 같지 않았다. 위험에 더 취약한 사람들도 있었고, 제도 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한편, 지난 9월 1일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 노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희망패키지사업(20조 7,000억 원)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신규 9만 명), 청년디지털일자리(신규 5만 명)와 같은 구직·취업 단계에 3조 9,000억 원을, 주거·자산형성지원사업에 12조 3,000억 원을 의결했다(이경미, 2020). 그러나 이것이 실효성 있는 청년의 고용·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청년 불안정 노동자는 연구에서 주목하는 집단 이외에도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발전예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와 가장 밀접하게, 가능성과 우려를 함께 안고 논의되는 플랫폼 노동과 알바나 프리랜서로 표상되는 청년층 노동의 주요 특성인 시간제 노동을 살펴보는 것은 이행기 특성을

보이는 청년을 위한 사회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간제 노동은 청년들이 가장 쉽게 접하게 되는 일이며, 청년층 비율의 증가세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년의 시간제 노동은 생계와 직결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또는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시간제 노동이 통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을 적용(제11조 적용범위 참조)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팬데믹 상황도 고려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현 상황과 앞으로 이러한 위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공유된 불안은 그간 거쳐가는 일자리로 여겨왔던 일에 주목할 필요를 제기한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것처럼 불안정한 일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사회적 안전망은 제공되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공과 적성, 원하는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관계부처합동, 2020a)에는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유망산업육성계획이 담겼으나 플랫폼을 활용하는 일을 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도 있다.

물론 플랫폼 노동과 시간제 노동은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과 시간제 노동을 청년이라는 대상의 특성과 연결하면, 일과 실업, 일과 휴식의 모호성, 시간 선택의 자발성, 일의 특성으로 야기되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교육과 훈련을 포함하는 숙련의 문제,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크레딧, 현금급여를 포함하는 종합적 차원의 사회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국내의 학자들은 변화하는 노동에 대응하려면 노동정책뿐 아니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다차원의 사회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

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평등한 노동시장 기회와 접근, 좋은 노동환경, 사회보호와 포용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요아킴 팔메, 2019).

이상의 문제의식과 상황을 배경으로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대상은 일은 하고 있지만 고용과 소득/임금, 사회보험 등으로부터 취약한 청년 불안정 노동자다. 주로 청년 플랫폼 노동자와 청년 시간제 노동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시간제 노동은 초단시간 노동과 단시간 노동으로 구분된다. 그 이유는 짧은 노동시간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주휴수당, 사회보험 가입 등 제도를 적용하는 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 전반에서는 시간제 노동을 적절히 개별적으로 또는 통합적으로 다룰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 플랫폼 노동자와 청년 시간제 노동자의 일과 삶을 양적·질적으로 살펴, 포착된 현상과 문제에 따른 정책적 쟁점과 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다. 구체적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불안정 노동의 실태와 쟁점은 무엇이며, 관련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둘째, 플랫폼 노동과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과 삶은 어떠한가?

셋째, 플랫폼 노동과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정책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1. 연구의 구성과 방법

이 연구는 배경과 목적, 구성과 방법을 설명하는 서론을 제외하고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1절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논의를 검토한다. 2절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여 청년 노동의 현황을 파악한다. 활용 가능한 최신 자료를 통해 시간제 노동과 플랫폼 노동의 실태를 포착하고 쟁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3장과 4장은 두 번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3장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인 플랫폼과 시간제 노동 청년의 일 실태를 진단한다. 2장 1절에서 대표성을 지닌 자료를 활용하여 분포의 추이와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3장에서는 이 연구를 위해 설계, 수행한 웹기반 조사를 바탕으로 주요 특성에 따른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인식, 교육훈련 욕구, 일 관련 경험 등을 파악한다. 참고로, 우리 연구진의 조사에서는 연구 시점을 감안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일의 상실 또한 조사하였다. 필요할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수행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정세정, 김태완, 김문길, 정해식, 김기태, 주유선, 강예은, 최준영, 송아영, 김용환, 2020) 및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 등 다른 조사 결과를 활용한 비교 분석도 실시한다.

4장에서는 1:1 인터뷰를 활용하여 청년 플랫폼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인터뷰 대상은 웹조사에 참여한 청년 중 인터뷰에 참여할 의향을 물은 뒤 의향이 있는

청년을 선정한 것이다. 집단별 첫 인터뷰 대상은 임의로 선정되었다. 이후 연구진 논의를 통해 인터뷰 경험을 공유하고 인터뷰의 초점, 논의 및 대상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논의 과정에는 연구진뿐 아니라 청년단체가 함께함으로써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청년 당사자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삶에 기반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에서는 일 경험뿐 아니라 현재의 삶에 대한 탐색, 일과 삶의 연결성에 대한 탐색, 미래에 대한 탐색을 포함하였다. 첫 인터뷰 대상 이후 대상 선정은 연구진 회의와 인터뷰 대상자의 스케줄 조정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대한 다양한 청년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5장 결론에서는 세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2장, 3장, 4장을 통해 도출된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사회보장의 관점과 청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방법으로써 국내외 관련 논의 고찰, 기존 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 양적 조사 설계 및 조사, 심층인터뷰, 청년단체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 포럼, 자문회의, 수시 및 정기적 연구진 회의 등이 활용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별도로 설계, 조사된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는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졌다. 심층인터뷰는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진행하였다. 온/오프라인으로 실시된 전문가 포럼과 자문회의에는 플랫폼 노동과 시간제 노동에 대한 논의와 청년정책의 실태와 쟁점에 대한 논의, 연구 대상과 조사 내용에 대한 평가 및 검토, 심층인터뷰 대상 및 방향 수립에 대한 논의를 다루기 위하여 연구자, 청년단체, 조사전문가, 플랫폼 노동 등 관련 단체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였다.

〈표 1-2-1〉 연구의 구성과 방법

연구 목적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일과 삶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하고 포착된 현상과 문제에 따른 정책적 쟁점과 대응방안을 논의		
연구 질문	연구의 구성	연구 방법
1. 청년 불안정 노동의 실태와 쟁점은 무엇이며, 관련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 (2장 1절) 청년정책 및 일자리 관련 논의 검토 - (2장 2절) 청년 불안정 노동 현황 파악	- 문헌 검토 - 2차 자료 분석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노동패널)
2. 플랫폼 노동,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과 삶은 어떠한가?	- (3장) 웹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노동 및 삶의 실태 진단(노동조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인식, 교육훈련 욕구, 일 관련 경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및 일 감소 경험 등) - (4장) 청년 플랫폼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의 맥락, 의미 등 파악	- 청년의 일과 삶 실태조사,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조사 분석 등 - 1:1 심층인터뷰
3. 플랫폼 노동,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사회정책의 역할은 무엇인가?	- (5장) 결론	- 분석 결과 종합

자료: 저자가 작성함.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은 연구 시점으로부터 도출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보장제도 재편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즉, 이 시점에서 수행되는 연구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여 청년의 일과 삶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웹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과 일 감소의 경험을 문항에 포함하였으며, 심층인터뷰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주어졌다. 즉, 이 연구는 팬데믹 상황하에서 청년의 일을 양적·질적 연구를 통

해 심층적으로 살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둘째, 우리 연구는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사회보험, 교육훈련, 청년정책 경험뿐 아니라 청년의 삶을 살펴 기존 연구들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범위를 다뤘다. 때문에, 기존 연구들에 비해 종합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웹조사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상태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의 차이가 존재하는 실험 설계문항을 임의할당 방식으로 질문하여 청년들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태도를 보다 정교히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가장 최근에 수행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정책 대상의 특성을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연구다. 청년의 불안정 노동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다시 질문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자발성의 의미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의 제한적 자발성인지, 즉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지만 구할 수 없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인지 등도 다뤘다.

3.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일의 형태로는 불안정 노동, 그중에서도 플랫폼 노동과 시간제 노동이고, 생애주기상으로는 청년이다. 그러나 사실이 각각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교한 고찰을 요하는 주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나의 연구에서 이 모두를 정교하고도 방대하게 담을 수는 없다. 예컨대 플랫폼 노동의 정의, 세분화된 플랫폼 영역(예: IT 영역의 라우드 소싱, 디지털 콘텐츠, 라이더 등)의 각기 다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세밀히, 구체적으로 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노동에 대

한 치밀한 논쟁보다 이러한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의 일과 삶을 관찰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연구에서 가리키는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19~34세이다. 그러나 2장 2절 청년 노동의 실태 및 쟁점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활용하며, 통계청은 15~29세에 대한 청년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는바, 2장 2절에서는 15~34세를 포괄하여 청년 노동 실태를 논의한다.



제2장

주요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주요 논의 검토

제2절 청년 노동의 실태 및 쟁점

제 2 장 주요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주요 논의 검토

1. 청년정책 환경 변화와 일자리 정책 대응

2020년 청년정책은 크게 두 축의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청년기본법의 시행이다. 2020년 8월 청년기본법의 시행으로 청년정책은 장시간의 법적 공백기에서 벗어났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명시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논의들을 진척시키고 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시대적 여건이다. 교육, 훈련, 자기탐색, 상호작용 등 경험치의 축적을 통해 이행기 생애과업을 수행해야 할 청년층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교육은 비대면 학습으로 전환되고 각종 시험이 취소되고 있다.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또한 청년정책을 다룰 때 주목해야 할 주요 이슈이다.

2020년 3월에는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합동(2020b)으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이 생활지원 분야, 참여·권리 분야, 일자리 분야, 주거 분야, 교육 분야에 걸쳐 발표되었다. 일자리 분야와 관련한 전략은 “취업·창업 지원 확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보호·강화”였으며, 주요 과제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새로운 노무형태 보호가 제시되었다. 과제의 핵심은 일자리 양 확충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자산형성 지원, 숙련기회 제공, 사회보장제도 포괄성 확대라 할 수 있다. 청

년들의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의 재가입과 중도해지 시 정부 지원금의 확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원 확대(2019년 20만 명 → 2020년 29만 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요건 완화, 소프트웨어 업계 등에서 프리랜서와 같은 노무 제공 형태가 등장함에 따른 새로운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마련과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등이 주된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창작활동 공간 확대, 청년 농업인 지원,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직업훈련 신설,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개선 및 운영방식 개편 등도 그 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숙련 축적을 목적으로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를 특정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으며(김유빈, 강민정, 고영우, 김영아, 2019), 직간접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놓고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그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이며,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일하는 청년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 표는 김기현, 차세영, 이승호, 김문길, 박미선(2020)이 정리한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핵심 사업이 일자리 확충, 자산형성 지원, 교육훈련 제공, 사회보장 확대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여부를 검토하여 재분류한 것이다. 대체로 일자리 확충과 교육훈련 제공,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개선사업 중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인권경영 확대와 청년 산업안전 환경 개선은 안전 차원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교육훈련 제공, 사회보장 확대와 관련된

사업은 별도의 핵심 사업이나 청년층에 한정하지 않은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도입 논의를 통해 이뤄지기도 한다. 물론 생활 지원, 참여·권리 등에도 청년의 일과 관련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금융 지원과 청년저축계좌 신설, 참여·권리 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강화, 청년 대상 성희롱·성폭력 안전망 강화, 교육 분야의 희망사다리장학금 확대,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들 수 있다.

〈표 2-1-1〉 청년 일자리 정책 핵심 사업과 사업 내용의 분류

구분 (중분류)	내용	일자리 확충	자산 형성	교육 ·훈련	사회 보장 확대
취업	청년내일채움공제	○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
창업	청년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		○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		○	
일자리환경 개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강화	○			
	NCS기반 능력 중심 채용 및 공공·민간 블라인드 채용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인권경영 확대				
	청년 산업안전 환경 개선				

자료: 김기현, 차세영, 이승호, 김문길, 박미선. (2020).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p.78의 〈표 4-12〉 청년 일자리 정책 핵심 사업 현황이 일자리 확충, 자산형성 지원, 숙련 제공, 사회보장 확대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저자가 작성.

교육과 훈련의 경우, 이행기에는 교육과 훈련을 통한 숙련이 필요한데, 교육과 훈련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물론 1인당 300~500만 원 이내의 훈련비 45~85%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2020b)제도가 있지만, 대상 포괄성 확대, 만족도, 제공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이뤄진 추가경정예산에서 청

년을 직접 명시한 정책적 고려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 여기에 제시하지 않은 두루누리사업이나 고용보험지원사업 등은 청년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상 청년을 포괄하는 제도다.

〈표 2-1-2〉 2020년 1~4차 추가경정

구분	내용
1차 (2020. 3.)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자금 여력 확충(4,350억 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청년 구직자의 조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참여 인원 확대(+5만 명, 508억 원)
2차 (2020. 4.)	- 긴급재난지원금
3차 (2020. 7.)	- 청년의 주거·금융·일자리·교육 등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패키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주거·금융 지원) 청년층에 역세권 전세 임대(+2,000호, +1,900억 원) 및 다가구 매입 임대(+500호, +760억 원) 추가 공급 -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500억 원* 추가 공급을 위한 보증재원 확대(+75억 원) * 햇살론youth: 당초 추경 500억 원(재정 보장 75억 원) → 1,000억 원(재정 보장 150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층 IT 일자리 취업(+1만 명, +934억 원), 뉴미디어 활용 일자리 및 영화인 직업훈련(2,400명, 80억 원) 제공 ○ (청년 창업 지원) 비대면 분야 청년 아이디어 발굴(20억 원) 및 사업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87억 원)* * 예비창업(100개사), 세무·회계·기술보호(2,000개사), 특허(100개사) 등 ○ (대학 교육)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학기당 장려금 200만 원 지원(+1,200명, +50억 원)
4차 (2020. 9.)	-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 지급(0.1조 원) - (청년 특별구직 지원) 전체 대상자 20만 명 중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신청 대상자에 대해 별도로 안내문자를 발송(9. 23. 수.)하여 9. 29.(화) 지급 개시 -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식 신청(10월 12~24일) 등을 통해 11월 말까지 지급

자료: 기획재정부. (2020a).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 2020년 3월 18일 보도자료. p.8.
 기획재정부. (2020b).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0년 4월 30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0c).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0년 7월 3일 보도자료. p.3.
 기획재정부. (2020d).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0년 9월 22일 보도자료. pp.6~8.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비대면 일자리 확충 정도가 방역위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고, 기업과 청년에 대한 현금 지원, 일자리 확충, 장학금 형태의 등록금과 장려금 지원은 방역위기보다는 경제위기에 따른 단기 대응책으로 볼 수 있다.

청년정책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청년정책은 단일한 성과지표가 부재한 채 부처별로 개발, 공급되어 왔고, 각 사업에 하나의 목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김기현 외(2020b)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서 182개 청년정책을 3단계에 따라 계획수립(대상자 부합성, 대상자 포괄성), 집행과정(자원투입 충분성, 정책 환류의 충실성), 성과달성(정책 효과성, 정책 인지도, 정책 효율성)으로 구분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이행기 특성과 향후 마련될 주요 성과지표에 기반하여 청년정책을 재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개발될 청년정책 성과지표들이 사회보장기본계획이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같은 청년을 포함하는 국가 단위의 사회정책 계획과 어느 정도의 정합성이 있는지, 현재 논의 중인 전국민고용보험제도나 상병수당과 같은 제도들이 청년층의 일과 건강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에 대한 기대와 한계는 명확하다. 정책 공급량의 확대에 의한 대상자 증가는 정책에 대한 기대다.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나 장기 전략의 부재, 구체화되지 못하거나 실행된다 하더라도 실제적 변화를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 변화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은 정책의 한계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경험해본 적도 없고 종식시기를 예측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지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한편으로 수동적 대처가 아닌 일과 생활이 가능한 방식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2. 선행연구 검토

가. 플랫폼 노동

이 연구에서 불안정 노동은 고용, 소득, 사회보장 관점에서 취약한 일이라고 정의하며, 연구 대상은 청년 플랫폼 노동자, 청년 시간제 노동자로 한정한다. 플랫폼 노동은 정의에 따라 분포하는 데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유급 노동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김준영, 권혜자, 최기성, 연보라, 박비곤, 2018, p.31) 또는 “지난 한 달 동안 일거리 1건당 수수료나 수수료와 정액급여 혼합방식으로 소득이 결정되는 단기 아르바이트 앱/웹 이용자”(김준영 외, 2018, p.31)로 볼 경우, 플랫폼 노동자 중 15세~29세는 11.2%를, 30대는 15.9%를, 30대 이하는 27.1%를 차지하고 있다. 정세정 외(2020)에서는 취업 청년 중 1.64%가 플랫폼을 활용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시간제 노동의 경우 2003~2018년을 비교할 때, 2003년에는 임금노동자 중에서 시간제 노동을 하는 청년(15~24세)의 비중은 20% 수준이었지만 2018년에는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성미, 2019). 청년 시간제 노동자들은 고용관계가 간접고용이나 특수고용인 경우가 많아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정세정 외, 2020)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속할 가능성도 높다.

플랫폼 노동 또는 플랫폼 경제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플랫폼의 정의, 세부 특성(또는 적용배제 기준), 분류방식을 논의한다. 각 연구의 세부 목적에 따라 플랫폼 노동의 규모를 추정하거나, 양적·질적 접

근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거나, 국내외 플랫폼 노동 사례, 제도, 판례 등을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이는 플랫폼 노동이 무엇인지조차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취업자의 1.7~2.0%에 해당하는 약 50만 명 내외로 추정(김준영 외, 2018, p.34)되고 있다. 그러나 추정된 규모에 대한 의견조차 연구자마다 다르게 나뉜다.

플랫폼을 경유하는 어떤 종류의 일을 플랫폼 노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다. 유튜브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를 플랫폼 노동으로 보지 않는 Schmidt(2017)와 플랫폼 노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장지연 외(2020) 사이에서 발생한 의견 차(장지연 외, 2020에서재인용)가 그러하다. 엄격히 말해 플랫폼 노동은 현재까지 모호한 정의, “현상에 대한 이미지(장지연, 이호근, 조임영, 박은정, 김근주, Enzo Weber 외, 2020, p.8)”만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유되어 있는 상황이다. 선행연구(김준영 외, 2018; 장지연 외, 2020)를 보면, 플랫폼 노동을 정의함에 있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일거리’, ‘일감’임을 강조한다. 김준영 외(2018)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를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서 불특정한 조직이나 개인이 문제해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과업 혹은 일거리(tasks)”로 정의하였으며, 장지연 외(2020)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용역)와 가상 재화 생산 노동”으로 정의했으며, 종사상 지위와 플랫폼 노동 여부는 상호 독립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국제적 차원의 연구로는 유럽연합(EU), OECD, 국제노동기구(ILO)의 연구가 있으며, 이 연구들 또한 플랫폼 노동의 ‘정의’와 그에 대한 적절한 규율 방안, 노동조건에 보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 플랫폼 노동을 정의하는 데 있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 외에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소득을 어떻게 얻는가를 포함하여 종사상 지위의 문제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에 선

행연구들은 플랫폼 노동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제시하고 주요 특성에 기인한 적용배제 기준을 적용하여 플랫폼 노동 해당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 이 연구 또한 이러한 방식을 준용하며, 구체적 정의는 3장에 기술되어 있다. 플랫폼 노동은 시간과 접근성에 있어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일하는 시간과 소득이 불규칙하며,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노동자성 판단이 애매하여 사회보장에서 배제되어 있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지만 알려진 바와 사회적으로 함의된 바가 가장 적은 노동이라 볼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과 사회적 보호가 부재하여 질병과 업무상 사고와 부상에 대한 보호 또한 미흡하다(브뤼노 팔리에, 2019).

플랫폼 노동의 쟁점을 이행기 특성에 교차하여 생각해볼 때, 플랫폼 노동의 특성인 고용의 불안정성, 산업안전 대책, ‘사라져버린 사용자(장지연 외, 2020)’와 관련된 사회보험 가입의 문제, 연대와 교섭의 문제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부터 시작, 일정 기간 유지, 반복된다면 이것이 개인의 삶의 안정성(소득, 고용 등)과 사회보장제도에 미칠 영향, 교육과 훈련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플랫폼 노동을 하는 청년이 플랫폼 노동에 남아 있을지, 전통적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로 진입할지는 알 수 없으며, 이는 지금부터 추적이 필요한 문제다. 그러나 노동환경과 가치관의 변화 속도를 고려하고 적시의 정책 대응을 목표로 둔다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방안은 명확하다. 불안정한 노동을 반복하고 이러한 노동의 반복 속에서 교육과 훈련이 부재하여 노동이력을 쌓기 어려운 이들을 적극적으로 포괄하려는 사회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나. 시간제 노동

청년들에게 시간제 노동은 시간 활용이라는 유연성 측면에서 전일제 일자리와 달리 이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재학/휴학생, 일·가정 양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유용성은 더욱 가치가 있을 수 있다. OECD(2010)는 시간제 일자리를 노동시장의 약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바도 있다(남재욱, 이다미, 2020에서 재인용). 그러나 현실에서 청년들의 시간제 일자리는 박하게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 당사자들이 최저임금, 주휴수당, 4대보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예: 청년유니온(2020)]. 전국 편의점, 카페, 음식점에서 일하는 15~39세 660명을 상대로 조사한 청년유니온(202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17.8시간, 월평균 임금은 67만 원이었다.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한 최저임금 위반율은 11.7%였으며,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67.6%였다. 또한 응답자의 16.3%는 현재 하는 일 외에도 일주일에 평균 11.2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당 노동시간이 10시간 미만인 응답자의 46.5%와 15시간 미만인 응답자의 40.5%가 일을 더 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추가로 일을 원하는 응답자 중 94.3%는 소득이 부족해서라고 답했다. 이들은 더 많은 소득을 원하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 일을 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과 같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세정(2020)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노동 청년의 39.4%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간제 노동이라 하더라도 초단시간 노동과 단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 적용과 사회보험 가입에 있어 차이가 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의 3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 유급휴일과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에서 적용 제외된다. 즉, 단시간 노동은 제도 차원에서 초단시간 노동에 비해 소득과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시간제 노동이라 하더라도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은 세부 연령과도 관계가 있으며, 고용주의 가입 거부 문제가 포착된다. 같은 40시간 미만 노동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률은 25~29세의 26.24%에 비해 19~24세는 12.30%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정세정 외, 2020). 또한 근로시간에 따른 국민연금 미가입 사유는 20시간 미만과 20~30시간, 30~40시간, 40시간 이상인 경우 모두 고용주의 가입 거부라는 응답이 30%대였다(정세정 외, 2020). 이는 현실에서 제도의 설계를 넘어 권력의 열세 문제로 인한 미가입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간제 일자리의 한계는 한국 또는 청년층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국제기구는 시간제 일자리의 시급, 교육훈련의 기회, 고용안정성(OECD, 2015a; OECD, 2015b), 사회보장 차원의 불리함(Eurofound, 2007)을 언급한다(남재욱, 이다미, 2020에서 재인용).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간제 일자리가 주로 소규모 사업장, 서비스업과 판매서비스, 저숙련 부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서비스 부문과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성, 숙련에 기대지 않은 발전 과정, 외부적·수량적 유연성이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남재욱, 이다미, 2020). 그리고 많은 청년들은 바로 이러한 판매직과 서비스직, 즉 노동조합이 없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정세정 외, 2020).

다. 사회보장제도 재편 논의

코로나19는 사회보장제도 재편의 필요성과 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아파도 쉴 수 없고, 소득의 감소와 단절, 일자리 상실을 겪었으나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기여방식의 사회보험제도에서 조세방식의 베버리지형 보험으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에서 사회보험료와 조세는 그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유럽에서는 시민들이 이 둘을 다른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경향을 언급하며(노대명 외, 2020), 조세기반의 사회보험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논의한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는 부담방식(기여 vs. 조세)을 포함한 급여형태, 추가기여 방안을 각계에서 검토 중이기도 하다. 일의 상실이 아닌 소득의 감소에 대한 보호, 모호한 사용자나 의무가입 제외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탓이다.

그러나 정책대안이 논의되고 설계, 추진하는 것과 해당 정책대안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사용자를 찾기 힘들거나 비표준적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수반되는 플랫폼 노동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생애주기 특성상 노동시장에서 협상력을 주도하기 어려운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연대, 협상, 교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조직체도 필요하다. 조직체는 노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구체화해볼 수도 있다. 김은경(2020)은 협동조합이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직업적 이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협상력이 필요한 예로는 웹툰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의 낮은 단가 책정, 수정 요구, 저작권

관련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노동조합들이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적극 가입시키고, 조직화하거나, 단체교섭에 포함시켜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 정부들은 디지털 노동자를 위한 법률 또는 현장을 마련하고 있다. 볼로냐주 정부의 ‘도시의 디지털 노동권의 기본원칙에 관한 헌장(Carta dei diritti fondamentali dellavoro digitali nel contesto urbano)’, 라치오주 정부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Norme per la tutela e la sicurezza dei lavoratori digitali)’이 그 예이다(이호근, 2020).

제2절 청년 노동의 실태 및 쟁점

이 절에서는 청년을 비롯한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모습을 보여주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를 활용해 청년 경제활동의 일반과 시간제 노동의 실태를 분석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식별하기 어려운 플랫폼 노동의 현황은 제21차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파악한다.

1. 청년의 경제활동

청년의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주된 자료는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다. 주되게 시간제 노동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므로 공식적인 시간제 노동 취업자 수를 집계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하며, 가장 최근 연도인 2019년에 공개된 원자료를 토대로 분석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경제활동 추이와

가장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함께 이해하기 위해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도 활용한다. 여기서는 이 연구의 실태 조사에서 모집단으로 삼는 34세 이하를 청년의 범위로 보고 그들의 경제활동에 주목한다. 따라서 청년 집단에서도 서로 다른 이행상태, 특성을 고려해 15~34세를 5세 단위로 구분해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2-2-1〉은 15세 이상 인구 전체 및 청년의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의 값을 보여준다.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3%, 실업률은 3%, 고용률은 61.4%인 데 비해, 25~29세, 30~34세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75.5%, 79.7%이고, 고용률은 70.5%, 76.8%로 높게 나타난다.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15~34세에서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크게 증가한다. 15~24세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청년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난 데는 높아진 실업률이 그 배경인데, 전체 실업률이 3%로 낮은 데 비해 청년층 실업률은 3.7~8.2%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특히 20대 청년의 실업률은 6.6~8.2%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층의 구직난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모습에 있어서 남녀 간에 큰 차이는 없다. 15~19세 남자의 실업률이 여자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림 2-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대까지 유사한 경제활동을 보이다가 30~34세부터 남자는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반면 여자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준다.

4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개발 - 청년 불안정 노동자 연구

〈표 2-2-1〉 연령별 경제활동상태(2019년 8월)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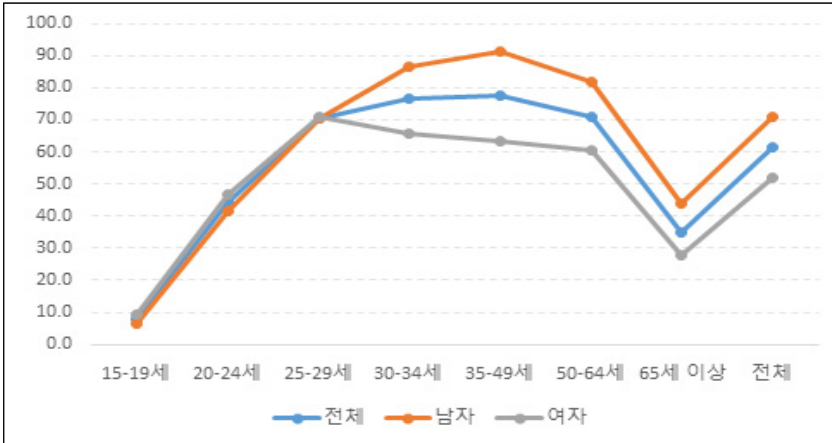
	전체	취업	실업	비경활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전체							
15~19세	2,600	202	16	2,382	8.4	7.5	7.8
20~24세	2,921	1,293	115	1,514	48.2	8.2	44.2
25~29세	3,528	2,489	176	864	75.5	6.6	70.5
30~34세	3,268	2,509	97	663	79.7	3.7	76.8
35~49세	12,276	9,513	203	2,560	79.1	2.1	77.5
50~64세	12,199	8,663	210	3,326	72.7	2.4	71.0
65세 이상	7,753	2,690	40	5,022	35.2	1.5	34.7
전체	44,546	27,358	858	16,330	63.3	3.0	61.4
남자							
15~19세	1,328	84	10	1,234	7.1	10.6	6.3
20~24세	1,324	548	49	726	45.1	8.3	41.4
25~29세	1,877	1,322	106	449	76.1	7.4	70.4
30~34세	1,715	1,486	62	166	90.3	4.0	86.7
35~49세	6,263	5,707	115	441	93.0	2.0	91.1
50~64세	6,071	4,954	148	969	84.0	2.9	81.6
65세 이상	3,333	1,464	24	1,845	44.6	1.6	43.9
전체	21,910	15,565	514	5,831	73.4	3.2	71.0
여자							
15~19세	1,273	118	6	1,148	9.8	5.2	9.3
20~24세	1,598	745	66	787	50.7	8.1	46.6
25~29세	1,651	1,166	70	415	74.9	5.6	70.7
30~34세	1,553	1,022	34	497	68.0	3.3	65.8
35~49세	6,013	3,806	88	2,118	64.8	2.3	63.3
50~64세	6,128	3,709	62	2,357	61.5	1.6	60.5
65세 이상	4,420	1,227	17	3,177	28.1	1.3	27.8
전체	22,636	11,794	343	10,499	53.6	2.8	52.1

자료: 통계청. (2019a).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I_POR_P9012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그림 2-2-1] 연령별 고용률(2019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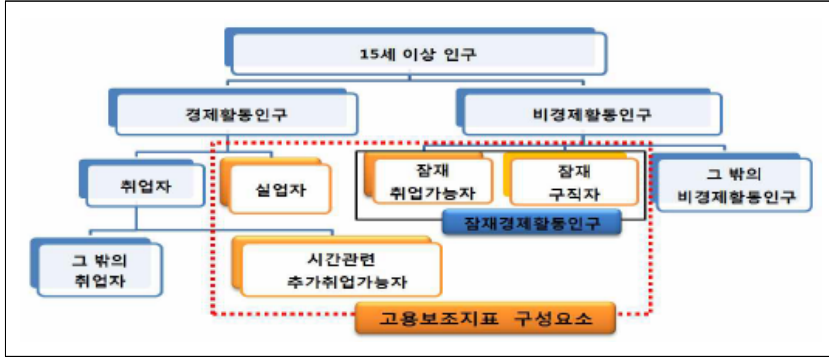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2019a).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I_POR_P9012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국제노동기구는 고용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2013년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 구성을 포함하는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를 확정했다(통계청, 2020, p.6). 이는 노동시장 환경 변화와 더불어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나 잠재경제활동인구와 같이 명확하게 취업과 실업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제활동 모습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청년의 경제활동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용보조 지표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2-2-2] 고용보조지표 구성요소



자료: 통계청. (2020b).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 p.6.

<표 2-2-2>를 보면 15~24세는 70.6%가 비경제활동 상태로 학업 중인 청년의 비중이 높은 반면, 25~29세, 30~34세는 각각 약 25%, 20%가 비경제활동인구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 중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자(잠재취업가능자), 취업을 원하는 자(잠재구직자)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다. 특히 청년 잠재구직자(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의 비율이 15~24세 5.3%, 25~29세 10.1%, 34~34세 3.7%로 전체 평균보다 매우 높고, 특히 20대에서 그 비율이 매우 높다.

경제활동인구에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를 포함한 확장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와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표 2-2-2>를 보면 15~24세 22.6%, 25~29세 17.9%로 청년층에서 일하는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비취업인구의 비율이 눈에 띄게 높다. 이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말해주지 못하는 취업에 대한 욕구가 어느 연령층보다 높음을 나타내며, 비경제활동인구 숫자에 숨겨진 청년 노동정책의 요구를 읽어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2-2-2〉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고용보조지표(2019년 8월)

(단위: %)

	취업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실업	비경 활	잠재 취업 가능 자	잠재 구직 자	전체	고용보조지표		
								1	2	3
15~24세	27.1	1.0	2.4	70.6	0.2	5.3	100.0	11.4	22.6	25.4
25~29세	70.5	1.4	5.0	24.5	0.4	10.1	100.0	8.5	17.9	19.5
30~34세	76.8	1.4	3.0	20.3	0.2	3.7	100.0	5.5	8.3	10.0
35~49세	77.5	1.7	1.7	20.9	0.1	2.4	100.0	4.3	5.1	7.2
50~64세	71.0	2.6	1.7	27.3	0.2	2.8	100.0	5.9	6.2	9.6
65세 이상	34.7	1.4	0.5	64.8	0.0	2.3	100.0	5.3	7.4	11.1
전체	61.4	1.8	1.9	36.7	0.2	3.5	100.0	5.8	8.4	11.0

자료: 통계청. (2019a).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I_POR_P9012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이행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이 높은 청년의 특성상 어떤 시기에 있느냐에 따라 노동 모습도, 지향하는 바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최종 학교 졸업 후 신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단계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단계에서의 선택과 요구가 다르고, 최종 교육수준에 따라 접하게 되는 노동시장의 현실도 다를 것으로 보고, 청년의 경제활동상태를 교육이행상태별로 구분해 더욱 심층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표 2-2-3〉을 보면 15~24세 고졸자의 비경제활동 비율(41.1%)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는데, 잠재구직자 비율(11.3%)도 높지만 졸업 후 경제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니트족이 될 확률도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15~24세 초대졸 이상인 경우에 비경제활동 비율은 고졸자보다 낮은 28.3%에 불과하지만 여기에는 고졸자보다 훨씬 높은 18.8%의 잠재구직자를 포함하고 있다. 최종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의 어려움이

44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개발 - 청년 불안정 노동자 연구

실업자와 잠재구직자는 물론이고 그 밖의 다른 비경제활동인구 규모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정책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5~29세의 경우, 특히 잠재구직자의 높은 비율, 초대졸 이상의 높은 실업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2-3〉 청년의 교육이행상태별·연령별 경제활동상태(2019년 8월)

(단위: %)

	취업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실업	비경활	잠재취 업가능 자	잠재 구직자	전체	고용보조지표		
								1	2	3
15~24세										
고졸	54.0	2.4	4.9	41.1	0.0	11.3	100.0	12.3	23.1	26.4
대학 재학/휴학	26.8	0.8	1.8	71.4	0.3	3.0	100.0	9.0	15.9	18.4
초대졸 이상	64.6	2.6	7.1	28.3	0.1	18.8	100.0	13.5	28.7	31.5
기타	5.3	0.1	0.6	94.1	0.1	1.2	100.0	12.0	26.8	28.3
전체	27.1	1.0	2.4	70.6	0.2	5.3	100.0	11.4	22.6	25.4
25~29세										
고졸	72.9	2.0	3.8	23.3	0.3	6.0	100.0	7.5	12.2	14.6
대학 재학/휴학	40.7	2.0	2.4	56.9	1.1	9.6	100.0	10.1	24.3	28.0
초대졸 이상	75.4	1.1	5.8	18.8	0.2	10.7	100.0	8.5	18.1	19.3
기타	67.6	1.9	4.1	28.3	0.6	12.7	100.0	8.4	20.5	22.8
전체	70.5	1.4	5.0	24.5	0.4	10.1	100.0	8.5	17.9	19.5
30~34세										
고졸	69.4	1.1	3.6	27.0	0.5	3.3	100.0	6.4	9.7	11.1
대학 재학/휴학	60.3	2.0	6.8	32.9	0.0	5.6	100.0	13.2	17.1	19.8
초대졸 이상	79.5	1.5	2.5	18.0	0.1	3.6	100.0	4.8	7.3	9.0
기타	74.8	1.7	4.1	21.1	0.4	4.7	100.0	7.3	11.0	13.0
전체	76.8	1.4	3.0	20.3	0.2	3.7	100.0	5.5	8.3	10.0

자료: 통계청. (2019a).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I_POR_P9012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교육이행상태가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15~24세 38.2%, 25~29세 10.9%로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15~24세의 경우 그 밖의 다른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높은 데서 전일제 학생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나, 25~29세의 경우 잠재구직자의 비율이 높아 학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규모가 작지 않음이 눈에 띈다.

2020년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2019년과 2020년 1/4~3/4분기의 전년도 동분기 대비 변화를 살펴보면, 1/4분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드러나지 않은 탓에 실업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분기부터 코로나19의 충격이 본격화하여 실업률은 0.3%포인트 증가하고 고용률은 1.3%포인트 감소했다. 30~34세 청년의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19의 충격이 전체보다 더 작았던 반면, 20대 청년에게는 그 충격이 고스란히 나타나 15~24세, 25~29세 청년의 2/4분기 고용률이 2019년 2/4분기에 비해 1.6%포인트, 2.9%포인트 감소했고, 3/4분기에는 0.8%포인트, 3.8%포인트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응이 고용 유지에 집중되면서 취업에 나서야 하는 청년에게는 더욱 혹독한 노동시장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6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개발 - 청년 불안정 노동자 연구

〈표 2-2-4〉 2019~2020년 분기별 청년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p)

구분	2019 년 1/4	2019 년 2/4	2019 년 3/4	2020 년 1/4	2020 년 2/4	2020 년 3/4	△1/4	△2/4	△3/4
경제활동 참가율(%)									
15~24세	29.7	30.0	29.6	28.6	28.1	28.8	-1.1	-1.9	-0.8
25~29세	76.2	77.4	76.4	74.4	73.7	72.9	-1.8	-3.7	-3.5
30~34세	78.6	80.1	79.9	79.6	79.7	78.6	1.0	-0.4	-1.3
전체	62.4	63.9	63.6	62.5	62.7	62.6	0.1	-1.2	-1.0
실업률(%)									
15~24세	11.7	12.2	9.3	11.0	11.9	9.8	-0.7	-0.3	0.5
25~29세	8.5	9.6	7.4	7.6	9.0	8.1	-0.9	-0.6	0.7
30~34세	4.4	4.7	3.9	3.6	4.6	3.8	-0.8	-0.1	-0.1
전체	4.5	4.1	3.3	4.2	4.4	3.6	-0.3	0.3	0.3
고용률(%)									
15~24세	26.2	26.4	26.8	25.5	24.8	26.0	-0.7	-1.6	-0.8
25~29세	69.7	70.0	70.8	68.8	67.1	67.0	-0.9	-2.9	-3.8
30~34세	75.1	76.3	76.7	76.7	76.0	75.6	1.6	-0.3	-1.1
전체	59.6	61.3	61.5	59.9	60.0	60.4	0.3	-1.3	-1.1

자료: 통계청. (2020c).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3에서 2020. 11. 9.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2. 청년 불안정 노동

가. 시간제 노동

청년 시간제 노동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 연령별 임금노동자 대비 시간제 비율과 시간제 노동자 전체에서 각 연령층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규정된 정의에 따르면 시간제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고용노동부, 2019, p.11)”다. 그리고 시간제 노동 중에도 초단시간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소정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을 알아본다.¹⁾

연령별 시간제 비율을 보면 15~19세 65.5%, 20~24세 33%로 매우 높고, 청년층에서는 30~34세의 시간제 비율이 가장 낮다. 전체 시간제 노동자 중 청년이 28.8%를 차지한다. 모든 연령대에서는 여성의 시간제 비율이 높는데, 20대 남자와 3~4%포인트 차이를 보였으나 이 격차는 30~34세 10.5%포인트로 증가한 후 35세 이상에서 그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남녀의 시간제 노동 비율이 20대 청년까지는 유사하게 높으면서 감소하다가 30대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하지만 시간제 노동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여 남자 시간제 노동 비율과 격차가 더 벌어진다([그림 2-2-3] 참조). 그 결과 여성 시간제 일자리가 전체의 73.2%에 달한다.

1) 3장의 서베이 조사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제 근로 여부를 식별하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고 초단시간 근로를 정의해도 현재의 비율 및 추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48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개발 - 청년 불안정 노동자 연구

〈표 2-2-5〉 연령별 시간제, 초단시간 임금노동자 비율(2019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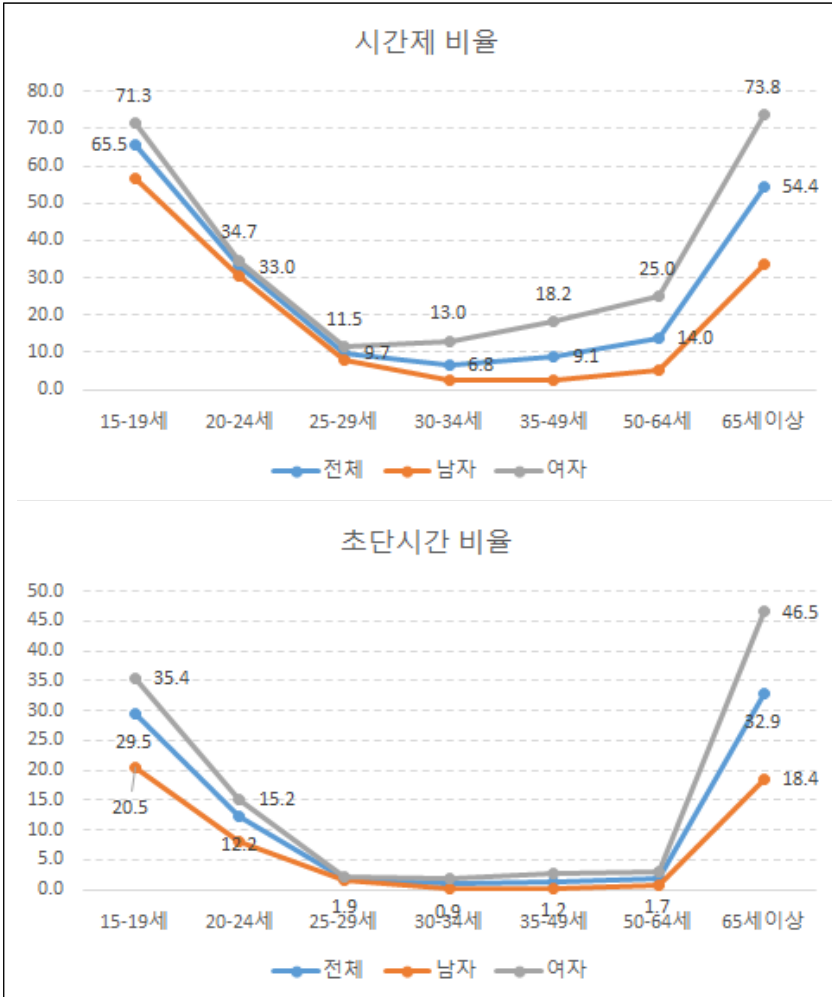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체	노동자 수			임금노동자 대비 비율		비중	
	임금노동자	시간제	초단시간	시간제	초단시간	시간제	초단시간
전체							
15~19세	194	127	57	65.5	29.5	4.0	6.1
20~24세	1,235	408	151	33.0	12.2	12.9	16.2
25~29세	2,320	225	43	9.7	1.9	7.1	4.7
30~34세	2,208	150	20	6.8	0.9	4.8	2.1
35~49세	7,461	676	93	9.1	1.2	21.4	10.0
50~64세	5,723	799	99	14.0	1.7	25.3	10.7
65세 이상	1,418	771	467	54.4	32.9	24.4	50.2
전체	20,559	3,156	930	15.4	4.5	100.0	100.0
남자							
15~19세	78	44	16	56.9	20.5	1.4	1.7
20~24세	511	157	41	30.7	8.0	5.0	4.4
25~29세	1,230	99	21	8.1	1.7	3.2	2.3
30~34세	1,297	32	3	2.5	0.2	1.0	0.3
35~49세	4,413	121	12	2.7	0.3	3.8	1.3
50~64세	3,181	162	22	5.1	0.7	5.1	2.3
65세 이상	686	231	126	33.7	18.4	7.3	13.6
전체	11,396	846	241	7.4	2.1	26.8	25.9
여자							
15~19세	116	83	41	71.3	35.4	2.6	4.4
20~24세	724	251	110	34.7	15.2	8.0	11.9
25~29세	1,090	126	22	11.5	2.0	4.0	2.4
30~34세	911	118	17	13.0	1.9	3.8	1.8
35~49세	3,047	555	80	18.2	2.6	17.6	8.6
50~64세	2,542	637	77	25.0	3.0	20.2	8.3
65세 이상	732	540	341	73.8	46.5	17.1	36.6
전체	9,163	2,310	689	25.2	7.5	73.2	74.1

자료: 통계청. (2019a).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I_POR_P9012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그림 2-2-3] 연령별 시간제, 초단시간 임금노동자 비율(2019년 8월)

(단위: %)



자료: 통계청. (2019a).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I_POR_P9012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초단시간 노동의 경우, 전체 임금노동자의 4.5%, 시간제 노동의 29.5%가 초단시간 노동자다. 전체 초단시간 노동자의 절반은 65세 이상이고, 29.1%는 청년, 그중에서도 20~24세 청년이 16.2%를 차지한다. 25~64세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미미하다. 성별은 초단시간 노동자 전체의 74.1%가 여성으로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전 연령층 여성의 비율이 높다. 시간제 및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을 교육이행상태별로 살펴보면 <표 2-2-6>과 같다. 청년 재학/휴학 중 시간제 비율이 매우 높아 15~24세 70%, 25~34세 23~30%에 이른다. 청년 초대졸자에 비해 청년 고졸자의 시간제 비율이 2.5~5%포인트가량 더 높은 편이다.

<표 2-2-6> 연령별·교육이행상태별 시간제 비율(2019년 8월)

(단위: %)

	고졸	대학 재학/휴학	초대졸 이상	기타	전체
시간제 비율					
15~24세	18.2	70.4	13.0	29.3	37.4
25~29세	12.0	29.5	7.1	13.2	9.7
30~34세	8.5	22.5	6.0	6.4	6.8
35~49세	11.6	14.7	7.3	13.8	9.1
50~64세	14.4	25.9	8.9	21.0	14.0
65세 이상	41.4		35.3	62.3	54.4
전체	14.6	55.6	8.0	31.6	15.4
초단시간 비율					
15~24세	3.0	31.2	4.3	8.9	14.6
25~29세	1.7	8.4	1.3	1.8	1.9
30~34세	0.0	6.9	0.9	0.7	0.9
35~49세	1.4	5.4	1.1	1.4	1.2
50~64세	1.7	3.3	1.6	2.0	1.7
65세 이상	17.7		13.3	41.8	32.9
전체	2.4	23.4	1.5	14.3	4.5

자료: 통계청. (2019a).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I_POR_P9012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은 264.3만 원, 시간제 노동자는 92.7만 원, 초단시간 노동자는 45.1만 원으로 각각 임금노동자 평균 대비 35.1%, 17.1% 수준이다. 모든 고용형태에서 남자의 임금수준이 높고, 시간제 일자리와 초단시간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청년 시간제 월평균 임금은 70~128만 원, 평균의 25~48% 수준에 불과하고, 초단시간은 42~73만 원, 16~27.6%로 매우 낮다. 낮은 월평균 임금수준은 짧은 노동시간으로 인한 결과이지만, 시간제 노동으로 받는 월평균 임금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워 보인다.

〈표 2-2-7〉 연령별 시간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수준(2019년 8월)

(단위: 만 원, %)

	임금근로	시간제	초단시간	임금근로	시간제	초단시간
전체						
15~19세	104.3	70.5	41.9	39.5	26.7	15.9
20~24세	155.7	65.6	43.8	58.9	24.8	16.6
25~29세	221.7	102.9	56.6	83.9	38.9	21.4
30~34세	272.8	128.0	72.9	103.2	48.4	27.6
35~49세	311.3	124.4	82.4	117.8	47.1	31.2
50~64세	282.6	111.5	66.4	106.9	42.2	25.1
65세 이상	115.3	53.6	31.8	43.6	20.3	12.0
전체	264.3	92.7	45.1	100.0	35.1	17.1
남자						
15~19세	119.5	72.8	37.1	45.2	27.5	14.1
20~24세	162.5	69.5	39.9	61.5	26.3	15.1
25~29세	229.9	95.4	61.2	87.0	36.1	23.2
30~34세	293.5	171.1	83.2	111.1	64.7	31.5
35~49세	362.8	146.1	72.5	137.3	55.3	27.4
50~64세	351.4	142.6	116.4	133.0	54.0	44.1
65세 이상	160.2	65.4	39.7	60.6	24.7	15.0
전체	314.6	100.4	50.5	119.0	38.0	19.1

	임금근로	시간제	초단시간	임금근로	시간제	초단시간
여자						
15~19세	94.2	69.3	43.8	35.7	26.2	16.6
20~24세	150.9	63.2	45.2	57.1	23.9	17.1
25~29세	212.5	108.9	52.2	80.4	41.2	19.8
30~34세	243.4	116.3	71.2	92.1	44.0	26.9
35~49세	236.6	119.7	83.9	89.5	45.3	31.7
50~64세	196.6	103.5	52.4	74.4	39.2	19.8
65세 이상	73.3	48.6	28.9	27.7	18.4	10.9
전체	201.7	89.9	43.2	76.3	34.0	16.4

자료: 통계청. (2019a).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L_POR_P9012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을 주당 소정노동시간 월 단위로 환산한 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임금노동자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 7,400원, 시간제 평균 임금은 1만 1,100원, 초단시간 평균 임금은 1만 2천 원으로 각각 63.6%, 68.6%에 해당한다. 시간당 임금에 노동시간을 곱한 월평균 임금 격차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전일제 임금과 격차가 크다. 이는 시간제와 초단시간 일자리가 질이 열악한 노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시간제 일자리 시급은 35~49세가 평균 1만 3,600원으로 가장 높고 10~20대 청년과 65세 이상의 시급은 8,800~1만 1,000원으로 낮다. 그리고 20대까지는 여자가 높다가 30대부터는 남자의 시간당 임금이 더 높아진다. 초단시간 노동 시급은 시간제 노동 시급보다 더 높고, 5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시간당 임금이 더 높다. 즉, 30~64세 초단시간 일자리는 임금노동자 평균 시간당 임금의 108.7~128.1%로 더 높은 수준인데, 30~40대는 여성이 초단시간제 노동을 주도하고, 50대는 남성이 이러한 노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30~40대 고학력 여성의 자발적인 시간제, 초단시간제 노동 선택에

일정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15~24세 청년과 65세 이상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며 35~64세와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진다. 따라서 30~34세 여성의 초단시간 일자리를 제외하면, 시간제와 초단시간 노동은 청년에게 질 낮은 주변부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표 2-2-8〉 연령별 시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수준(2019년 8월)

(단위: 천 원, %)

	임금근로	시간제	초단시간	임금근로	시간제	초단시간
전체						
15~19세	10.1	9.9	9.5	57.8	56.8	54.3
20~24세	11.7	8.8	10.3	67.1	50.8	59.3
25~29세	13.3	11.0	13.5	76.6	63.4	77.8
30~34세	16.1	13.4	18.9	92.5	77.1	108.7
35~49세	19.0	13.6	22.3	108.9	78.1	128.1
50~64세	19.0	12.1	19.5	109.0	69.4	112.2
65세 이상	12.6	8.8	8.7	72.4	50.3	49.8
전체	17.4	11.1	12.0	100.0	63.6	68.6
남자						
15~19세	10.3	9.3	8.5	58.9	53.4	48.7
20~24세	12.0	8.2	8.4	68.9	46.9	48.2
25~29세	13.8	10.8	13.5	79.1	61.7	77.7
30~34세	16.7	15.2	14.7	95.8	87.5	84.4
35~49세	21.0	14.0	18.6	120.5	80.3	106.8
50~64세	22.2	17.1	40.0	127.5	97.9	229.5
65세 이상	13.3	10.3	10.6	76.2	59.3	60.9
전체	19.5	11.9	13.5	112.0	68.5	77.3
여자						
15~19세	9.9	10.2	9.8	56.6	58.6	56.5
20~24세	11.5	9.3	11.0	66.1	53.2	63.4
25~29세	12.9	11.3	13.6	74.0	64.6	77.8
30~34세	15.2	12.9	19.6	87.5	74.3	112.8
35~49세	15.6	13.5	22.9	89.4	77.7	131.4
50~64세	13.7	10.8	13.8	78.9	62.1	79.3
65세 이상	10.9	8.1	8.0	62.5	46.5	45.7
전체	14.3	10.8	11.4	82.1	61.9	65.6

자료: 통계청. (2019a).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I_POR_P9012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사회보험 가입률, 즉 임금노동자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률, 국민연금 직장 가입률을 보면, 전일제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연령대에 따라 큰 차이가 없고, 30~34세 가입률이 가장 높다. 시간제인 경우 전일제보다 전반적으로 매우 낮고 15~24세, 25~29세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이 때문에 청년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난다.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시간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10>에 보듯이 대학 재학/휴학, 기타 학력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므로 학력에 따른 일자리 질의 차이가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시간제 전체의 낮은 가입률이 공통된 문제이므로 청년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늘어나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가입 자격 완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2-2-9> 연령별 사회보험 가입률(2019년 8월)

(단위: %)

	고용보험				국민연금			
	전일제	시간제	초단시간 제외 시간제	임금노동	전일제	시간제	초단시간 제외 시간제	임금노동
15~24세	75.2	11.6	17.2	51.4	79.2	8.9	13.3	52.9
25~29세	79.9	25.0	30.9	74.5	88.8	21.3	25.7	82.3
30~34세	81.6	39.4	45.4	78.7	90.8	40.2	46.3	87.3
35~49세	76.5	39.1	44.8	73.1	88.3	39.2	44.7	83.9
50~64세	67.3	39.9	45.4	63.5	79.7	37.2	41.8	74.7
전체	74.8	31.9	39.0	69.4	86.0	29.1	35.9	79.3

주: 국민연금 마지막 연령대는 50~59세.
 자료: 통계청. (2019a).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I_POR_P9012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표 2-2-10) 청년의 교육이행상태별 사회보험 가입률(2019년 8월)

(단위: %)

	전일제			시간제			임금노동		
	15-24세	25-29세	30-34세	15-24세	25-29세	30-34세	15-24세	25-29세	30-34세
고용보험									
고졸	76.8	72.3	78.5	17.9	39.4	48.6	66.1	68.3	75.9
대학 재학/휴학	58.9	64.2	73.8	8.6	8.8	6.8	23.5	47.9	58.7
초대졸 이상	82.4	82.9	82.8	27.8	27.7	40.8	75.3	79.0	80.3
기타	67.6	75.0	77.7	5.9	15.7	37.0	49.5	67.1	75.1
전체	75.2	79.9	81.6	11.6	25.0	39.4	51.4	74.5	78.7
국민연금									
고졸	78.0	75.6	82.1	15.3	38.5	43.4	66.5	71.1	78.8
대학 재학/휴학	57.8	74.2	80.5	6.1	7.4	6.8	21.4	54.5	63.9
초대졸 이상	91.0	93.4	94.2	21.2	23.4	45.2	81.9	88.4	91.2
기타	73.1	79.7	78.9	7.4	6.7	23.6	53.8	70.0	75.3
전체	79.2	88.8	90.8	8.9	21.3	40.2	52.9	82.3	87.3

자료: 통계청. (2019a).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I_POR_P9012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시간제 노동의 자발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간제 노동자 중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²⁾, 15~24세 12%, 25~29세 약 24%, 30~34세 약 2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자발적인 시간제 노동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교육이행상태별로는 큰 차이를 보인다. 고졸 청년의 경우 1/3이 전일제를 구할 수 없어서 시간제로 일한다고

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는 전일제/시간제 2가지 선택지가 있는 취업형태에 시간제 노동으로 응답하면 뒤이어 “시간제 근로로 정해진 이유가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입니까?”를 ‘예/아니오’로 응답하게 함.

응답했고, 25~34세 남자의 경우 이 비율은 과반에 이른다.

〈표 2-2-11〉 연령별·교육이행상태별 비자발적 시간제 비율(2019년 8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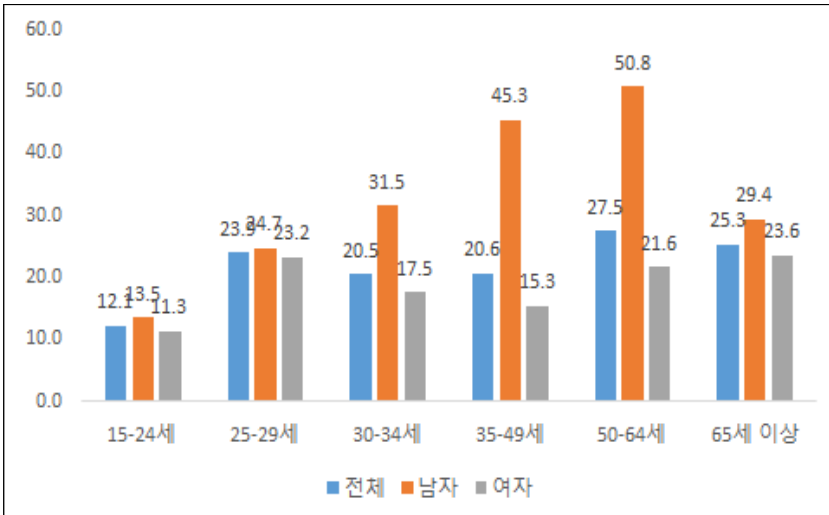
	고졸	대학 재학/휴학	초대졸 이상	기타	전체
전체					
15~24세	34.4	6.1	24.6	16.7	12.1
25~29세	31.1	8.3	23.5	38.8	23.9
30~34세	33.5	17.2	18.5	8.8	20.5
35~49세	24.1	11.2	16.2	33.1	20.6
50~64세	26.0	8.6	19.9	35.0	27.5
65세 이상	28.5		21.4	25.0	25.3
전체	26.9	6.7	19.1	28.1	22.3
남자					
15~24세	33.5	6.2	21.9	32.6	13.5
25~29세	51.4	5.0	21.4	38.7	24.7
30~34세	54.8	37.4	33.4	0.0	31.5
35~49세	52.3	25.9	33.5	65.5	45.3
50~64세	57.2	0.0	36.1	59.6	50.8
65세 이상	26.3		18.4	33.8	29.4
전체	42.6	6.9	28.9	41.7	31.5
여자					
15~24세	35.4	6.1	25.4	4.2	11.3
25~29세	10.0	16.6	24.6	38.9	23.2
30~34세	27.1	7.0	15.8	18.7	17.5
35~49세	18.0	6.0	13.1	17.5	15.3
50~64세	20.9	13.1	12.7	28.0	21.6
65세 이상	30.9		25.1	22.4	23.6
전체	21.5	6.6	16.1	23.7	18.9

자료: 통계청. (2019a).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I_POR_P9012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초대졸 이상인 경우에도 고졸 청년보다는 낮지만 전체 초대졸 청년의 1/5~1/4이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노동을 하며 이 비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 하지만 대학 재학/휴학 중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시간제의 비율이 매우 낮다. 성별 차이를 보면, 20대까지는 비자발적 시간제 선택의 비율이 비슷하다가 30대부터 비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하는 여자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남자 비율이 크게 증가한다. M 자형을 그리는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의 특성이 노동시간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나며, 남자의 경우 시간제 노동의 상당수가 비자발적인, 원치 않는 일자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2-2-4] 성별·연령별 비자발적 시간제 비율(2019년 8월)

(단위: %)



자료: 통계청. (2019a).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I_POR_P9012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표 2-2-12〉는 15~34세 청년의 시간제 취업 사유와 청년 연령 집단별 자발적·비자발적 시간제 취업 사유의 비중을 보여준다. 전체 청년의 취업 사유를 보면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만족하여’,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가 전체의 71.2%를 차지한다. 자발적 시간제 취업의 사유로는 15~24세는 ‘학업·취업준비를 병행하기 위하여’가 절반 가까이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근로조건 만족인 반면, 25~34세의 경우는 근로조건 만족이 32.1~34.5%로 가장 많고, 25~29세는 그다음이 ‘학업·취업준비를 병행하기 위하여’, 30~34세는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순이다. 즉, 자발적 시간제의 경우 청년의 특성상 ‘학업·취업준비를 병행하기 위해서’와 ‘근로조건이 좋아서’라는 사유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30~34세 여자의 경우만 ‘육아·가사를 병행하기 위하여’가 37.6%(남자는 0%)로 시간제 선택의 가장 큰 이유가 된다. 비자발적 시간제 취업 사유는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와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라는 사유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30~34세 남자는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가 그다음 순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청년의 교육이행상태별로 시간제 취업 사유가 상이한지 살펴보면, 고졸 시간제 취업자의 경우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다. 반면 대학 재학/휴학의 경우 근로조건 만족과 취업준비 병행이 70~80%에 이를 정도로 높고, 초대졸 이상인 경우 15~24세는 ‘학업·취업준비를 병행하기 위하여’, 25~29세는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30~34세는 ‘육아·가사를 병행하기 위하여’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여준다. 대학 재학/휴학 중인 경우는 미래 일자리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 또는 만족할 만한 수입과 근로조건을 주는 일자리로 시간제를 선택하고, 고졸자는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시간제로 일

하는 셈이다. 초대졸자의 경우는 연령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15~24세는 대학 재학/휴학자와 25~29세는 고졸자와 취업 사유가 비슷하다. 다만, 30~34세의 경우 시간제 노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이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난다.

(표 2-2-12) 시간제 취업 사유(2019년 8월)

(단위: %)

	청년(15~34세) 시간제 전체	자발	비자발	자발	비자발	자발	비자발
		전체		남자		여자	
15~24세							
근로조건 만족	25.0	28.0	0.0	29.2	0.0	27.2	0.0
안정적 일자리	1.6	0.9	0.0	1.0	0.0	0.9	0.0
당장 수입 필요	20.1	17.7	37.8	21.5	35.3	15.4	39.7
원하는 일 없어서	8.7	2.0	38.6	0.0	42.3	1.5	35.9
전공·경력 안 맞아서	1.4	0.1	3.6	3.0	1.6	0.2	5.0
직장 이동 위해	5.9	3.5	11.2	3.4	20.8	3.6	4.3
육아·가사 병행	5.4	0.5	0.0	1.0	0.0	0.3	0.0
학업·취업준비 병행	26.1	40.3	8.1	32.3	0.0	45.0	13.9
노력한 만큼 수입	0.8	1.2	0.7	1.7	0.0	0.8	1.2
근무시간 신축 조절	4.1	4.6	0.0	4.5	0.0	4.7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29세							
근로조건 만족		32.1	0.0	32.7	0.0	31.6	0.0
안정적 일자리		2.7	0.0	0.0	0.0	4.7	0.0
당장 수입 필요		18.2	35.7	23.5	48.9	14.0	24.7
원하는 일 없어서		6.2	36.7	8.2	32.7	4.6	40.1
전공·경력 안 맞아서		0.0	9.8	0.0	5.0	0.0	13.9

6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개발 - 청년 불안정 노동자 연구

	청년(15~34세) 시간제 전체	자발	비자발	자발	비자발	자발	비자발
		전체		남자		여자	
직장 이동 위해		7.0	6.7	5.3	0.0	8.4	12.4
육아·가사 병행		4.6	3.6	0.0	0.0	8.2	6.6
학업·취업준비 병행		19.9	7.4	22.9	13.5	17.5	2.2
노력한 만큼 수입		0.0	0.0	0.0	0.0	0.0	0.0
근무시간 신축 조절		8.0	0.0	4.4	0.0	10.9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0~34세							
근로조건 만족		34.5	0.0	34.3	0.0	34.5	0.0
안정적 일자리		4.7	0.0	12.3	0.0	3.0	0.0
당장 수입 필요		14.7	25.3	24.2	24.6	12.6	25.6
원하는 일 없어서		2.6	36.0	6.0	30.7	1.8	38.6
전공·경력 안 맞아서		2.1	7.1	6.9	5.4	1.0	8.0
직장 이동 위해		6.6	21.0	9.4	25.3	6.0	18.9
육아·가사 병행		30.7	1.5	0.0	0.0	37.6	2.2
학업·취업준비 병행		2.1	7.6	6.9	14.0	1.0	4.5
노력한 만큼 수입		0.9	0.0	0.0	0.0	1.1	0.0
근무시간 신축 조절		0.8	1.5	0.0	0.0	1.0	2.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2019a).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I_POR_P9012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표 2-2-13〉 청년의 교육이행상태별 시간제 취업 사유(2019년 8월)

(단위: %)

	고졸	대학 재학/휴학	초대졸 이상	기타	전체
15~24세					
근로조건 만족	15.3	26.2	27.6	17.9	24.6
안정적 일자리	0.0	1.1	0.0	0.0	0.8
당장 수입 필요	22.5	20.0	15.3	25.0	20.1
원하는 일 없어서	16.5	3.1	17.3	8.4	6.5
전공·경력 안 맞아서	1.4	0.4	0.0	1.7	0.5
직장 이동 위해	12.1	2.4	5.4	12.5	4.5
육아·가사 병행	3.7	0.0	0.0	0.0	0.5
학업·취업준비 병행	18.7	41.4	28.6	25.2	36.4
노력한 만큼 수입	2.0	1.2	0.0	0.0	1.1
근무시간 신축 조절	7.1	3.6	3.6	3.7	4.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25~29세					
근로조건 만족	24.1	39.7	21.3	14.4	24.5
안정적 일자리	0.0	0.0	3.9	0.0	2.0
당장 수입 필요	27.8	9.6	25.6	19.9	22.4
원하는 일 없어서	10.4	3.6	14.6	29.6	13.5
전공·경력 안 맞아서	0.0	1.6	3.9	0.0	2.3
직장 이동 위해	1.7	8.3	7.9	9.0	7.0
육아·가사 병행	6.3	0.0	3.2	14.0	4.4
학업·취업준비 병행	14.5	31.2	13.4	13.1	16.9
노력한 만큼 수입	0.0	0.0	0.0	0.0	0.0
근무시간 신축 조절	9.8	5.9	6.2	0.0	6.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30~34세					
근로조건 만족	23.3	49.8	26.2	25.8	27.4
안정적 일자리	0.0	7.6	3.0	15.0	3.7
당장 수입 필요	28.5	0.0	16.4	8.8	16.9
원하는 일 없어서	15.0	0.0	7.4	21.2	9.4
전공·경력 안 맞아서	7.1	8.6	1.7	0.0	3.1
직장 이동 위해	8.5	4.6	11.0	5.2	9.6
육아·가사 병행	17.6	8.4	28.8	23.9	24.7
학업·취업준비 병행	0.0	21.1	2.5	0.0	3.2
노력한 만큼 수입	0.0	0.0	1.1	0.0	0.7
근무시간 신축 조절	0.0	0.0	1.4	0.0	0.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2019a).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I_POR_P9012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표 2-2-14〉의 연령별·산업별 시간제 노동의 비율을 보면 숙박·음식업 38.9%, 교육·서비스업 24.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8.6%의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로 그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중 15~24세 청년의 시간제 일자리 비율이 높은 산업은 숙박·음식업 71.2%, 교육·서비스업 52.7%, 도소매업 42.1%로 그 비율이 매우 높고, 25~34세 청년의 경우에도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이 20%가 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청년의 시간제 일자리 비율은 낮은 편이고 주로 65세 이상, 50~64세의 중고령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일반적인 특징은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숙박·음식업은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비율이 남자보다 큰 편이고, 교육·서비스업은 20대까지는 남자의 시간제 비율이 높지만 30대부터는 여자의 시간제 비율이 높아지는 변화를 보인다.³⁾ 각 연령층에서 산업별 시간제 일자리 비중(〈표 2-2-16〉)을 봐도 청년층에서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간제 노동을 하는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동을 하는지 가늠해보는 출발점이 된다. 〈표 2-2-17〉은 청년의 시간제 일자리 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을 보여준다. 숙박·음식업 청년 시간제 일자리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직종은 서비스업으로,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단순노무직 비중이 더 높다. 교육·서비스업에서는 대다수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학교 및 유치원 교사, 기타 교육 전문가로 추측된다. 도소매업에서는 대부분 시간제 판매 종사자로 일한다.

3) 〈표 2-2-15〉의 연령별·산업별 초단시간제 비율을 봐도 15~24세 청년의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일자리에서 초단시간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27.7%, 28.4%, 13%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14〉 연령별·산업별 시간제 비율(2019년 8월)

(단위: %)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	기타 내 고용	전체
전체											
15~24세	0.0	8.3	10.7	42.1	71.2	25.6	4.1	52.7	8.1	100.0	37.4
25~29세	0.0	2.1	0.8	8.5	26.3	9.1	3.2	29.1	6.0		9.7
30~34세	11.1	2.2	3.3	3.5	21.0	8.5	1.9	21.7	8.8	100.0	6.8
35~49세	3.9	3.8	6.6	9.8	30.2	8.4	4.1	21.6	14.0	39.5	9.1
50~64세	14.1	4.9	9.0	16.4	27.5	13.0	15.1	15.3	31.4	59.5	14.0
65세 이상	32.7	21.8	23.2	47.7	41.0	22.9	89.6	54.3	90.8	64.1	54.4
전체	14.1	4.4	7.9	14.6	38.9	13.3	23.1	24.5	28.6	61.6	15.4
남자											
15~24세	0.0	7.1	12.3	46.8	59.8	27.4	0.0	69.4	41.7	100.0	34.1
25~29세	0.0	0.8	1.0	5.8	19.9	9.0	5.4	30.5	13.2		8.1
30~34세	0.0	0.7	2.2	0.6	5.5	4.5	0.0	7.8	8.7		2.5
35~49세	4.7	0.4	5.3	3.4	9.0	2.2	1.8	9.9	1.2		2.7
50~64세	7.7	2.5	8.1	3.5	12.7	3.3	5.8	9.1	11.1	100.0	5.1
65세 이상	29.3	12.8	22.1	45.7	16.8	5.9	80.3	34.4	88.8	84.5	33.7
전체	7.7	1.6	7.1	7.6	27.0	5.1	12.5	16.5	27.0	92.6	7.4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사원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	기타 내 고용	전체
여자											
15~24세	0.0	11.1	4.1	39.1	79.7	23.6	8.4	48.7	4.6		39.8
25~29세	0.0	5.4	0.0	11.4	33.4	9.3	0.0	28.3	3.8		11.5
30~34세	23.6	6.7	10.4	8.2	39.8	14.4	4.6	28.6	8.8	100.0	13.0
35~49세	0.0	14.3	15.3	17.8	42.4	15.9	7.7	26.0	16.1	39.5	18.2
50~64세	21.5	9.2	18.6	26.8	30.3	22.3	38.1	19.9	34.0	58.8	25.0
65세 이상	33.9	38.9	77.9	49.6	45.8	49.4	94.9	88.6	91.5	62.5	73.8
전체	21.3	11.5	14.7	21.9	45.4	23.1	38.1	28.5	28.9	59.8	25.2

자료: 통계청. (2019a).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I_POR_P9012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표 2-2-15〉 연령별·산업별 초단시간제 비율(2019년 8월)

(단위: %)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	기타 내 고용	전체
전체											
15~24세	0.0	0.8	5.1	13.0	27.7	9.9	4.1	28.4	3.3	100.0	14.6
25~29세	0.0	0.5	0.0	2.4	5.5	1.4	1.9	5.9	0.0		1.9
30~34세	0.0	0.0	0.0	0.2	0.0	0.0	0.0	8.9	0.5	0.0	0.9
35~49세	1.8	0.3	0.6	0.7	3.7	1.4	0.7	6.5	0.7	0.0	1.2
50~64세	2.0	0.2	0.8	2.1	2.9	0.7	5.2	4.6	1.9	18.3	1.7
65세 이상	2.5	5.2	4.5	10.8	9.1	5.2	68.7	22.5	71.5	10.9	32.9
전체	1.6	0.4	0.9	2.7	9.7	2.1	14.9	8.3	12.2	16.3	4.5
남자											
15~24세	0.0	0.0	5.3	10.2	17.4	12.7	0.0	26.7	1.3	100.0	9.6
25~29세	0.0	0.0	0.0	2.2	6.7	2.2	3.2	4.0	0.0		1.7
30~34세	0.0	0.0	0.0	0.0	0.0	0.0	0.0	2.9	0.0		0.2
35~49세	2.1	0.1	0.6	0.1	0.7	0.7	0.2	1.1	0.0		0.3
50~64세	1.4	0.1	0.8	0.4	2.6	0.0	1.7	2.5	2.5	100.0	0.7
65세 이상	0.0	3.1	4.3	6.3	0.0	2.2	52.6	11.6	72.8	0.0	18.4
전체	1.2	0.1	0.9	1.3	7.2	1.4	7.1	3.9	16.7	52.3	2.1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	기타 내 고용	전체
여자											
15~24세	0.0	2.6	4.1	14.8	35.3	6.8	8.4	28.9	3.5		18.0
25~29세	0.0	1.9	0.0	2.5	4.2	0.0	0.0	6.9	0.0		2.0
30~34세	0.0	0.0	0.0	0.6	0.0	0.0	0.0	11.9	0.6	0.0	1.9
35~49세	0.0	0.9	0.0	1.4	5.4	2.2	1.4	8.5	0.9	0.0	2.6
50~64세	2.6	0.4	0.0	3.5	3.0	1.4	14.0	6.1	1.8	16.8	3.0
65세 이상	3.3	9.1	14.9	15.0	10.9	9.8	77.9	41.4	71.1	11.7	46.5
전체	2.0	1.1	0.4	4.1	11.1	2.9	26.0	10.5	11.2	14.2	7.5

자료: 통계청. (2019a).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I_POR_P9012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표 2-2-16〉 연령별·산업별 시간제 비중(2019년 8월)

(단위: %)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	기타 내 고용	전체
전체											
15~24세	0.0	2.6	1.0	17.0	49.2	2.6	0.2	10.9	2.1	0.3	100.0
25~29세	0.0	3.4	0.4	11.7	23.8	4.5	1.2	28.0	7.2	0.0	100.0
30~34세	0.8	7.4	2.3	6.6	17.1	5.5	1.3	23.3	11.9	0.3	100.0
35~49세	0.2	9.7	5.9	12.4	13.1	4.2	2.2	20.3	13.8	0.2	100.0
50~64세	0.7	6.7	7.7	10.6	14.2	6.9	5.7	7.1	21.7	3.4	100.0
65세 이상	1.3	3.0	2.2	4.2	2.5	6.4	23.8	3.7	40.2	2.6	100.0
전체	0.5	5.5	4.1	10.4	17.8	5.2	7.9	12.0	19.7	1.6	100.0
남자											
15~24세	0.0	4.2	2.4	19.1	46.8	3.8	0.0	7.5	2.7	0.8	100.0
25~29세	0.0	2.2	0.8	9.1	21.4	6.0	2.7	22.4	8.3	0.0	100.0
30~34세	0.0	7.7	6.4	3.0	11.5	8.0	0.0	12.8	14.2	0.0	100.0
35~49세	0.9	4.7	23.6	13.3	7.9	3.4	3.4	14.1	0.9	0.0	100.0
50~64세	1.0	11.1	31.4	5.1	5.2	4.2	7.6	8.9	4.4	0.5	100.0
65세 이상	1.0	3.9	6.9	6.6	0.6	3.4	26.0	5.0	31.7	0.8	100.0
전체	0.6	5.4	12.2	10.4	16.3	4.1	9.4	10.0	11.8	0.5	100.0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	기구 내 고용	전체
여자											
15~24세	0.0	1.6	0.1	15.7	50.6	1.8	0.3	13.0	1.7	1.1	100.0
25~29세	0.0	4.3	0.0	13.8	25.7	3.2	0.0	32.4	6.4	2.0	100.0
30~34세	1.0	7.3	1.2	7.6	18.6	4.8	1.6	26.1	11.3	0.4	100.0
35~49세	0.0	10.8	2.1	12.2	14.2	4.4	2.0	21.7	16.6	0.2	100.0
50~64세	0.6	5.6	1.7	12.1	16.5	7.5	5.2	6.6	26.1	4.1	100.0
65세 이상	1.4	2.6	0.2	3.2	3.3	7.7	22.8	3.2	43.8	3.3	100.0
전체	0.5	5.6	1.1	10.4	18.4	5.6	7.4	12.8	22.6	2.0	100.0

자료: 통계청. (2019a).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I_POR_P9012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표 2-2-17〉 청년의 시간제 일자리 주요 산업의 직종 비율(2019년 8월)

(단위: %)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		
	5 판매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5~24세	91.6	3.4	71.7	12.7	59.9	26.7	1.0	20.2	58.2	3.4
25~29세	57.8	21.7	59.0	28.7	85.1	10.6	2.5	16.9	25.2	54.0
30~34세	50.0	16.7	74.5	15.9	86.6	10.7	2.7	55.3	21.8	8.4
35~49세	50.6	22.7	58.9	33.1	85.5	0.7	4.2	37.2	45.2	7.6
50~64세	71.2	21.7	56.9	39.6	58.6	1.4	27.5	8.7	75.7	11.4
65세 이상	22.8	75.4	30.6	64.1	16.6	1.3	60.6	2.8	27.5	66.1
전체	65.0	22.1	64.2	24.7	72.4	7.4	11.0	11.8	43.9	39.0

자료: 통계청. (2019a).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I_POR_P9012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나. 플랫폼 노동

여기서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인적 속성과 일자리 특성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21차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최근 디지털 기술기반과 함께 급증하는 플랫폼 노동을 이해하기 위해 그 특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를 토대로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확대되고 있다. 21차 한국노동패널도 활용 가능한 자료 중 하나이다. 1998년부터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동정책을 수립, 평가하기 위한 실증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신뢰성 있고 플랫폼 노동 자료 가운데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플랫폼 노동은 상품처럼 거래되는 노동(박제성, 2016; 남재욱, 김봄이, 크리스티나히슬, 2020에서 재인용) 또는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과업 혹은 일거리(Eurofound, 2015; 남재욱, 김봄이, 크리스티나히슬, 2020에서 재인용)라고 정의된다. 플랫폼 노동의 일반적인 정의를 이용해 데이터에서 플랫폼 노동을 식별하기 위해 그 특성을 구체화해보면 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용역) 또는 가상재화 생산 노동, ②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short jobs, tasks, projects)를 구할 것, ③ 디지털 플랫폼이 보수(payment)를 중개할 것, ④ 일거리가 특정인이 아니라 다수에게 열려 있을 것(일자리위원회, 2020)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고객이나 일감을 얻기 위해 컴퓨터나 핸드폰, PDA 기기 이용” 조건을 충족하되, 플랫폼에서 재화를 거래하거나 자산임대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경우는 제외한다(장지연, 이호근, 조임영, 박은정, 김근주, Enzo Weber, 2020, p.10). 마지막으로 플랫폼이 보수를 중개하는 경우

로 ‘진성 임금노동자(스스로 임금노동자라고 응답한 자, 수입이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와 진성 자영자(스스로 자영자라고 응답한 자) 중에서 ①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② 보수나 서비스의 가격을 자신이 정하고 계약대상자로부터 일체의 업무지시와 출퇴근시간 규정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회색지대 취업자’(장지연 외, 미발간 자료)를 식별하고자 한다.

〈표 2-2-18〉은 플랫폼 노동자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를 보여준다. 전체 플랫폼 노동자가 181명에 불과하므로 15~34세 전체 청년을 하나의 집단으로 구분한다. 분석 결과, 남자가 61.3%로 플랫폼 노동자의 과반을 차지하며, 이 비율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그리고 15~34세 청년이 13.3%를 차지해 그 비율이 높지 않고, 35~64세인 노동연령층이 전체 플랫폼 노동자의 76.3%를 차지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자체적인 조사자료를 이용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일자리로 플랫폼 노동을 다소 넓게 정의한 김준영 외(2018)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자 비율이 66.7%로 한국노동패널의 분석 결과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15~29세 청년 비율은 11.2%로 낮게 나타난 편이다. 즉, 남자 비율이 과반을 차지한다는 점과 청년보다는 중장년층 비중이 높다는 공통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 배달원이나 트럭운전사처럼 지역기반의 플랫폼 노동자가 많기 때문이다(김준영 외, 2018).

72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개발 - 청년 불안정 노동자 연구

〈표 2-2-18〉 플랫폼 노동자 성별·연령별 분포(2018년)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취업자 수			연령별 비율			성별 비율		
15~34세	13	11	24	11.7	15.7	13.3	54.2	45.8	100.0
35~49세	40	28	68	36.0	40.0	37.6	58.8	41.2	100.0
50~64세	42	28	70	37.8	40.0	38.7	60.0	40.0	100.0
65세 이상	16	3	19	14.4	4.3	10.5	84.2	15.8	100.0
전체	111	70	181	100.0	100.0	100.0	61.3	38.7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제21차 한국노동패널. <https://www.kli.re.kr/klips/index.do>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플랫폼 노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함께 종속성에 있어서 자영자와 임금노동자의 중간지대에 있다. 가격이나 보수, 노동시간 결정 권한이 없지만 임금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31.6%에 불과해 자영자로 분류되는 비율이 높다. 즉 72% 정도는 특정 고용주와의 계약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할 수 있다.

〈표 2-2-19〉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노동 비율(2018년)

(단위: %)

구분	비플랫폼	플랫폼	전체
15~34세	92.8	42.1	91.9
35~49세	80.6	32.0	79.3
50~64세	66.9	31.9	65.9
65세 이상	51.7	6.4	50.6
전체	76.4	31.6	75.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제21차 한국노동패널. <https://www.kli.re.kr/klips/index.do>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근무환경을 살펴보면 지난 3개월 중 10~30일 근무한 비율이 35세 이상은 5.7%인 데 반해, 청년은 29.2%로 취업일 수가 많지 않다. 35세 이상은 60일 이상 근무한 경우가 78%로 대다수인 데 반해, 청년은 2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가 55% 정도로 절반이 넘는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청년 6.6시간, 35세 이상 8.5시간으로 청년의 노동시간이 짧은 편이다.

〈표 2-2-20〉 플랫폼 노동자 지난 3개월간 근무일 수 분포와 하루 평균 노동시간(2018년)

(단위: %)

구분	10~30일	30~60일	60일 이상	전체
청년	29.2	25.0	45.8	100.0
35세 이상	5.7	15.9	78.3	100.0
전체	8.8	17.1	74.0	100.0
하루 평균 노동시간				
청년	4.7	6.5	7.9	6.6
35세 이상	5.7	7.6	8.8	8.5
전체	5.3	7.4	8.8	8.2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제21차 한국노동패널. <https://www.kli.re.kr/klips/index.do>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월평균 소득은 150~300만 원, 300만 원 이상 구간이 72%로 과반을 차지한다. 35세 이상에 비해 청년의 50만 원 미만 구간 비율이 높은 편인데 반해, 300만 원 이상 비율은 낮아서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노동시간이 중장년층에 비해 짧은 편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짧은 노동시간은 다른 연령에 비해 학업·취업준비 병행 등으로 자발적인 시간제 노동을 하는 비율이 높은 청년의 특성상 청년의 선호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표 2-2-21〉 플랫폼 노동자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소득(2018년)

(단위: 명, %)

구분	50만 원 미만	50~150만 원 미만	150~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전체
청년 (비율)	4 (16.7)	4 (16.7)	10 (41.7)	6 (25.0)	24 (100.0)
35세 이상 (비율)	15 (9.6)	28 (17.8)	57 (36.3)	57 (36.3)	157 (100.0)
전체 (비율)	19 (10.5)	32 (17.7)	67 (37.0)	63 (34.8)	181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제21차 한국노동패널. <https://www.kli.re.kr/klips/index.do>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들은 대부분 비임금노동자로 가입했다. 하지만 가입률은 35.9%로 낮고, 청년의 가입률은 25%로 매우 저조하다. 상대적으로 노후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는 청년의 특성상 합당한 결과다. 비임금 가입자인 경우 국민연금료 납부 여부로 식별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모두 포괄한다. 특수지역연금은 35세 이상에서 1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고용보험의 경우 대부분(92.8%) 미가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35세 이상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전체 157명 중 임금노동자는 5명이, 자영자는 7명이 가입하여 7.6%의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청년은 24명 중 단 1명만이 가입해 청년 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도 고용보험과 유사하여, 청년 가입자 1인이 임금노동자로 산재보험에도 가입된 반면, 35세 이상의 경우 비임금노동자로 사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11명으로 전체 가입률이 10.2%로 추정된다.

〈표 2-2-22〉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2018년)

(단위: 명, %)

	가입(A)			미가입(B)	전체(C)	가입률(A/C)	미가입률(B/C)
	임금	비임금					
국민연금							
청년	6	1	5	18	24	25.0	75.0
35세 이상	59	4	55	98	157	37.6	62.4
전체	65	5	60	116	181	35.9	64.1
특수지역연금							
청년	0	0		24	24	0.0	100.0
35세 이상	1	1		156	157	0.6	99.4
전체	1	1		180	181	0.6	99.4
고용보험							
청년	1	1	0	23	24	4.2	95.8
35세 이상	12	5	7	145	157	7.6	92.4
전체	13	6	7	168	181	7.2	92.8
산재보험							
청년	1	1	0	23	24	4.2	95.8
35세 이상	16	5	11	141	157	10.2	89.8
전체	17	6	11	164	181	9.4	90.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제21차 한국노동패널. <https://www.kli.re.kr/klips/index.do>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플랫폼 노동자의 자발성과 만족도를 보면(〔그림 2-2-5〕) 플랫폼 노동자 상당수가 ‘현재 하는 일 만족’, ‘현재 일 계속하고 싶다’에 ‘보통이다’ 또는 ‘그런 편이다’로 응답해 현재 일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그 외 만족도에서도 대부분 ‘만족’, ‘보통’으로 응답하였는데 특히 노동시간 만족도(특히 청년의 노동시간 만족도)가 높은 편인 반면, 임금 또는 보수 만족도는 떨어지는 편이다. 개인발전 가능성, 전반적 만족도에서도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3. 분석의 시사점

여기에서는 15~34세 청년의 경제활동과 시간제, 플랫폼 노동의 규모와 노동조건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청년의 높은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 규모, 특히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잠재취업 가능자와 잠재구직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반영한다.

특히 20대, 고졸자, 초대졸자와 같이 최종 학교를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구직에 나서는 시기의 높은 실업률과 잠재구직자의 비율은 청년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요구한다. 이 특성은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시기에도 여지없이 드러나,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는 현재의 노동시장과 위기 상황에서 청년이 취업취약계층임을 다시금 말해준다. 이러한 특성은 청년층의 높은 시간제, 초단시간 노동 비율만 봐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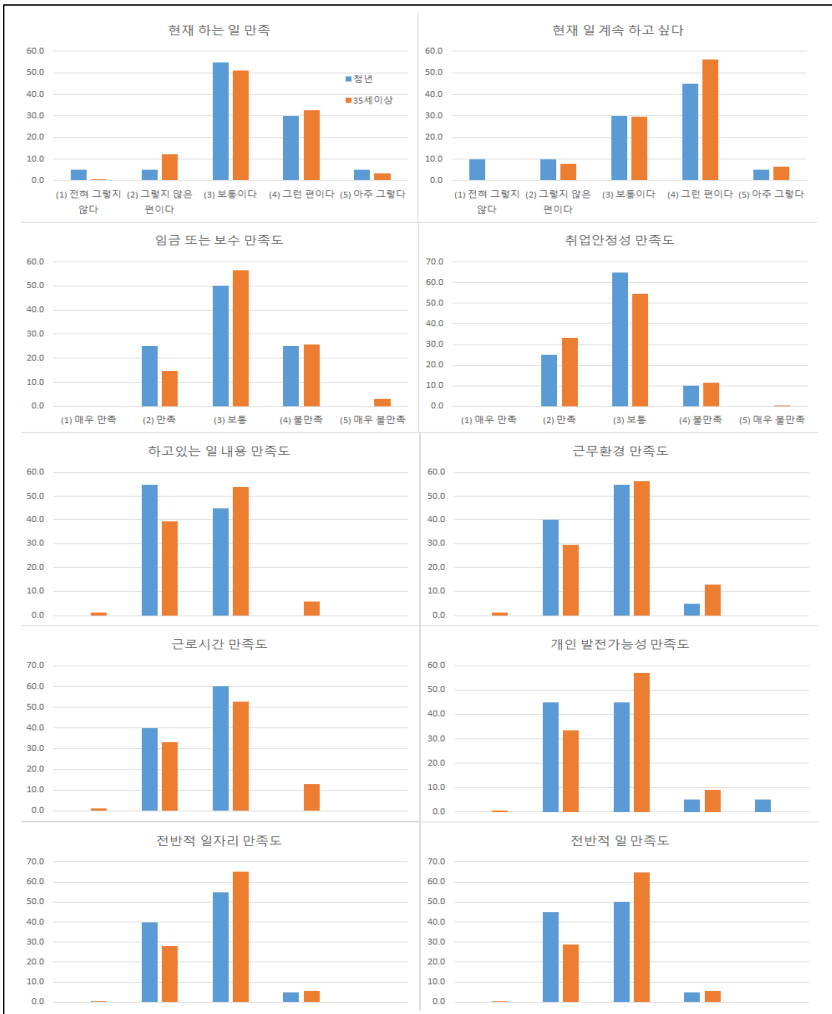
특히 고졸 청년의 경우 당장 수입을 위해서 비자발적 시간제로 일하는 비율이 꽤 높다. 이는 노동시장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기술을 습득할 시기에 당장 필요한 수입을 얻기 위해 자기 개발과 경력 쌓을 기회를 잃는 것이기도 하다. 시간제 청년들이 주로 숙박·음식업이나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에서 서비스직나 판매직, 단순노무직으로 종사한다는 것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청년의 시간제 자발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플랫폼 노동의 직무 만족도가 긍정적이라는 점은 청년이 학업과 취업준비를 병행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가 여전히 주변부 노동일 거라고 우려하는 것은 낮은 보수와 사회보험 가입률, 취약한 직종에서 다수 분포하기 때문에 비전을 찾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학업과 취업준비의 병행, 취업·이직준비를 위해 선택하는 시간제와 플랫폼 노동의 '자발성'에는 불평등/저소득의 문제, 취업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의 높은 생활비, 다른 선택지가 없는 여성 돌봄노동과 같이 사회정책적 대응이 미흡한 데서 오는 선택 아닌 선택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2-2-5] 플랫폼 노동 직무 만족도

(단위: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제21차 한국노동패널. <https://www.kli.re.kr/klips/index.do>에서 2020. 4. 23.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제3장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일 실태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청년 플랫폼 노동자

제3절 청년 시간제 노동자

제4절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의사분석

제 3 장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일 실태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및 방법

플랫폼, 초단시간, 단시간 노동 청년의 일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표는 2020년 3~6월 초에 걸쳐 개발되었다. 조사 영역과 내용은 연구진 회의와 온/오프라인 자문회의, 기존 관련 조사표의 분석,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의 서면 검토를 거쳐 논의, 확정되었다. 조사표 개발 과정에서 참고한 주요 기존 조사로는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김준영 외(2018)의 연구 등이 있으며, 플랫폼 노동 종사자와 초단시간, 단시간 노동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문항이 추가로 발굴,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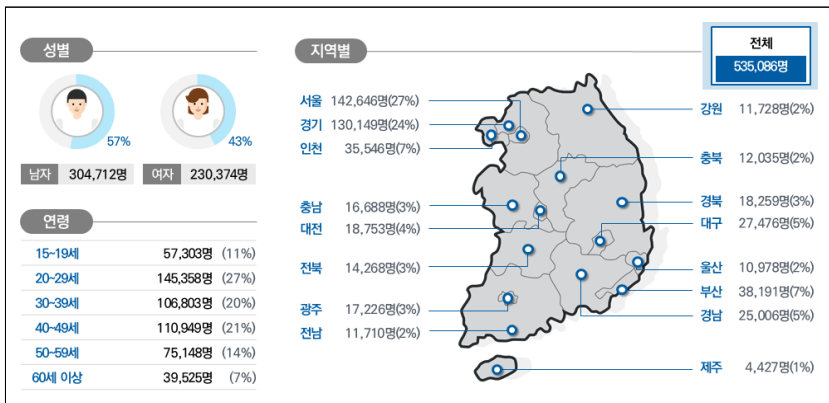
조사표 검토 과정에는 청년 및 노동 관련 전문가 6인, 시민단체 2인, 조사전문업체 1인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 전문가 및 이 연구의 연구진들이 함께했다. 구성된 조사표가 조사대상을 가려낼 수 있는지, 연구 목표에 비춰 추가되어야 할 문항은 없는지, 중요성에 견줘 삭제해도 될 문항은 없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조사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제 2020-23호)을 받았다. 조사는 전문업체인 한국리서치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그 방식은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모바일 폰과 이메일로 접속

이 가능한 웹조사를 활용하였다.

대상은 2020년 5월 말 기준 플랫폼을 활용한 노동, 초단시간(15시간 미만) 노동, 단시간(35시간 미만) 노동을 하고 있는 만 19~34세 청년이며, 설계 단계에서 각 집단별 300명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와 합의가 명확하지 않아 플랫폼 노동 종사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 예산과 조사기간 등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유형별 균등할당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집은 모두 3차에 걸쳐 이뤄졌다. 1차로는 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의 마스터 샘플(master sample)에 등록된 약 54만 명의 패널 중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 참여를 위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한국리서치의 마스터 샘플은 국가승인통계조사인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주요 실태조사(통계승인번호: 32103,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09~2011년, 2013~2018년 수행)와 휴대전화 스캠수신량조사(통계승인번호: 34204,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05~2007년, 2009~2012년 수행)에서 공인 추출 틀로 활용된 바 있다.

[그림 3-1-1] 1차 표집에 활용한 한국리서치 마스터 샘플 구성



자료: 한국리서치 제공.

2차 표집에서는 마스터 샘플을 통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에게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소개받아 진행하는 눈덩이표집을 실시하였다. 3차 표집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조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라이더유니온, ○○플렉스/○○이츠와 같은 플랫폼 사이트 관리자, 플랫폼 종사자 커뮤니티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조사참여 url을 문자로 발송하여 이뤄졌으며, 7월 초순까지 수행되었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최종 플랫폼 노동 종사자 345명과 초단시간 노동자 304명, 단시간 노동자 313명이 표집되었으며,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로직상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경우로 볼 수 없으나 플랫폼 노동의 범주에 포함된 33명은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조사는 2020년 6월 19일부터 7월 13일까지 총 25일이 소요되었다. 마스터 샘플을 활용한 1차 조사는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참여 추천인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는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플랫폼 사이트 관리자와 플랫폼 종사자 커뮤니티의 협조를 통해 이뤄진 3차 조사는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이뤄졌다. 조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되었다.

〈표 3-1-1〉 표집단계별 조사 진행 과정

(단위: 명)

구분	전체	1차 표집	2차 표집	3차 표집
조사시기	2020.6.19.~7.13.	2020.6.19.~6.30.	2020.6.24.~7.13.	2020.7.2.~7.13.
플랫폼 노동	345	295	9	41
초단시간 노동	304	294	10	-
단시간 노동	313	302	11	-
합계	962	891	30	41
(비율)	(100.0%)	(92.6%)	(3.1%)	(4.3%)

자료: 한국리서치 제공.

2. 플랫폼 노동, 초단시간, 단시간 노동의 정의

플랫폼 노동은 플랫폼(모바일 앱, 온라인)을 활용하여 일감을 제공받는 일로 정의하되, 그 일이 단순히 채용·구인 사이트에서 구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일자리인 경우에는 플랫폼 노동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일을 위해 플랫폼을 활용하며, ① 소프트웨어 개발, IT 기술 지원, ② 온라인 전문서비스(예: 통역, 번역, 회계, 교육, 법률자문), ③ 창작(예: 웹툰, 일러스트, 디자인), ④ 데이터 입력(명함 정보 기입과 같은 컴퓨터로 하는 단순작업), ⑥ 배달 및 운송, ⑦ 청소, 수리, 돌봄 등의 방문 서비스(예: 가사도우미, 펫시터, 수리 등), ⑧ 오프라인 전문서비스(예: 교육, 상담, 뷰티)에 종사할 경우 플랫폼 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단, 일감을 제공받기 위해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을 이용하지만 하는 일이 ⑤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⑨ 임대업이라 응답한 경우, 종사상 지위를 살펴,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또는 자영업자, 고용주라고 응답한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로 보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과 임대업에 종사하면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또는 자영업자, 고용주라 대답한 경우에는 일의 특성상 플랫폼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연구진 및 전문가 회의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⑩ 기타로 응답하고 주관식으로 서술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파악하여 서빙/계산 등 기존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면 플랫폼 노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플랫폼 노동뿐 아니라 시간제 노동은 또한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전일제 근로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정규적인 업무 개시시간과 종료시각 사이의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 동안 근무하도록 정해진 근로자”로 정의하고 “경비, 공장 가동 등으로 격일제 근무 또는 2/3교대 근무

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전일제’ 근로에 해당(고용노동부, 2019, p.39)”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제 노동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통계청, 2019)”로 정의하였으며, “만일 동일 회사에서 동일 업무를 하는 동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소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근로자(통계청, 2019)”로 정의하였다.

즉,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시간제와 전일제 노동을 규정하는 현재의 정의에 따라,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일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네거티브 방식의 정의, 기준의 혼재는 현실과 조사방식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기준방식의 변경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량의 추산에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를테면, 고용계약기간을 적용하여 비정규직 규모를 추산할 경우, 기준방식보다 비정규직 규모가 약 50만 명 증가하게 된다(이경미, 2019).

여기서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노동을 하는 경우를 초단시간 노동자로 규정한다. 15시간은 사회보험 가입,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였다. 일부 대기업 등의 주 35시간제 도입을 고려하여 단시간 노동자는 주 35시간 미만 노동을 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또한 초단시간과 단시간 노동을 묶어서 시간제 노동이라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이 둘을 구분하여 논의하기도 할 것이다.

물론 노동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플랫폼 노동과 시간제 노동에는 배타적 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교집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플랫폼 노동자이면서 시간제 노동자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3.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개인과 가구의 일반사항, 경제활동 상태 판별 문항, 노동여건과 사회보험 관련 사항, 교육훈련, 가구형태[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자녀 유무, 거주상태(독거 여부), 가구주 여부, 경제적 독립상태], 기타(제도 외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공정 인식, 정치적 성향 등)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2〉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의 조사 내용

구분	내용
선정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응답자(조사대상 적정성 판별) - SQ1.성별 - SQ2.연령 - SQ3.지역
A. 노동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응답자(조사대상 적정성 판별) - A1.지난주의 일 여부 ▶ 취업자(조사대상 적정성 판별) - A2.일의 개수 - A2-1.(n잡일 경우) 4대보험 가입 일자리 유무 - A2-2.(n잡일 경우) 일자리 간 근로시간 차이 여부 - A3.주된 일자리에서의 5월 마지막 주 근로시간 - A4.주된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 - A5.주된 일자리에서의 플랫폼을 활용한 일 여부 - A6.추가 근로의향 - A7.주된 일자리에서의 세전 월 근로소득 ▶ 플랫폼을 활용한 일을 하는 경우 추가 질문(조사대상 적정성 판별) - A5-1.일이 이루어지는 장소(온라인 vs. 오프라인) - A5-2.일의 내용(e.g. 소프트웨어 개발, 온라인 전문서비스, 창작, 데이터 입력, 전자상거래, 배달 및 운송 등) - A5-3.일감을 받기 위해 활용하는 앱, 플랫폼 - A5-4.평가제도 유무 - A5-5.평가에 따른 결과
B. 근로 여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전체(플랫폼 노동, 초단시간 노동, 단시간 노동) - B1.노동조합 가입 여부 - B1-1.노동조합 가입의사 - B2-1.고용보험 가입 여부

구분	내용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2-2.산재보험 가입 여부 - B2-3.상해보험 가입 여부 - B2-4.국민연금 가입 상태(직장가입, 지역가입, 임의가입, 가입하지 않음, 가입 여부 잘 모름) - B2-5.건강보험 가입 상태(가입, 미가입, 의료급여 수급, 가입 여부 잘 모름) - B4.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상태 - B4-1.국민연금 미납 이유 - B5.국민연금 미가입 이유 - B6.일자리 만족도(소득, 평균 근로시간, 근무시간, 장래성, 안정성) - B7.일자리 선택 이유(1, 2순위) - B8.근로계약 관련 서류 작성 유무, 근로시간 임의변경 경험 유무, 임금체불 또는 비정상 지급 경험 유무 - B9.근로 유연성(근로시간, 일감 배분 방식) - B10.교육훈련 경험 유무 - B11.교육훈련 의사 - B11-1.교육훈련을 원하는 영역 - B12.업무상 상해 경험 - B12-1.업무상 상해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여부 - B12-2.일과 관련된 경험(혼자서 일하는 괴로움과 무서움,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 물리적 폭력의 위험, 인격적 무시나 감정적 폭력, 야간 근로로 인한 피로, 나이나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 - B13.재학한 최종 학교 - B13-1.재학한 최종 학교의 졸업 여부 - B13-2.(최종 학교가 고등학교인 경우)고등학교 계열 - B13-2.(최종 학교가 대학/대학원인 경우)전공계열 - B14.일의 수준과 교육수준의 비교 <p>▶ 조사대상 전체: 사회보험 가입, 지불의향(조사대상 내 A유형과 B유형 임의 할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유형: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 구체적 제공) - B3-1A.국민연금 가입의사 - B3-2A.국민연금 보조금 지급 시, 국민연금 지불의향 - B3-3A.고용보험 가입의사 - B3-4A.고용보험 보조금 지급 시, 고용보험 지불의향 - (B유형: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 간략 제공) - B3-1B.국민연금 가입의사 - B3-2B.국민연금 보조금 지급 시, 국민연금 지불의향 - B3-3B.고용보험 가입의사 - B3-4B.고용보험 보조금 지급 시, 고용보험 지불의향
C. 가구 형태	<p>▶ 조사대상 전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1.혼인상태 - C1-1.맞벌이 여부 - C2.자녀 유무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3.거주상태(독거 여부) - C4.가구주 여부 - C5.경제적 독립상태(생활비 마련 방법)
D.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전체 - D1.본인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평가 - D2.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평가 - D3.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 D4.공정에 대한 인식 - D5.정치적 성향
E.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전체 - E1.한 달 총소득 - E2.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경험 유무 - E2-1.코로나19 이전 월평균 소득 - E3.코로나19로 인한 실업 경험 - E4.본인명의로 된 금융자산(예·적금, 주식, 펀드 등) 정도(만 원) - E5.본인명의로 계약된 주택 여부 및 가격 - E6.본인명의로 된 가계부채

자료: 저자가 작성함.

제2절 청년 플랫폼 노동자

1. 들어가며

한국의 플랫폼 노동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해외와 달리 한국의 경우 플랫폼 노동에서 청년보다는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김준영 외, 2018; 김철식 외, 2019; 남재욱, 김봄이, 크리스티나히슬, 2020; 해외의 경우는 Forde et al., 2017 참조). 이는 한국의 플랫폼 노동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서비스 등의 지역기반(location-based) 플랫폼 노동 종사자 다수가 중장년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 직종들은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으로 새롭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과거 전근대적·비공식적 노동시장의 형태로 존재하

던 영역에 디지털 플랫폼이 더해지면서 변화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남재욱, 김봄이, 크리스티나히슬, 2020). 그렇다 보니 이 직종들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 논의를 해외의 ‘최첨단 노동시장’의 이미지와 일치시키려는 시도는 종종 논의의 방향을 잃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청년’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 노동에 관한 논의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이 직종들, 특히 이 직종에서 일하는 증장년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점이 오히려 청년 플랫폼 노동에 관해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비록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다는 것뿐이지 청년 플랫폼 노동은 분명 실존하는 현상이며, 향후 그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편으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노동의 거래방식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장지연 외, 2020), 다른 한편으로는 전술한 ‘전근대적’ 시장이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으로 변화를 겪고 있기에 향후에는 해외처럼 청년층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시간적 자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플랫폼 일자리의 특성상 학업과 일을 병행하거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시점에서 경과적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청년층의 선호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청년 플랫폼 노동시장의 현실을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 3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 사회보장, 교육훈련 상황을 검토할 것이다. 분석의 목적은 탐색적인 수준에서나마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집단인 청년층이 변화되는 첨단 플랫폼 노동시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응하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청년정책이 플랫폼 노동의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방법 및 분석 결과

가. 연구방법

본 분석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소득과 자산, 사회보험, 교육훈련으로 나누어 설문한 결과를 기술적(descriptive)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분석 시에 성별, 연령, 지역, 학력 등의 일반적 기준으로 분류하여 비교하는 방식 외에 직종별 차이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플랫폼 노동은 매우 이질적인 업무환경과 숙련수준의 일자리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의 직종별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플랫폼 노동의 유형을 분류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대분류는 서비스의 제공이 직접 만나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지에 따른 지역기반(location based)과 웹기반(web-based)의 분류다(De Stefano, 2016; Berg, Furrer, Harmon, Rani, & Silberman, 2018; OECD, 2019; 황덕순 외, 2016; 장지연 외, 2017; 김종진, 2019 등). 그러나 이 분류는 그 범주가 너무 넓어서 플랫폼 노동의 직종별 특성을 살펴보기에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분류를 기본으로 하되, 일자리위원회에서 플랫폼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분류한 기준을 활용하여 직종을 구분하고자 한다(장지연·정민주, 2019). 해당 분류는 <표 3-2-2>에 간략히 설명되어 있으며, 본 조사에서의 표본 수와 비중을 함께 제시하였다.⁴⁾ 이 분류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도출된 것일 뿐 아니라, 각 직종

4) 본 조사를 위한 설문에서는 상기 직종 분류와 별도로 응답자에게 업무방식이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를 질문하였다.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을 교차분석한 결과 '웹기반 전문서비스'에서 10명, '창작'에서 3명이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온라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

이 어느 정도 숙련수준과 일치한다는 특성이 있어 분석에 용이할 것이다.

분석에 따라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및 「통계청 사회조사」와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플랫폼 노동 청년층과 다른 인구 집단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정세정 외, 2020; 통계청, 2019). 또한 분석표에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플랫폼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 역시 비교 목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플랫폼 노동자는 표집 틀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플랫폼 노동자 분포가 청년 플랫폼 노동자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점은 비교 대상이 된 다른 플랫폼 노동 연구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이후에 이루어질 분석들의 한계임을 미리 밝혀둔다.

나. 분석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은 남성이 61.9%, 여성이 38.1%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은 남성 비중이 더 높았다. 연령은 19~24세 초기 청년이 59%로 다수를 차지했고, 25~29세가 26.9%, 30~34세가 14.1%로 그 뒤를 이었다. 2019년에 조사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정세정 외, 2020, 이하 ‘청년층 조사’)에서 남성 53.0%, 여성 47.0%, 19~24세 37.4%, 25~29세 32.1%, 30~34세 30.5%였던 것과 비교하면, 남성 비율이 더 높고 초기 청년 비중은 상당히 높다.

당 직종의 성격상 고객과 직접 만나서 일을 진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지역기반’과 ‘웹기반’의 분류에서는 ‘웹기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종을 기준으로 ‘웹기반’으로 분류하였음을 밝혀둔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가 16.7%, 대학 재학/휴학/수료가 45.5%, 대졸 이상은 37.8%로 나타난다. 청년층 조사와 비교해보면, 대졸 이상은 12.3%포인트 낮고, 고졸 이하 역시 4.5%포인트 낮다. 대졸 이상의 비중이 낮은 것은 초기 청년의 비중이 높은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연령구성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고졸 이하 역시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플랫폼 노동이 학업과 병행하는 아르바이트 성격의 사례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다만 본 연구의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표집이 전체 청년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비중이 67.9%에 이르러 청년층 조사보다 약 20%포인트 높은데, 기존의 플랫폼 노동 관련 연구들에서 나타난 수도권 비중이 높다는 결과들과 일치한다(김준영 외, 2018; 김철식 외, 2019).

그 밖에 혼인상태는 미혼이 93.9%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거주는 혼자 살지 않는 경우가 62.5%, 가구주 여부는 가구주 아님이 72.1%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청년층 조사의 응답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또한 연령별 분포에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1〉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계(플랫폼 노동 청년)		312	100.0
성별	남성	193	61.9
	여성	119	38.1
	계	312	100.0
연령	19~24세	184	59.0
	25~29세	84	26.9
	30~34세	44	14.1
	계	312	100.0
지역	서울	118	37.8
	경기·인천	94	30.1
	비수도권	100	32.1
	계	312	100.0
학력	고졸 이하	52	16.7
	대학 재학/휴학/중퇴	142	45.5
	대학 수료 이상	118	37.8
	계	312	100.0
혼인상태	미혼	293	93.9
	기혼	18	5.8
	별거/이혼/사별	1	0.3
	계	312	100.0
거주형태	혼자 살고 있음	117	37.5
	혼자 살고 있지 않음	195	62.5
	계	312	100.0
가구주 여부	가구주임	87	27.9
	가구주 아님	225	72.1
	계	312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3-2-2〉는 응답자를 장지연·정민주(2019)가 제시한 ‘플랫폼 노동의 직종 분류’를 활용하여 분류한 것이다. 각 직종에 어떤 일자리가 포함되는지는 표에 간략히 설명해두었다. 크게 지역기반과 웹기반으로 나누

어보면, 본 조사에서는 지역기반이 65.1%, 웹기반은 34.9%로 표집되었다. 장소기반 중에서는 배달 및 운송업이 전체의 38.5%로 가장 높으며, 웹기반에서는 전문서비스와 미세업무가 각각 10%를 넘어 비중이 높은 편이다. 다만 배달 및 운송업과 지역기반 전문서비스를 제외하면 직종별 사례 수가 2~36건으로 많지 않아 세부 직종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직종별 숙련수준을 검토해보면 일자리 특성상 웹기반 플랫폼 노동이 장소기반 플랫폼 노동보다 숙련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역기반에서 전문서비스 영역은 상대적으로 숙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웹기반에서 미세업무는 오히려 숙련수준이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직종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는 이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2-2〉 응답자 직종 분류

(단위: 명, %)

직종 구분		주요 직종	사례 수	비중
지역기반	배달 및 운송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심부름 등	120	38.5
	지역형 서비스	청소, 수리, 가사, 돌봄 등 방문 서비스	22	7.1
	전문서비스	교육, 상담 등 대면해서 이루어지는 전문서비스	61	19.6
지역기반 계				65.1
웹기반	IT/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IT 기술지원 등	19	6.1
	전문서비스	통역, 번역, 회계, 교육, 법률자문 등	36	11.5
	창작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 디자인 등	19	6.1
	미세업무	명함 정보 기입 등 컴퓨터 활용 단순작업	33	10.6
	기타	온라인 마케팅 대행 등	2	0.6
웹기반 계			2	34.9
총계			312	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2)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① 직종별 고용 현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직종별 고용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았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성 비율이 높은 가운데 지역기반(67.5%), 특히 배달 및 운송업(80.0%)에 종사하는 비율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았다. 웹기반 IT/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남성 비율이 월등했지만(78.9%), 다른 부문에서는 여성 비율이 더 높거나(웹기반 전문서비스, 창작)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역기반 전문서비스 부문에서도 여성 비율이 더 높아, 대체로 여성 청년의 플랫폼 노동 참여는 남성에 비해 고속런 업종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3〉 플랫폼 노동 청년의 성별·연령별 직종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9~24	25~29	30~34	
계(플랫폼 노동 청년)	312	61.9	38.1	59.0	26.9	14.1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120	80.0	20.0	55.0	23.3	21.7
	지역형 서비스	22	50.0	50.0	68.2	22.7	9.1
	전문서비스	61	49.2	50.8	67.2	29.5	3.3
	소계	203	67.5	32.5	60.1	25.1	14.8
웹기 반	IT/소프트웨어	19	78.9	21.1	78.9	21.1	0.0
	전문서비스	36	41.7	58.3	41.7	41.7	16.7
	창작	19	42.1	57.9	63.2	26.3	10.5
	미세업무	33	51.5	48.5	57.6	27.3	15.2
	기타	2	50.0	50.0	50.0	0.0	50.0
	소계	109	51.4	48.6	56.9	30.3	12.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연령별로는 모든 영역에서 초기 청년(19~24세) 비중이 가장 높는데, 특히 지역형 서비스(68.2%), 지역기반 전문서비스(67.2%), IT/소프트웨어(78.9%) 영역에서 초기 청년 비중이 두드러졌다. 25~29세 청년은 지역기반보다는 웹기반(30.3%), 전문서비스(41.7%)에 종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특히 더 높았다. 30~34세 청년은 배달 및 운송(21.7%)과 온라인 전문서비스(16.7%)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지역과 학력별 직종을 살펴보았다. 지역별로 볼 때 서울 거주 청년은 지역기반 전문서비스(45.9%), IT/소프트웨어(47.4%), 온라인 전문서비스(38.9%)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대체로 고속권 직종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천·경기 거주 청년은 창작(52.6%)과 기타(50.0%)의 비율이 높았지만, 이 직종들의 사례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균일한 참여 비중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비수도권 청년들의 경향도 비슷하여 특별히 한 직종에서 더 높은 참여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3-2-4〉 플랫폼 노동 청년의 지역별·학력별 직종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지역			학력			
		서울	인천 경기	비 수도권	고졸 이하	대학 재학	대학 졸업	
계(플랫폼 노동 청년)	312	37.8	30.1	32.1	16.7	45.5	37.8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120	35.8	29.2	35.0	25.8	46.7	27.5
	지역형 서비스	22	36.4	27.3	36.4	13.6	63.6	22.7
	전문서비스	61	45.9	26.2	27.9	9.8	59.0	31.1
	소계	203	38.9	28.1	33.0	19.7	52.2	28.1
웹기 반	IT/소프트웨어	19	47.4	21.1	31.6	21.1	42.1	36.8
	전문서비스	36	38.9	27.8	33.3	11.1	22.2	66.7
	창작	19	21.1	52.6	26.3	10.5	57.9	31.6
	미세업무	33	36.4	36.4	27.3	6.1	24.2	69.7
	기타	2	0.0	50.0	50.0	0.0	50.0	50.0
	소계	109	35.8	33.9	30.3	11.0	33.0	56.0

주: '대학 재학'에는 휴학과 중퇴를 포함하고, '대학 졸업'에는 수료를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은 상대적으로 배달 및 운송(25.8%)과 IT/소프트웨어(21.1%)에서, 대학 재학/휴학/중퇴 청년은 지역형 서비스(63.6%), 지역기반 전문서비스(59.0%), 창작(57.9%) 등의 영역에서, 대학 수료/졸업 청년은 웹기반 전문서비스와 웹기반 미세업무에서 더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고학력(대학 수료 이상) 청년은 웹기반 플랫폼 노동에, 상대적으로 저학력(고졸 이하 및 대학 재학/휴학/중퇴) 청년은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에 많이 참여한다.

〈표 3-2-5〉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검업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계	부업 있음	부업 없음	
계(플랫폼 노동 청년)		312	100	39.1	60.9	
성별	남성	193	100	40.4	59.6	
	여성	119	100	37.0	63.0	
연령	19~24세	184	100	34.8	65.2	
	25~29세	84	100	42.9	57.1	
	30~34세	44	100	50.0	50.0	
지역	서울	118	100	35.6	64.4	
	경기·인천	94	100	30.9	69.1	
	비수도권	100	100	51.0	49.0	
학력	고졸 이하	52	100	34.6	65.4	
	대학 재학/휴학/중퇴	142	100	33.1	66.9	
	대학 수료 이상	118	100	48.3	51.7	
직종	지역기반	배달 및 운송	120	100	39.2	60.8
		지역형 서비스	22	100	40.9	59.1
		전문서비스	61	100	29.5	70.5
		소계	203	100	36.5	63.5
	웹기반	IT/소프트웨어	19	100	63.2	36.8
		전문서비스	36	100	50.0	50.0
		창작	19	100	26.3	73.7
		미세업무	33	100	36.4	63.6
		기타	2	100	50.0	50.0
		소계	109	100	44.0	56.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겸업 비율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부업이 있는 경우가 39.1%로 나타났는데,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비수도권 거주자일수록, 학력이 대학 수료 이상일수록 부업이 있는 청년층이 많았다. 직종별로는 웹기반 플랫폼 노동자가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보다 IT/소프트웨어, 웹기반 전문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숙련이 필요한 직종에서 더 높은 부업 비율이 확인됐다.

본 조사는 플랫폼 노동이 주업인 청년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이 부업인 겸업자는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플랫폼 노동에만 종사하는 비율이 다른 조사보다 더 높게 나왔을지 모른다. 그런데 다른 일자리가 없는 플랫폼 노동자 비율(60.9%)은 본 연구와 다른 연구들이 별 차이가 없거나 본 연구가 오히려 더 낮게 나왔다.⁵⁾

물론 본 연구와 다른 연구가 모두 표집 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표집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다른 해석을 시도해보는다면 청년층이라는 집단의 차이가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중에서도 초기 청년의 비율이 높았고, 학력으로 볼 때도 대학 재학/휴학/중퇴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학업과 플랫폼 노동을 결합하고 있는 이들이 많을지 모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실제로 겸업자 비율도 그와 일관되게 나타났음은 앞서 설명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겸업자 비율이 다른 연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 청년 플랫폼 노동은 오히려 다른 연령대보다 넓은 의미의 ‘겸업’이 더 높다고 볼 측면도 있다. 현재의 통계에서 “플랫폼 노동만 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의 상당수가 실은 학업을 겸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간 분포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

5) 김철식 외(2019)의 연구에서는 64.2%, 남재욱, 김봄이, 크리스티나히슬(2020)의 연구에서는 58.7%가 플랫폼 노동에만 종사하고 있었다.

다. 노동시간을 구간별로 나누어보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 비율이 40.4%로 가장 높은데, 여성과 초기 청년, 대학 재학/휴학/중퇴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들은 부업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집단이다. 부업이 없는데 노동시간이 더 짧다는 것은 다른 인구 집단에서는 모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술한 학업-혹은 취업준비, 가사·돌봄 같은 다른 활동이라는 변수를 고려하면 청년층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표 3-2-6〉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계	15시간 미만	15~35시간	35시간 이상	
계(플랫폼 노동 청년)		312	100	40.4	26.3	33.3	
성별	남성	193	100	36.3	25.9	37.8	
	여성	119	100	47.1	26.9	26.1	
연령	19~24세	184	100	45.1	32.6	22.3	
	25~29세	84	100	34.5	16.7	48.8	
	30~34세	44	100	31.8	18.2	50.0	
지역	서울	118	100	38.1	25.4	36.4	
	경기·인천	94	100	41.5	25.5	33.0	
	비수도권	100	100	42.0	28.0	30.0	
학력	고졸 이하	52	100	40.4	21.2	38.5	
	대학 재학/휴학/중퇴	142	100	52.1	30.3	17.6	
	대학 수료 이상	118	100	26.3	23.7	50.0	
직종	지역기반	배달 및 운송	120	100	38.3	28.3	33.3
		지역형 서비스	22	100	31.8	50.0	18.2
		전문서비스	61	100	55.7	21.3	23.0
		소계	203	100	42.9	28.6	28.6
	웹기반	IT/소프트웨어	19	100	26.3	31.6	42.1
		전문서비스	36	100	30.6	25.0	44.4
		창작	19	100	52.6	21.1	26.3
		미세업무	33	100	33.3	15.2	51.5
		기타	2	100	100.0	0.0	0.0
		소계	109	100	35.8	22.0	42.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노동시간 분포는 지역적으로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직종별로는 지역기반 전문서비스와 창작에서 초단시간 노동 비중이 높은 반면, IT/소프트웨어와 미세업무, 웹기반 전문서비스에서는 35시간 이상 전일제 노동 비중이 높다. 다소 예상과 다른 분포를 보인 것은 미세업무 영역이다. 직종 분류상 미세업무(digital microtask)는 국제적으로 보면 AMT(Amazon Mechanical Turk)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단순노동으로, 일반적으로 긴 노동시간이 예측되는 직종은 아니다. 그러나 본 조사에 표집된 미세업무 직종이 33건에 불과한 가운데 “데이터 입력(명함 정보 기입과 같은 컴퓨터로 하는 단순작업)”으로 응답한 사례들 중 전형적인 미세업무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뒤에 나오는 미세업무의 특성에 대한 해석에는 다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66.7%가 35시간 미만의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은 학습 등 다른 활동으로 인해 본인이 희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일하고 싶는데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시간 관련 추가취업 희망 여부를 확인해보았다. 조사 결과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약 61.9%가 더 오래 일하고 싶다고 답하여, 일할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9년에 조사한 청년층 조사에서 취업 청년 중 불과 7%만이 더 일하기를 희망했던 것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조사시기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조사는 2019년 조사와 달리 코로나19의 영향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축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시간 관련 추가취업 희망은 성별로는 남성에서, 연령으로는 30~34세 후기 청년층에서, 지역적으로는 비수도권에서, 학력상으로는 고졸 이하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배달 및 운송과 IT/소프트웨어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대체로 학업과 플랫폼 노동을 겸하는 집단보다는 플랫폼 노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구 집

단에서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3-2-7〉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시간 관련 추가취업 의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계	시간 관련 추가취업 희망함	시간 관련 추가취업 희망하지 않음	
청년 취업자 전체		1,874	100	7.0	93.0	
계(플랫폼 노동 청년)		312	100	61.9	38.1	
성별	남성	193	100	67.4	32.6	
	여성	119	100	52.9	47.1	
연령	19~24세	184	100	62.0	38.0	
	25~29세	84	100	56.0	44.0	
	30~34세	44	100	72.7	27.3	
지역	서울	118	100	61.0	39.0	
	경기·인천	94	100	57.4	42.6	
	비수도권	100	100	67.0	33.0	
학력	고졸 이하	52	100	71.2	28.8	
	대학 재학/휴학/중퇴	142	100	57.7	42.3	
	대학 수료 이상	118	100	62.7	37.3	
직종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120	100	67.5	32.5
		지역형 서비스	22	100	50.0	50.0
		전문서비스	61	100	57.4	42.6
		소계	203	100	62.6	37.4
	웹 기반	IT/소프트웨어	19	100	68.4	31.6
		전문서비스	36	100	61.1	38.9
		창작	19	100	42.1	57.9
		미세업무	33	100	63.6	36.4
		기타	2	100	100.0	0.0
		소계	109	100	60.6	39.4

주: '청년 취업자 전체'는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정세정 외, 2020) 결과에서 추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view?seq=1644>에서 인용하여 저자가 분석.

평점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플랫폼 노동의 중요한 특징이다.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는 플랫폼 노동자를 통해 전달되는데, 법적으로 고용관계가 아닌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직접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플랫폼의 역설(platform

paradox)’이다(Prassel, 2018. p.5).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좀 더 많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 노동 과정에 개입하는데, 평점은 그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평점은 대부분 플랫폼 기업이 아닌 고객에 의해 매겨진다는 점에서 사용자로부터 받은 직접적인 통제와 다르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평점을 바탕으로 일감을 얻을 수 있는 정도를 관리하거나 때로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노동을 통제한다(Forde et al., 2017; Gray & Suri, 2019; 김철식 외, 2019).

청년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도 74.4%가 평점을 통한 관리를 받고 있었다. 평점이 낮아도 업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경우는 34.9%에 불과했고, 그 밖에 일감이 감소 또는 박탈되거나, 수당이 감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청년 플랫폼 노동자 중 절반 가까이가 평점의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평점은 거의 모든 직종에서 활용되는데, 웹기반 플랫폼 노동 중 창작과 미세업무는 상대적으로 그 활용도가 낮았다.

〈표 3-2-8〉 직종별 평점 유무 및 평점에 대한 플랫폼의 조치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평점 유무		평점이 낮을 때 플랫폼의 조치				
		있음	없음	자격 박탈	일감 감소	수당 감소	영향 없음	
계	312	74.4	25.6	16.4	35.8	12.9	34.9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120	82.5	17.5	23.2	42.4	9.1	25.3
	지역형 서비스	22	72.7	27.3	6.3	56.3	0.0	37.5
	전문서비스	61	80.3	19.7	10.2	32.7	18.4	38.8
	소계	203	80.8	19.2	17.7	40.9	11.0	30.5
웹기반	IT/소프트웨어	19	78.9	21.1	13.3	33.3	6.7	46.7
	전문서비스	36	72.2	27.8	19.2	19.2	15.4	46.2
	창작	19	42.1	57.9	0.0	25.0	25.0	50.0
	미세업무	33	54.5	45.5	11.1	16.7	27.8	44.4
	기타	2	50.0	50.0	0.0	100.0	0.0	0.0
	소계	109	62.4	37.6	13.2	23.5	17.6	45.6

주: “평점이 낮을 때 플랫폼의 조치” 비율은 평점이 있는 사람을 모수로 하여 산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② 노동환경 및 안전

다음으로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안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했는데, 산재보험에는 38.1%, 상해보험에는 36.5% 정도가 가입하고 있었다. 표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두 가지 보험을 중복 가입한 경우가 100명이 있었다. 산재보험과 상해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가입한 사례는 133명으로 전체 플랫폼 노동자의 42.6%에 불과하다.

〈표 3-2-9〉 직종별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산재보험			상해보험		
			가입	미가입	모름	가입	미가입	모름
계		312	38.1	39.7	22.1	36.5	34.0	29.5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120	31.7	43.3	25.0	30.8	35.8	33.3
	지역형 서비스	22	45.5	40.9	13.6	36.4	36.4	27.3
	전문서비스	61	36.1	39.3	24.6	34.4	39.3	26.2
	소계	203	34.5	41.9	23.6	32.5	36.9	30.5
웹기 반	IT/소프트웨어	19	73.7	10.5	15.8	68.4	10.5	21.1
	전문서비스	36	38.9	41.7	19.4	47.2	33.3	19.4
	창작	19	21.1	52.6	26.3	21.1	47.4	31.6
	미세업무	33	51.5	33.3	15.2	42.4	24.2	33.3
	기타	2	0.0	50.0	50.0	0.0	0.0	100.0
	소계	109	45.0	35.8	19.3	44.0	28.4	27.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산재보험과 상해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한 이들이 75%에 이르기 때문에 가입자 분포는 대체로 중복 가입자 분포와 유사하다. 업종별로 보면 IT/소프트웨어, 미세업무 등 웹기반 플랫폼 노동의 가입률이 높은 반면, 업무상 재해 위험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배달 및 운송은 전체 평균보다 오히려 가입률이 더 낮다. 배달 및 운송업의 주요 업종인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업의 경우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

한 특례를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다. 이는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짧은 노동시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산재보험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는 전속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짧은 시간에 여러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하는 경우 이 업종들에 종사해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왔기 때문이다(박정훈, 2020).

그렇다면 실제로 업무상 상해 경험은 어떨까? 플랫폼 노동 청년 중 업무상 상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3.4%로, 2019년에 조사한 전체 청년(2.4%)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왔다(정세정 외, 2020). 직종별로는 배달 및 운송업에서 31.7%로 가장 높게 나왔다. 특기할 만한 점은 상대적으로 업무상 상해 비중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웹기반 플랫폼 노동에서도 상당한 수준의(17.4%) 업무상 상해 경험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표 3-2-10〉 직종별 업무상 상해 경험 및 산재 인정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업무상 상해		산재 인정		
		있음	없음	인정받음	인정받지 못함	
취업 경험 청년 전체	2,440	2.4	97.6	35.9	64.1	
계(플랫폼 노동 청년)	312	23.4	76.6	28.8	71.2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120	31.7	68.3	23.7	76.3
	지역형 서비스	22	13.6	86.4	66.7	33.3
	전문서비스	61	21.3	78.7	38.5	61.5
	소계	203	26.6	73.4	29.6	70.4
웹기반	IT/소프트웨어	19	26.3	73.7	80.0	20.0
	전문서비스	36	16.7	83.3	66.7	33.3
	창작	19	15.8	84.2	0.0	100.0
	미세업무	33	15.2	84.8	20.0	80.0
	기타	2	0.0	100.0	-	-
	소계	109	17.4	82.6	34.2	65.8

주: 1. '취업 경험 청년 전체'는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정세정 외, 2020) 결과에서 추출함.
 2. "산재 인정" 비율은 업무상 상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모수로 하여 산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view?seq=1644>에서 인출하여 저자가 분석.

업무상 상해 경험이 있는 이들 중 이를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는 28.8%로 나타났다. 2019년 청년층 조사의 35.9%보다 낮았다.⁶⁾ 산재 인정 비율은 웹기반 플랫폼 노동보다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에서 조금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업무상 상해를 경험한 73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34명으로 약 46.6%였는데, 이 중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는 25명으로 가입자의 73.5%였다. 즉, 업무상 상해를 입은 이들의 53.4%는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12.3%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다음으로 업무상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혼자 일하는 괴로움과 무서움(26.0%)’,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를 든 경험(33.7%)’, ‘인격적 무시나 감정적 폭력(31.7%)’, ‘야간 근로(46.5%)’, ‘나이·성별 등에 의한 차별(20.5%)’ 등으로 청년 취업자 전체와 비교 가능한 모든 항목들에서 16.9~36.8%포인트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집단별로 보면 ‘혼자 일하는 괴로움과 무서움’의 경우 연령별로는 25세 이상 청년이 초기 청년에 비해 높았고,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나 대졸 이상에서 대학 재학에 비해 높았으며, 업종별로는 웹기반 전문서비스 영역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를 든 경험’은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서, 직종별로는 배달 및 운송에서 높았던 반면, 웹기반 플랫폼 노동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인격적 무시나 감정적 폭력’ 경험은 연령별로 30~34세에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배달 및 운송, 지역형 서비스, 미세업무 등 저숙련 업종에서 높았던 반면

6) 청년층 조사에 나온 산재 인정률 35.9%는 동조사의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2.4%)과 산재 인정 경험 비율(0.85%)을 바탕으로 역산한 것이다. 따라서 만약 당시 응답자 중 2회 이상 상해를 경험하고, 상해 경험 횟수보다 적게 산재를 인정받은 응답자가 있다면, 실제 산재 인정 비율은 여기에서 제시한 35.9%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

IT/소프트웨어, 지역·웹기반 전문서비스 등 숙련 업종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가정을 방문하여 노동이 이루어지는 지역형 서비스를 논외로 하면, 야간 근로는 모든 플랫폼 업종에서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연령별로는 30~34세에서,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서, 업종별로는 배달 및 운송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형 서비스, 전문서비스, IT/소프트웨어, 미세업무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끝으로 나이나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경험했고, 직종별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19~24세 청년층은 모든 면에서 낮은 부정적 경험을 보고한 반면, 30~34세는 모든 면에서 높은 부정적 경험을 보고했다. 이는 실제의 부정적 경험 자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개인별 기대수준의 차이도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직종별로는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에 비해 웹기반 플랫폼 노동의 부정적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특히 배달 및 운송과 지역형 서비스 같은 저숙련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들은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부정적 경험을 보고하였다. 반면 IT/소프트웨어와 지역기반 전문서비스, 웹기반 전문서비스 같은 숙련 플랫폼 직종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경험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직종 숙련도가 일터에서 노동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표 3-2-11〉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관련 부정적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혼자 일하는 괴로움과 무서움	과도하게 무거운 짐·기계	인격적 무시와 감정적 폭력	야간 근로	나이 성별 등 차별	
청년 취업자 전체		2,440	6.5	7.8	14.8	9.7	-	
플랫폼 노동 청년		312	26.0	33.7	31.7	46.5	20.5	
성별	남성	193	23.8	37.3	32.1	50.3	15.0	
	여성	119	29.4	27.7	31.1	40.3	29.4	
연령	19~24세	184	20.1	31.5	28.8	41.8	19.6	
	25~29세	84	34.5	31.0	29.8	51.2	22.6	
	30~34세	44	34.1	47.7	47.7	56.8	20.5	
지역	서울	118	28.0	35.6	33.9	41.5	18.6	
	경기·인천	94	23.4	31.9	28.7	50.0	21.3	
	비수도권	100	26.0	33.0	32.0	49.0	22.0	
학력	고졸 이하	52	32.7	50.0	26.9	51.9	13.5	
	대학 재학/휴학/중퇴	142	19.0	31.0	32.4	47.2	19.0	
	대학 수료 이상	118	31.4	29.7	33.1	43.2	25.4	
직종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120	27.5	46.7	39.2	61.7	15.0
		지역형 서비스	22	31.8	36.4	40.9	27.3	27.3
		전문서비스	61	21.3	24.6	24.6	36.1	21.3
		소계	203	26.1	38.9	35.0	50.2	18.2
	웹 기반	IT/소프트웨어	19	21.1	15.8	10.5	36.8	26.3
		전문서비스	36	33.3	25.0	19.4	41.7	16.7
		창작	19	15.8	15.8	21.1	47.4	26.3
		미세업무	33	27.3	30.3	42.4	33.3	30.3
		기타	2	0.0	50.0	50.0	50.0	50.0
		소계	109	25.7	23.9	25.7	39.4	24.8

주: '청년 취업자 전체'는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정세정 외, 2020) 결과에서 추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view?seq=1644>에서 인출하여 저자가 분석.

③ 노동여건 및 이해대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으로, 근로계약 여부 및 부당한 근로 경험 등 근로여건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근로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는 70.5%가 작성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근로 외 기타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는 41.0%가 작성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두 가지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이들의 수는 109명이었다. 둘 중 한쪽 계약서를 작성한 이들은 239명으로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76.6%였다. 그 밖에 근로시간 임의변경 경험이 있는 플랫폼 노동자는 전체의 40.7%로, 임금체불 또는 비정상 지급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18.3%로 나타났다.

〈표 3-2-12〉 직종별 근로계약 및 부당행위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근로 계약서 작성 (n=220)	기타 계약서 작성 (n=128)	근로시간 임의변경 경험 (n=127)	임금체불 또는 비정상 지급 경험 (n=57)	
계(플랫폼 노동 청년)		312	70.5	41.0	40.7	18.3	
직종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120	64.2	45.0	41.7	16.7
		지역형 서비스	22	86.4	22.7	59.1	31.8
		전문서비스	61	70.5	31.1	45.9	19.7
		소계	203	68.5	38.4	44.8	19.2
	웹 기반	IT/소프트웨어	19	100.0	63.2	57.9	26.3
		전문서비스	36	75.0	44.4	33.3	13.9
		창작	19	52.6	36.8	10.5	26.3
		미세업무	33	75.8	45.5	33.3	9.1
		기타	2	0.0	0.0	0.0	0.0
		소계	109	74.3	45.9	33.0	16.5

주: 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기타 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모두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09명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직종별로 보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지역형 서비스에서는 높은 경향을, 창작에서는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기타 계약서 작성은 IT/소프트웨어에서는 높은 경향을, 지역형 서비스에서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근로시간 임의변경 경험은 지역형 서비스와 IT/소프트웨어에서, 임금체불 또는 비정상 지급 경험은 지역형 서비스와 IT/소프트웨어, 창작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기반과 웹기반으로 나누어보면, 계약서 작성은

웹기반에서 높게, 근로시간 임의변경이나 임금체불 또는 비정상 지급은 지역기반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거나 근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비공식성’이 지역기반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겠다.

일터에서의 부정적 경험이나 부당한 계약은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노동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는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노동조합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교섭이 어려울 때가 많다.

〈표 3-2-13〉 직종별 노동조합 가입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노조 없음	노조 있으나 가입 대상 아님	노조 있고 가입대상이지만 가입 안 함	사업장 배경 노조 가입	사업장 배경 아닌 노조 가입	
임금노동자 청년	1,616	86.7	4.5	4.1	4.8		
플랫폼 노동 청년	312	80.8	10.9	4.2	3.5	0.6	
지역기반	배달 및 운송	120	79.2	9.2	4.2	5.8	1.7
	지역형 서비스	22	86.4	9.1	4.5	0.0	0.0
	전문서비스	61	91.8	4.9	3.3	0.0	0.0
	소계	203	83.7	7.9	3.9	3.4	1.0
웹기반	IT/소프트웨어	19	73.7	21.1	0.0	5.3	0.0
	전문서비스	36	77.8	11.1	5.6	5.6	0.0
	창작	19	89.5	5.3	5.3	0.0	0.0
	미세업무	33	63.6	27.3	6.1	3.0	0.0
	기타	2	100.0	0.0	0.0	0.0	0.0
	소계	109	75.2	16.5	4.6	3.7	0.0

주: ‘임금노동자 청년’은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정세정 외, 2020) 결과에서 추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view?seq=1644>에서 인출하여 저자가 분석.

실제로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80.8%는 사내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없다고 응답했고, 10.9%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자신은 가입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4.2%)를 논외로 하면 플랫폼 노동자의 91.7%가 단결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부재가 플랫폼 노동자만의 현실은 아니다. 지난해 임금노동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91.2%가 사내에 노동조합이 없거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플랫폼 노동 청년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이들 중 일부(0.6%)는 사업장 배경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업장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장 단위로 노동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라이더유니온’이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같이 “위로부터의 조직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김성혁, 박장현, 이문호, 장진숙, 2019).

〈표 3-2-14〉 직종별 노동조합 가입의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계	가입의사 있음	가입의사 없음	
계(플랫폼 노동 청년)		312	100	63.9	36.1	
직종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120	100	60.0	40.0
		지역형 서비스	22	100	52.6	47.4
		전문서비스	61	100	60.7	39.3
		소계	203	100	59.4	40.6
	웹 기반	IT/소프트웨어	19	100	100.0	0.0
		전문서비스	36	100	82.1	17.9
		창작	19	100	58.8	41.2
		미세업무	33	100	57.1	42.9
		기타	2	100	50.0	50.0
		소계	109	100	73.2	26.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그렇다면 앞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는 있을까? 설문에 응한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약 63.9%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음을 표현했다. 이로써 집단적 이해대변 기구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직종별로 보면 웹기반 플랫폼 노동이 73.2%로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의 59.4%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IT/소프트웨어 영역과 웹기반 전문서비스 영역에 대한 가입의사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플랫폼 노동에 대한 주관적 견해

끝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노동자들에게 플랫폼 일자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복수응답(2개)이 가능하도록 제시된 질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33.8%)’였다. 그다음으로는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서(23.7%)’, ‘안정적인 일자리기 때문에(11.4%)’,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11.3%)’,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10.1%)’, ‘경력을 쌓아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9.3%)’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은 초기 청년(19~24세)보다는 후기 청년(30~34세)에서,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서, 대학 재학/휴학/중퇴보다는 고졸 이하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웹기반 플랫폼보다 지역기반 플랫폼에서 높게 나타났고, 특히 배달 및 운송 플랫폼 노동자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서’ 역시 유사하게 후기

7) 설문지에 1순위와 2순위로 작성토록 질문했다. 그러나 응답을 통계화하여 정리할 때 순위에 특별히 가중치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청년(30~34세), 수도권, 고졸 이하, 배달 및 운송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비록 다른 응답과 크게 차이가 난 것은 아니지만, 세 번째로 많은 이들이 선택한 ‘안정적인 일자리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다소 의외였다. 이런 응답은 주로 지역형서비스, IT/소프트웨어, 웹기반 전문서비스 직종에서 많이 나왔는데, IT/소프트웨어나 웹기반 전문서비스 직종이 상대적으로 숙련 일자리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3-2-15〉 플랫폼 일자리를 선택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중복 선택)	근무 시간 조절	안정적 일자리	생활비 등 수입 필요	전공 및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없음	경력을 쌓아 다른 일자리 이동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기타	
플랫폼 노동 청년		612	23.7	11.4	33.8	11.3	9.3	10.1	0.3	
성별	남성	377	23.3	13.3	33.7	10.6	7.7	11.1	0.3	
	여성	235	24.3	8.5	34.0	12.3	11.9	8.5	0.4	
연령	19~24세	364	21.7	11.3	33.2	12.6	10.2	10.7	0.3	
	25~29세	164	25.0	12.8	34.1	10.4	9.8	7.3	0.6	
	30~34세	84	29.8	9.5	35.7	7.1	4.8	13.1	0.0	
지역	서울	231	26.4	10.4	35.1	9.5	10.0	8.2	0.4	
	경기·인천	183	25.7	11.5	35.0	10.9	7.7	9.3	0.0	
	비수도권	198	18.7	12.6	31.3	13.6	10.1	13.1	0.5	
학력	고졸 이하	101	30.7	11.9	35.6	7.9	5.9	7.9	0.0	
	대학 재학/휴학/중퇴	283	21.2	9.2	32.5	14.1	9.9	12.7	0.4	
	대학 수료 이상	228	23.7	14.0	34.6	9.2	10.1	7.9	0.4	
직 종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234	26.9	8.5	38.5	9.0	5.1	11.5	0.4
		지역형 서비스	44	22.7	15.9	34.1	11.4	13.6	2.3	0.0
		전문서비스	121	21.5	9.1	32.2	17.4	9.1	10.7	0.0
		소계	399	24.8	9.5	36.1	11.8	7.3	10.3	0.3
	웹 기반	IT/소프트웨어	37	18.9	16.2	21.6	16.2	24.3	2.7	0.0
		전문서비스	71	21.1	19.7	32.4	7.0	8.5	11.3	0.0
		창작	37	21.6	13.5	18.9	8.1	18.9	16.2	2.7
		미세업무	64	21.9	10.9	35.9	12.5	9.4	9.4	0.0
		기타	4	50.0	0.0	50.0	0.0	0.0	0.0	0.0
		소계	213	21.6	15.0	29.6	10.3	13.1	9.9	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플랫폼 노동을 선택한 이유에서 이미 드러났지만, 노동시간의 유연성은 플랫폼 노동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이 장점은 달리 생각하면 일거리가 불규칙하게 발생하거나, 일거리의 부족으로 불안정성을 겪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시간 유연성과 관련한 질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3-2-16〉 직종별 노동시간 유연성 비교: 원치 않을 때 일하지 않을 수 있음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그렇다 (n=168)	보통이다 (n=86)	아니다 (n=58)	
계(플랫폼 노동 청년)		312	53.8	27.6	18.6	
직종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120	62.5	20.0	17.5
		지역형 서비스	22	59.1	22.7	18.2
		전문서비스	61	39.3	45.9	14.8
		소계	203	55.2	28.1	16.7
	웹 기반	IT/소프트웨어	19	36.8	31.6	31.6
		전문서비스	36	58.3	33.3	8.3
		창작	19	68.4	15.8	15.8
		미세업무	33	39.4	24.2	36.4
		기타	2	100.0	0.0	0.0
		소계	109	51.4	26.6	22.0

주: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합이고, '아니다'는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합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우선 '원하지 않는 날이나 시간에는 일하지 않을 수 있다'에 대해 플랫폼 노동자의 53.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다만 직종별로 차이는 있었는데, 지역기반 전문서비스나 IT/소프트웨어, 미세업무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적은 편이었다. 이 직종들은 앞서 살펴본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플랫폼 노동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직종이다.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도 갑자기 일감이 주어질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

래하기도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플랫폼 노동자의 21.2%가 긍정적으로 답하여, 원치 않을 때 일할 수 있다는 응답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두 문항으로 볼 때 플랫폼 노동의 노동시간과 관련된 자율성은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고 하겠다. 다만 웹기반 전문서비스 직종의 경우 갑작스러운 일거리 발생에 대해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나 그로 인한 부담이 상당수 생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17〉 직종별 노동시간 유연성 비교: 갑작스러운 일감으로 인한 생활상 부담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그렇다 (n=66)	보통이다 (n=106)	아니다 (n=140)	
계(플랫폼 노동 청년)		312	21.2	34.0	44.9	
직종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120	12.5	33.3	54.2
		지역형 서비스	22	22.7	36.4	40.9
		전문서비스	61	29.5	32.8	37.7
		소계	203	18.7	33.5	47.8
	웹 기반	IT/소프트웨어	19	26.3	47.4	26.3
		전문서비스	36	36.1	25.0	38.9
		창작	19	15.8	36.8	47.4
		미세업무	33	21.2	36.4	42.4
		기타	2	0.0	50.0	50.0
	소계		109	25.7	34.9	39.4

주: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합이고, '아니다'는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합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노동시간 유연성에 대한 질문 중 마지막으로 일감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40.1%가 그렇다고 답해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30.8%)보다 9.3%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배달 및 운송(44.2%)과 웹기반 전문서비스(47.2%) 직종에서 이 같은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시간 유연성에 대한 응답을 종합하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감 수용의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누리고 있지만, 그 자율성의 결과로 일감과 그에 따른 소득의 불안정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겠다.

〈표 3-2-18〉 직종별 노동시간 유연성 비교: 일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그렇다 (n=125)	보통이다 (n=91)	아니다 (n=96)	
계(플랫폼 노동 청년)		312	40.1	29.2	30.8	
직종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120	44.2	28.3	27.5
		지역형 서비스	22	22.7	40.9	36.4
		전문서비스	61	36.1	29.5	34.4
		소계	203	39.4	30.0	30.5
	웹 기반	IT/소프트웨어	19	31.6	31.6	36.8
		전문서비스	36	47.2	30.6	22.2
		창작	19	31.6	36.8	31.6
		미세업무	33	42.4	18.2	39.4
		기타	2	100.0	0.0	0.0
		소계	109	41.3	27.5	31.2

주: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합이고, '아니다'는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합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청년 플랫폼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해 일자리 만족도를 소득, 평균 근로시간, 근무시간(출퇴근시간, 요일 탄력성 등), 장애성, 안정성, 이 5가지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5점 척도에서 '매우 만족'과 '만족'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소득에 대해서는 32.1%, 평균 근로시간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각각 39.1%와 49.4%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장애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는 각각 16.3%와 23.7%만이 긍정적으로 답하여, 일자리의 다른 특성에 비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적었다.

〈표 3-2-19〉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소득 만족도	평균 근로시간 만족도	근무시간 만족도	장래성 만족도	안정성 만족도	
플랫폼 노동 청년		312	32.1	39.1	49.4	16.3	23.7	
성별	남성	193	33.7	37.8	44.0	15.5	24.9	
	여성	119	29.4	41.2	58.0	17.6	21.8	
연령	19~24세	184	35.9	43.5	51.1	15.8	23.9	
	25~29세	84	31.0	35.7	42.9	17.9	26.2	
	30~34세	44	18.2	27.3	54.5	15.9	18.2	
지역	서울	118	32.2	40.7	59.3	13.6	26.3	
	경기·인천	94	27.7	39.4	48.9	20.2	19.1	
	비수도권	100	36.0	37.0	38.0	16.0	25.0	
학력	고졸 이하	52	36.5	44.2	50.0	17.3	17.3	
	대학 재학/휴학/중퇴	142	36.6	40.8	50.7	12.7	19.0	
	대학 수료 이상	118	24.6	34.7	47.5	20.3	32.2	
직종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120	30.0	33.3	45.0	11.7	14.2
		지역형 서비스	22	45.5	40.9	50.0	22.7	22.7
		전문서비스	61	29.5	39.3	45.9	16.4	27.9
		소계	203	31.5	36.0	45.8	14.3	19.2
	웹 기반	IT/소프트웨어	19	57.9	57.9	63.2	26.3	42.1
		전문서비스	36	36.1	44.4	55.6	27.8	36.1
		창작	19	21.1	36.8	52.6	10.5	21.1
		미세업무	33	24.2	42.4	51.5	15.2	30.3
		기타	2	0.0	50.0	100.0	0.0	0.0
		소계	109	33.0	45.0	56.0	20.2	32.1

주: 각 항목의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집단별로 보면 소득 만족도는 남성, 초기 청년, 비수도권, 고졸 이하 및 대학 재학인 경우 더 높게 나왔다. 이는 이들의 실제 소득이 높기보다는 의증임금이 낮아 동일한 -혹은 더 낮은- 소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직종별로는 지역형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일자리 만족도가 높았고, 창작과 미세업무에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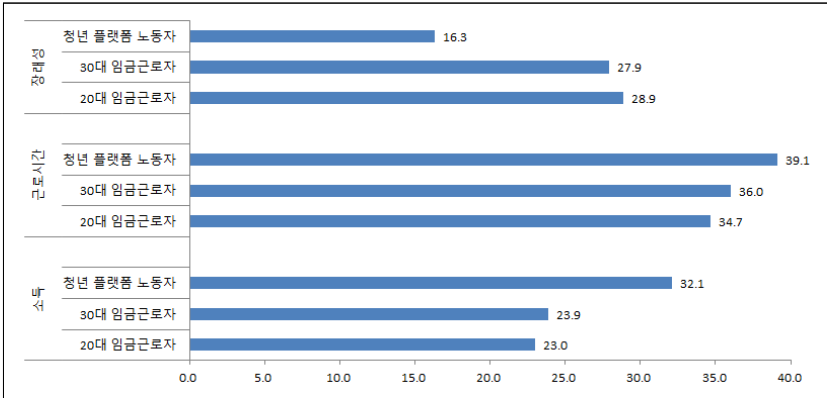
평균 근로시간 만족도는 소득 만족도와 달리 여성과 수도권 청년 사이에서 더 높게 나왔지만, 초기 청년에 비해 후기 청년의 만족도가, 대학 수료 이상 고학력층의 만족도가 낮게 나온 것은 유사했다. 직종별로는 웹기반 플랫폼 노동이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다. 근무시간 만족도 역시 여성과 수도권 청년 사이에서 더 높게 나왔으며 웹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30~34세 후기 청년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차이가 있었다. 장래성과 안정성 만족도에서는 집단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학 수료 이상의 고학력층의 만족도가 높고, IT/소프트웨어와 웹기반 전문서비스 영역의 만족도가 높았다.

사실 IT/소프트웨어와 웹기반 전문서비스 영역은 모든 만족도에서 전체 플랫폼 노동자 평균 대비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반대로 배달 및 운송은 모든 만족도에서 더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렇게 본다면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플랫폼 노동 직종의 숙련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만족도 중 통계청 사회조사와 항목이 겹치는 장래성, 근로시간, 소득을 20대 및 30대 전체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근로시간과 소득 항목에서는 플랫폼 노동자가 전체 20~30대보다 높은 만족도를, 장래성 항목에서는 아주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근로시간의 유연성이라는 플랫폼 노동의 장점은 앞서 살펴본 설문들에서도 확인된 것이지만, 소득 만족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소득이 괜찮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의중임금이 낮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 3-2-1] 20~30대 임금노동자와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

(단위: %)



주: 1. 각 항목의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
 2. 20~30대 임금근로자의 해당 항목 만족도는 통계청(2019)에서 추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통계청(2019). 사회조사. <http://kosis.kr/index/index.do>에서 2020. 9. 30. 인출하여 저자가 작성.

3) 소득과 자산

① 소득

〈표 3-2-20〉은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을 구간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이 35.0%, 200만 원 미만이 66.4%로 2019년 조사한 청년 취업자 월평균 소득(100만 원 미만 9.5%, 200만 원 미만 28.0%)보다 크게 낮다.

다만 이때 노동시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월소득 100만 원 미만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55.6%, 200만 원 미만 플랫폼 노동자의 87.3%가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이다. 대상을 35시간 이상 플랫폼 노동자로 좁혀 보면, 100만 원 미만은 5.7%로 전체 청년 취업자보다 적고, 200만 원 미만은 32.6%로 많다. 반면 월 300만 원 이상 소득은

35시간 이상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 21.2%를 차지해 전체 청년 취업자(22.3%)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체 청년 취업자 중에도 단시간 노동이 있을 것임을 고려하면, 청년 플랫폼 노동의 소득은 전체 청년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2-20〉 플랫폼 노동 청년의 월평균 소득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50만 원 미만	50~100만 원	100~150만 원	150~200만 원	200~300만 원	300만 원 이상	
청년 취업자 전체		1,858	3.5	6.0	4.2	14.3	59.5	22.3	
전일제 청년	임금노동자	1,616	3.9	6.5	4.5	15.8	51.3	18.1	
	비임금노동자	242	0.5	2.1	2.5	6.7	37.8	50.4	
플랫폼 노동 청년		312	16.7	18.3	18.3	13.1	21.8	11.9	
성별	남성	193	11.4	16.6	16.6	14.0	26.9	14.5	
	여성	119	25.2	21.0	21.0	11.8	13.4	7.6	
연령	19~24세	184	19.0	23.4	19.6	17.4	16.3	4.3	
	25~29세	84	13.1	14.3	17.9	6.0	31.0	17.9	
	30~34세	44	13.6	4.5	13.6	9.1	27.3	31.8	
지역	서울	118	15.3	15.3	17.8	14.4	25.4	11.9	
	경기·인천	94	18.1	17.0	20.2	10.6	19.1	14.9	
	비수도권	100	17.0	23.0	17.0	14.0	20.0	9.0	
학력	고졸 이하	52	9.6	9.6	21.2	19.2	25.0	15.4	
	대학 재학/휴학/중퇴	142	21.1	27.5	21.8	12.0	10.6	7.0	
	대학 수료 이상	118	14.4	11.0	12.7	11.9	33.9	16.1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126	30.2	25.4	24.6	7.1	5.6	7.1	
	15~35시간	82	14.6	25.6	17.1	19.5	15.9	7.3	
	35시간 이상	104	1.9	3.8	11.5	15.4	46.2	21.2	
직종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120	14.2	15.8	22.5	10.8	21.7	15.0
		지역형 서비스	22	9.1	31.8	9.1	13.6	22.7	13.6
		전문서비스	61	27.9	14.8	27.9	8.2	19.7	1.6
		소계	203	17.7	17.2	22.7	10.3	21.2	10.8
	웹 기반	IT/소프트웨어	19	10.5	15.8	0.0	36.8	15.8	21.1
		전문서비스	36	8.3	22.2	8.3	11.1	30.6	19.4
		창작	19	36.8	26.3	10.5	10.5	15.8	0.0
		미세업무	33	12.1	18.2	12.1	21.2	24.2	12.1
		기타	2	0.0	0.0	100.0	0.0	0.0	0.0
		소계	109	14.7	20.2	10.1	18.3	22.9	13.8

주: '청년 취업자 전체'는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정세정 외, 2020) 결과에서 추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view?seq=1644>에서 인출하여 저자가 분석.

〈표 3-2-21〉 플랫폼 노동 청년의 본인명의 금융자산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50만 원 미만	50~100만 원	100~150만 원	150~200만 원	200~300만 원	300만 원 이상
주당 15시간 미만	126	30.2	25.4	24.6	7.1	5.6	7.1
주당 15~35 시간	82	14.6	25.6	17.1	19.5	15.9	7.3
주당 35시간 이상	104	1.9	3.8	11.5	15.4	46.2	2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월 총소득을 집단별로 비교하면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비수도권일수록, 노동시간이 적을수록 소득이 적다. 학력의 경우 저소득 플랫폼 노동자 중에는 대학 재학이 고졸 이하보다 오히려 더 많다. 이는 학업과 일을 겸하는 대학 재학 집단의 경우, 15시간 미만의 플랫폼 노동자 비율이 58.7%로 전체 15시간 미만(40.4%) 비율보다 현저히 높다는 데 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직종별로는 지역기반 전문서비스와 창작 분야에 소득이 낮은 플랫폼 노동자가 많다. 그러나 이 두 직종도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이 각각 55.7%와 52.6%로 평균보다 현저히 높다.

이 점을 고려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시간당 소득을 산출하였다. 본 조사에서 노동시간은 주당(2020년 5월 마지막 주)으로, 소득은 월평균(2020년 5월)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시간당 소득은 주당 노동시간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고(주당 노동시간÷7×31), 월소득을 이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 것이다.

〈표 3-2-22〉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 플랫폼 노동자의 40.4%의 시간당 소득은 최저임금 미만이며, 특히 26.0%는 시간당 소득이 최저임금의 80%에도 못 미친다.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는 21.5%에 불과하다.

〈표 3-2-22〉 플랫폼 노동 청년의 시간당 소득분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최저임금 대비 시간당 소득					200% 이상	
			80% 미만	80~100%	100~120%	120~150%	150~200%		
계 (플랫폼 노동 청년)		312	26.0	14.4	14.1	13.1	10.9	21.5	
성별	남성	193	21.8	15.5	14.0	14.5	10.9	23.3	
	여성	119	32.8	12.6	14.3	10.9	10.9	18.5	
연령	19~24세	184	26.1	17.4	13.0	12.0	9.8	21.7	
	25~29세	84	27.4	10.7	17.9	13.1	11.9	19.0	
	30~34세	44	22.7	9.1	11.4	18.2	13.6	25.0	
지역	서울	118	17.8	15.3	18.6	13.6	12.7	22.0	
	경기·인천	94	33.0	16.0	10.6	8.5	11.7	20.2	
	비수도권	100	29.0	12.0	12.0	17.0	8.0	22.0	
학력	고졸 이하	52	19.2	13.5	13.5	5.8	11.5	36.5	
	대학 재학/휴학/중퇴	142	26.8	17.6	13.4	9.9	9.9	22.5	
	대학 수료 이상	118	28.0	11.0	15.3	20.3	11.9	13.6	
직종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126	28.3	13.3	12.5	13.3	8.3	24.2
		지역형 서비스	82	18.2	9.1	13.6	13.6	13.6	31.8
		전문서비스	104	21.3	14.8	18.0	16.4	4.9	24.6
		소계	120	25.1	13.3	14.3	14.3	7.9	25.1
	웹 기반	IT/소프트웨어	22	15.8	26.3	10.5	10.5	15.8	21.1
		전문서비스	61	27.8	16.7	11.1	13.9	16.7	13.9
		창작	203	47.4	10.5	10.5	5.3	10.5	15.8
		미세업무	19	24.2	12.1	21.2	12.1	21.2	9.1
		기타	36	0.0	50.0	0.0	0.0	0.0	50.0
		소계	19	27.5	16.5	13.8	11.0	16.5	1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최저임금 미만의 노동은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경기·인천 거주자일수록, 대학 재학/휴학/중퇴일수록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노동 시간을 통제해도 인구 집단별 소득 분포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특히 학력에서 고졸 이하 집단이 가장 높은 시간당, 총소득수준을 보인 것인 이례적이다.

직종별 시간당 소득 분포 역시 당초의 예상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은 창작 영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형 서비

스에서는 전체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지역형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저숙련 업종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전체 플랫폼 노동에서 지역형 서비스 플랫폼 노동이 주로 50대 이상 여성이 참여하는 가사·돌봄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지역형 서비스 노동의 성격은 다소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시간당 소득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청년 플랫폼 노동 중 상당수는 시간당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또한 직종별 시간당 소득은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따라서 플랫폼 노동의 총소득에는 노동시간을 어느 정도 투입하는지 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자산과 부채

다음으로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자산과 부채를 살펴보았다. 우선 금융 자산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전혀 없는 이들이 19.9%로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나타났다, 100만 원 미만이 38.8%, 500만 원 미만이 65.7%로 나타나 대체로 자산수준이 높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금융자산 분포를 집단별로 비교하면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할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금융자산 100만 원 이하 비중이 높아 자산 보유수준이 낮게 나왔다. 직종별로는 지역기반(42.4%)이 웹기반(32.1%)보다 자산 100만 원 이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배달 및 운송의 경우 절반 이상(50.8%)이 자산 100만 원 이하로 나타났다.

〈표 3-2-23〉 플랫폼 노동 청년의 본인명의 금융자산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자산 없음	자산 있음						
			100만 원 미만	100~500만 원	500~1,000만 원	1,000~3,000만 원	3,000만 원 이상		
계(플랫폼 노동 청년)	312	19.9	18.9	26.9	10.6	13.5	10.3		
성별	남성	193	22.8	19.7	25.4	7.8	14.0	10.4	
	여성	119	15.1	17.6	29.4	15.1	12.6	10.1	
연령	19~24세	184	20.1	22.8	30.4	8.2	12.5	6.0	
	25~29세	84	19.0	14.3	22.6	15.5	14.3	14.3	
	30~34세	44	20.5	11.4	20.5	11.4	15.9	20.5	
지역	서울	118	13.6	15.3	26.3	19.5	13.6	11.9	
	경기·인천	94	28.7	19.1	28.7	7.4	9.6	6.4	
	비수도권	100	19.0	23.0	26.0	3.0	17.0	12.0	
학력	고졸 이하	52	32.7	9.6	34.6	7.7	9.6	5.8	
	대학 재학/휴학/중퇴	142	19.0	29.6	26.8	9.2	11.3	4.2	
	대학 수료 이상	118	15.3	10.2	23.7	13.6	17.8	19.5	
직종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120	27.5	23.3	27.5	8.3	7.5	5.8
		지역형 서비스	22	22.7	18.2	22.7	22.7	4.5	9.1
		전문서비스	61	8.2	18.0	27.9	9.8	24.6	11.5
		소계	203	21.2	21.2	27.1	10.3	12.3	7.9
	웹 기반	IT/소프트웨어	19	31.6	0.0	42.1	5.3	15.8	5.3
		전문서비스	36	8.3	13.9	33.3	16.7	11.1	16.7
		창작	19	21.1	21.1	10.5	15.8	15.8	15.8
		미세업무	33	15.2	21.2	18.2	6.1	21.2	18.2
		기타	2	50.0	0.0	50.0	0.0	0.0	0.0
소계	109	17.4	14.7	26.6	11.0	15.6	1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부채를 살펴보았다. 플랫폼 노동자의 57.4%는 부채가 없었던 반면, 1,0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진 경우는 21.8%로 나타났다. 집단 별로는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를 진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이나 학력에 따른 부채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업종별로도 서로 다른 업종 간 부채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지역형 서비스와 지역기반 전문서비스의 경우 부채를 진 이들의 비중이 더 적었다.

〈표 3-2-24〉 플랫폼 노동 청년의 본인명의 부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부채 없음	부채 있음						
			100만 원 미만	100~500만 원	500~1,000만 원	1,000~3,000만 원	3,000만 원 이상		
계(플랫폼 노동 청년)	312	57.4	5.4	10.6	4.8	11.9	9.9		
성별	남성	193	52.8	5.2	10.4	4.7	16.1	10.9	
	여성	119	64.7	5.9	10.9	5.0	5.0	8.4	
연령	19~24세	184	69.0	7.6	11.4	3.3	6.5	2.2	
	25~29세	84	46.4	2.4	10.7	9.5	17.9	13.1	
	30~34세	44	29.5	2.3	6.8	2.3	22.7	36.4	
지역	서울	118	56.8	4.2	11.9	5.1	11.0	11.0	
	경기·인천	94	55.3	3.2	9.6	4.3	14.9	12.8	
	비수도권	100	60.0	9.0	10.0	5.0	10.0	6.0	
학력	고졸 이하	52	55.8	3.8	11.5	5.8	11.5	11.5	
	대학 재학/휴학/중퇴	142	57.7	8.5	14.8	4.2	9.9	4.9	
	대학 수료 이상	118	57.6	2.5	5.1	5.1	14.4	15.3	
직종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120	52.5	5.0	10.0	5.0	15.8	11.7
		지역형 서비스	22	72.7	4.5	9.1	0.0	0.0	13.6
		전문서비스	61	65.6	11.5	8.2	3.3	8.2	3.3
	소계	203	58.6	6.9	9.4	3.9	11.8	9.4	
	웹 기반	IT/소프트웨어	19	52.6	10.5	5.3	0.0	15.8	15.8
		전문서비스	36	55.6	0.0	11.1	5.6	13.9	13.9
		창작	19	52.6	0.0	26.3	10.5	10.5	0.0
		미세업무	33	57.6	3.0	9.1	9.1	9.1	12.1
		기타	2	50.0	0.0	50.0	0.0	0.0	0.0
	소계	109	55.0	2.8	12.8	6.4	11.9	11.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마지막으로 주거 자산을 살펴보면, 본인명의의 전세나 자가 비율은 각각 9.3%와 4.8%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연령별로 차이가 상당히 큰데, 30세 이상 후기 청년의 경우 본인명의의 전세는 20.5%, 자가는 13.6%로 나타났다.

〈표 3-2-25〉 플랫폼 노동 청년의 본인명의 주택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본인명의 전세 (n=29)	본인명의 자가 (n=15)	본인명의 아님 (n=268)
계(플랫폼 노동 청년)		312	9.3	4.8	85.9
연령	19~24세	184	6.0	3.3	90.8
	25~29세	84	10.7	3.6	85.7
	30~34세	44	20.5	13.6	65.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③ 코로나19와 소득

코로나19는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집단에 따라 다르다. 고용위기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코로나19는 임금노동자보다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비임금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플랫폼 노동자 역시 이에 속한다(이병희, 2020; OECD, 2020a). 한편 연령 집단별로 나누어보면, 청년층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및 고용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다(OECD, 2020b). 이렇게 본다면 청년 플랫폼 노동자는 명백하게 코로나19의 영향에 그대로 노출된 이들이다. 본 조사의 목적이 코로나19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청년층의 소득과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청년 플랫폼 노동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은 25.0%로 나타났다. 이를 비교해볼 만한 연구로는 김승섭·이승윤(2020)의 연구가 있는데, 전국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2020년 6월 중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으로 비례배분하여 조사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실업을 경험한 이들의 비율은 13.2%로 플랫폼 노동 청년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다만 이를 고용형태에 따라 나누어보면 상용직은 4.0%, 임시·일용직은 25.8%, 프리랜서·특수고용은

27.4%로, 청년 플랫폼 노동은 상용직이 아닌 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실업을 경험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26〉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고용 영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일자리를 잃은 경험		소득이 감소한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계(플랫폼 노동 청년)		312	25.0	75.0	49.0	51.0	
성별	남성	193	22.8	77.2	51.3	48.7	
	여성	119	28.6	71.4	45.4	54.6	
연령	19~24세	184	20.7	79.3	44.6	55.4	
	25~29세	84	31.0	69.0	57.1	42.9	
	30~34세	44	31.8	68.2	52.3	47.7	
지역	서울	118	28.8	71.2	45.8	54.2	
	경기·인천	94	23.4	76.6	51.1	48.9	
	비수도권	100	22.0	78.0	51.0	49.0	
학력	고졸 이하	52	17.3	82.7	59.6	40.4	
	대학 재학/휴학/중퇴	142	24.6	75.4	43.0	57.0	
	대학 수료 이상	118	28.8	71.2	51.7	48.3	
직종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120	24.2	75.8	54.2	45.8
		지역형 서비스	22	36.4	63.6	36.4	63.6
		전문서비스	61	26.2	73.8	47.5	52.5
		소계	203	26.1	73.9	50.2	49.8
	웹 기반	IT/소프트웨어	19	31.6	68.4	52.6	47.4
		전문서비스	36	13.9	86.1	44.4	55.6
		창작	19	21.1	78.9	36.8	63.2
		미세업무	33	27.3	72.7	51.5	48.5
		기타	2	50.0	50.0	50.0	50.0
		소계	109	22.9	77.1	46.8	53.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그다음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의 유무 질문에는 49.0%가 그렇다고 대답해 그 비율이 실직한 이들의 두 배에 이르렀다. 플랫폼 노동은 일

감(task)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고용과 실업이 1과 0으로 존재한다기보다 소득의 감소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김승섭·이승윤(2020)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해당 연구에서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한 이들은 조사대상자의 32.6%였으며, 비상용직은 47.7%,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은 67.7%로 나타났다. 청년 플랫폼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에 비해 소득이 크게 감소했지만,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에 비해서는 소득감소가 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업 경험은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직종별로는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이 웹기반 플랫폼 노동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웹기반 전문서비스, 창작, 배달 및 운송에서는 실업 비율이 낮은 편이었고, 지역형 서비스와 IT/소프트웨어에서는 실업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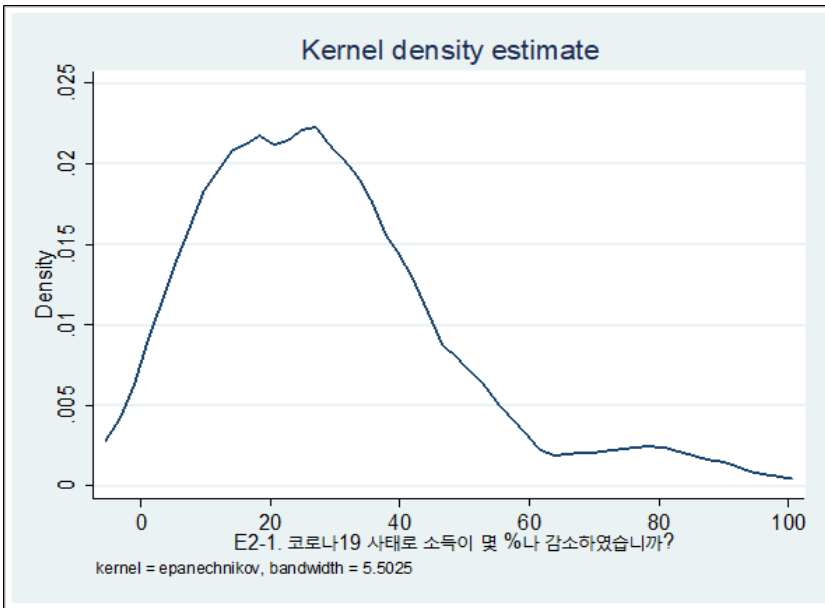
소득감소 경험은 실업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남성일수록 초기 청년보다는 25세 이상 청년에서, 서울보다는 비서울권에서, 대학 재학/휴학/중퇴보다는 고졸 이하와 대학 수료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가 웹기반 플랫폼 노동자보다 소득감소를 더 많이 경험했으며, 배달 및 운송과 IT/소프트웨어 직종에서 소득감소가 더 많았다.

그렇다면 소득감소를 경험한 이들의 소득은 어느 정도 감소했을까? 소득감소를 경험한 응답자(153명)의 감소율을 바탕으로 커널밀도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을 한 결과 다음 [그림 3-2-2]와 같이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것은 15~35% 정도의 감소였으며, 낮은 분포를 보였지만 60~90% 가까이 감소한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드러난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상황이 연구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소득의 단절’이 아닌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경제위기를 맞아 ‘실업’이 아

년 ‘소득감소’를 경험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사회보장이 ‘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부분실업’ 상태에 놓인 개인에게 노동역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 3-2-2]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비율의 커널밀도추정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4) 사회보장

실업을 보호하든 소득감소를 보호하든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려면 청년 플랫폼 노동자가 사회보장 범주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부 ‘특례’를 제외하면 임금노동자를 주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특고 혹은 ‘모호한 고용’(이주

희, 정성진, 안미영, 유은경, 2015)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장지연 외, 2020).

이를 파악하기 위해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하였다. <표 3-2-27>은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4대보험 가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입률은 국민연금(사업장 가입 기준) 22.1%, 건강보험 98.1%(직장, 지역, 피부양자 형태의 가입을 모두 포함), 고용보험 31.1%, 산재보험 38.1%로, 4대보험 가입률 모두 청년 취업자 전체 대비 현저히 낮다.

<표 3-2-27>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	가입	가입	가입	
청년 취업자 전체		1,874	67.9	91.7	64.0	63.3	
계(플랫폼 노동 청년)		312	22.1	98.1	31.1	38.1	
직종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120	15.8	98.3	13.3	31.7
		지역형 서비스	22	22.7	90.9	45.5	45.5
		전문서비스	61	18.0	100.0	29.5	36.1
		소계	203	17.2	98.0	21.7	34.5
	웹 기반	IT/소프트웨어	19	52.6	100.0	73.7	73.7
		전문서비스	36	30.6	100.0	44.4	38.9
		창작	19	5.3	94.7	31.6	21.1
		미세업무	33	36.4	97.0	51.5	51.5
		기타	2	0.0	100.0	0.0	0.0
		소계	109	31.2	98.2	48.6	45.0

주: '청년 취업자 전체는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정세정 외, 2020) 결과에서 추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view?seq=1644>에서 인출하여 저자가 분석.

가입 현황을 직종별로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웹기반 플랫폼 노동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보다 높으며, 지역형 서비스,

IT/소프트웨어, 웹기반 미세업무의 가입률이 높다. 반면 배달 및 운송, 지역기반 전문서비스, 창작 직종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정도가 매우 낮다.

청년 플랫폼 노동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주된 원인은 이 제도들이 원칙적으로 비임금노동자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형태로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의 주요 배달 및 운송 업종을 포괄하고 있긴 하지만, 전속성 기준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게다가 업종별 가입방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를 통해 산재보험에 등록 가능한 특고 숫자는 추정되는 전체 특고 숫자 대비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국회에산정책처, 2019, pp.22-23).

이 제도들과 달리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비임금노동자 역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그 고용상 지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노동자와 유사한 자격(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기도 하고 자영업자와 유사한 자격(지역가입자)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입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실질적 사각지대의 문제가 크다.

〈표 3-2-28〉는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가입 현황을 상세하게 분류한 것이다. 청년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형태로 가입한 이들이 49%이며,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여부를 모르는 이들이 51%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는 가입한 이들 중 26.8%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료 미납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인데,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이들을 위한 납부예외제도가 국민연금 기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납부예외까지 고려하

면 실제로 국민연금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이들은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35.9%에 불과하다. 물론 국민연금 급여수급권의 발생 및 급여수준의 결정은 노동생애 전체의 보험료 납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서 조사한 가입률·납부율의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표 3-2-28〉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상세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가입			모름/ 미가입	가입자 중 미납	
			사업장	지역	임의			
계(플랫폼 노동 청년)		312	22.1	22.4	4.5	51.0	26.8	
성별	남성	193	22.3	21.8	4.1	51.8	22.6	
	여성	119	21.8	23.5	5.0	49.6	33.3	
연령	19~24세	184	16.8	13.6	5.4	64.1	27.3	
	25~29세	84	29.8	32.1	3.6	34.5	27.3	
	30~34세	44	29.5	40.9	2.3	27.3	25.0	
지역	서울	118	24.6	22.9	2.5	50.0	30.5	
	경기·인천	94	20.2	23.4	3.2	53.2	27.3	
	비수도권	100	21.0	21.0	8.0	50.0	22.0	
학력	고졸 이하	118	11.5	28.8	3.8	55.8	17.4	
	대학 재학/휴학/중퇴	94	9.9	12.7	4.9	72.5	33.3	
	대학 수료 이상	100	41.5	31.4	4.2	22.9	26.4	
직종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120	15.8	20.0	5.0	59.2	30.6
		지역형 서비스	22	22.7	13.6	4.5	59.1	44.4
		전문서비스	61	18.0	19.7	8.2	54.1	21.4
		소계	203	17.2	19.2	5.9	57.6	29.1
	웹 기반	IT/소프트웨어	19	52.6	21.1	0.0	26.3	21.4
		전문서비스	36	30.6	30.6	0.0	38.9	9.1
		창작	19	5.3	36.8	0.0	57.9	37.5
		미세업무	33	36.4	27.3	6.1	30.3	34.8
		기타	2	0.0	0.0	0.0	100.0	-
		소계	109	31.2	28.4	1.8	38.5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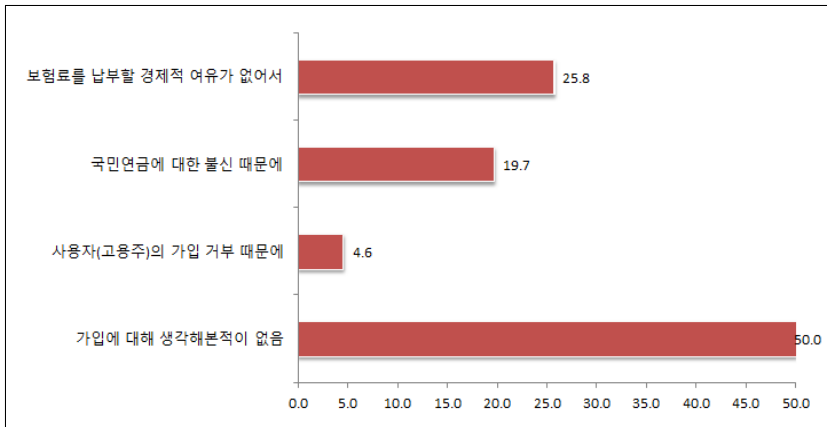
주: “가입자 중 미납”의 모수는 가입자이고, 자수는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들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집단별로 구분해서 보면 국민연금 미가입 및 미납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많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학업과 일을 겸하고 있거나 학력이 낮을수록 더 많았다. 직종별로는 웹기반 플랫폼 노동보다는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의 국민연금 미가입 및 미납이 많았는데, 웹기반 중 창작의 경우는 지역기반 못지않게 미가입률과 미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미가입 사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가장 많은 응답은 ‘가입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50.0%)’였으며,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25.8%)’,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19.7%)’가 그 뒤를 이었다. ‘사용자(고용주)의 가입 거부 때문에(4.6%)’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이렇다 할 ‘사용자’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청년 비임금노동자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과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림 3-2-3] 청년 플랫폼 노동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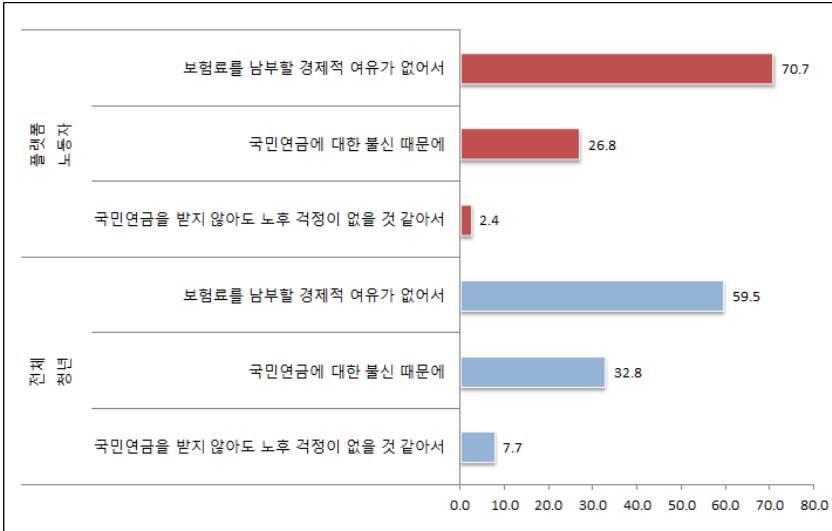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미납자의 미납 사유를 확인해보았으며, 이를 청년층 조사에 응답한 청년들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응답 순위(경제적 여유 부족 > 국민연금 불신 >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걱정 없음) 자체는 유사했지만,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70.7%로 청년 일반에 비해 11.2%포인트나 높았다. 현재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그 대상자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근로관계가 아닌 형태로 일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그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4] 국민연금 미납자의 미납 사유

(단위: %)



주: '전체 청년'은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정세정 외, 2020) 결과에서 추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view?seq=1644>에서 인출하여 저자가 분석.

5) 교육훈련

고용과 소득 불안정성이 높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숙련개발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개 노동시장에서 일감 단위의 거래에 종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높여 숙련을 인정받는 것의 중요성이 일반적인 임금노동자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남재욱, 김봄이, 크리스티나히슬, 2020). 특히 청년층의 경우 남은 노동생애가 길고, 플랫폼 노동을 경력 축적의 수단으로 고려하거나 다른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표 3-2-29〉는 현재 청년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업능력개발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직업훈련이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들의 비율은 52.6%로 청년 플랫폼 노동자 전체의 절반이 조금 넘는다. 직업훈련 유형별로 보면, 회사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은 경우가 33%, 개인이 부담한 경우가 25%, OJT 형태의 교육이 25%, 국가 지원제도를 활용한 경우가 18.9%로 나타났다.

교육훈련 참여 경험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청년층에서 더 높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았으며,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보다는 웹기반 플랫폼 노동에서 더 높았다. 회사가 지원하는 훈련 참여 역시 웹기반 플랫폼 노동에서 더 많이 이루어졌는데, IT/소프트웨어, 웹기반 전문서비스, 미세업무에서 특히 높았다. 반면,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에서는 지역기반 전문서비스 영역을 제외하면 회사가 지원하는 교육훈련 경험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OJT를 제외한 교육훈련의 경우 모두 직종별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인데, 웹기반 플랫폼 노동에 비해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의 교육훈련이 낮은 편이었다.

〈표 3-2-29〉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교육훈련(학교 외)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회사가 지원하는 교육훈련	개인이 부담하는 교육훈련	동료나 작업감독 현장훈련 (OJT)	국가 지원제도 활용훈련	합계 (중복 제거)	
계(플랫폼 노동 청년)		312	33.0	25.0	25.0	18.9	52.6	
성별	남성	193	34.7	26.9	25.4	23.8	53.4	
	여성	119	30.3	21.8	24.4	10.9	51.3	
연령	19~24세	184	35.3	20.1	28.3	16.3	51.6	
	25~29세	84	35.7	32.1	25.0	28.6	58.3	
	30~34세	44	18.2	31.8	11.4	11.4	45.5	
지역	서울	118	37.3	24.6	24.6	17.8	53.4	
	경기·인천	94	27.7	23.4	20.2	18.1	48.9	
	비수도권	100	33.0	27.0	30.0	21.0	55.0	
학력	고졸 이하	52	30.8	21.2	17.3	26.9	50.0	
	대학 재학/휴학/중퇴	142	29.6	15.5	23.2	9.2	46.5	
	대학 수료 이상	118	38.1	38.1	30.5	27.1	61.0	
직종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120	23.3	15.8	23.3	14.2	44.2
		지역형 서비스	22	27.3	9.1	13.6	13.6	36.4
		전문서비스	61	39.3	18.0	27.9	9.8	52.5
		소계	203	28.6	15.8	23.6	12.8	45.8
	웹 기반	IT/소프트웨어	19	68.4	47.4	31.6	36.8	73.7
		전문서비스	36	44.4	41.7	36.1	33.3	72.2
		창작	19	10.5	36.8	10.5	15.8	36.8
		미세업무	33	42.4	45.5	27.3	33.3	72.7
		기타	2	0.0	0.0	0.0	0.0	0.0
		소계	109	41.3	42.2	27.5	30.3	65.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향후 교육훈련에 대한 희망을 묻는 질문에는 74.7%가 희망한다고 응답하여 상당히 높은 선호를 나타냈다. 이는 전체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남재욱, 김봄이, 크리스티나히슬(2020)의 약 60~63% 선호도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⁸⁾

8) 남재욱, 김봄이, 크리스티나히슬(2020)의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희망을 '현재 일과 관련된 것'과 '다른 분야'로 나누어 설문했으며, 비용지원이 이루어져도 훈련에 참여할 생각이 없

〈표 3-2-30〉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향후 교육훈련(학교 외) 의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회사가 지원하는 교육훈련	개인이 부담하는 교육훈련	동료나 작업감독 현장훈련 (OJT)	국가 지원제도 활용훈련	합계 (중복 제거)	
계(플랫폼 노동 청년)		312	65.1	45.2	48.4	59.3	74.7	
성별	남성	193	63.2	42.0	47.7	56.0	71.5	
	여성	119	68.1	50.4	49.6	64.7	79.8	
연령	19~24세	184	63.0	44.0	49.5	56.0	72.3	
	25~29세	84	73.8	47.6	50.0	67.9	82.1	
	30~34세	44	56.8	45.5	40.9	56.8	70.5	
지역	서울	118	65.3	47.5	50.0	58.5	77.1	
	경기·인천	94	64.9	44.7	46.8	61.7	74.5	
	비수도권	100	65.0	43.0	48.0	58.0	72.0	
학력	고졸 이하	52	57.7	40.4	40.4	53.8	69.2	
	대학 재학/휴학/중퇴	142	62.0	36.6	45.1	51.4	69.0	
	대학 수료 이상	118	72.0	57.6	55.9	71.2	83.9	
직종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120	61.7	36.7	44.2	54.2	70.0
		지역형 서비스	22	68.2	36.4	45.5	54.5	77.3
		전문서비스	61	59.0	42.6	42.6	54.1	72.1
		소계	203	61.6	38.4	43.8	54.2	71.4
	웹 기반	IT/소프트웨어	19	68.4	63.2	52.6	63.2	68.4
		전문서비스	36	83.3	50.0	69.4	75.0	88.9
		창작	19	47.4	52.6	31.6	63.2	68.4
		미세업무	33	72.7	69.7	57.6	66.7	84.8
		기타	2	100.0	0.0	100.0	100.0	100.0
		소계	109	71.6	57.8	56.9	68.8	80.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집단별로 나누어보면 여성일수록, 연령이 25~29세 구간일수록,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훈련 참여 희망이 높다. 업종별로 보면 웹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교육훈련 희망이 더 높지만, 창작이나 IT/

다는 응답이 전자에 대해서는 40.3%, 후자에 대해서는 37.7%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직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유형별로 보면 회사지원 교육훈련과 국가지원 교육훈련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이는 1차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3-2-31〉 향후 희망하는 교육훈련의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특정 직종 관련 직업훈련	창업교육	어학	교양	
계(플랫폼 노동 청년)		312	45.1	20.2	29.6	5.2	
성별	남성	193	44.2	24.6	25.4	5.8	
	여성	119	46.3	13.7	35.8	4.2	
연령	19~24세	184	43.6	21.1	27.8	7.5	
	25~29세	84	44.9	18.8	33.3	2.9	
	30~34세	44	51.6	19.4	29.0	0.0	
지역	서울	118	42.9	19.8	30.8	6.6	
	경기·인천	94	51.4	21.4	24.3	2.9	
	비수도권	100	41.7	19.4	33.3	5.6	
학력	고졸 이하	52	47.2	13.9	30.6	8.3	
	대학 재학/휴학/중퇴	142	39.8	25.5	28.6	6.1	
	대학 수료 이상	118	49.5	17.2	30.3	3.0	
직종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120	45.2	26.2	22.6	6.0
		지역형 서비스	22	52.9	11.8	23.5	11.8
		전문서비스	61	40.9	18.2	38.6	2.3
		소계	203	44.8	22.1	27.6	5.5
	웹 기반	IT/소프트웨어	19	53.8	23.1	15.4	7.7
		전문서비스	36	56.3	12.5	31.3	0.0
		창작	19	46.2	23.1	15.4	15.4
		미세업무	33	32.1	14.3	50.0	3.6
		기타	2	0.0	50.0	50.0	0.0
		소계	109	45.5	17.0	33.0	4.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한편, 어떤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정 직종 관련 훈련에 가장 높은 선호를 나타냈으며, 어학, 창업, 교양이 그 뒤를 이었다. 특정 직종과 관련된 교육훈련 선호는 연령이 높을수록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학업과 훈련을 겸하고 있는 대학 재학/휴학/중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일반적 숙련'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끝으로 일과 교육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함으로써 교육과 숙련의 일치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청년층 조사에서 파악된 전체 청년 취업자의 경우 교육과 숙련이 일치한다는 응답은 71.9%로 나타났고, 일의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17.5%로, 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10.5%로 나타났다. 그러나 육과 숙련이 일치한다는 응답은 41.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일의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8.7%에 불과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들 다수가 현재의 일이 숙련에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숙련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일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이는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나 일을 통한 숙련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의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일수록 더 많이 나왔다. 세부 직종별로는 앞서 저숙련 직종으로 분류했던 배달 및 운송, 지역형 서비스, 미세업무에서 일의 수준이 교육수준보다 낮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표 3-2-32〉 자신의 교육수준 대비 현재 주된 일의 수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비슷하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청년 취업자 전체		1,874	1.5	16.0	71.9	9.0	1.5	
계(플랫폼 노동 청년)		312	16.0	34.3	41.0	7.1	1.6	
성별	남성	193	18.7	32.1	39.9	7.3	2.1	
	여성	119	11.8	37.8	42.9	6.7	0.8	
연령	19~24세	184	13.0	32.1	47.8	4.9	2.2	
	25~29세	84	11.9	42.9	29.8	14.3	1.2	
	30~34세	44	36.4	27.3	34.1	2.3	0.0	
지역	서울	118	12.7	33.1	44.1	6.8	3.4	
	경기·인천	94	18.1	35.1	40.4	5.3	1.1	
	비수도권	100	18.0	35.0	38.0	9.0	0.0	
학력	고졸 이하	52	13.5	28.8	44.2	9.6	3.8	
	대학 재학/휴학/중퇴	142	15.5	35.2	43.7	4.2	1.4	
	대학 수료 이상	118	17.8	35.6	36.4	9.3	0.8	
직종	지역 기반	배달 및 운송	120	21.7	42.5	30.0	2.5	3.3
		지역형 서비스	22	18.2	36.4	40.9	4.5	0.0
		전문서비스	61	16.4	24.6	47.5	9.8	1.6
		소계	203	19.7	36.5	36.5	4.9	2.5
	웹 기반	IT/소프트웨어	19	5.3	5.3	63.2	26.3	0.0
		전문서비스	36	2.8	27.8	61.1	8.3	0.0
		창작	19	10.5	42.1	36.8	10.5	0.0
		미세업무	33	15.2	39.4	39.4	6.1	0.0
		기타	2	50.0	50.0	0.0	0.0	0.0
		소계	109	9.2	30.3	49.5	11.0	0.0

주: '청년 취업자 전체'는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정세정 외, 2020) 결과에서 추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view?seq=1644>에서 인출하여 저자가 분석.

3. 소결

이상과 같이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상황을 노동, 소득과 자산, 사회보장, 직업교육훈련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플랫폼 노동’은 다양한 업종과 직종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노동자에 관한 논의를 상당한 직종별·숙련수준별 다양성을 포괄하는 논의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 점은 청년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숙련수준과 직종에 따라 다양한 노동이 플랫폼 노동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들의 노동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청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 플랫폼 노동이 다른 유형의 플랫폼 노동과 구분되는 측면은 우선 겸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자유로운 시간 결정’이며, 따라서 다른 인구 집단에서도 부업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청년의 경우 다른 일과 겸업하는 경우뿐 아니라, 학업과 겸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업과 플랫폼 노동을 겸하는 경우, 본격적인 경제활동으로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는 경우와 비교해보면 일에 대한 인식이나 의증임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문제를 경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Schmid(1995; 1998)의 이행 노동시장 정책(Transitional Labour Market)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대 노동시장에서 개인은 노동 외에도 학습, 돌봄, 휴식 등 다양한 역할을 행해야 하며, 따라서 노동시장정책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사회에서도 향후 “본격적인 경제활동은 아니지만, 부업이나 생산적 취미의 성격으로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관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어야 한다.

점업이 많다는 청년 플랫폼 노동의 특성은 단시간 노동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이 자발적 노동시간 결정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청년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시간 결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동시에 시간 관련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일감을 얻지 못할까봐 우려하고 있었다. 청년들에게 플랫폼 노동은 자유로운 노동시간 결정에 기반하여 다양한 활동을 결합할 수 있는 일자리지만, 생활의 기반으로 삼기에는 불안한 노동이기도 하다. 바로 이 같은 불안정을 해결하는 것이 청년 플랫폼 노동 문제의 핵심일 것이다.

청년 플랫폼 노동자는 일의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느끼지만, 산재보험 같은 최소한의 보호막이 있어도 그 밖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권’이라는 측면에서도 근로계약이 아닌 형태로 일하다 보니 노동법적 보호막 밖에 있다.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이런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지만, 청년 플랫폼 노동자들의 접근성은 낮다.

총소득으로 보나 시간당 소득으로 보나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은 낮은 편이다. 다소 뜻밖이었던 점은 시간당 소득이 직종별 숙련수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는 대부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이 주로 노동시간에 있다는 점과, IT/소프트웨어와 같은 업종에서 장시간 노동이 일반적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최장 노동시간 제한이나 최저임금제도처럼 노동시간과 소득을 관리하는 제도가 플랫폼 노동 영역에는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하겠다.

코로나19는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특고와 프리랜서가 그렇듯이 대부분 사회보장제도 밖에 있어서 소득감소에 대한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다만 한 가지 이들의 문제는 '실업'이기도 하지만, '소득감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존의 고용보험에 포괄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 플랫폼 노동자들이 '청년'으로서 보이는 또 다른 특성은 이들의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에 있다. 교육훈련 관련 문항이 제한적이어서 종합적 분석은 어렵지만, 청년 플랫폼 노동자들은 현재의 참여 정도와 비교해보고 다른 플랫폼 노동자와 비교해봐도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 참여 욕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청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호한 고용이라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과 겸업 노동이라는 청년의 특성이 맞물리는 청년 플랫폼 노동에서는 기본적인 노동조건, 즉 산업안전,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이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은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지적한 것처럼, 순수하게 독립적 노동이 아닌 종속적 성격을 띤 노동이다. 따라서 비록 전형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이 종속적 관계 안에 있는 취업자의 상황을 규율하기 위한 사회적 규범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플랫폼 노동 맥락에서는 두 가지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 가지는 사실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 오분류(misclassification)된 근로자 지위를 되찾아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근로자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하는 이들을 위한 포괄적 보호의 규범을 세우는 일이다(김철식 외, 2019; 남재욱, 김봄이, 크리스티나히슬, 2020). 이를 통해 종속적 노동자 성격이 강한 플랫폼 노동자는 그에 맞게, 프리랜서 성격이 강한 플랫폼

노동자는 그에 맞게 보호해야 한다.

둘째,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이 그렇지만 청년 플랫폼 노동 역시 ‘불안정’의 문제가 크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은 사회보장이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배제된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그 한 예이고, 산재보험 역시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비임금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현재 비임금 노동자를 명목상으로만 포괄한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 보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저소득 취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제도에 비임금노동자를 실질적으로 포괄시키기 위해서는 적용범위뿐 아니라 급여도 변화시켜야 한다. 고용보험을 예로 들면 ‘실업’과 ‘고용’의 경계가 모호하고, 소득의 ‘단절’ 이전에 ‘감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보험’의 성격을 띠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 플랫폼 노동자가 청년 일반에 비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영역 중 하나가 ‘장래성’이다. 청년층은 ‘이행하는 집단’이며, 진입장벽이 낮은 플랫폼 경제에서의 일은 청년들에게 종종 이행기 노동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을 이행기 노동으로 활용하는 이들은 ‘당장 소득이 필요한 청년’인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진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직업교육 훈련 제공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이 -설사 법적 고용주가 아니라고 해도- 노무를 수취하여 사업하는 사업주로서 일정한 역할을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플랫폼 노동이 직종에 따른 차이가 큰 만큼, 각 직종 안에서의 집

단적 이해대변은 서로 다른 노동환경에 맞는 구체적인 규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 내 이해대변을 위한 제도는 아직까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차적으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나 일자리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면서, 그 합의 결과가 실질적인 제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여, 종속적으로 일하는 취업자의 집단적 이해대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청년 플랫폼 노동자뿐 아니라 점차 증가하는 ‘모호한 고용’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제3절 청년 시간제 노동자

1. 들어가며

초단시간 노동과 단시간 노동은 시간제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이행기 특성상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아 하나의 집단으로 묶을 수도 있고, 주휴수당이나 사회보장제도 가입조건에 차이가 있어 세부 집단별로 살펴볼 필요도 있다. 시간제 노동의 노동시간은 개인의 선택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주휴수당 보장과 사회보장제도 가입 차원에서 생각하면, 초단시간 노동의 경우 단시간 노동에 비해 일자리 쪼개기와 같은 이슈를 더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또한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고려하면, 초단시간 노동과 단시간 노동을 선택하게 되는 조건, 상황, 특성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규정한 정의에 따라 초단시간 노동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노동은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구분하며, 서술의 간명성을 위해 한 절에서 청년 초단시간 노동과 청년 단시간 노동을 다루되 필요에 따라 분석 결과는 초단시간과 단시간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여기서는 이들의 고용, 소득, 사회보장, 교육훈련 등을 살펴본다.

2. 분석 결과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앞서 설명했듯, 여기서는 초단시간과 단시간 노동에 종사하되, 플랫폼 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례에 한정하여 청년층 노동을 분석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시간제 노동 청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초단시간 노동과 단시간 노동 모두 초기 청년에서 그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초기 청년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해될 필요가 있다. 성별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으며, 학력의 경우 대학 재학/휴학/수료인 청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3-3-1〉 시간제 노동자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1

(단위: 명, %)

구분		계 (n=617)	초단시간 노동 (n=304)	단시간 노동 (n=313)
		비율(%)	비율(%)	비율(%)
계		100	100	100
성별	남성	52.4	54.6	50.2
	여성	47.7	45.4	49.8
	계	100	100	100
연령	19~24세	82.2	82.2	82.1
	25~29세	12.6	11.8	13.4

구분		계 (n=617)	초단시간 노동 (n=304)	단시간 노동 (n=313)
		비율(%)	비율(%)	비율(%)
학력	30~34세	5.2	5.9	4.5
	계	100	100	100
	고졸 이하	10.5	12.5	8.6
	대학 재학/휴학/수료	65.5	63.8	67.1
	대졸 이상	24.0	23.7	24.3
지역	계	100	100	100
	서울	27.9	29.0	26.8
	경기	28.4	26.0	30.7
	비수도권	43.8	45.1	42.5
	계	100	100	100

주: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가 100이 넘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거주형태와 가구주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에 응답한 초단시간 노동 청년의 31.6%와 단시간 노동 청년의 23.6%는 혼자 살고 있었으며,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라고 응답한 청년은 초단시간 노동에서는 13.5%, 단시간 노동에서는 11.8%였다. 조사에서 가구주의 정의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였으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자취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주가 아닌 것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한편, 초단시간 노동 청년의 72.4%, 단시간 노동 청년의 82.4%가 기본적인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한다고 응답하였다. 재학 중인 청년의 비율을 고려할 때, 시간제 노동 청년들 대다수는 가구형태나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비를 직접 마련했던 것이다.

〈표 3-3-2〉 시간제 노동자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2

(단위: 명, %)

구분		계 (n=617)	초단시간 노동 (n=304)	단시간 노동 (n=313)
		비율	비율	비율
계		100	100	100
거주 형태	혼자 살고 있음	27.6	31.6	23.6
	혼자 살고 있지 않음	72.5	68.4	76.4
	계	100	100	100
가구주 여부	해당	12.6	13.5	11.8
	비해당	87.4	86.5	88.2
	계	100	100	100
기본적 생활비 마련	스스로 마련	77.5	72.4	82.4
	스스로 마련하지 않음	22.5	27.6	17.6
	계	100	100	100

주: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가 100이 넘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1) 코로나19의 경험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소득의 감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간제 노동 청년의 약 40%가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그 수준은 약 30%에 달해 전체 소득 대비 감소율이 적지 않았다. 또한 시간제 노동 청년의 23.7%는 코로나19로 일자리 상실 경험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표 3-3-3〉 코로나19의 경험

(단위: 만 원, %)

구분		계 (n=617)	초단시간 노동 (n=304)	단시간 노동 (n=313)
코로나19 전과 후의 소득감소 여부	예(n=213)	42.6	41.8	43.5
	아니오	57.4	58.2	56.6
	계	100	100	100
코로나19 이전의 월평균 소득(만 원) (n=213)		138.4	134.0	142.6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비율(%)		30.6	31.9	29.4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상실 경험	예	23.7	23.7	23.6
	아니오	76.3	76.3	76.4
	계	100	100	100

주: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가 100이 넘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2) 고용

① 노동 권리와 산업안전

현재의 주된 일과 관련된 경험과 관련하여 정세정 외(2020)의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조사에 응답한 초단시간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는 노동환경, 안전, 인권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혼자 일하면서 괴롭거나 무서운 감정을 느꼈다는 응답을 보면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 경험이 있는 청년(n=2,440)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인 6.51%에 비해 초단시간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는 12.89%포인트, 단시간 노동자는 12.99%포인트가 높게 나타났으며, 인격적 무시나 감정적 폭력을 보고한 비율의 경우 청년 취업자 전체를 분석한 결과인 14.08%에 비해 초단시간 노동자는 14.52%포인트, 11.52%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에

대한 응답 또한 초단시간 노동 청년의 경우, 취업한 전체 청년의 7.73%에 비해 18.87%포인트가 높았고 단시간 노동 청년의 경우에는 21.97%포인트가 높았다.

그 외 문항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시간제 노동을 하는 청년들은 밤 10시~6시 사이에 야간 근로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나이나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분석 결과는 권력의 열세에 위치한 초기 청년들의 부정적 일 경험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일터에서의 위험은 협상력이 낮은 초기 청년과 같은 취약 집단에 가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자면 학교에서 일로의 이행 과정 또는 진입 초기에서의 일 경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청년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즉, 청년들의 일 경험과 사회보장제도 가입 논의를 포함하는 일 정책은 졸업 후 첫번째 일이 아닌 생애 과정에서의 첫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분석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표 3-3-4〉 일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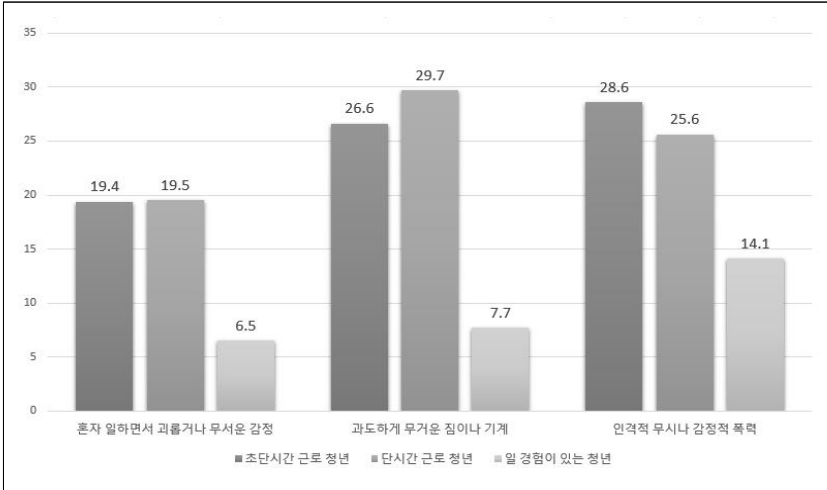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계 (n=617)	초단시간 노동 (n=304)	단시간 노동 (n=313)
	비율	비율	비율
계	100	100	100
혼자 일하면서 괴롭거나 무서운 감정을 느낌	19.5	19.4	19.5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를 든 경험	28.2	26.6	29.7
인격적 무시나 감정적 폭력	27.1	28.6	25.6
야간 근로	37.0	30.3	43.5
나이나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	18.5	16.1	20.8

주: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가 100이 넘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3-3-1] 초단시간, 단시간 노동 청년과 취업 청년의 일과 관련된 경험 비교

(단위: %)



주: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가 100이 넘을 수 있음.
 자료: 초단시간 노동 청년, 단시간 노동 청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 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일 경험이 있는 청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청년층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view?seq=1644>에서 인출하여 현재 취업했거나 현재 취업 중은 아니지만 일 경험이 있는 청년이 응답한 내용을 저자가 분석.

<표 3-3-5>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일과 관련한 청년의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계	경험 있음 (%)	경험 없음 (%)
혼자서 일하는 피로움과 무서움	2,440	100	6.51	93.49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	2,440	100	7.73	92.27
인격적 무시나 감정적 폭력	2,440	100	14.08	85.92
야간 근로로 인한 피로	2,440	100	12.06	87.9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view?seq=1644>에서 인출하여 저자가 분석.

산업안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른 청년 취업자 1,874명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63.3%인 반면(정세정 외, 2020), 초단시간 노동 청년과 단시간 노동 청년은 각각 25.0%와 30.0%만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하여 비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 상해보험 가입률 또한 초단시간 노동과 단시간 노동 모두 20%에 머물렀다.

산재보험 가입자를 제외한 시간제 노동 청년 447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초단시간 노동 청년과 단시간 노동 청년은 상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 여부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과 상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시간제 노동을 하는 청년의 30~40%는 가입 여부를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산재보험 직장 가입률을 우리 자료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일을 하고 있는 청년 10명 중 3명 이상이 산업안전 보장과 관련된 산재 및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거처가는 일의 특성에 따르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처하게 될 위험에 대한 미인지가 제도적 사각지대와 실질적 사각지대를 야기하는 원인이 됨에 따라 미인지를 개인의 책임으로 볼 것인지, 규제를 통해 접근할 것인지, 또 다른 정책 전달체계를 통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표 3-3-6〉 산업안전(1)

(단위: 명, %)

구분		계 (n=617)	초단시간 노동 (n=304)	단시간 노동 (n=313)
		비율	비율	비율
계		100	100	100
산재보험 가입 여부 (n=617)	예	27.6	25.0	30.0
	아니오	33.9	33.9	33.9
	가입 여부를 잘 모름	38.6	41.1	36.1
	계	100	100	100
상해보험 가입 여부 (n=617)	예	25.5	22.0	28.8
	아니오	33.9	32.6	35.1
	가입 여부를 잘 모름	40.7	45.4	36.1
	계	100	100	100

주: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가 100이 넘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3-3-7〉 산업안전(2)

(단위: 명, %)

구분		계 (n=447)	초단시간 노동 (n=228)	단시간 노동 (n=219)
		비율	비율	비율
산재보험 가입자를 제외한 청년(n=447)의 상해보험 가입 여부	예	3.6	3.1	4.1
	아니오	45.4	42.5	48.4
	가입 여부를 잘 모름	51.0	54.4	47.5
	계	100	100	100

주: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가 100이 넘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업무상 상해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앞서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여부 자체에 대한 미인지에 있어 어떠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며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초단시간 노동 청년과 단시간 노동 청년의 업무상 상해 경험은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분석 결과에 비해 약 15%포인트 높은 17.1%와 17.6%로 나타났다.

〈표 3-3-8〉 산업안전(3)

(단위: 명, %)

구분		계 (n=617)	초단시간 노동 (n=304)	단시간 노동 (n=313)
		비율	비율	비율
업무상 상해 경험	있다	17.3	17.1	17.6
	없다	82.7	82.9	82.4
	계	100	100	100
업무상 상해 경험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여부	예	9.4	9.6	9.1
	아니오	90.7	90.4	90.9
	계	100	100	100

주: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가 100이 넘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3-3-9〉 일과 관련한 청년의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산업재해	2,440	100	0.85	99.15
업무상 상해	2,440	100	2.37	97.63

주: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일과 관련한 경험은 조사시점(2019. 5.)을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 경험이 있었던 청년 2,440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view?seq=1644>에서 인출하여 저자가 분석.

② 노동권의 보호

사업장을 배경으로 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청년은 초단시간과 단시간 노동 모두 1.6%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취업 청년 4.8%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한 청년 중 사업장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청년은 초단시간이 1.0%, 단시간 노동이 2.6%였다. 초단시간 노동 청년의 62.5%와 단시간 노동 청년의 57.3%는 사업장과 관계없이 권리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표 3-3-10〉 노동조합 관련

(단위: 명, %)

구분		계 (n=617)	초단시간 노동 (n=304)	단시간 노동 (n=313)
		비율	비율	비율
계		100	100	100
노동조합 가입 상태	노동조합 없음	89.8	92.1	87.5
	노동조합은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4.2	2.6	5.8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음	2.6	2.6	2.6
	사업장을 배경으로 하는 노조에 가입했음	1.6	1.6	1.6
	사업장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노조에 가입했음 (예: 알바노조, 라이더유니온)	1.8	1.0	2.6
사업장과 관계없이 권리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의사	예	59.9	62.5	57.3
	아니오	40.1	37.5	42.7

주: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가 100이 넘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초단시간 노동을 하는 청년의 64.5%와 단시간 노동을 하는 청년의 80.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고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 외의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질문한 결과, 초단시간 노동 청년과 단시간 노동 청년의 5.6%와 9.7%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이들의 40% 이상은 근로시간 임의변경 경험이 있었으며, 10명 중 1명 이상이 임금체불 또는 비정상 지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11〉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지급 관련 경험

(단위: 명, %)

구분		계 (n=617)	초단시간 노동 (n=304)	단시간 노동 (n=313)
		비율	비율	비율
계		100	100	100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해당	72.5	64.5	80.2
	비해당	27.6	35.5	19.8
	계	100	100	100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초단시간: 108, 단시간: 62) 근로계약서 외의 계약서	해당	7.1	5.6	9.7
	비해당	92.9	94.4	90.3
	계	100	100	100
근로시간 임의변경 경험 (예: 알바뛰기)	해당	43.0	41.5	44.4
	비해당	57.1	58.6	55.6
	계	100	100	100
임금체불 또는 비정상 지급 경험	해당	14.8	12.8	16.6
	비해당	85.3	87.2	83.4
	계	100	100	100

주: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가 100이 넘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통계청 사회조사(2019)와 소득(임금), 근로시간, 장래성 결과를 비교할 경우, 소득과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높고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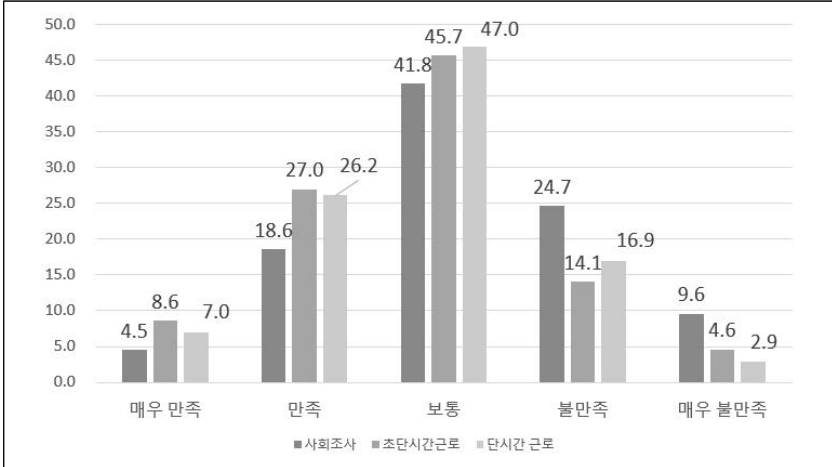
〈표 3-3-12〉 일자리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계 (n=617)	초단시간 노동 (n=304)	단시간 노동 (n=313)	
		비율	비율	비율	
계		100	100	100	
일자리 만족도	소득	매우 만족	7.8	8.6	7.0
		만족	26.6	27.0	26.2
		보통	46.4	45.7	47.0
		불만족	15.6	14.1	16.9
		매우 불만족	3.7	4.6	2.9
		계	100	100	100
	평균 근로시간	매우 만족	7.6	9.2	6.1
		만족	36.8	34.5	39.0
		보통	41.0	41.1	40.9
		불만족	13.1	12.8	13.4
		매우 불만족	1.5	2.3	0.6
		계	100	100	100
	근무시간 (출퇴근시간, 요일 탄력성 등)	매우 만족	11.4	11.2	11.5
		만족	40.4	41.1	39.6
		보통	33.7	33.9	33.6
		불만족	13.1	11.2	15.0
		매우 불만족	1.5	2.6	0.3
		계	100	100	100
	장래성	매우 만족	3.6	3.6	3.5
		만족	9.9	9.5	10.2
		보통	37.1	42.8	31.6
		불만족	33.7	30.3	37.1
		매우 불만족	15.7	13.8	17.6
		계	100	100	100
	안정성	매우 만족	6.7	6.3	7.0
만족		20.4	18.1	22.7	
보통		42.6	46.4	39.0	
불만족		22.4	21.4	23.3	
매우 불만족		7.9	7.9	8.0	
계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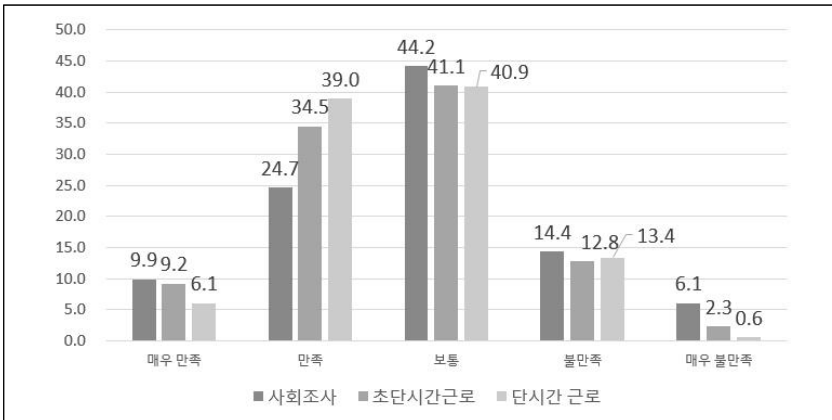
주: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가 100이 넘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3-3-2] 전체 임금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을 하는 청년들의 소득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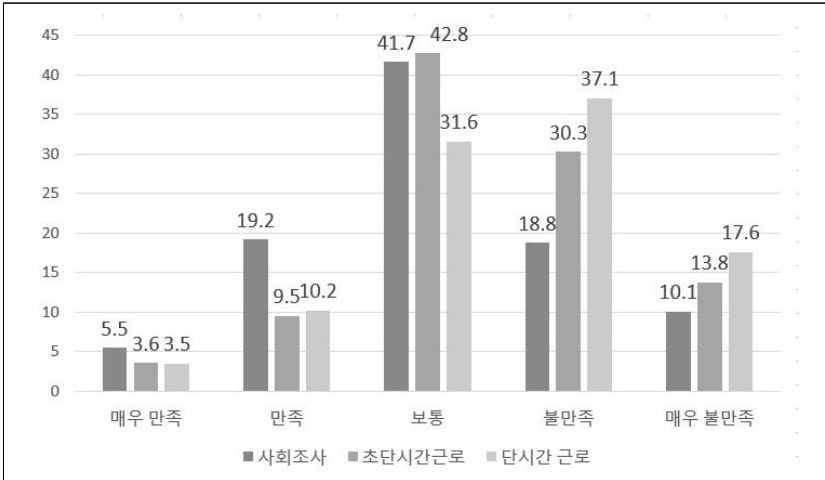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통계청(2019). 사회조사 결과를 가져와서 도식화함.

[그림 3-3-3] 전체 임금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을 하는 청년들의 근로시간 만족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통계청(2019). 사회조사 결과를 가져와서 도식화함.

[그림 3-3-4] 전체 임금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을 하는 청년들의 장래성 만족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통계청(2019). 사회조사 결과를 가져와서 도식화함.

조사에 응답한 청년들은 현재의 일자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20% 정도였다. 결국 청년들은 경제적·시간적 이유로 시간제 노동을 선택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사적 이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시간제 노동에 있어 청년층의 증가 경향(정성미, 2019)과 이들이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점은 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생계 단위가 가족에서 개인 단위로 변해가는 과도기에 대한 포착이라 볼 여지도 있다.

〈표 3-3-13〉 현재의 주된 일자리를 선택한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분	계 (n=617)	초단시간 노동 (n=304)	단시간 노동 (n=313)
	비율	비율	비율
계	100	100	100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서	23.8	24.7	23.0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8.3	8.2	8.3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55.3	52.6	57.8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3.7	5.9	1.6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창업 포함)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4.7	4.9	4.5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4.2	3.6	4.8

주: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가 100이 넘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3) 소득

우리 조사에서 소득은 개인 단위로 파악하였다. 즉, 다음 분석 결과에서 한 달 총소득은 조사시점 기준 한 달 동안 벌어들인 개인의 총소득을 의미한다. 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제외하고 조사시점 기준 근로소득과 정부·가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

또한 이 조사는 본인명의로 된 금융자산(예·적금, 주식, 펀드 등)과 본인명의로 계약된 전세나 자가 보유 여부 및 보증금과 현 시가를 조사하였으며, 본인명의로 된 가계부채(학자금, 주택자금,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 청년의 5월 한 달 총소득은 84만 원, 단시간 노동 청년의 총소득은 102만 원 수준이었으며, 본인명의로 된 금융자산은 약 400만 원 수준이었다.

혼자 살고 있으며 가구주에 해당하는 시간제 노동 청년의 한 달 총소득은 101.6만 원, 혼자 살고 있지만 가구주에는 해당하지 않는 청년의 한 달 총소득은 94.7만 원이었다. 참고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청년 독립 1인 가구의 월 총소득 평균은 243.3만 원이었으며, 청년 비독립 1인의 월 총소득 평균은 139.5만 원이었다(정세정 외, 2020). 또한 2020년 기준 중위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1,757,194원이며, 기준 중위 소득 30%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527,158원이다(보건복지부, 2020).

시간제로 일하는 청년들의 본인명의로 된 금융자산은 초단시간 노동 청년이 379.5만 원, 단시간 노동 청년이 441.8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가계부채 평균은 초단시간 노동 청년이 844.7만 원, 단시간 노동 청년이 612.1만 원이었다. 또한 부채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을 때는 그 수준이 더욱 증가하였다.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청년 독립 1인의 총재산은 4,987만 원, 총부채는 638만 원이었으며, 청년 비독립 1인의 총재산은 3,282만 원, 총부채는 274만 원이었다. 청년 1인 가구의 부채는 부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경우, 크게 증가한다.

즉, 시간제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소득과 자산, 부채 모두에 있어 그 액수가 크지는 않았지만, 소득 대비 부채와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높게 나타나 생활의 불안정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주가 아닌 청년의 경우 가구주인 청년에 비해 부채수준이 낮기는 했지만 우리 조사의 총소득이 사적 이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불안정성 또한 가볍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표 3-3-14〉 소득, 부채, 자산

(단위: 만 원, %)

구분	계 (n=617)	초단시간 노동 (n=304)	단시간 노동 (n=313)
5월 한 달 총소득(만 원)	93.4	84.3	102.2
본인명의로 된 금융자산(만 원) (예·적금, 주식, 펀드 등)	411.1	379.5	441.8
본인명의로 계약된 주택 유무	있음(%)	3.4	4.0
	전세보증금(만 원)	13352.9	13300.0
	자가(시가) (만 원)	33750.0	42500.0
본인명의로의 가계부채 (학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등)	726.7	844.7	612.1
부채가 있는 경우로 한정(n=198)했을 때 본인명의로의 가계부채 (학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등)	2264.6	2647.5	1897.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3-3-15〉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분석 결과: 청년 가구 재산과 부채

(단위: 만 원)

가구 형태	구분	총소득	총재산	총부채	부채가 있는 경우로 한정 경우, 총부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청년 형태	청년 독립 1인	243.3	4,987.3	638.9	3,105.1
	청년 비독립 1인	139.5	3,282.8	274.9	2,023.7

자료: 정세정 외.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p.139, p.141, p.143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표 3-3-16〉 소득

구분	(단위: 만 원)					
	전체(n=617)		초단시간 노동(n=304)		단시간 노동(n=313)	
	혼자 살고 있으며 가구주 (n=54)	혼자 살고 있으며 비가구주 (n=116)	혼자 살고 있으며 가구주 (n=30)	혼자 살고 있으며 비가구주 (n=66)	혼자 살고 있으며 가구주 (n=24)	혼자 살고 있으며 비가구주 (n=50)
5월 한 달 총소득(만 원)	93.4	101.6	94.7	94.8	102.2	94.5
본인명의로 된 금융자산(만 원) (예: 적금, 주식, 펀드 등)	411.1	1108.0	167.9	216.5	441.8	103.9
본인명의로의 가계부채 (학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등)	726.7	1523.9	283.7	333.7	612.1	217.7
부채가 있는 경우로 한정(n=198)했을 때 본인명의로의 가계부채 (학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등)	2264.6	2938.9	914.1	1101.1	1897.0	68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4) 사회보장

초단시간 노동 청년과 단시간 노동 청년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상태는 청년 취업자에 비해 크게 낮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절반 정도에 머물렀으며, 가입자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시간제 노동 청년들 대다수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절반은 가입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으며, 30% 정도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제도 불신에 대한 응답 비율은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정세정 외, 2020)에서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임금노동자의 미가입 사유 중 제도 불신이라 응답한 비율과 유사하다.

〈표 3-3-17〉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 상태

(단위: %)

구분		계 (n=617)	초단시간 노동 (n=304)	단시간 노동 (n=313)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특수직역연금 포함)	7.8	1.3	14.1
	지역가입자	20.6	26.3	15.0
	임의가입자	2.6	1.0	4.2
	가입하지 않음	25.9	26.0	25.9
	가입 여부를 잘 모름	43.1	45.4	40.9
	계	100	100	100
고용보험	예	33.1	29.6	36.4
	아니오	33.2	35.5	31.0
	가입 여부를 잘 모름	33.7	34.9	32.6
건강보험	가입	96.8	97.7	95.9
	의료급여 수급자	2.9	2.0	3.8
	가입 여부를 잘 모름	0.3	0.3	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3-3-18〉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

(단위: 명, %)

		계	초단시간 노동	단시간 노동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	납부하고 있음	55.50	56.32	54.81
	납부하지 않고 있음	44.50	43.68	45.19
	계	100	100	100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	(자발적)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83.53	86.84	80.85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예: 기금 운용, 수급 불확실)	15.29	13.16	17.02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노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1.18	0.00	2.13
	계	100	100	100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자발적)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34.38	30.38	34.38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예: 기금 운용, 수급 불확실)	10.00	11.39	10.00
	사용자(고용주)의 가입 거부 때문에	7.50	6.33	7.50
	가입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48.13	51.90	48.13
	계	100	100	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3-3-19〉 임금노동자의 일자리 특징별 국민연금 미가입 사유

(단위: 명, %)

	경제적 여유가 없음	제도 불신	고용주의 가입 거부
계	57.13	10.63	32.24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가입률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정세정 외.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p.111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표 3-3-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분석 결과: 청년 취업자의 사회보험 사업장 기반 가입률

(단위: 명, %)

	사례 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	직장 가입	가입	가입	
계	1,874	67.85	68.16	63.97	63.32	
성별	남성	1,017	68.31	68.88	64.98	64.07
	여성	857	67.30	67.31	62.77	62.42
연령	만 19~24세	430	52.17	52.34	50.08	48.48
	만 25~29세	674	73.17	74.17	69.36	68.41
	만 30~34세	769	71.97	71.74	67.00	67.15
지역	서울	416	74.92	74.85	71.80	70.52
	경기	526	67.55	68.22	65.86	64.80
	인천	107	67.47	68.80	61.79	59.03
	비수도권	826	64.54	64.67	59.10	59.29
학력	고졸 이하	504	60.44	59.79	59.22	60.24
	대학 재학/휴학/수료	201	32.88	33.93	31.35	30.59
	대졸 이상	1,169	77.08	77.66	71.63	70.28
가구 형태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248	69.23	69.10	62.25	62.92
	청년 부부 가구	162	73.29	75.91	71.55	72.39
	청년 독립 1인 가구	340	70.99	70.73	64.90	64.73
	청년 독립 기타 가구	80	60.89	56.58	53.71	54.60
	청년 비독립 1인 가구	43	51.20	55.46	50.25	51.51
	청년 비독립 기타 가구	13	41.33	43.54	43.54	41.33
	부모 동거 청년 가구	940	67.29	67.71	64.36	62.84
	부모 동거 청년 기타 가구	23	62.76	62.76	62.76	62.76
	기타 가구	26	67.10	67.10	72.40	67.10

주: 1. 취업자 중 각 사회보험에 직장가입자(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가입한 사람의 비율을 제시함.
 2. 음영으로 표시한 셀은 가입률에서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는 집단과 그 특성임.
 3.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가입률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정세정 외.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p.103에서 발췌.

5) 교육 · 훈련

시간제 노동 청년 중 회사가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 교육을 받았다고 보고한 청년들은 20%였으며, 시간제 노동 청년 중 11.67%는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훈련,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동료나 작업감독들이 담당하는 현장 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한 청년은 18.31%였으며, 국가 지원제도를 활용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았다고 보고한 청년은 10.70%였다.

〈표 3-3-21〉 지난 1년간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

(단위: 명, %)

		계 (n=617)	초단시간 노동 (n=304)	단시간 노동 (n=313)
회사가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 교육	있음	20.91	20.07	21.73
	없음	39.87	38.16	41.53
	해당 없음	39.22	41.78	36.74
개인적으로(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는 훈련, 교육	있음	11.67	13.49	9.90
	없음	48.46	45.72	51.12
	해당 없음	39.87	40.79	38.98
동료나 작업감독자들이 담당하는 현장 훈련(OJT)	있음	18.31	16.45	20.13
	없음	39.38	37.83	40.89
	해당 없음	42.30	45.72	38.98
국가 지원제도(취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를 활용한 훈련, 교육	있음	10.70	8.88	12.46
	없음	45.71	46.38	45.05
	해당 없음	43.60	44.74	42.4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의 의사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회사가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 교육, 국가 지원제도를 활용한 훈련과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청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받고 싶은 영역의 교육훈련으로는 특정 직종과 관련된 훈련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어학, 창업교육, 교양이 그 뒤를 이었다.

〈표 3-3-22〉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의사

(단위: 명, %)

		계 (n=617)	초단시간 노동 (n=304)	단시간 노동 (n=313)
회사가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 교육	있음	55.1	53.3	56.9
	없음	23.7	25.0	22.4
	해당 없음	21.2	21.7	20.8
개인적으로(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는 훈련, 교육	있음	32.6	28.3	36.7
	없음	45.4	48.4	42.5
	해당 없음	22.0	23.4	20.8
동료나 작업감동자들이 담당하는 현장 훈련(OJT)	있음	41.5	40.8	42.2
	없음	33.4	34.2	32.6
	해당 없음	25.1	25.0	25.2
국가 지원제도(취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를 활용한 훈련, 교육	있음	57.5	54.6	60.4
	없음	22.2	23.7	20.8
	해당 없음	20.3	21.7	18.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3-3-23〉 받고 싶은 영역의 교육훈련

(단위: 명, %)

	계 (n=617)	초단시간 노동 (n=304)	단시간 노동 (n=313)
특정 직종과 관련된 훈련	52.93	53.27	52.63
창업교육	14.75	16.58	13.16
어학	26.70	25.13	28.07
교양	5.62	5.03	6.14
계	100	100	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3. 소결

조사에 응답한 시간제 노동 청년들의 40%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험이 있고, 평균 30%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간제 노동 청년의 23.7%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상실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일자리 상실과 소득감소는 청년들의 시간제 노동이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도소매, 숙박·음식업, 판매, 서비스직에서 주로 이뤄지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시간제 노동 청년들은 일자리에서의 부정적인 경험 비율뿐 아니라 업무상 상해 경험 비율이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일 경험이 있는 청년에 비해 높았으나 산재보험과 상해보험 가입률은 낮은 편이었고, 10명 중 3명 이상은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도 5.6%와 9.7%에 불과했다.

사업장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의사를 분석한 결과는 일하는 청년들의 협상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미 사회에는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등 사업장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청년 노동조합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것과 연대를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의 시간제 노동은 기존의 법과 제도상에서 보호받기 어려웠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청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호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청년 연대체가 연대체로서 기능하며,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하는 청년들이 이러한 연대체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찾을 필요도 있다. 즉 일하는 청년들이 집단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시간제 노동 청년들은 소득과 자산, 부채 모두에 있어 그 액수가 크지는 않았으며, 소득 대비 부채 비중과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은 높게 나타나 생활의 불안정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구주가 아닌 청년의 경우 가구주인 청년에 비해 부채수준이 낮기는 했지만 우리 조사의 총소득이 사적 이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불안정성 또한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조사에 응답한 시간제로 일하는 청년들의 절반 정도가 교육훈련을 받고 싶어 했으며, 특정 직종에 대한 훈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실에서는 발생 여부와 지속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의 등장으로 이행기 청년의 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의 어려움이 가중된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 또한 강구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최종 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테면 관계부처합동(2020)으로 발표된 한국형 뉴딜을 살펴보면 청년에 대한 지원 내용은 IT 직무 활용, 일 경험 지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이공계 졸업생 매칭,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또

한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확충, 민간 일자리 인건비와 보조금 지급, 민간 일자리로 진입한 청년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연계시키는 계획이 담겨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b). 그러나 실제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경험, 생활은 정부의 청년정책이 보다 청년의 삶에 밀착할 것을, 현실을 반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미래사회에 현재와 같은 출퇴근, 노동시간 특성을 가진 일자리 수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한다면, 사회보장과 교육훈련 관련 정책에 개입할 때 범위와 수준 면에서 폭넓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시간제 노동 청년들이 보고한 일과 생활 실태는 비단 청년에 국한되지 않으며 권력의 열세에 처한 개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도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일터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안전이, 이행기에 가장 요구되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이 되기도 하다.

제4절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의사 분석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이 절의 연구 목적은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이하 '사회보험') 가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서 있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설계에 있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년 세대, 예컨대 15~29세 임금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30대나 40대의 가입률에 비해 현저히 낮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5~29세 임금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2.7%로 30대의 85.2%, 40대의 79.4%보다 낮다. 고용보험도 유사하다. 15~29세 임금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3.0%로, 30대의 84.6%, 40대의 78.2%보다 최소 5%포인트에서 최대 11.6%포인트가 낮았다.⁹⁾

이처럼 청년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다른 연령대의 노동자보다 낮은 이유는 청년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와 일자리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즉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 노동자들은 30~40대 노동자들에 비해 직업적 안정성이 낮은 임시 일용직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사회보험에 가입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과거에도 존재했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청년층이 겪는 이러한 불이익이 청년층의 이행기 특성에 기인한 일시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항구적 성격의 것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현재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청년 세대가 앞으로 계속해서 직면하게 될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¹⁰⁾

물론 정부가 그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해 완전히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

9) 자료의 출처는 통계청. (2020d). 연령별 사회보험 가입률 데이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G02\(2020년 11월 11일 접속\)](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G02(2020년 11월 11일 접속)).

10) 예컨대 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운영(2017)은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이 기존의 임금노동자 중심의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2년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비록 중단되었지만 경기도의 경우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올리기 위해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첫 달 치 보험료를 지급해주는 사업을 기획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눈에 띄일 만한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 연구는 이처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그중에서도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주려고 시도된 것이다. 이 이슈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의 사회보험 가입의사나 가입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그 이유는 데이터 부재에 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모두 의무가입이 원칙이다. 따라서 청년 세대의 자발적 결정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사례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와 시간제 노동자로 구성된 청년 불안정 노동자 929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게 가상(hypothetical) 상황하에서 사회보험 가입의사를 질문한 뒤 이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될 데이터는 929명의 청년 불안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사회보험 부분, 더 정확히 말하면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관계된 부분이다. 이 조사에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의사뿐 아니라 현재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자료, 그리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식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요인을 분석한 매우 드문 연구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규혜(2020)는 청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 현황과 가입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정세정 외(2020)은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가장 최근 자료를 정리해 보여주고 있다. 정세정 외(2020)에 따르면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 월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하, 시간제 근로에서 더 두드러지게 낮다.” 김도균(2019)은 생애 최초 경기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설계하기 위해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다만 김도균의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들은 구체적인 가상 상황에서 응답자의 예견되는 행동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반영물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국민연금에 대한 의무가입제도에 대한 예외 조항이라는 점에서 이를 통해 임의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결정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결정 요인을 조사한 류재린과 오유진(2020)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주로 이용하는 집단은 전업주부들인데 이들의 연금 가입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인은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과 보험료 납부 여력이었다. 이승렬(2011)은 임의가입이 가능한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의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연령이 높고 금융순자산이 높을수록 산재보험 가입의향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혜진(2016)은 중·고령자들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수준이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책적 대안으로 흔히 거론되는 사회보험료 보조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일련의 연구들이 있다(유경준, 최바울, 2014; 김도형, 2016; 성재민, 2017).

이러한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가장 큰 차이는 연구 대상과 방법론에 있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 중 대상을 청년 불안정 노동자로만 한정하여 이들 집단의 사회보험 가입의사를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주근로시간 35시간 미만 혹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가장 크게 노출되는 집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회안전망에서는 배제되어 있다(김규혜 2020). 그 결과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장지연, 박찬임, 2019).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재정지원의 규모와 효과적 설계 방법을 탐색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이 연구가 또 기여한 바는 사회보험 가입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는 비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 검토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선행된 연구들에서 주목한 것은 사회보험 가입에 있어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피보험자의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소득이나 일자리의 산업적 분포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었다. 신현태, 김은지, 김상현(2018)은 정보 교류의 활성화 정도 및 준거에 대한 민감도 같은 요인들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혀주었다. 이런 연구는 사회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의 제공이나 정부나 제도에 대한 신뢰의 제고와 같은 비재정적 개입이 사회보험 가입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가 공헌한 바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그 결정을 분석하는 방식으

로 이들의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려 했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연구에서 가상의 데이터를 사용한 이유는 현행법상 청년 불안정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현실 데이터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상의 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가려내려는 접근방법은,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부족하여 다른 연구 영역에도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2. 주요 변수 설명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내용과 여기서 추출해낸 변수는 이미 앞 장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결정에 관련된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3-4-1>로 정리함).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로는 사회보험 가입의사와 가입을 결정할 경우 본인이 부담할 용의가 있는 사회보험료의 크기이다. 사회보험 가입의사 변수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가입의사가 있으면 1, 없으면 0의 값을 갖는다. 또 다른 변수인 사회보험료 크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의 경우 응답자에게 “당신이 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정책이 도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당신은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법정 보험료 중 얼마까지 낼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것이다. 다만 분석 시 응답한 절대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법정 보험료 전체를 본인이 다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경우(즉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도 사회보험 가입의사가 있는 경우) 100의 값을 주

고, 반대로 전혀 부담할 의사가 없는 경우(즉 정부가 금액 전부를 지원해 주어야 사회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0의 값을 주도록 다시 코딩하였다.

이 변수들은 사회보험(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요인들이다. 기존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이를 연령, 성별, 교육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가입자의 소득 및 자산이나 종사상의 지위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연령과 교육수준, 거주지역과 같은 인적 특성과 소득과 자산과, 근로형태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관심 있게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 온 다음과 같은 제도적 요인들, 예컨대 노조 가입의사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사회보험 가입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지원 외에 ‘넛지’와 같은 형태로 사회보험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의 비재정적 개입방식이 응답자의 사회보험 가입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표 3-4-1〉 주요 변수 설명

변수		정의
총 속 변수	국민연금 가입 여부 의사	국민연금 가입의사가 없으면 0, 있으면 1의 값
	고용보험 가입 여부 의사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없으면 0, 있으면 1의 값
	국민연금 보험료 지 불용의	법정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이 낼 의사가 있는 비율(0~100)
	고용보험료 지불용 의	법정 고용보험료 중 본인이 낼 의사가 있는 비율(0~100)
한 달 소득		5월 총소득(세전소득)
주된 일자리 소득		주된 일자리 소득(세전소득)
본인명의 금융자산		본인명의 은행 예·적금, 주식/펀드(부채를 고려하지 않음)
본인명의 가계부채		본인명의 학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임대인인 경우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등
불안정 노동형태		1. 초단시간(주당 노동시간 15시간 미만) 2. 단시간(주당 노동시간 15~35시간 미만) 3. 플랫폼
혼인		1. 미혼 2. 기혼(이혼 포함)
학력		최종 학력 기준으로 1. 고등학교 이하 2. 전문대 이하 3. 4년제 대학 이상(졸업 여부 상관없음)
성별		남녀
연령		1. 20대 초반(20~24세) 2. 20대 중반(24~29세) 3. 30대 초반(30~34세)
정부 신뢰 여부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 3. 대체로 신뢰한다. 4. 강하게 신뢰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 여부		현재 주된 일자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면 2, 아니면 1, 가입 여부를 잘 모르면 0
현재 고용보험 가입 여부		현재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2, 아니면 1, 가입 여부를 잘 모르면 0
노조 가입의사		앞으로 노조 가입의사가 있으면 1, 아니면 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3. 기본 회귀식

이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 회귀식 (A)는 다음과 같다.

$$\text{사회보험가입의사}_i = \beta_1 \text{경제적상황(소득, 자산)}_i + \beta_2 \text{근로형태}_i + \beta_3 \text{개인특성}_i \\ (\text{성별, 교육수준}) + \beta_4 \text{노동시장경험}_i (\text{사회보험경험및해고경험등})_i + \beta_5 \text{제도신뢰}_i + \epsilon_i \\ \text{-- (A)}$$

회귀식 (A)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청년 불안정 노동자 i 가 사회 보험에 가입할지를 결정함에 있어 i 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 대표적으로 그의 현재 소득이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소득은 두 가지 각기 다른 통로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소득수준이다. 정세정 외(2020)가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청년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들 집단이 국민연금 미가입 사유로 가장 많이 답한 항목은 “경제적 여유가 없음”이었다. 이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이 더 높았다. 따라서 청년 불안정 노동자 역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소득이 개인의 사회보험 가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통로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근로유형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용 근로자와 임시·일용 근로자 사이에는 사회보험 가입률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격차는 이들 사이의 보수에 차이가 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결과일 수도 있다. 예컨대 애초부터 정규직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청년들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을 선택했을 수 있다. 그러면 소득이 낮아서 당연히 사회보험 가입의사도 낮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낮은 사회보험 가입의사는 소득 때문이 아니다.

분석 시 후자의 가능성을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보험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을 별도로 회귀식에 추가하여 통제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식별전략(identification strategy)을 이용하여 소득과 사회보험 가입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이다. 전자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 개인의 노동 유형을 고려할 것이다. 즉 노동 유형에 따라 사회보험의 가입의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 외 성별이나 교육수준, 혼인 여부와 같은 응답자 개인의 특성이 사회보험 가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추가 변수만으로 소득이 사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순수하게 추출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최근에 미시계량경제학에서 관측할 수 없는 변수(unobserved factor)로 인해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언급한 적절한 식별 전략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적절한 식별 전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의 소득과 사회보험 가입 결정요인에 대한 결과를 강한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노동자를 둘러싼 어떤 요인이 사회보험 가입의사와 관련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소득 변수는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스스로 답한 한 달 소득과 주된 일자리 소득이다. 소득 외의 경제적 요인으로 사회보험 가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개인이 보유한 자산이다. 사회보험과 개인의 자산은 모두 개인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충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충격을 덜어주는 완충재(bumper)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응답자가 충분한 수준의 저축과 같은 현금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

과거 사회보험에 가입했던 경험은 앞으로의 사회보험 가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현재의 일자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받는 혜택이 커지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과거에 실업이나 급격한 소득감소를 경험한 경우 그런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실업보험의 필요성에 공감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러한 경향이 존재한다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가능한 한 초기 단계에서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반적 신뢰가 사회보험 가입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정세정 외(2020)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가입 사유로 '제도 불신'을 꼽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았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상용직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비해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회보험 가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보험 가입 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기대치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식 (B)를 이용하였다.

$$\begin{aligned} \text{보험료지불의향}_i = & \beta_1 \text{경제적상황(소득, 자산)}_i + \beta_2 \text{근로형태}_i + \beta_3 \text{개인특성}_i \\ & (\text{성별, 교육수준}) + \beta_4 \text{노동시장경험}_i (\text{사회보험경험및해고경험등})_i + \beta_5 \text{제도신뢰}_i \\ & + \beta_6 \text{가입의사}_i + \epsilon_i \text{-- (B)} \end{aligned}$$

회귀식 (B)의 종속 변수는 응답자의 '사회보험료 지불의향'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불의향은 가상의 상황에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

기 위해 본인이 내야 하는 법정 부담료 중 최대 부담금액을 말한다. 설문에서 전체 법정 보험료 금액에서 본인 지불용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보조금의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실제 응답자에게 제시된 질문 문항은 아래 <표 3-4-2>에 있다. 청년 불안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묻은 뒤 응답자에게 법정 보험료 중 최대 얼마까지 본인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국민연금의 질문 문항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국민연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문은 부록에 있다).

<표 3-4-2> 응답자에게 주어진 가상 설문(고용보험)

이제 위의 46,800원 중 당신이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정책이 도입된다고 가정해봅시다(당신이 x원을 내면 정부는 46,800-x원을 부담). 이 경우 당신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료 46,800원 중 얼마까지 낼 의향이 있습니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수집된 “보험료 지불의향” 결과는 본인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액수를 법정 보험료로 나누는 뒤 100을 곱하여 나온 값이다. 예를 들어 위 <표 3-4-2>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46,800원으로 답하였다면 보험료 지불의향 변수는 100이 된다. 이 경우는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본인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위의 질문에 대해 본인이 23,400원으로 답하였다면 보험료 지불의향 변수는 50이 된다. 이 경우는 본인이 법정 보험료의 절반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정부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법정 사회보험료수준이 응답자에게 부담되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회귀식 (A)와 비교했을 때 회귀식 (B)에 추가로 들어간 변수는 가입의사이다. 애초부터 사회보험 가입의사가 없는 청년 노동자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지불 액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가입의사가 강한 청년 노동자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지불 액수 또한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4. 설문조사 기초 결과

가. 응답자의 실제 사회보험 가입률

아래의 <표 3-4-3>과 <표 3-4-4>는 본 설문에 응답한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는 응답한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의 실제 가입률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가상의 상황에서 가입의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36%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들의 근로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을 살펴보면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49(22)%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단기 노동자의 가입률은 33(14)% 수준, 초단기 노동자의 가입률은 29(1)% 수준이었다(괄호 안의 숫자는 직장가입자 비율). 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32%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경우 단기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3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플랫폼 노동자의 가입률 32%, 초단기 노동자의 가입률 30% 순이었다.

본격적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의 샘플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확인된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다른 연구에서 제시된 청년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비교해보았

다.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38%와 46% 수준이었다(2020년 8월 기준).¹¹⁾ 이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수치가 조금 낮게 나왔다. 이는 아마도 연령별 구성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 반면, 통계청에서는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응답자와 유사한 연령대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15~29세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은 72.5%, 고용보험 가입률은 72.8% 수준이었다. 30~39세 노동자의 경우 이 수치는 더 상승하여 국민연금 가입률은 85.1%, 고용보험 가입률은 84.5%로 올라간다.¹²⁾ 그런데 이 결과는 정규직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사대상이 청년으로 한정되었던 정해식(2020)의 연구에 따르면 40시간 미만 노동시간의 청년 취업자 중 국민연금 가입률은 24.0%, 고용보험 가입률은 26.0% 수준이었다.¹³⁾ 우리 연구의 초단기와 단기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각각 31%, 33%인 것을 비교하면 약 7%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다. 청년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연구한 김규혜(2020)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약 41% 수준이었다. 이는 우리 연구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연구에

11)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은 88.0%, 고용보험 가입률은 89.2% 수준이었다.

12) 위의 자료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사회보장위원회. (2020). http://ssc.go.kr/stats/infoStats/stats010100_view.do?indicator_id=586&listFile=stats010200&chartId=2251. (2020년 11월 1일 접속).

13) 이들을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대 초반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이 12.3%, 고용보험이 14.8%였고, 20대 후반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이 26.2%, 고용보험이 27.6%였다. 30대 초반의 경우는 국민연금이 18.5%, 고용보험이 23.5%로 다시 낮아졌다.

서 사용된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다른 자료의 결과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4-3〉 국민연금 가입 현황

(단위: 명, %)

	15시간 미만 초단기	35시간 미만 단기	플랫폼 노동자	합계
직장가입자	4	44	69	117(13)
지역가입자	80	47	70	197(21)
임의가입자	3	13	14	30(3)
가입자 소계	87	104	153	344(36)
가입하지 않음	79	81	66	226(23)
모름	138	128	93	359(37)
총계	304	313	312	929(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3-4-4〉 고용보험 가입 현황

(단위: 명, %)

	15시간 미만 초단기	35시간 미만 단기	플랫폼 노동자	합계
가입함	90	114	97	301(32)
가입하지 않음	108	97	147	352(38)
모름	106	102	68	276(30)
총계	304	313	312	929(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나. 국민연금 미가입 및 보험료 미납 이유

응답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의사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여기에서는 실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먼저 살펴볼 것은 국민연금 가입/미가입 이유이다(표 <3-4-5> 패널

A). 조사 결과,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는 ‘가입 자체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였다. 전체 응답자의 49%를 차지했다. 근로형태별로는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의 약 52%가 미가입 이유로 이를 꼽았고 그다음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50%가, 15~35시간 단시간 노동자의 44%가 이를 꼽았다.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주업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의사 자체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많이 나온 응답은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으로 약 32% 수준이었다. 이 답변은 단시간 노동자에게 가장 많이 나와서 이들의 38%가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로 ‘경제적 여유 없음’을 꼽았다. 반면에 플랫폼 노동자는 26%만이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나 사용자 거부 같은 사유는 그 비율을 다 합쳐도 20%에 미치지 못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126명의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보험료 미납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1%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답했다(표 <3-4-5> 패널 B).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약 87%가,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약 81%가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71% 수준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같은 청년 불안정 노동자 내부에서도 근로형태별로 임금 차이가 존재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 따르면 세전 월 근로소득이 100만 원 대인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비율은 약 55% 수준을 차지하였다(정세정 외 2020).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113만 원임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경제적 이유로 연금에 가입하지 못

한 비율은 유사한 소득 대의 청년 노동자보다도 더 높게 나온 셈이다.

〈표 3-4-5〉 국민연금 미가입 및 연금 기여금 미납 이유

(단위: 명, %)

	15시간 미만 초단기	35시간 미만 단기	플랫폼 노동자	합계
〈패널 A〉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기존 미가입자 대상)				
경제적 이유	24(30.4)	31(38.3)	17(25.8)	72(31.9)
연금 불신	9(11.4)	7(8.6)	13(19.7)	29(12.8)
사용자 거부	5(6.3)	7(8.6)	3(4.5)	15(6.6)
가입 생각해본 적 없음	41(51.9)	36(44.4)	33(50.0)	110(48.7)
계	79(100)	81(100)	66(100)	226(100)
〈패널 B〉 국민연금료 미납 이유(기존 가입자 중 미납자 대상)				
경제적 이유	33(86.8)	38(80.9)	29(70.7)	100(80.6)
연금 불신	5(13.2)	8(17.0)	11(26.8)	24(19.0)
노후대비 완료	0(0)	1(0.1)	1(0.5)	2(0.4)
계	38(100)	47(100)	41(100)	126(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위에 제시된 것처럼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다’는 답변의 비중이 높은 이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이를 “나는 사회보험 가입의사가 없다”는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둘째는 말 그대로 응답자들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부족하여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만약 이처럼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의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연금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기인한다면 이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가입률을 높일 수 있다. 예컨대 어떠한 조건에서 임의 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연금의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몇 년 동안 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지금 얼마를 내

고 나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으로도 개인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뒤에서 연금에 대해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을 차별화할 경우 사회보험 가입의사와 보험료 부담 의사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가상 설문에 답하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를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처치집단’)에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액수와 납입 기간, 그리고 납부 후 혜택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컨대 처치집단에게 본인이 가상의 월소득 208만 원을 받을 경우, 자신이 부담해야 할 월 사회보험료 액수와 이후 받게 될 국민연금과 실업급여 액수를 아주 상세하게 제시하였다(처치집단이 설문조사 시 받게 될 가상의 상황에 대한 정보는 아래 <표 3-4-6>의 A유형에 나와 있다).

또 다른 집단은 ‘통제집단’이다. 이 집단에 속한 응답자에게는 처치집단과 마찬가지로 가상의 월소득 208만 원을 받을 경우 자신이 부담해야 할 월 사회보험료의 액수만 알려주고 납부 후 받게 될 국민연금의 정확한 액수는 알려주지 않았다(통제집단이 설문조사 시 받게 될 가상의 상황에 나오는 정보는 아래 <표 3-4-6>의 B유형에 나와 있다). 통제집단(<표 3-4-6>의 B유형)에게 던진 질문은 현실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국민연금 가입 비용과 편익을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가 많지 않다. 임의가입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실제 가입 기간에 따라 받게 될 연금 수급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설사 가능하더라도 청년들에게는 국민연금의 수급 문제가 최소 30~40년 이후에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이때의 수급액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일은

더욱 드물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두루누리 지원사업처럼 사회보험료를 직접 지원해줄 수도 있지만 사회보험의 편익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행동경제학(behavior economics)에서 말하는 넛지와 같은 비금전적 유인기제를 채택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문을 통해 이러한 접근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표 3-4-6〉 응답자에게 주어진 질문(국민연금)

[A유형]	
<p>B3-1A. 귀하의 월소득이 208만 원이고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국민연금에 지역가입하면, (1) 월 18만 7,2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2)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3) 만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4) 월 약 20~80만 원의 연금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아래 박스 참고). 귀하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시겠습니까?</p>	
<p>월소득 208만 원, 보험료 18만 원, 납부 시 가입기간별 연금급여액 가입기간 10년: 매달 연금 약 23만 원 수령 가입기간 20년: 매달 연금 약 46만 원 수령 가입기간 30년: 매달 연금 약 68만 원 수령 가입기간 40년: 매달 연금 약 91만 원 수령</p>	
1. 예	2. 아니오
[B유형]	
<p>B3-1B. 귀하의 월소득이 208만 원이고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국민연금에 지역가입하면, (1) 월 18만 7,2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 65세부터 연금급여를 사망 시까지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시겠습니까?</p>	
1. 예	2. 아니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표 3-4-7〉은 설문에 응답한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의 소득, 금융자산, 부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응답한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의 주된 일자리 소득은 월평균 약 89만 원 수준이었다. 이는 응답자 전체의 평균이다.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근로유형에 따라 계산된 평균 소득은 또 다르다.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이 121만 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단시간 노동자의 소득은 81만 원, 초단시간 노동자의 소득은 64만 원 수준이었다.

〈표 3-4-7〉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소득, 자산, 부채 기초 통계량

(단위: 만 원)

변수	관측치	평균	편차	최솟값	최댓값
한 달 소득	929	112.8	90.1	5	700
-플랫폼	312	151.2	109.0	5	650
-초단시간	304	84.3	69.0	5	400
-단시간	313	102.2	72.7	10	700
주된 일자리 소득	929	88.9	76.8	3	650
-플랫폼	312	121.3	100.1	3	650
-초단시간	304	64.2	59.1	5	320
- 단시간	313	80.7	49.6	10	320
본인 금융자산	929	606.6	2,035.4	0	30,000
-플랫폼	312	993.2	2,647.0	0	20,000
-초단시간	304	379.5	1,103.7	0	15,000
-단시간	313	993.2	2,647.0	0	30,000
본인명의 부채	929	959.7	4,048.3	0	40,000
-플랫폼	312	1,420.3	4,543.1	0	40,000
-초단시간	304	844.8	4,457.0	0	40,000
-단시간	313	612.1	2,921.3	0	40,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전체 응답자들의 월평균 소득(2020년 5월 기준)은 약 113만 원 수준이었다. 근로유형별로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이 151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단시간 노동자의 소득 102만 원, 초단시간 노동자의 소득 84만 원 순이었다. 응답자들의 주된 일자리 소득과 총소득의 격차는 평균 약 23만 원인데 이는 이들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의 경우 주된 일자리 외에 또 다른 일자리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평균 금융자산은 약 607만 원이었고 부채는 약 960만 원 수준이었다.

5. 주요 발견

가. 사회보험 가입의사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은 국민연금에 비해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의사가 더 강했다. 앞서 제시한 가상의 상황(〈표 3-4-6〉)과 관련된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약 84%가 가입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국민연금 가입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이 차이는 약 10%포인트인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다(1% 수준에서 유의미했다).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부담할 용의가 있는 사회보험료의 비중도 고용보험이 국민연금보다 더 높았다. 노동자 본인의 법정 부담 비율을 100%이라고 했을 때 고용보험의 경우 측정된 부담용의는 약 58%였는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약 47% 수준이었다. 이 차이는 약 11%포인트인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이다(1% 수준에서 유의미했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국민연금의 경우 설문에서 제시된 전체 보험료 부담분 18만 7,200원 중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밝힌 액수는 평균 8만 6,000원 수준이었다. 따라서 나머지 10만 1,000원은 국민연금 가입 시 정부가 부

담해주었으면 하고 기대한 금액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설문에 제시된 전체 고용보험료 약 4만 6,800원 중 평균적으로 약 2만 7,000원 정도를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지원의 기대수준은 1인당 1만 9,800원이었다.

사회보험 가입의사와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에서 확인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사이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은 이후의 다중 회귀분석 결과에 제시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사회보험 간 성격의 차이이다.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 입장에서 수급자격이 먼 미래에 발생하는 국민연금보다는 해고를 당할 경우 언제든 지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더 실감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만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나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설명에 따르면 그 차이가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다. 월소득 208만 원 수준의 청년 노동자가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18만 7,200원인 반면 고용보험료는 4만 6,800원이다. 절대적 금액 기준으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가 우리가 설문 결과에서 확인한 두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의향과 본인 부담액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나. 다중회귀식 결과 분석

1) 국민연금 가입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

국민연금 가입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는 회귀식 (A)의 분석 결과는 <표 3-4-8> 칼럼 (1)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 중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의사의 관계이다. 칼럼 (1)의 결과는 청

년 불안정 노동자의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의사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을 ‘국가에 의한 강제 저축’이라고 보았을 때 이러한 결과는 직관에 반한다. 저축을 소득의 함수라고 이해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의사는 소득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연금에 가입하기 위해 개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 보험료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올라간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로 하여금 연금 가입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당장 자신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의사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까? 칼럼 (1)의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응답자의 평균 소득수준이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소득이 현재보다 20만 원 증가할 경우 가입의사는 약 1%포인트 정도 하락하였다.

반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국민연금 가입의사와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응답자가 정부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낼 때 국민연금 가입의사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칼럼 (1)의 결과에서 소득이 응답자의 평균 소득수준인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에서 ‘대체로 신뢰한다’로 한 단계 상승할 경우 가입의사가 약 3%포인트 올라갔다. 다시 그 신뢰 정도가 ‘대체로 신뢰한다’에서 ‘강하게 신뢰한다’로 한 단계 더 상승할 경우 그전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의사가 10%포인트 정도 추가로 더 올라갔다.

한편 응답자의 불안정 노동의 형태는 국민연금 가입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그가 현재 플랫폼 노동자인지 아니면 (초)단시간 노동자인지 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국민연금 가입의사를 놓고 이들 집단 사이의 이질성은 관측되지 않았다.

칼럼 (2)에서는 결혼 여부와 학력수준이 국민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다. 미혼에 비해 기혼인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의사가 더 낮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연금의 가입의사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 응답자의 경제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기혼자의 지출수준이 미혼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국민연금 가입에 더 소극적일 가능성 역시 높다.

반면에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은 나머지 학력 그룹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의사가 더 강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설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칼럼 (3)에서는 연령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연령이 국민연금 가입 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청년 불안정 노동자를 19~24세 그룹(20대 초반 청년 그룹), 25~29세 그룹(20대 후반 청년 그룹), 30세 이상 그룹(30대 청년 그룹)으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국민연금 가입의사가 하락하였다. 20대 초반 청년 그룹에 비해 20대 후반 청년 그룹이, 이 두 그룹에 비해 30대 청년 그룹이 국민연금 가입의사가 더 낮았다. 칼럼 (3)의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응답자의 평균 소득수준이며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단기 노동자의 경우, 20대 후반이 20대 초반에 비해 약 11%포인트 정도 국민연금 가입의사가 낮고, 30대 초반이 20대 후반보다 약 20%포인트 정도 더 낮았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의사 결정에 있어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관측되는 흥미로운 현상은 ‘연령효과’가 앞서 언급한 국민연금 가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소득효과’와 ‘기혼효과’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강한 연령효과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이들 응답자가 일반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청년 불안정 노동

자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청년 노동자에게 있어 (초)단시간 노동이나 플랫폼 노동의 성격은 ‘용돈벌이’ 혹은 ‘취업 전 잠시 머무르는 일자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20대 청년 노동자에게 잘 들어맞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30대 초반의 청년 노동자가 이러한 불안정 노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포기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주된 직업으로서 불안정 노동의 문제점은 임금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가입자의 노후에 대한 관심과 보험료의 납부 여력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30대 불안정 노동자의 경우,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후 준비에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칼럼 (4)에서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현재 국민연금 가입 상태가 이후 국민연금 가입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청년 노동자의 경우 현재 연금에 가입한 노동자에 비해 가입의사가 낮았다. 이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청년 노동자들이 (당연하게도)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자기선택(self-selection)’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 결정에 있어 초기 조건(default) 혹은 관성(inertia)이 이후 국민연금 가입의사 결정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도 해석할 수 있다.

2) 고용보험 가입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표 3-4-9>를 살펴보자. 먼저 소득과 고용보험 가입의사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 고용보험 가입의사는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이

증가할수록 올라갔다. <표 3-4-9>의 칼럼 (1)에 따르면 소득이 응답자의 평균 소득수준인 단기간 청년 노동자의 경우 소득이 20만 원 증가하면 가입의사가 0.8%포인트 정도 상승하였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노동형태는 고용보험의 가입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학력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수준을 보유한 집단은 그 이하 학력을 보유한 집단에 비해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더 높았다[칼럼 (2)]. 반면 국민연금과 달리 결혼 여부는 사회보험 가입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연령의 경우는 다른 그룹에 비해 30대 초반 연령대가 가입의사가 더 낮았다[칼럼 (3)].

노동자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은 두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개인 자산의 유무이다. 고용보험은 해고라는 충격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민간보험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은 줄어든다. 예컨대 노동자에게 해고 시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용나 구직활동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저축이 있다면 고용보험의 필요성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본인이 과거 해고나 급격한 소득감소의 경험이 있다면 이것이 앞으로의 고용보험 가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칼럼 (4)에서 보듯 금융자산의 보유는 고용보험 가입 결정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예측에 부합한다.¹⁴⁾ 칼럼 (5)는 최근의 실직 경험이 고용보험 가입 결정에 영향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예컨대 응답자들이 불안정 노동자들인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불안정 노동 자체가 정규직 노동에 비해 실직과 이직이 잦은 노동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만성화된 것이 역설적으로 이들로 하여금 실업의 위험에 대비하는 조심성을 낮추

14) 이승렬(2011)에서 산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현재의 고용보험 가입상태가 미래의 고용보험 가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 가입의사가 더 높았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사에 영향을 미쳤다. 대체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도 올라갔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노조 가입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사 역시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칼럼 (4)에 나와 있는데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했다(1% 유의수준). 이는 노조 가입의사가 높은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 고용안정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는 노동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이유로 고용보험의 필요성 또한 더 강하게 인식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3) 사회보험료 지불용의에 영향을 주는 요인

〈표 3-4-10〉과 〈표 3-4-11〉에는 응답자의 사회보험료 지불용의에 대한 회귀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 지불용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본인의 사회보험 가입의사였다. 국민연금 가입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사회보험 가입 시 기대하는 정부의 지원금액이 약 14%포인트 더 낮았다.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기대하는 정부의 지원금액이 약 20%포인트 낮았다. 국민연금의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와 보험료의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는 정확히 반비례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굳건할수록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불용의가 올라갔다. 하지만 고용보험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외에 앞서 사회보험 가입 결정 자체에 영향을 준다고 확인한 여러 요인은 사회보험료 지불용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일단 응답자의 소득은 국민연금기여율과 고용보험기여율에 그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 연령도 비슷하다.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가입의사가 줄어들었던 경우와 달리 연령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불용의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30대 초반 노동자만이 다른 노동자에 비해 보험료의 정부지원을 보다 강하게 요구했다. 그 외 앞서 사회보험 가입 결정 요인의 분석에서 확인된 여러 요인은 보험료 부담액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력, 결혼 여부, 현재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모두 상관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불안정 노동의 형태는 사회보험료 지불용의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이 항목의 분석 결과들은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의사 결정 메커니즘과 가입 결정 이후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금액 지불용의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 강건성 분석

매우 간략하게나마 앞 분석 결과가 얼마나 강건한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한 달 소득 대신에 응답자의 주된 일자리 소득을 사용하여도 주요 결과가 거의 대체로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또한 지역별 격차를 통제하기 위해 지역 더미 변수를 추가한 경우에도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응답자의 사회보험료 지불용의를 정규화한 비율 대신에 지불 액수로 바꾸어 분석하여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표 3-4-8〉 국민연금 가입의사 결정 요인

국민연금 가입 여부				
	(1)	(2)	(3)	(4)
한 달 소득	-0.002** (0.001)	-0.002* (0.001)	-0.000 (0.001)	-0.001 (0.001)
금융자산				0.000 (0.000)
2.단시간 노동 (baseline=1.초단시간 노동)	-0.044 (0.191)	-0.077 (0.192)	-0.106 (0.194)	
3.플랫폼 노동	-0.280 (0.194)	-0.263 (0.195)	-0.174 (0.199)	
정부 신뢰(약한 부정) (baseline=강한 부정)	0.475* (0.267)	0.450* (0.269)	0.310 (0.280)	0.310 (0.287)
정부 신뢰(약한 긍정)	0.621** (0.270)	0.585** (0.271)	0.501* (0.281)	0.523* (0.288)
정부 신뢰(강한 긍정)	1.348* (0.786)	1.318* (0.777)	1.532** (0.774)	1.547** (0.791)
결혼		-0.776** (0.391)	-0.139 (0.455)	-0.110 (0.449)
2.전문대(baseline=1.고졸 이하)		0.235 (0.266)	0.242 (0.266)	0.245 (0.266)
3.4년제 이상		0.446** (0.222)	0.514** (0.224)	0.521** (0.223)
2.20대 후반 (baseline=1.20대 초반)			-0.471** (0.204)	-0.446** (0.206)
3.30대 초반			-1.262*** (0.291)	-1.240*** (0.298)
2.현재 연금 미가입 (baseline=1.모름)				-0.531*** (0.200)
3.연금 가입				-0.291 (0.200)
constant	0.879*** (0.290)	0.540 (0.346)	0.638* (0.358)	0.784** (0.360)
ll	-523.940	-519.789	-509.750	-506.676
chi2	20.981	29.115	46.739	51.079
N	929	929	929	929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1, ** p<.05, *** p<.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3-4-9〉 고용보험 가입의사 결정 요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					
	(1)	(2)	(3)	(4)	(5)
한 달 소득	0.002* (0.001)	0.002* (0.001)	0.003** (0.001)	0.002* (0.001)	0.003*** (0.001)
금융자산				-0.000** (0.000)	-0.000* (0.000)
2.단시간 노동(baseline=1.초단시간 노동)	-0.272 (0.225)				
3.플랫폼 노동	-0.379 (0.231)				
정부 신뢰(약한 부정) (baseline=강한 부정)	0.827*** (0.301)	0.847*** (0.299)	0.781** (0.302)	0.754** (0.317)	0.805** (0.306)
정부 신뢰(약한 긍정)	0.774** (0.303)	0.779** (0.300)	0.727** (0.302)	0.662** (0.319)	0.740** (0.308)
정부 신뢰(강한 긍정)	0.443 (0.700)	0.477 (0.711)	0.494 (0.706)	0.270 (0.725)	0.413 (0.704)
결혼		0.274 (0.586)			
2.전문대(baseline=1.고졸)		-0.076 (0.302)	-0.045 (0.300)	-0.033 (0.304)	-0.059 (0.299)
3.4년제 대학		0.482* (0.256)	0.505* (0.256)	0.544** (.265)	0.520** (0.257)
2.20대 후반(baseline=1.20대 초반)			-0.134 (0.250)		
3.30대 초반			-0.489 (0.320)		
실업 경험 있음					0.198 (0.217)
2.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baseline=1.모름)				-0.141 (.218)	
3.가입				.496* (266)	
노조 가입의사				0.733*** (0.184)	
_cons	0.927*** (0.344)	0.412 (0.381)	0.439 (0.385)	0.046 (0.409)	0.330 (0.394)
ll	-404.631	-402.161	-401.217	-388.076	-399.943
chi2	12.117	16.319	19.208	42.742	21.705
N	929	929	929	929	929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1, ** p<.05, *** p<.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3-4-10〉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의사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의사				
	(1)	(2)	(3)	(4)
국민연금 가입 여부	0.142*** (0.015)	0.141*** (0.015)	0.139*** (0.015)	0.142*** (0.015)
금융자산				-0.000 (0.000)
한 달 소득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단시간 노동(baseline=1.초단시간 노동)	-0.017 (0.017)	-0.018 (0.017)		
3.플랫폼 노동	-0.026 (0.018)	-0.026 (0.018)		
정부 신뢰(약한 부정) (baseline=강한 부정)	0.076*** (0.027)	0.076*** (0.027)	0.074*** (0.027)	0.073*** (0.027)
정부 신뢰(약한 긍정)	0.103*** (0.027)	0.102*** (0.027)	0.102*** (0.027)	0.101*** (0.027)
정부 신뢰(강한 긍정)	0.148** (0.061)	0.148** (0.061)	0.152** (0.062)	0.144** (0.062)
결혼		-0.025 (0.041)		
2.전문대(baseline=1.고졸)		0.008 (0.027)		
3.4년제 대학		0.002 (0.023)		
2.20대 후반(baseline=1.20대 초반)			-0.009 (0.017)	-0.015 (0.018)
3.30대 초반			-0.036 (0.030)	-0.042 (0.030)
2.현재 연금 미가입 (baseline=1.모름)				0.028 (0.018)
3.연금 가입				0.031* (0.017)
_cons	0.280*** (0.030)	0.277*** (0.036)	0.273*** (0.028)	0.258*** (0.029)
adj. R-sq	0.098	0.096	0.093	0.099
N	929	929	929	929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1, ** p<.05, *** p<.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3-4-11) 고용보험료 부담의사

고용보험료 부담의사					
	(1)	(2)	(3)	(4)	(5)
고용보험 가입의사	0.196*** (0.021)	0.202*** (0.022)	0.198*** (0.021)	0.192*** (0.022)	0.197*** (0.021)
한 달 소득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금융자산				0.000 (0.000)	0.000 (0.000)
2.단시간 노동 (baseline=1.초단시간 노동)	-0.014 (0.019)			-0.015 (0.020)	-0.016 (0.019)
3.플랫폼 노동	-0.033 (0.020)			-0.030 (0.020)	-0.030 (0.020)
정부 신뢰(약한 부정) (baseline=강한 부정)	0.027 (0.031)			0.021 (0.031)	0.024 (0.030)
정부 신뢰(약한 긍정)	0.049 (0.031)			0.046 (0.031)	0.050* (0.030)
정부 신뢰(강한 긍정)	0.041 (0.085)			0.048 (0.083)	0.050 (0.082)
결혼		-0.029 (0.041)			
2.전문대 (baseline=1.고졸)		0.003 (0.029)			
3.4년제 대학		-0.006 (0.025)			
2.20대 후반 (baseline=1.20대 초반)			-0.014 (0.020)	-0.013 (0.020)	-0.013 (0.020)
3.30대 초반			-0.068** (0.034)	-0.071** (0.032)	-0.073** (0.031)
실업 경험					0.030 (0.018)
2.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baseline=1.모름)				0.007 (0.020)	
3.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0.008 (0.021)	
노조 가입				0.015 (0.016)	
_cons	0.390*** (0.036)	0.414*** (0.021)	0.414*** (0.021)	0.387*** (0.037)	0.385*** (0.035)
adj. R-sq	0.088	0.084	0.090	0.088	0.092
N	929	929	929	929	929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1, ** p<.05, *** p<.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 비재정적 개입(넛지)이 사회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과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받는 집단 사이에서 사회보험 가입의사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살펴보자. 분석 결과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t-test 결과 응답자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해서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의사나 보험료 부담용의가 올라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 모두 관찰되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입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5%였다. 기본적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비율은 73%였다. 두 집단 간 가입률의 차이는 2%포인트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입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83%였고, 기본적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입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85%였다. 오히려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가입의사가 조금 더 높았다. 그러나 이 두 집단 간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회보험료 부담용의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법정 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금액의 비중은 약 47%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약 46%였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국민연금과 유사해서 자세한 정보를 준 경우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보험료의 약 57%였고, 기본 정보만을 제공한 경우는 오히려 58%였다. 이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결과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청년 불안

정 노동자의 낮은 관심은 정보 부족이 주원인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에게 금전적 제약과 같은 본질적 예산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른바 넋지와 같은 유인기제 중 하나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볼 수도 있다. 즉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미가입 이유가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하는 한, 이러한 문제를 정보 제공과 같은 비금전적 유인을 통해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보 제공의 효과가 없었던 또 다른 이유로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이 사회보험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지만, 현시점에서 단지 그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결정에 있어 정보와 준거집단의 제공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신현태, 김은지, 김상현(2018)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 아마도 이러한 차이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주된 대상은 무소득 배우자인 반면, 우리의 경우는 응답자가 청년이라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해석 및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시각에서 동일한 사회보험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바라보는 인식에는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은 국민연금은 먼 미래에나 사용할 강제 저축이라는 것이다. 즉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이다. 강제성에 더 초점을 맞춘다면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시각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개인에게 징수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소득이 낮거나 현재 재정적 압박 가능성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가입의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¹⁵⁾

고용보험은 국민연금과 다르다. 특히 청년 불안정 노동자에게 실직의 위험과 경험은 일상화된 것이다. 청년들은 빈번하게 (자의든 타의든) 직장을 이동하기 때문이다. 정세정 외(2020)의 분석에 따르면 18세 이후 1개월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노동자 중 최근 3년 이내에 비자발적 실직 경험을 한 비중은 49% 수준이었다. 재취업에 걸린 기간은 평균 5개월 정도였다. 실직 기간 동안 기본적 생계비로 저축이나 퇴직금 등을 사용한 경우는 44%, 가족으로부터 사적 이전을 받은 경우는 약 47%였다.

청년 노동자의 경우 사적 보험으로는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이들은 소득이 높은 직업일수록 실직의 위험 역시 높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 두가지를 고려하면 현재의 소득과 고용보험 가입의사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을 위한 보험료를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간접적 근거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연금 가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이다.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는 고용보험에 가입 결정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사회보험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4-7>에서 보듯이 국민연금의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와 가입의사는 정확히 비례한다. 하지만 <표 3-4-8>에서 보듯이 고용보험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정부를 강하게 부정하는 경우에 비해 약하게 부정하는 청년들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올라간다. 하지만 일단 이 지점을 통과하면 정부에 대한 '약한 신뢰'이나 '강한 신뢰'로 답한 응답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는 변화하지 않았다. 즉 정부를

15)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30대 초반 청년 노동자인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회피 현상을 언급한 연구도 있다.

너무 강하게만 불신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국민연금의 경우 이들에게는 납부 후 최소 수십 년 이후 수급자격이 주어진다고 인식하게 되므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연금 가입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해고를 당하게 되면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가입 결정을 내리는 데 국민연금처럼 정부에 대한 강한 신뢰가 요구되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생기는 것 같다.

6. 결론: 요약과 정책적 함의

가. 주요 발견 사항 요약

1) 주요 발견 사항 요약

본 연구에서는 19~34세 불안정 노동자 92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의사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은 국민연금에 비해 고용보험의 가입 필요성을 보다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가상의 상황을 제시한 뒤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약 84%가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74%였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지불용의도 고용보험이 국민연금보다 높았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법정 보험료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비중을 약 58% 수준으로 답한 반면, 국민연금은 약 47% 수준으로 답했다(이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사회보험에 대한

응답자의 가입의사는 사회보험의 혜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제공 받은 집단이나 기본적 정보만을 제공받은 집단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다소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고용보험은 해고의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보험으로 보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만기가 수십 년 뒤인 장기저축 혹은 돌려받지 못하는 '세금'으로 보고 있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가입의사는 감소한 반면, 고용보험의 가입의사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연금 가입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입의사는 증가했지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가입의사는 하락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처럼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노동조합 가입의사가 더 큰 관련이 있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고용보험 가입의사는 증가하였으나 반대로 본인 소유의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가입의사는 하락하였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 모두 불안정 청년 노동의 형태는 가입의사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크기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본인 보험료 부담 비율은 두 사회보험 모두 가입하려는 의지가 제일 중요했다. 사회보험 가입의사와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것 중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사회보험료 부담 정도와 상관이 없었다. 이는 사회보험 가입의사 결정의 메커니즘과 사회보험료 부담 정도에 대한 의사 결정의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노동자들의 불안정 노동의 형태는 사회보험료 가입의사나 지불용의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다. 분석 결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불안정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플랫폼 노동이나 (초)단기간 노동의 차이 보다는 청년이라는 공통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2) 정책적 함의

청년 불안정 노동자 중 대략 1/3 정도만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 그룹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쉽게 공감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그 가입률을 높일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정책 설계의 출발은 이들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불안정한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수준이 낮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일시적인 일이라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당위적 접근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사회보험 가입 지원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단일한 전략보다는 사회보험의 종류와 지원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세대별로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의사가 세대별로 크게 달라지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같은 청년 노동자라 할지라도 20대 청년 노동자와 30대 청년 노동자는 사회보험을 인식하는 태도가 서로 달랐다. 따라서 사회보험 가입 전략 또한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똑같은 비재정정책이라 할지라도 정보 제공은 사회보험 가입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노조에 대한 신뢰가 사회보험 가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년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에 착

안한 정책 개발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는 청년 노동자 중에서도 청년 불안정 노동자라는 그룹에 한정된 연구이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가 청년 노동자 일반의 사회보험 가입 결정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 데이터는 응답자의 진술된 선호(stated preference)에 근거를 둔 것이며 행동을 통해 확인된 선호(revealed preference)는 아니다. 따라서 응답자의 답변이 실제 사회보험 가입 행동의 메커니즘과 일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증이 필요하다.



제4장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일 경험과 삶

제1절 연구 개요

제2절 청년 플랫폼 노동자

제3절 청년 초단시간 노동자

제4절 청년 단시간 노동자

제4장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일 경험과 삶

제1절 연구 개요

1. 조사방법

여기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플랫폼, 초단시간 및 단시간 노동에 참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재 삶의 양상과 노동 참여 경험, 일과 삶의 연결성, 사회보장제도의 경험과 인식, 청년지원정책 경험과 인식, 정책욕구 등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내국인 청년(국내 출생 및 국내에서 아동청소년기를 보낸 청년) 중 3가지 불안정 노동(플랫폼, 단시간, 초단시간)에 참여하는 이들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참여 기준은 다음 <표 4-1-1>과 같다.

<표 4-1-1> 조사대상자의 참여 기준

노동 유형	조사대상자 참여 기준
플랫폼 노동	• 조사시점에 플랫폼업체를 통해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초단시간 노동	• 조사시점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단시간 노동	• 조사시점에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심층인터뷰는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 연구를 위해 수행된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의 설문조사 시 심층 개별 인터뷰 참여의사를 확인하였다. 인터뷰 참여의사가 있다고 확인한 청년 중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들을 선정하였다. 3가지 유형의 청년 불안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1차 인터뷰(유형별 1~2명)를 실시하였고, 1차 인터뷰를 통해 도출되는 새로운 질문 등을 반영하여 2차 인터뷰 참여자(2~3명)와 3차 인터뷰 참여자(2~3명)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노동 유형별로 각 6명을 선정하여 총 18명에 대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모든 조사 과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명윤리 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절차(승인번호: 제2020-23호)에 따라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인터뷰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별 연락을 통해 인터뷰 절차와 과정, 소요시간, 참여에 따른 혜택과 예상 가능한 위험요소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인터뷰 참여의사를 재차 확인하였다. 인터뷰 참여자가 확정되면 연구진은 면접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 가능한 공간에서 대면 면접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2020년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의 수도권 유행이 재차 발생하여 물리적 대면 인터뷰가 어려워짐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원격 화상인터뷰를 실시하기도 했다. 인터뷰는 질적 연구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학 박사 3인이 실시하였고, 필요 시 연구책임자가 참관하여 인터뷰 내용의 해석과 관련한 심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진은 인터뷰 참여자에게 재차 인터뷰 진행 방식과 절차, 인터뷰가 녹음됨, 비밀보장의 원칙, 인터뷰 참여에 대한 거부 가능성과 종료 이후의 참여동의 철회 가능성 등을 설명하였고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60분에서 90분 이내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녹음 개시와 종료는 명확하게 참여자에게 고지되었다. 인터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

레비가 지급되었다. 인터뷰의 주요 질문은 다음 <표 4-1-2>와 같다. 연구자가 풍부한 연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때로는 질문의 내용을 일부 제외하기도 하였다.

<표 4-1-2> 주요 인터뷰 질문

□ **현재의 삶에 대한 탐색**

- 평소 일을 하는 날과 일을 하지 않는 날의 하루 일과는 어떠한가요?
- 한 달 평균 얼마 정도의 소득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지출이 있나요? 주로 어떤 부문에 지출이 많은 편인가요?
- 주거 상황은 어떠한가요?

□ **일에 대한 탐색**

-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일은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나요?
- 현재의 일은 어느 정도의 숙련 및 훈련수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체결하셨는지 말씀해주시십시오.
- 근로 여건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소득, 업무자율성, 안전, 교육수준 및 전공과의 연결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
- 일하시면서 혹시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험(예: 근로시간 임의변경, 임금체불, 비정상 임금 지불 등)이 있었나요? 만약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하시면서 상해를 입었다거나 괴롭힘, 인격적 무시, 차별 등을 경험하신 적이 있었나요? 만약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지, 안 좋은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안 좋은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과 삶의 연결성에 관한 탐색**

- 현재의 일을 언제까지 할 생각인가요? 현재의 일을 최종 일자리로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은 반대로 최종 일자리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앞으로 귀하께서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하나요?
- 현재의 일은 앞으로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의 일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만약 현재 하시는 일이 미래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일자리와 관련성이 낮다면, 미래의 일을 갖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보장제도의 경험과 인식**

- 귀하께서는 미래를 어떠한 방식으로 대비하고 계십니까?
- 현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상황은 어떻습니까?
-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언제 처음 가입하셨나요? 혹시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각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국가나 사업장이 비

용을 일부 지원한다면 가입의 의사가 있나요?

- (초단시간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의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데 있어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까? 만일, 4대보험에 가입하고 16시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청년지원정책 경험과 인식

-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취업·창업, 소득, 자산금융, 주거, 건강, 교육, 문화, 교통 등)의 수혜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정책들은 어땠습니까?

□ 무엇이 필요한가?

- 귀하께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의 삶은 그러한 이상적인 모습과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상적인 모습과 현재의 상황 간 거리를 좁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충 질문- 시간이 있을 경우) 마지막으로,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귀하께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터뷰가 종료된 이후 연구진은 인터뷰에서 느낀 점이나 주요 사항 등을 메모하였고, 이것이 차후 인터뷰 참여자 선정과 후속 인터뷰 질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진들은 수시로 인터뷰 내용과 잠정적인 주요 함의들을 토의함으로써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질적 자료의 분석은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법을 활용하였다. 녹음된 인터뷰 내용 중 개인식별정보나 개인을 유추할 만한 내용을 삭제하고 모두 전자본을 제작하였고, 전자본을 읽고 문장마다 의미를 도출하여 코드를 생성하였으며, 생성된 코드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며 새로운 코드로 통합하는 귀납적 해석 과정을 거쳤다. 각 코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점차 상위 범주로 통합하여 연구 질문에 해당하는 대주제와 소주제를 도출하였다. 잠정적으로 도출된 각 주제에 대해 책임 연구진과 질적 연구를 담당한 3명의 공동연구진이 정기적인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2.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1-3>과 같다. 플랫폼 노동 청년 6명, 초단시간 노동 청년 6명, 단시간 노동 청년 6명으로 총 18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18명 중 여성은 12명(66.7%), 남성은 6명(33.3%)이었고, 나이는 최소 20세에서 최대 35세로 평균 26.6세(표준편차 5세)였다.

플랫폼 노동 청년(6명)의 직업은 각각 택배업(1명), 방문 및 온라인교사(2명), 작가(일러스트, 웹소설 작가, 웹툰 작가 등 3명)였다. 초단시간 노동 청년(6명)의 직업은 각각 편의점 알바(2명), 교회 연주(2명), 음식점 서빙(1명), 쿠팡 물품 적재(1명)였다. 단시간 노동 청년(6명)의 직업은 각각 리셉션 안내 직원, 인터넷 강의 편집자, 연기 레슨 강사(배우 병행), 초등생 시터(배우 병행), 식당 홀 서빙, 택배 상하차였다.

연구 참여자의 교육 상태는 재학생(전문대 1명, 4년제 6명으로 모두 7명), 휴학생(4년제 1명), 졸업(4년제 3명, 대학원 석사 1명으로 모두 4명), 중퇴(전문대 3명, 4년제 3명으로 모두 6명)였다. 재학생이 38.9%로 가장 많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중퇴한 청년이 33.3%, 졸업생이 22.2%, 휴학생이 5.6%였다.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4년제와 전문대의 비율을 보면 대다수인 83.3%가 4년제였으며, 전문대는 16.7%(3명)에 불과하였다. 거주지역은 서울이 12명(66.7%), 경기도가 5명(27.8%), 부산이 1명(5.6%)으로 나타났다.

〈표 4-1-3〉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번	이름 (가명)	성별	나이	직업	학력	지역	비고
1	A1	여	33	택배	전문대 중퇴	서울	플랫폼
2	A2	남	25	방문교사	4년제 재학	서울	
3	A3	여	22	온라인교사	4년제 재학	경기	
4	A4	여	32	일러스트레이터	4년제 졸	서울	
5	A5	여	23	웹소설 작가	4년제 재학	부산	
6	A6	여	27	웹툰 작가	전문대 중퇴	서울	
7	B1	남	26	편의점 알바	4년제 졸	서울	초단 시간
8	B2	여	33	교회 오르간 연주, 종이접기 강사	대학원 졸 (석사)	서울	
9	B3	여	23	플루트 레슨, 교회 연주	4년제 재학	서울	
10	B4	여	23	음식점 서빙	4년제 재학	서울	
11	B5	여	21	편의점 알바	4년제 중퇴	경기	
12	B6	남	20	쿠팡 물품 적재	4년제 재학	경기	
13	C1	여	21	리셉션 안내 직원	4년제 휴학	서울	단시간
14	C2	여	26	인터넷 강의 편집자	4년제 중퇴	서울	
15	C3	남	34	연기 레슨 강사	4년제 졸	서울	
16	C4	여	34	초등학생 시터	전문대 중퇴	서울	
17	C5	남	23	식당 홀 서빙	전문대 재학	경기	
18	C6	남	26	택배 상하차	4년제 중퇴	경기	

제2절 청년 플랫폼 노동자

1. 참여자의 특성

청년 플랫폼 노동자 6명의 개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A1(여, 33세)은 현재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택배 플랫폼업체에서 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지방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개그우먼을 꿈꾸며 전대학 관련 학과에 진학하였으나, 공채시험에서 계속 탈락하면서 가족 뮤지컬, 어린이 뮤지컬 등에서 배우로 활동하게 되었다. 원래 가족 뮤지컬 배우를 꿈꿨던 것은 아니었기에 서른이 넘으면 공연기획사 등에 취업해 안정적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잠시 뮤지컬기획사에 취업했던 적이 있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기획사가 파산하여 플랫폼 노동에 진입하게 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었을 때 처음에는 카페나 편의점 등에서 일하려 했지만, 30세 이상은 아르바이트를 받지 않는 곳이 많아 동료 배우의 추천으로 택배 일을 하게 되었다. 택배는 시간당 단가가 높은 주말에 주로 했으며, 주중에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동 주민센터에서 발열체크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반지하 다가구주택에서 동료와 주거비를 분담하며 거주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월평균 약 70만 원의 수입으로, ○○를 통해 월평균 약 60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

A2(남, 25세)는 서울 지역 4년제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스스로 중산층이라는 계층의식이 있다. 그는 용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 교육 플랫폼업체를 통해 유초등학생 방문 돌봄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학생살을 하며 과외 등을 많이 했는데, 방문교육 플랫폼업체에서 일하게 된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라기보다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할 곳을 알아보다 우연히 접하게 되어 시작

했다고 한다. 초등학생 방문교육 및 돌봄은 시간당 1만 7,000원이, 미취학 아동 놀이 돌봄은 시간당 1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업무시간에 따라 급여수준은 다르지만 월평균 43만 원가량을 받고 있다. 그는 대학 졸업반으로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자기소개서 작성과 경력 관리 등을 철저히 하는 편이다.

A3(여, 22세)은 경기도 출신으로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수학과에 재학 중이며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A2와 마찬가지로 용돈을 목적으로 화상과의 플랫폼업체를 통해 일감을 연결받아 수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업은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과외와는 달리 이동시간이 필요 없고, 학부모로부터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해 이 일을 선택했다. A3은 이전에 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비해 감정노동이 적어서 현재의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초등학생 수학과외는 시간당 9,000원에서 1만 원, 중학생은 1만 2,000원, 고등학생은 1만 6,000원가량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강사마다 차등이 있는 것 같다고 한다. 그는 주 10~12시간 정도 활동하고 있으며, 화상과외로 월 40만 원가량 수입이 있다. 그 외 개별 방문과외도 하고 있어 월 90~100만 원가량 수입이 있다. 앞으로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 취업을 계획 중이다.

A4(여, 32세)는 서울에서 동료와 함께 생활비를 분담하며 월세 35만 원 투룸에 거주하고 있고, 웹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2013년 일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잠시 휴직 기간이 있어 총 5년 정도 경력이 있는 작가이다. 웹소설에 삽화를 그리고 있는데, ○○○ 측에 작품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넘기는 매절계약을 통해 일감을 제공받고 있다. 삽화 1장당 단가가 매겨지고, 경력에 따라 단가가 달리 책정되는데, A3은 1장당 11만 원을 받고 있다. 현재 우울증 치료 중이라 작업량이 많지 않은 편인데, 월평균 8~12장을 작업하고 있고, 1장 작업에 6~8시

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월평균 100~13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

A5(여, 23세)는 웹소설 작가로 부산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에 소질이 있어 작가를 꿈꿨다가 게임 기획 쪽 일이 스토리 구상과 관련될 수 있겠다 싶어 수도권 대학 게임 관련 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지만, 여성으로서 게임업체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알게 되었고, 일이 적성에 맞지 않음을 깨닫고 자퇴 후 방송통신대에 진학하였다. 자퇴할 무렵 2018년에 웹소설 작가로 데뷔하였으며, 현재 작품활동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영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웹소설을 통한 수입은 용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단편물보다는 연재물이 수익이 더 좋아 주로 연재활동을 하고 있고, 보통 한 작품은 25~30화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활동기와 준비기로 시즌이 구분되는데, 작품활동기에는 오전 8시쯤 커피숍에 가서 저녁 8시까지 작업하는 게 일상이고, 때로는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한다. 작품활동을 할 때는 월 200~300만 원까지 수입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준비기 중에는 월 20~30만 원이 들어올 때도 있어 수입 편차가 큰 편이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친척 중 변호사가 있어 노동계약 시 자문을 받아 꼼꼼히 권리를 챙겼다고 한다. 웹소설 작가로 평생 안정적으로 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교육공무원으로 취업하여 학교 교직원이 되면 웹소설 작가와 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A6(여, 27세)은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생활비와 거주비 등은 별도로 나가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대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였으나 대학생화에 큰 흥미가 없어 중퇴하였고, 2018년 웹툰 작가로 데뷔하였다. ○○를 통해 웹툰 작가로 데뷔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A6

역시 이 경로를 통해 웹툰 플랫폼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작품 회당 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고, 통상적으로 주간 연재로 웹툰을 올리고 있다. 월평균 220~230만 원가량 수입이 있는데, 작품활동 준비 기에는 수입 없이 생활하는 상황이다.

2. 플랫폼 노동의 진입 경로

연구 참여자의 플랫폼 노동 진입 경로는 크게 ① 자발적 선택과 ② 비자발적 선택으로 구분된다. 진입 경로의 자발성은 계층인식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용돈을 벌기 위한 것과 일에 대한 선호 두 가지가 주로 확인되며, 비자발적 선택의 경우에는 정규적인 일이 고되거나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혹은 과거 실패 경험과의 연관성 등이 확인된다. 자발적인 경우는 주로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경우로 20대 중산층 대학생(A2, A3)이 여기에 해당했다. 비자발적인 경우는 다소 혼재되어 있으나, 대표적으로 A1이 여기에 해당했다.

〈표 4-2-1〉 플랫폼 노동의 진입 경로

주제	개념
자발적인 플랫폼 노동의 선택	- 용돈을 벌기 위해 - 일에 대한 선호가 있었음
비자발적 플랫폼 노동의 선택	- 정규적인 일이 고되어 플랫폼 노동을 선택함 - 누적된 실패 경험과 제한된 선택지

가. 자발적 플랫폼 노동의 선택

자발적으로 플랫폼 노동을 선택한 참여자들은 “용돈을 벌기 위해”, “일

에 대한 선호가 있었음” 같은 두 가지 경로로 압축될 수 있다. 이 청년들은 공교롭게 스스로 중산층이라는 계층인식을 보이거나, 일이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A2와 A3이 그렇다. 그들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다니며 대기업이나 공무원 취업을 계획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방문교육(A2), 온라인 화상과외(A3) 등을 하고 있는데, 이는 생계가 목적이 아니라 용돈 내지 간접적 사회 경험과 관련된 것이다. 자발적인 플랫폼 노동의 진입은 “플랫폼” 노동보다 “일감” 그 자체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A2, A3는 교육이라는 것을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하려는 차원에서 플랫폼업체(방문교육 연계 플랫폼, 화상과외 연계 플랫폼)를 활용하고 있었고, A6는 웹툰이라는 작품활동을 위해 플랫폼업체를 활용했던 것이다. 즉, 플랫폼 노동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 플랫폼을 통해 “어떤 일”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용돈을 벌기 위해

A2와 A3는 용돈을 벌기 위해 플랫폼 노동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다른 참여자와 진입 경로가 구별된다. A2는 “가계에 보탬”이 되는 것과 “용돈” 사이에서 분명히 후자를 이유로 이 일을 하고 있었다. A3은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스스로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을 충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A2가 용돈을 버는 것보다 좀 더 일을 해야 한다는 것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역시 다른 참여자들과 달리 이러한 활동 자체가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A3는 학점관리나 용돈관리 등을 주도면밀하게 하고 있었고, 과외와 온라인 화상과외 등 수입 중 일부를 모아 주택청약에 가입할 정도로 철저한 편이다. 그는 온라인 화상과외 일 자체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편이지만 수학 과외로 대학 졸업 후 생계를 유지할 생각은 없었다. 즉, 플랫폼 노동이 아르바이트를 통한 용돈벌이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저희 집은 중산층이죠. (중략) 용돈 플러스 알파로 좀 더 버는 느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A2

제가 용돈을 안 받고 있어서, 용돈 안 받고 등록금이나 기숙사비를 제가 다 충당하고 있어서 그 돈을 벌고자 하고 있어요. A3

2) 일에 대한 선호가 있었음

일에 대한 선호 역시 플랫폼 노동에 진입하게 된 계기 중 하나이다. A2는 플랫폼 노동 참여 청년 인터뷰 대상 중 유일하게 남성이었는데, 말쑥한 외모와 신중하면서도 자신감이 있었으며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유연한 태도로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그는 더 별이가 좋은 과외가 있었을 텐데 왜 아동돌봄 방문교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이들을 좋아해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로 활동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경험이 앞으로 자신의 진로인 대기업 식품 영업활동에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비록 돈을 적게 벌어도 좋다고 하였다. 아이들과 함께하면 배울 수 있는 것이 많고, 진로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기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알게 되어 경험 삼아, 그리고 “재미있겠다 싶어서” 한번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기도 해서. 사실상 000 같은 데서 찾다가 나왔는데 방금까지 말씀드린 그 성향에 따라서 한번 해봐도 재미있겠다 싶어서 해보게 됐습니다. A2

A6은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에 재능을 보였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장원을 두 차례나 할 정도로 뛰어났다고 한다.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 쓰는 법(“니즈에 맞춰서 쓰는 법”)을 터득했고, 글쓰기와 이야기 만드는

것,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기에 웹툰 작가를 직업으로 선택했다. A2와 달리 그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역시 플랫폼 그 자체보다 웹툰 작가로서 스토리를 만들고 만화를 그리는 창작활동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런 걸(적성검사 등) 했을 때도 예체능계열이 많이 나와서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애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게 좋겠다는 인식이 있었고 또 고등학교 때는 장원만 연달아서 두 번 탔던 것 같네요. 제가 다니던 내내. 그때는 순 문학계열로 사람들 니즈에 맞춰서 쓰는 법을 그때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중략) 만화 그리는 건 즐거우니까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하고 싶긴 해요. A6

나. 비자발적 플랫폼 노동의 선택

비자발적인 이유로 플랫폼 노동을 선택한 경우는 앞서 언급한 자발적 진입 경로와 사뭇 대조적이다. 이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중요하나, 플랫폼 그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이 선택되는 양상이 앞서 자발적 진입 경로와 대비된다. 비자발적 선택에서는 “1) 정규적인 일이 고되어 플랫폼 노동을 선택함”, “2) 누적된 실패 경험과 제한된 선택지” 등 2가지가 확인된다. 정규적인 일이 고되다는 것은 정규직 일 혹은 정규직 일자리로의 진입을 위한 과정이 과도하게 고되어 플랫폼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둘째, 누적된 실패 경험과 제한된 선택지는 주로 A1, A4, A5에게 나타났다. 특히 A1은 과거 자신이 희망했던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공연이 중단되면서 현재의 플랫폼 노동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 선택하게 되었다. A4와 A5 역시 현재 일을 하기 전 착취나 부당 노동 등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현재의 일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특히 A1은 30세가 넘어 편의점이나 카페 등의 아르바이트를 알아보

았지만, 사실상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연령차별에 걸려 취업이 불가능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현재 하고 있는 일밖에 없다고 하였다.

1) 정규적인 일이 고되어 플랫폼 노동을 선택함

정규적인 일이 고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플랫폼 노동에 매력적 요소가 존재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상 정규직으로 불리는 일자리에 진입하는 데 수많은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것과 달리 플랫폼 노동은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정규직에 비해 덜 통제를 받는다(물론 실제로 상당한 노동의 통제가 가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A1은 10여 년간 가족 뮤지컬 배우로 살아오며 항상 오디션을 준비하고,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다 일자리가 생기면 그 일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였다. 어찌 보면 A1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정규적인 일은 뮤지컬 배우이지만, 매우 비정기적이며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가 현재의 자차 활용 택배 일을 하며 예상 가능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 자체에 안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택배와 같은 플랫폼 노동 말고 좀 더 안정적인 급여가 제공되는 물류센터 노동은 상대적으로 정규적인(정규직은 아님) 노동에 속하지만, 그 일이 매우 고되어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물류센터 일은 돈이 되고 정규적인 특성이 있지만, “하루를 일했는데 죽을 것” 같은 노동이다. 돈이 되는 야간 노동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플레이트에 물품 박스가 밀려들어 쉴 새 없이 일해야 했다고 한다.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체크가 되며, 화장실을 가기 위해 건물 밖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일하는 것이 정규적이고 안정적인 급여제공이 가능한 일임을 발견하고 A1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플랫폼 노동을 선택한 것이다.

A4는 웹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기 전 잠시 출판사에서 정규적으로 일

하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현재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여러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정규적인 일인데 연봉이 적었고,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일”, 즉 안정적인 정규적인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A4와 같이 완벽한(complete) 건강 상태¹⁶⁾가 아닌 경우에도 플랫폼 노동이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또 해야 되는데 저 공연하고 싶는데 하고 오디션 준비해서 갔다가 나 또 떨어졌네, 난 바보야, 이려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반복되다가 지금은 안 하니까 이걸 하는 거죠. (중략)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도 그런 게, 공연을 하면 당연히 재미있고 행복한데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지금은 공연을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그런데, 돈도 사실 어쨌든 고정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연하면 고정급이 사실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 3개월이잖아요, 고정급이 공연이.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쨌든 제가 마음만 이렇게 잡고 있으면 꾸준히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걸 마음 편하고 이걸. 마음은 조금 힘들지만 재미있고. A1

○○물류센터가 있더라고요. 또 나이트가 돈을 많이 줘요. 그래서 ○○물류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하루 일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물건을 진열하는 일이었어요. 이런 게 있으면, 만약에 이런 게 박스로 있잖아요. 팔레트. 박스가 엄청 많이 계속 와요. 그럼 거기에 담겨 있는 물건을 제가 진열장에 차곡차곡 진열하는 거예요. 대신 일을 시작하고 밥 먹는 시간, 한 시간을 빼고는 쉬는 시간을 1분도 안 줘요. 화장실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화장실 가져도 된다. 그런데 너무 자주 가면 시스템상으로 체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디는 블랙 처리돼서 다시는 일을 못 한다고 먼저 얘기해요, 거기에서는.

16) 완벽한 안녕상태(complete well-being)는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어떤 개인도 완벽한 상태일 수 없음을 전제할 때,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조건들(심지어 신체와 정신건강까지)의 완벽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한 점에서 A4가 겪는 질환은 정규적인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저는 옷걸던 게 물류창고니까 높잖아요, 저희가 있는 곳이. 창고니까 철제계단으로 3층, 4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화장실은 예를 들면 한 층 내려가서 다른 건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아요. (중략) 저희가 만지기엔 큰돈이거든요. 200만 원이다 보니깐. 그런데 저는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A1

출판사를 들어갈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건강이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당시 회사도 면접에 합격했던 회사의 연봉이 너무 적어서, 그리고 지역이 너무 먼 곳이라 출판사에 들어가는 걸 포기했었어요. A4

2) 누적된 실패 경험과 제한된 선택지

과거 실패 경험은 때로는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플랫폼 노동으로 유인한다. 하지만 용돈을 벌기 위해서나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는 경우와 달리 누적된 실패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 없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A1, A4, A5에게 실패 경험이 부각되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⁷⁾.

A1은 지방에서 태어나 개그에 자신이 있었기에 꿈을 품고 서울로 올라와 개그우먼 공채시험을 치렀다. 여기까지 그의 삶은 TV를 통해 접하는 일종의 성공한 개그우먼의 서사와 일치한다. 그러나 그는 공채시험에 실패했고, 내로라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가족 혹은 아동 뮤지컬 배우이다. “길어야 3개월”인 무대에 서기 위해 매번 오디션을 보고 배우로 발탁되어 일하는 과정에서 그는 생계를 위해 ○○역 식당을 다니며 소주 홍보를 하거나 ○○ 등(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

17) 플랫폼 노동에 관한 인터뷰임을 명확히 고지하였기에, 인터뷰 참여자 역시 인식 속에서 자신이 왜 인터뷰를 수행하는지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A1, A4, A5가 플랫폼 노동에 진입하는 경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경험, 특히 실패 경험을 털어놓았다는 점에서 그 실패 경험과 현재의 노동을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으로 보인다.

다. 그는 같은 작품의 배우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극장에서 공연할 때와 소극장에서 공연할 때 겪었던 관객들의 차별적 반응을 보며, “무대의 크기”가 같은 배우의 공연도 달리 전달됨을 경험했다. 일종의 배경효과이다. 그러한 배경이 자신에게 없음을 자각하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선택한 노동이 바로 현재의 플랫폼 노동이다. 그의 선택이 10여 년간의 서사와 그 속에 우연히 끼어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뤄졌다는 맥락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A4는 웹 일러스트레이터 활동을 하며 처음으로 계약을 맺은 업체 P로부터 착취를 당했다. 작품에 대해 낮은 단가가 책정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현재의 플랫폼업체를 선택한 것이다. 즉, 그가 유입된 현재의 플랫폼 노동 역시 착취 경험과 연관지어 해석되어야 한다.

A5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웹소설 작가 데뷔 전 게임업계에서 일할 생각이 있었고, 수석으로 학과에 합격했지만, 게임업계는 여성이 일하기엔 험한 곳임을 목도하게 되었다¹⁸⁾. 그는 “술자리 접대”, “메갈 사태” 등을 겪으며 본인이 대학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꿈꾸던 게임 회사에 들어간다 해도 비슷한 일을 겪을지 모른다고 자각하게 되었다. 물론 이를 “실패 경험”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구조적 압력 속에서 비자발적으로 실패를 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실패는 당사자의 책임이 아닌 사회구조적 압력에 의한 것이다. 그는 자각한 바를 빗대어 “커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해서 커피 장사를 하는 건 아니다”고 말한다. 그 진술에는 매우 중층적 함의가 담겨 있다고 보인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게 타당하다는 사회적 규범과 달리 현실에서 작동되는 규범은 “커피를 좋아해도 커피 장사는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즉, 일종의

18) A5는 게임업계의 성차별 구조와 당시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2018년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한 페미니스트 색출과 계약해지 사건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된 바 있다(이유진, 박다혜, 2018 참조).

규범 괴리, 아노미 상황인 것이다.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좋은 A5가 게임 분야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좌절되는 규범 괴리 속에서 선택한 것이 바로 플랫폼 노동으로서 웹소설 작가활동이었다.

처음에 가족 뮤지컬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개그맨 공채시험을 몇 번 보다가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개그를 짜서. 심사위원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 앞에서 개그를 했는데 창피했어요, 제가. 내가 겨우 이런 개그를 짜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부끄럽다. 난 이진 다시는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학과 자체가 워낙 전국에서 정말 내로라하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미 MC를 봤고. 회장이고. 난 지역에서 제일 재미있어 이런 애들이 오다 보니까. 선배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조금 주눅이 많이 들었어요. G시에서는 태어나기만 하고 J시에서 생활 했고요. 그렇지는 않고. 누구나 비슷한데 친구들 사이에서 A1이 진짜 재미 있고 A1은 개그맨 하면 진짜 잘될 것 같다는 말 항상 들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다 잘하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개성이 강해서. A1

가족 뮤지컬 중에 000라고 있어요. 그 000가 진짜 인기가 많아요, 애들한테. 그런데 제가 000 소극장도 하고 중극장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랑 같이하던 배우들이 소극장, 중극장, 대극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대극장 공연을 보고 소극장 공연을 봤으면 비용은 둘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관객들이 느끼는 공연의 퀄리티는 거기에서 배우를 폄하해요. 역시 소극장이라 그런지 배우들 수준이 영.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배우들이 대극장, 중극장을 했을 때는 너무 재미있어, 연기 너무 잘하고요. 소극장 오면 역시 수준이 좀 떨어지네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A1

아는 작가님한테 소개를 받아서 일을 받은 건데. 그 일을 소개받았던 전제 상황이 당시 000가 자기들이 많은 작가를 다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지 중개업체를 쓰고 있었어요. 그림작가들을 중개해주는 업체를 쓰고 있었는데. P라는 회사인데. P라는 회사가 블랙회사였어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를 굉장히 착취하고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그 당시 000에서 중개하는 것들도 돈을 중간에서 많이 가로챘어요. 거의 반 이상을 떼서 정작 그림작가들에게는 돈이 진짜 조금밖에 안 가는. 그렇지 않아도 단가가 낮는데. 그리고 지금의 단가가 낮은 이유도 그때 당시 P가 000에 중개를 하면서.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기업에서도 이렇게 할 때 경쟁할

거 아니에요, 일을 따기 위해서. P가 그때 단가를 굉장히 낮춰서 작가들을 증개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단가가 굉장히 낮게 시작됐는데 그 낮은 단계에서 P가 또 작가들 돈을 더 가로챈 거죠. (중략) 그러면서 직접 작가들을 섭외해야 하다 보니까 급하게 필요할 때 작가들의 인맥을 통해서 그림작가를 구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상황에서 아는 작가 분이, 이미 연재를 하고 있던 작가 분이 새 작가가 필요한데 혹시 지원할 생각이 있냐고 해서, 저는 그때 데뷰를 했습니다. A4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거나 그다음에 게임행사 같은 거, 큰 거 있으면 투자자들인가 그런 분들한테 술자리에서 접대하는 얘기. 정확하게는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그런 쪽 계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걸 제 추측이어서. 그랬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외부적으로는 메갈 사태라 해서 한참 난리가 난 적 있어서 여자 여럿 잘리는 걸 보고, 내가 여기를 나와서 진출해도 평생 이렇게 시달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가게 된 계기가. 마음먹은 계기는. A5

약간 환상을 꾀다고 할까. 아무래도 그때 게임에 미쳐서 살아서 게임을 만들어야겠어라는 생각으로 입학을 했던 거라. 그때 현실을 깨달았죠.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해서 커피 장사하는 건 아니다, 그런 느낌. 그런 거죠. A5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도 플랫폼 노동에 진입하게 된 이유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A1이다. A1은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공연 무대가 막을 내려 아르바이트 증개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자신이 희망하는 카페나 편의점, PC방 등과 같이, 패스트푸드점보다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세지 않으면서도 일자리가 많은 곳을 알아보니 30세 이상은 연령에 제한이 있어 자신은 취업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매우 비자발적으로 결국 A1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은 “OO밖에”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가 터지고 OOO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나이 제한이. 정말 놀랐어요. 제 나이가 그렇게 많은지. (중략) 많아야 서른 살 쯤. OOOO(패스트푸드점)는 나이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보통 카페나 많이들 하는 편의점, PC방. (중략)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어린 친구들을 굴리기에 편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실

카페에서도 일해볼까 했거든요.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스물여덟 살에서 컷, 서른 살이어서 컷, 아니면 경력자 서른 살에서 컷. 이런 식이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알바가 없었어요. (중략) 어쨌든 난 이런 생각이었어요. 나를 받아줄 곳이 OO밖에 없군, 이런 생각이었어요.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중략) 웃긴 게 또 OO이예요. 나이 제한이 없는 곳을 찾아보니까. A1

3. 플랫폼 노동의 경험과 의미

연구 참여자들의 플랫폼 노동은 크게 경험과 의미 2가지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플랫폼 노동 경험의 경우 인터뷰 참여 청년 6명의 노동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노동조건으로 압축하기는 어렵지만, 특징적인 것으로 ① 유형별로 숙련도 요구수준이 다름, ② 노동시간이 유연함, ③ 유연하나 통제당하는 노동, ④ 위험의 개인화, ⑤ 경제적 손실의 개인화 등 5가지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는 각 노동 참여 과정에서의 공통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다. 둘째, 플랫폼 노동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의미로 체현되고 있었는데, ① 미래입직을 위한 학습의 기회, ② 자유롭고 감정손상이 적음, ③ 일상과 노동이 분리되지 않는 삶, ④ 곧 떠날 일, ⑤ 늙과 같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일 등 5가지로 요약된다. 이는 모든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은 아니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플랫폼 노동 경험이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래입직을 위한 학습의 기회”와 같은 긍정적 의미는 확연히 중산층(A2, A3)에게 확인된다. 반면, 플랫폼 노동을 늙처럼 인식하는 이는 A1이 대표적이다. “노동시간이 유연함”은 대부분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었고, “일상과 노동이 분리되지 않는 생활”은 창조적 활동이 중심인 A4, A5, A6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표 4-2-2〉 플랫폼 노동 경험과 의미

주제	개념
플랫폼 노동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로 숙련도 요구수준이 다름 - 노동시간이 유연함 - 유연하나 통제당하는 노동 - 위험의 개인화 - 경제적 손실의 개인화
플랫폼 노동의 다양한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입직을 위한 학습의 기회 - 자유롭고 감정손상이 적음 - 일상과 노동이 분리되지 않는 생활 - 곧 떠날 일 - 늙고 같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일

가. 플랫폼 노동의 경험

플랫폼 노동의 경험에서는 ① 유형별로 숙련도 요구수준이 다름, ② 노동시간이 유연함, ③ 유연하나 통제당하는 노동, ④ 위험의 개인화, ⑤ 경제적 손실의 개인화 등 5가지 개념이 확인된다. ② 노동시간이 유연함, ③ 유연하나 통제당하는 노동, 이 2가지 개념은 모든 인터뷰 참여자 전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숙련도 요구수준은 택배업(A1)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달리, 과외(A2, A3)는 상당한 학력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고, 창조적 활동(A4, A5, A6)은 높은 수준의 숙련도를 요구하고 있었다. 건강을 돌볼 수 없는 노동조건은 주로 창조적 활동(A4, A5, A6)에서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은 진입 경로와 맥락이 닿는데, ② 노동시간이 유연함이 그 강점이나, 그 조건들은 개인이 놓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1) 유형별로 숙련도 요구수준이 다름

숙련도 요구수준은 직종에 따라 다르다. A1이 언급한 바대로 “운전 잘 하는 것”만 요구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A2가 언급한 바처럼 “기초지식”과 “체력”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A4, A5, A6과 같이 전문적 역량(일러스트레이션, 웹소설, 웹툰 등)이 없으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일도 있다. 숙련도 조건으로는 연구 참여자들의 플랫폼 노동을 하나로 묶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배송할 물건(정보)이 핸드폰에 들어오거든요, 앱으로. 제가 할당받는 물건. 물건마다 지역번호가 있어서 그걸 제가 확인하고 그 롤 테이너를 제가 찾아서. 짐들이 실려 있는 롤 테이너 박스 큰 거 있어요. 그걸 제가 제 차 앞으로 끌고 와서 거기 있는 짐을 제가 하나씩 핸드폰으로 스캔을 해요. (중략) 숙련도는 필요 없어요. 운전 잘해야 하고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A1

만약에 그런 기초지식이나 기초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A2

2) 노동시간이 유연함

플랫폼 노동조건을 대표적 특성 중 하나는 노동시간이 유연하다는 것이다. 앞서 노동 과정과 방식은 통제당할지라도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자유롭다는 것은 진입 경로가 되기도 하는, 연구 참여자들이 꼽는 중요한 공통적 노동조건이다.

A1의 표현대로 “업무의 자율성”은 “정말”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고 싶을 때 일하는 것은 틀림없는 자율성이다. 그러나 그 뒤에 제시되는 유연함 속에 통제가 존재한다. “그런데 자율성이 높은 만큼 제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꼭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결국 “어시”¹⁹⁾에 의해 배

정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때로는 일감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터치” 혹은 “강압”이 없다는 점에서 노동시간 통제가 유연하다고 A1은 느끼고 있었다. A3(화상과외)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과 조울만 되면, 시간이 유연한 점이 플랫폼 노동의 특징이라고 하였다. A4(웹 일러스트레이터)도 많이 그리면 돈을 더 벌고, 적게 그리면 덜 버는 구조라 그 유연성이 플랫폼 노동의 특성으로 꼽았다. 비단 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들은 시간의 유연성이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언급하였다.

업무의 자율성은 정말 자유로워요. 저 하고 싶을 때만 하니까. (중략) 그런데 자율성이 높은 만큼 제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꼭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무시간대를 정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배정, 미배정이 와요. 미배정이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럼 일하고 싶어도 할 수는 없어요. 대신 일을 할 때는 어떤 터치나 강압적인 부분은 없어요. A1

네. 제가 원하는 요일,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고 또 학생과 조울이 가능하다면 원래 하고 있는 시간과는 다르게. 내가 이날 일정이 있으니까 다른 요일에 하면 어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조절도 가능해요. 그 점도 좋았고. 네. 2주일에 한 번씩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일주일에 세 번씩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총 횟수만 맞으면 되니까. 유동적이죠. 그렇죠. A3

대신 이걸 제가 한 달에 많이 그리면 많이 그럴수록 돈을 많이 받고 만약에 제가 한 달에 한 장도 못 그렸다면 그 달은 돈이 없는 거고, 이런 식이에요. A4

3) 유연하나 통제당하는 노동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유연한 것과 대조적으로 노동행위는 여러 방식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었다. 플랫폼업체들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와 노동자의 노동력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업무를

19) OO에서 일감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직책의 종사자를 ‘어시(assistant의 줄임말)’라고 한다.

노동자에게 지시하고 있었다. 플랫폼업체와 노동자의 관계는 노동력 중개이기 때문에 업체의 업무지시가 명확할수록 피고용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긴다. A1의 경우 배송물량이 남았을 때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라는 청유형 지시가 내려진다.²⁰⁾ A2처럼 방문교사활동 역시 업체의 “플래너”가 “조정” 기능을 통해 학부모와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배정하는 것으로 업무에 관여한다. 창작자의 재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웹툰 작가인 A6도 비슷하게 업체에서 수정을 요청한다. 단순히 웹상에 만화를 대리하여 게재하는 것을 넘어 일명 “빨간 펜”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도한 개입이 이뤄졌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업체의 담당 PD가 누구인지에 따라 개입수준은 달라지지만, 때로는 “웃이 마음에 안 들어요”와 같이 작가의 재량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플랫폼업체는 지시하되 고용하지 않는다.

네. 전화 와요. 예를 들면 A1 님, 지금 열 개밖에 안 남았는데 어디 지역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연락 와요. A1

그쪽에서는 플래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스스로 제 시간표를 짜기도 하지만 그 시간표에 안 맞는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걸 그 플래너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면 그분들이 조정해주는 역할도 해주시는 것 같고요. A2

아예 그림에 빨간 펜 쳐서 고치라고. 빨간 펜이라고 유명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중략) 조언을 좋은 쪽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러게, 빨간 펜을 쳐가면서. 그렇게 빨간펜 쳐달 정도면 좋은 조언이 아니라 약간 PD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수정 사유라서. 이게 PD마다 달라요. A6

20) 흥미로운 점은 업무지시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관리자에 의해 이뤄지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이뤄진다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명확한 방식이 아닌 “청유형”으로 이뤄지며, 결국 노동자의 선택에 의해 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귀결되도록 이뤄진다. 결국 노동의 책임은 노동자 개인에게 개별화되어 돌아간다.

업무지시를 넘어 노동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플랫폼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행위를 결정할 수 없는 현상도 확인된다. 노동시간의 유연함이 특징적인 플랫폼 노동에서 세부적인 작업내용에 대한 재량이 노동자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A3의 경험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화상과외를 수행하는 A3는 교육행위라는 특성상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교육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수업의 주기는 어떠한지, 어떤 교재를 쓰는 게 좋을지 등을 선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플랫폼업체를 경유하지 않고 과외를 한다면, 학부모와 학생과 동의가 될 경우 이러한 선택은 과외교사에게 위임된다²¹⁾. A3의 화상과외 노동조건을 보면, 노동자는 몇 시간을 일할지 선택할 수 있으나, 수업 주기는 플랫폼업체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수업 교재를 업체가 제공하는 것만 써야 한다는 점이다. 중3을 대상으로 수업할 때, 기본기가 부족해 낮은 학년용 교재를 사용하고 싶었으나, 업체에 의해 통제당한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그 업체만의 정책인지 혹은 화상과외업체의 일반적인 현상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교육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학력수준이 낮은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교육하기를 원하는 교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권한은 통제당한다.

A4의 경험은 A3과 다르나, 권한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웹 일러스트레이터인 A4는 작품의 계약방식이 “매절(買切)”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²²⁾ 자신이 그린 일러

21) 물론 모든 과외교사가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다. A3의 경험처럼 수업의 주기와 교재까지 통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22) 매절계약(買切契約)은 사전적 의미로 상인이 물건을 팔다가 남더라도 반품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출판업체의 관행적 계약방식이다. 저작물을 생산한 창작자가 자신의 2차 생산의 권한을 모두 업체(출판사 혹은 플랫폼업체)에 넘기는 것이 일종의 매절계약에 해당한다. 최근 『구름빵』을 그린 백희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인 구름빵 캐릭터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매절계약 조건에 기인한 대표적 예이다.

스트레이션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조건에서 그 작품이 2차적으로 변형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과외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회사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행하게 되는 책을 회사에서 정해주거든요. 종류를. 그리고 PDF파일을 저한테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이 그 책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는 다른 책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저한테는 그 파일도 없고 회사에서 이 책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한테 화상과외 실시간으로 할 때 회사에서 정해줘서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네가 다른 걸 원한다면 회사랑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화상과외하는 채팅으로 회사 직원 분께서 회사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라 해서 풀어주는 건 괜찮은데 전반적인 수업을 그 회사에서 정해주는 걸 써야 돼요. 왜냐하면 PDF파일을 화면에 띄워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파일이 없으면 수업을 못 하게 되거든요. (중략) 예전에 중3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학생은 중1 과정도 제대로 못 봤은 학생이었어요. (중략) 학부모님께서도 우리 아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걸 계속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중략)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돈 주고 저한테 과외를 받는 건데 이왕이면 제대로 순서를 밟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회사는 전혀 그런 걸 배려해주는 것 같지 않았어요. A3

단가가 너무 낮고 매절이니까 수익 배분이 전혀 없고, 또 제 작품이 아닌 거죠. 온전히 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 자체가 어차피 매절이니까, 넘어간 거니까. 매절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 그림을 가지고 나중에 뭘 할 수는 없는 거죠. A4

계약조건 등을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동에 대한 통제가 업체에 의해 이뤄지기도 한다. 일종의 정보 비대칭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업체에 비해 정보를 적게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중개 수수료를 등에 대해 인터뷰 참여자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 물론 인터뷰 참여자들이 예외적일 수 있다. 그러나 A2는 인터뷰 과정에서 상당히 주도면밀한 특성이 확인되었는데, 그의 말처럼 “수수료율을

알아보고 싶어서” 부모가 사용하는 앱에 가입하려 시도했지만, 안 되어 결국 수수료를 알지 못했다고 하였다. A3도 마찬가지다. 그 역시 매월 철저히 청약통장에 입금할 정도로 주도면밀한 편이었는데,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A4는 어떻게 일러스트 작품당 단가가 책정되는지에 대해 “전해 들은 바”로 추정하고 있고, “장르마다 다른” 상황 역시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A6도 중개 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르고, 계약조건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다. 의도된 것인지와 무관하게 정보 비대칭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되는 기제로 작동한다.²³⁾

저도 중개 수수료를 알아보고 싶어서 부모님 앱을 제가 가입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느꼈을 때는 부모님들이 일정 금액을 〇〇〇에 지불을 하고, 플랫폼 사용료를 좀 지불하고, 몇 프로인지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A2

회사한테 수수료 얼마 떼이는데도 모르거든요. 어쨌든 떼이는 건 분명하니 까 페이지 말고 요즘 〇〇(화상회의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잖아요. 〇〇으로 수업하면 우리 돈 더 잘 벌겠다고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긴 해요. A3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작가의 경력을 보고요. 작가가 일러스트 쪽에서 경력이 어땠는지를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추측인데 장르마다 투자되는 돈도 다른 것 같아요. (중략) 일단 저는 당시 신인이었기 때문에 가격을 굉장히 낮게 받았었고 다음 작품에서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경력을 주로 따져요. A4

그건(중개 수수료는) 제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에이전시회사랑 계약을 하고 그 에이전시회사가 플랫폼이랑 계약하기 때문에 제가 제삼자가 되니까 계약서도 모르고 계약조건도 모르는 거예요. A6

23) 인터뷰 과정에서 노동계약서를 보여줄 수 있는지 연구진이 요청했더니, 한 참여자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여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계약서상에는 상세히 노동조건 등이 제시되어 있었으나 연구 참여자는 앱을 설치할 때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넘어가듯, 노동조건과 상황에 대해 그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소비자와의 소통도 최소화하도록 관리되고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소비자와 소통을 덜할 수 있기에 감정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나, 소비자와 관계 맺음을 업체가 최대한 차단하는 것 역시 일종의 통제기제로 보인다. A2, A3의 경우 방문교육, 화상과외가 이뤄질 때, 학부모와 직접 계약해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직접 거래하는 것도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학부모와의 개인적 “거래”나 소통은 최대한 하지 않도록 업체로부터 지침을 받았다. A2는 이러한 업체의 지침이 일면 타당하다고 여겼다. 플랫폼업체가 중개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와 노동자가 직접 소통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를 돈 주고 불렀어”와 같은 상황, 즉 갑-을의 사적 계약관계가 설정됨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A4 역시 웹소설에 넣을 일러스트 작업을 할 때 중개하는 업체와 소통할 뿐, 작가와 직접 소통하는 일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단절은 A2의 언급처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노동자가 자신의 서비스 대상이 되는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없기에 자신의 노동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예컨대, A2의 말대로 “애매한 상황”은 플랫폼업체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에, 노동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업체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명확하게 A2는 업체에 고용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부모에게 고용된 것도 아니다. 학부모는 “내가 너를 돈 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와 소통해야 하며, 노동자 역시 학부모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에 의존하게 된다.

개인 간 거래를 최대한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너를 돈 주고 불렀어”의 상황이 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는 갑을관계가 생성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돈을 받는 입장에서 “돈 주실 때가 됐는데요”라고 말씀드리기도 되게

애매하고, 또 돈 주는 입장에서도.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최대한 개인 간 거래는 하지 않는 걸 추천한다고 하는 얘기를 되게 강조했구요. A2

저는 지금까지 작가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A4

하지만 지시하되 고용하지 않는 플랫폼업체는 마치 직원을 대상으로 하듯 노동자를 평가하고, 일감을 배분하거나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동을 통제하고 있었다. A1은 아파트 배송이 초보자에게 편하기 때문에 아파트 쪽을 주로 선택해 일감을 받았다고 한다. 보통 기피하는 지역이 택배 물품 절도가 많은 서울지역의 모 주택가인데, A1에게 계속 그 지역이 배정되자, “어시”에게 자신의 차량이 경차여서 그곳에 배정되는 것인지 화내며 항의했지만, “랜덤”으로 배정되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그 후 항의했던 자신만 계속해서 그곳에 배정되었고, 어떤 날은 새벽 3시 반부터 1시간가량 기다려도 업무가 배정되지 않아 허탕 친 날도 있었다. ○○○의 노동강도가 더 센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른 지역은 2시간 걸릴 배송물량도 그 지역은 2배가 더 걸렸다. 결국 그는 중간에서 관리하는 “어시”한테 항의하고 손해를 보았다. 규정상 “어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천 원 한 장”도 뇌물로 쓸 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자들은 “어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커피”, “빵이나 음료” 같은 것을 갖다 준다. 뭘 갖다 주지 않더라도 “어시”가 “급한 물건” 배송을 요청하면 잘 들어주는 것이 지역이나 물품이 “좋게 오는” 관계로 이어진다. 불만을 갖고 “한마디” 하면 “블랙”을 먹게 되고, 일이 끊기게 된다. 그 후 “재가입”은 불가능하기에, 실제로 해고되는 것이다.²⁴⁾

24) 전문가 자문에 의하면 일명 “블랙을 먹게” 되는 것이 해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에 대부분 수입을 의지하는 노동자의 경우 일주일가량 업무가 배정되지 않는 블랙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일을 찾을 수밖에 없기에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거기는 너무 좋았어요. 아파트를 주더라고요. 아파트가 초보가 배송하기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 거기에서 제일 사람들이 기피하는 동네가 ○○○이에요. ○○○이 절도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하루 ○○○을 샀어요. 달동네를. 나도 달동네 갈 수 있지 했는데, 다음 날도 또 ○○○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3일째 또 거기를 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물어봤어요. 그 캠프 담당자한테 가서 죄송한데 혹시 제 차가 경차라 자꾸 ○○○을 보내시는 거냐 했더니 그 사람이 제가 그랬어요? 하면서. 저 지금 3일째 ○○○만 가잖아요 그랬더니 아, 일부러 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랜덤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A1

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어시가 기분이 상했나 봐요, 제 생각에는. 저는 안 갈래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마디 하더니 그 뒤부터 ○○○을 쬐. 그래서 그 캠프를 그때 새벽이어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캠프로 4시 반까지 가서 한 시간 정도를 기다렸거든요, 밖에서 겨울에. 그런데 그게 너무 부당하게 느껴져서 제가 쌍욕을 하면서 다시는 안 샀어요. (중략) 제가 그때 만약에 30개를 했어요. 다른 캠프에서는 두 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거기에서 네 시간이 걸렸어요, ○○○에서는. 그만큼 힘들어요. 일하다가 울었어요. A1

천 원 한 장을 어시한테 써서는 안 된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커피 사다주는 사람도 있고 빵이나 음료, 과일 가져다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고 돈 아까워서. 그냥 인사 잘하고. 만약에 캠프에서 너무 급한 물건이 있어요, 배송을 해야 되는. 그럼 저한테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한 번씩 들어주는 거. 그럼 그다음 좋게 와요. 캠프가 조금 물건이 편하게 와요. (중략) 거의 참으세요. 카페에 그런 사례가 많아요. 저희끼리 얘기하잖아요. 맨날 요구하시다가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한마디 해야겠다 하고 한마디 하시면 그 후로 일을 못 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캠프에 따지면 저 사람처럼 아이디 블랙 먹는 거야, 그리고 일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은 재가입이 안 돼요. A1

A2와 A3의 경우 A1과는 다르지만 평가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일지”를 통해 직무수행을 모니터링하고, 학부모로부터 불만이 제기될 경우 회사 측에서 대처하며 노동자를 평가한다. A3의 언급에 따르면 다른 친구들은 중학생 수학 화상과의 시급이 1만 2,000원인가 하

면, 다른 친구는 1만 3,000원으로 달랐다고 한다. 면접 시 일종의 평가가 이뤄지고, “레벨”이 결정된다. A3은 자신의 레벨이 몇 단계인지 볼 수 있지만, 그 레벨이 어떤 의미이고, 얼마만큼의 시급과 연결되는지 알지 못한다. 단지, 자신의 노동이 평가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다.

업체 측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 아직 그걸 차등해서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사실 많이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안 좋은 피드백 받았던 게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제가 피드백을 잘 안 쓴다고. (중략) 그때 딱 한 번 피드백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안 좋은 피드백이 들어온 게 없어서 아직 디스어드벤처지를 안 받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제가 받고 있는 건데 제가 감지를 못 하는 건지 그걸 몰라서. A2

수업이 끝나면 수업마다 일지를 써요. 일지를 써서 어떻게 수업을 했고 어떤 수업을 했고 숙제는 뭐고 해서 회사도 볼 수 있고 학부모님께도 문자가 가는데 만약에 학생 태도에 대한 불만 사항이 있을 때 회사에서 처리해주실 것 같아요. A3

제 동기도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줘서. 동기는 원래 중학생 시급이 1만 2,000원이예요. 그런데 그냥 처음 받을 때부터 1만 3,000원을 받는 친구들도 있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면접 때 고등학교 2학년 어떤 단원을 어떤 개념을 설명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보고 선생님들 레벨을 따지는 것 같았어요. 그것에 따라서 좋은 선생님이면 조금 더 쳐주고 아니면 기본으로 주는 시스템. 왜냐하면 (중략)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레벨이 적혀 있는 칸이 있어요. 선생님 레벨이. A3

웹 일러스트레이터 A4와 웹툰 작가 A6 역시 경력 등 평가에 따라 급여 책정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였다. 앞서 A4는 신인이라 단가가 낮게 책정되었다. A6의 경우를 보면, 웹툰 사이트의 화면 상단에 게재되는 것을 무엇보다 하는지는 업체의 판단이며, 그 과정에서 일종의 평가가 개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6은 상단에 6개월 가까이 자신의 작품이 게재되어 잘 홍보된 것은 좋았지만, 업체에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관리

하고 있고,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작품은 모두 사이트에서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통제기제가 작동되고 있었다.

저는 당시 신인이었기 때문에 가격을 굉장히 낮게 받았었고 다음 작품에서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경력을 주로 따져요. A4

L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말 했다고 블랙리스트 두 분 올려서. 내부 문건이 유출돼서 들켰어요. L블랙리스트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그렇게 두 분 올려서 작품 홍보를 다 배제시킨 거예요. 홍보가 안 되면은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블랙리스트 올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도 K에서 연재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화이트리스트였는데 독점 작품이 한 줄에 열 작품 이상 있어요. 그런데 메인에 뜨는 홍보 배너는 세 개밖에 없거든요. 제 작품이 거의 반년 이상을 세 자리 중 하나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좋긴 하지만 작품이 열 편 넘게 있는데 제 작품이 그렇게 계속 반년 이상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조금 불공평하죠, 같은 독점 작품인데. A6

4) 위험의 개인화

시간관리가 유연하나 통제당하는 플랫폼 노동의 위험은 노동자들에게 개인화된다. A1은 자차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고 하였다. 자차 배송업무 중 사고가 날 경우 이는 개인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도 배제되기 때문에 “청구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A3는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놀아주는 활동 역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놀아주던 중 다칠 경우 부모로부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A3는 회사에 물어보니 “그렇게 할 일”이 없고 좀 더 알아보고 답을 준다고 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명확한 답이 없는 걸 볼 때 “아마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²⁵⁾

보험이 안 돼요. 아예 없어요. 운전은 제 책임 100%. 제가 알기로 차가 6인

용 이상부터 무슨 보험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대요. 그런데 6인승 이하
는 그게 가입이 안 돼서 보험 못 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주
행 중 사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저희가 택배를 하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제 과실이면 저희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 안 해준다고 들었어요. (중략) 실제
로 저도 저 혼자 차를 박은 적이 있었거든요. (중략)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보험 청구해도 그만인데 요새는 그래도 청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험사가 오면 블랙박스를 확인하거든요. A1

얘기들 보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그게 할 일(교육대상 아동의 손해 발생으
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딜레이가 되고 있지 않
나 싶긴 한데. 그때 업체 쪽 얘기를 들어보면 안 되어 있다는 의미인 것 같
은데. 아마 개인이 부담할 것 같아요. A2

앞서 A1과 A2는 업무수행과 손실(위험)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편이나,
장기간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여러 만성적인 건강문제 역시 업체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특히 창조적 업무를 수행하는 A4, A5, A6 등은 작품활
동기와 준비기로 시기가 나뉘는데, 작품활동기에는 마감 압박 등으로 거
의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에 건강을 돌보기 어
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로 인한 건강손상은 개인 노동자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된다. A4는 우울증이 있는데, 발병 자체가 노동조건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인지는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과중한 노동은 최소
한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저해 요인으로 보인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단가
가 오르지 않기에 “굉장히 지치는” 상황이 되고, 이로 인해 우울증이 더 심
해지는 것 같다고 하였다. A5와 A6는 웹툰과 웹소설 연재기간 중 제한된
공간에서 거의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을 챙

25) 전문가의 자문에 의하면,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OO는 사고 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
는 구조라고 한다. 자차 보험의 경우 소득 발생하는 배송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하
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통상적으로 사고 발생 시 상대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배송 중
이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근 6인승 이하의 유상운송차
량에 대한 특약 보험 상품이 존재하지만,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길 수 없다고 하였다. A5는 밥상을 옮기다 허리를 삐어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A6 역시 운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정신적인 면에서는 계속 단가가 낮고 부당한 일이 생기니까 데뷔작을 하고 있던 당시에도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물론 그 일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 환경에도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우울증이 온 거였지만 계속 이 일을 하다 보니 지금은 굉장히 지쳐서 뭐라고 해야 될까. 몇 년이 지나도 사실 단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단가가 오르더라도 15만 원이 그 한계예요. A4

건강관리가 힘들죠.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대 사회인들이 다 그렇다 보니. 자각들은 더 밖으로 나갈 일도 없어서 최소한의 이동마저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대중교통을 탄다는 가 하는 시간도 없고 누구와 만나서 얘기할 만한 시간도 내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더 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제한되어 있고 원룸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 외에는 할 수 있는 운동이 거의 없죠. (중략) 오래 앉아 있거나 장시간 있다 보면. 지금은 글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공부도 같이하고 있어서 복합적이긴 한데 앉아 있는 상태로 제가 밥상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어서 이렇게 된 거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앉아 있기만 하기도 했어요. A5

운동은 최대한 해보려고 하지만 확실히 연재 중일 때는 못 하긴 했어요. 계속하니깐. 계속 다음 편을 세이브해야 될 것 같고. 밀릴 것 같고. 그래도 차기작 들어가면 좀 시간 내서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A6

5) 경제적 손실의 개인화

위험의 개인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역시 개인화되고 있었다. 소비자가 취소한 것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한다거나, 콘텐츠 창작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매절계약이나 단가 후려치기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노동자들이 떠안도록 하고 있었다. A3의 보고와 같이 사용자(학생)가 일방적으로 수업 개시 직전에 수업을 취소했을 경우 연구 참여자는 수업

료를 일부라도 받지만, 사실상 사용자(학생)는 모든 금액을 미리 지불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환불되지 않는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해당 차액은 A3에게 지불되지 않고 업체에서 회수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⁶⁾ 업체에서 회수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취소가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회수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이러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원래는 하루 전에 미리 연락을 해야. 저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스케줄을 바꿀 때 하루 전에 연락을 하자고 미리 회사랑 약속을 한 거예요. 근로계약서 쓸 때 그 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학생이 수업을 무단으로 15분 지각을 하면 무단결석이라고 체크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걸 하게 되면 1회 차가 그냥 체크가 되는 거고 그 대신 급여는 원래 1만 3,000원이라면 4,000원씩 줘요. 수업을 안 하는 대신 1회 차가 그냥 날아가고 4,000원의 비용을 저한테 주고 나머지는 회사가 갖는 거고. A3

매절계약이나 단가 후려치기 등의 부당 노동조건(계약)은 주로 A4, A5, A6 등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확인된다. 방식은 매절계약, 부당한 요구, 작가가 웃돈 얹어주기, 미니멈 개런티(일명 'MG') 등이 그에 해당한다. 부당하게 계약한 A4의 매절로 인한 피해는 매우 구체적이었다. 창작자가 작품을 플랫폼업체에 제공할 때 어떠한 저작권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매절계약이다. 매절로 계약이 이뤄지다보니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이 2차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이 그린 일러스트로 다른 활동을 할 수 없다. A4는 플랫폼업체를 통해 넘긴 자신의 일러스트가 출판사에 넘어갔고, 출판사에서는 웹소설을 재편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일 없이 A4에게 재작업을 요청하였다. A4는 자신의 작품이 출판사에 넘어간 것도 모르던 상황에서 일러스트 해

26) 이는 연구 참여자의 진술로만 확인한 것이기에 단정하기는 어렵다.

상도를 다르게 다시 작업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보정만 하는 것을 넘어 완전한 재창작 작업이었기에 적절한 인건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출판사 쪽에서는 터무니없는 단가를 제시했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출판사 쪽에서는 A4의 작품을 다른 작가에게 넘겨 재작업을 요청했고, 자신이 애써 만든 작품의 콘셉트가 완전히 “뒤통수” 바뀐 것을 보며 심리적으로 무척 힘들었다고 하였다. 플랫폼 업체는 웹소설 작가들과 일러스트레이터를 중개하는데, 이때 웹소설 작가가 특정한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을 요청하려 하나, 이때 중개업체에서 이미 정한 단가 이상으로는 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웹소설 작가가 특정 일러스트레이터와 일하고 싶을 경우 개인적으로 웃돈을 얹어주어야 하는 것이 관행이다. 플랫폼업체가 중개하는 것을 넘어 시장가격을 통제하는 기능까지 거머쥔 것이다.

단가가 너무 낮고 매절이니까 수익 배분이 전혀 없고, 또 제 작품이 아닌 거죠. 온전히 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 자체가 어차피 매절이니까. 넘어간 거니까 매절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 그림을 가지고 나중에 뭘 할 수는 없는 거죠. A4

그리고 장당 5만 원도 줄 수 없다고 했고요. 그럼 저는 남는 것도 없고 작업량도 많고 그걸 제가 감당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계속 강짜를 부리더니. 그래서 저는 그걸 ○○○에도 말을 한 거예요. 출판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 측은 정작 자기들은 출판사랑 관련이 없다, 우리 측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나온 거죠.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도움 받을 곳도 없고, 저는 아직 신인이어서 잘 아는 것도 없는데 ○○○ 측에서는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고만 하고 출판사는 그림을 그려내라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중략) 매절이기 때문에, ○○○ 측에 완전히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중략) 어쨌든 저는 제 캐릭터 디자인을 도용당한 상황을 맞은 거죠. A4

유명한 작가들도 15만 원 이상 받지 못해요. 많이 했어도. 그리고 만약에 어떤 작가가 나는 15만 원에 일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작가를 꼭 쓰고 싶다면

글작가가 돈을 줘요. 글작가가 돈을 더 보태줘요, 자기 사비로. 그런 식으로도 운영이 돼요. 저는 그게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해요. A4

미니멈 개런티(MG)는 웹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독특한 제도이다. 웹툰 작업을 할 때 선지급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선지급액은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이다. 예를 들어 작품활동을 하는 동안 3,000만 원을 MG로 받게 되면, 작품활동이 종료될 시 이 돈을 갚아야 한다. 만약 수익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MG를 갚아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가에게 추가로 수익이 지급된다. 그러나 수익이 그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작가에게는 빚이 된다. 결과적으로 일정 금액을 선지급으로 받는다는 것은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실제로 작가들은 MG를 빚처럼 여긴다. 작품활동을 시작할 때는 돈이 없어서 MG가 도움이 되긴 하나, 작품활동 후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갚아야 하기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MG(미니멈 개런티)라고 대출을 해주는 느낌으로 돈을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일을 했는데 빚만 쌓이고 있으니까 일하는 입장에서도 계속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좀 더 잘 쳐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 외에는 계약적인 부분에서 제가 플랫폼이랑 계약을 해서. 아무래도 작가가 약자라서 좀 불공정한 계약서를 받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중략) 일단 MG라는 게 말 그대로 미리 돈을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갚아야 되죠. 제가 첫 번째 연재에서는 고료를 받았지만 〇〇〇에 들어가면 MG를 받을 텐데 만약에 〇〇〇에서 MG를 3,000만 원 받으면 그 3,000만 원을 다 갚아야 되죠. -A6

부당한 노동에 대해 A5와 A6는 노동조합 가입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있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약칭 디콘지회)가 2019년에 창립되어 노동계약 시 불공정 계약이 없는지에 대해 법률검토를 해주고 있다. A5는 노조에 가입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며 “나 혼

자가 아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친척 중 변호사가 있어 법률자문을 받아본 것도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A6 역시 노조를 통해 공동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디콘지회는 디지털 창작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고, 연구 참여자들 역시 그러한 활동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플랫폼 노동 청년들은 여전히 이러한 노조와 동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후술하겠으나, 플랫폼 노동이 아르바이트나 일시적 용돈벌이를 넘어 직업성을 인식하게 되면 연대활동의 양상이 달라진다. A5, A6은 비록 장기적으로 공무원을 꿈꾸고 있다 해도 웹소설이나 웹툰 작가를 하고 싶어 한다. 자신의 직업성 인식이 분명한 셈이다. 그러나 A1은 ○○○가 결국 들고 돌아 할 수밖에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가입이나 권리 주장을 힘들어한다. 개인적인 정치적 효능감도 작동할 수 있으나, 그 일을 “직업”으로 인식하느냐가 연대를 위한 활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일단은 계약서 검토를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있고 불공정 사례 같은 경우는 제보를 계속 받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플로업을 하시려고 몇 분 준비하고 계시고 또 다양한 부당한 것에 대해서 노조 간부들이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시위 같은 걸 같이 참여하거나 연대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간에 노조가 있어서 그런 좋은 점들, 그러니까 노조가 있음으로 소속감, 나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물론 저는 그전에 계약서 검토를 저희 친척이 아는 분인 변호사한테 한번 받은 적이 있긴 하지만요. A5

L이라는 플랫폼이 불공정으로 엄청 공론화가 돼서 그것 때문에 해결하려고 힘을 모으고 싶은 작가들이 따로 연대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저도 있었고, L은 잘 해결이 돼서 그때 그 연대 주축으로 계셨던 작가님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노조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저도 이분들이 하면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조 가입을 했죠. A6

나. 플랫폼 노동의 다양한 의미

연구 참여자들에게 플랫폼 노동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었다. 그 의미는 개인적 특성과 직무 속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졌다. 중산층 대학생들에게 아동과 함께하는 방문교육과 화상과외는 미래 입직의 학습기회가 된다. 정규직이나 정규적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일과 달리 플랫폼 노동은 “자유롭고 감정손상이 적은” 노동이다. 그것이 비록 업체에 의해 여러 방식으로 통제당하고, 평가에 의해 차등적인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당장 눈앞에서 관리자에 의해 감정을 통제당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하지 않는다. 웹소설 작가나 웹툰 작가들은 여가를 활용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도 작품활동을 꿈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은 삶을 침투한다. 일상과 노동이 분리되지 않아, 창작자들은 작품활동 중 쉬어도 쉬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직업성”이 당사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일(예: 택배, 과외 등)은 “곧 떠날 일”로 받아들여지나,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숙련도가 낮은 노동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A1에게는 “늪과 같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일”로 인식되기도 했다.

1) 미래입직을 위한 학습의 기회

미래입직을 위한 학습의 기회로의 인식은 주로 A2와 A3에게 확인된다. 둘의 공통점은 중산층 20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이라는 것이다. 둘 다 대기업 사원 혹은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교육 관련 활동(A2는 방문교육, A3은 화상 수학과외)을 한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이들에게 현재 수행하는 플랫폼 노동의 진입 동기는 주로 용돈 벌기이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일이기에, 그 일의 부당함이나 노동조건 등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편이다. 그 대신에 그 일을 통해 오히려 성장을 경험한다.

A2는 교회에서 교사활동을 하며 아이들을 오래 봐왔는데, 아이들의 행동 차이가 가정환경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느꼈고, 방문교사로 일하며, 가정 내 의사소통과 집안 분위기 등을 관찰하며 아이들의 행동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경험은 앞으로 자신이 가정을 꾸리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을 깨우치며 스스로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을 함부로 속단하지 않고 소통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도 하였다. 그에게 방문교사활동은 사실 월 수십만 원의 용돈을 번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대기업 식품회사 마케팅 입사를 꿈꾸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이러한 아동교육 경험은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보았다.

A3은 화상과외가 일종의 간접 사회 경험이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도 있었고, 과외를 해본 경험도 있었지만 플랫폼업체를 통해 연결받은 화상과외 업무의 주 접촉대상은 업체 담당자이다. 편의점과 과외에서 고용주는 자신을 대학생으로 바라보나, 업체에서는 자신을 피고용인(물론 고용관계는 없음)으로 바라본다고 했다. “회사랑 연락하는 것”에는 다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명 “정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며 이후에 학부모와 소통할 때 좀 더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는 걸” 보며 스스로 “발전”했다고 느꼈다고 한다.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업종을 선택했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많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계획했던 1년을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만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죠. 아이들 한 명 한 명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도 해보고. 또 그 아이를 보면서 집안환경도 다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자아성찰도 좀 하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A2 혹시라도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랑 소통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서 함부로 제가 속단하지 않고 아이랑 소통하는 그 자세가 먼저 되어 있었지 않았다. A2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 이모티콘도 날리고 편안하게 대화한다면 회사랑 연락하는 건 정적이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런 점이 어색했거든요, 작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러저러 잘 전달하는 것 같고. 꼭 이 알바랑은 상관 없긴 한데 어쨌든 시간을 딱딱 지켜서 들어오고 끝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습관 기르는 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A3

2) 자유롭고 감정손상이 적음

플랫폼 노동의 가장 큰 장점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자유롭고 감정손상이 적음”을 뽑았다. 이는 어떤 일을 수행하든 이는 공통적인 요소로 확인된다. A1은 가족 뮤지컬 배우를 하며 항상 오디션을 보며 매번 불안해하다가 지금은 자신이 원할 때 움직이면 수입이 발생하는 “너무 단순한 일”을 하며 “머리를 쓸 일이 없는” 상황이 “쉬는 시간”이자 “마음이 너무 편한” 일처럼 인식하고 있었다. A3은 일하며 “다른 사람”과 부딪칠 일이 없는 것이 좋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손님이 돈을 던질 때처럼 감정손상을 일으키는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소비자를 연결받으며 소비자와 감정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부담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A4는 업무량 통제가 자유롭기 때문에 “살인적이지 않은” 조건이라고 했다. A5는 “휴가를 따로 제출하려고 눈치” 불필요가 없다고 했고, A6는 “겸직이 가능”한 것이 현재 일의 장점이라고 하였다. 고용되어 일정한 시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던 것에서 벗어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에서 그 일을 매우 중요한 미덕처럼 여겼다. 연구 참여자들이 비록 소득이 낮아도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으로 “자유”와 “감정손상이 적음”을 뽑은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 중 하나이다.

요새 마음이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항상 오디션을 봐야 됐고, 내가 이 작품에 떨어지면 거기에서 자괴감이 시작되었는데. 어쨌든 공연을 하면서 또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또 이 공연을 만들기도 해야 되니까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일이잖아요. 열 체크만 해주면 되고 택배 배송만 해주면 되고 머리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쉬는 시간 같아요. 지금이. A1

혼자 일을 하니까 사람과. 학생하고 부딪칠 수도 있긴 한데 다른 사람하고 부딪치는 일이 없어요. 빈정이 상한다거나. 알바를 하다 보면, 예전에 편의점 알바 한 적도 있었는데 돈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없었어요. A3

장점은 사실 작업량이 그렇게까지 살인적이지 않다는 거. 웹툰을 하게 되면 주간 연재를 하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쨌든 한 작품만 맡을 경우, 아니면 두 작품만 맡아도 그렇게 작업이 살인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A4

제가 글을 쓰는 걸 직업으로 삼고 싶다 보니까 그 점에서는 만족감이 있었고요. 아마 이 부분은 거의 모든 작가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좋은 점만 다 얘기할게요. 그 외에는 업무시간이 자유롭다고 일단 분량만 채우면 누적 분이 많으면 좀 실 수도 있다. (중략) 그리고 휴가를 따로 제출하려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분량만 채웠으면, 이게 누적 분이 있으면. 그 외에는 업무에 힘든 건 몸을 안 쓰는 업무, 앉아 있는 시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무리가 올 수도 있긴 하죠. 그런 게 대충 있고. A5

그리고 겸직이 가능하다. 공무원도 글을 쓸 수 있죠. 책을 낼 수 있고. (중략) 교육행정의 경우에는 보통 8시에 출근해서 4시 퇴근이거든요. 교육행정만. 국가직 말고 지방직.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일 경우에는 가능할 것도 같긴 한데 연재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제가 취직을 해서 해봐야겠죠. 그런데 단권이나 책 한 권은 연재가 아닌 바로 내는 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시간의 문제죠. 관리의 문제고. A6

3) 일상과 노동이 분리되지 않는 생활

창작활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작품활동기와 준비기가 있는데, 작품활동기에는 “쉬어도 쉬는 게 아닌 느낌”으로 살아가게 된다. 출퇴근이 분명하지 않고, 집 안에서 노동이 이뤄지는 재택(혹은 카페 이용) 근무는 일상과 노동이 분리되지 않는다. 일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삶은 상시적 “불안감”을 가져온다.

구별이 된다고 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약간 삶에 부채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쉬어도 쉬는 게 아닌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게 출퇴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집에서 글을 쓰고 집에서 쉬다 보니까 쉬어도 이거 빨리 써서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마감일자를 또 미뤄야 되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편하지 않는 감이 좀 있습니다. A5

단점으로는 시간관리가 힘들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연재 당시에는 거의 하루 종일 글만 썼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어떨 때는 출근을 카페로 나와서 아침부터 쓰려고 앉았는데 제대로 뽑지 못한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잘 뽑힐 때도 있고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A5

4) 곧 떠날 일

현재의 일을 “곧 떠날 일”로 인식하는 참여자는 A1, A2, A3에게 확인된다. A4~6은 창작활동으로 “직업성”을 강하게 인식한 반면, 위의 3명은 상황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현재의 일을 자신의 직업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A1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잠시 들어온 일이 택배업이지만, 이 일은 임시적인 것, 즉 곧 떠날 의향이 있다. A2와 A3는 명확히 현재의 일이 아르바이트일 뿐 이 방향으로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있지 않다. A3는 만약 취업이 안 될 경우 수학 강사를 할 것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곧 떠날 일이라는 인식이 분명해 보였다.

그런 거죠. 어차피 이제 곧 떠날 건데. A1

사실 제 입장에서는 올해까지만 하려고 계획 중이고 내년에는 취업을 하려고 그 준비를 마무리해나가고 있습니다. A2

너무 취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이쪽에 경력도 있고 이 직업이 저한테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냥 다른 걸 해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너무너무 취업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다 하면 강사를 할 의향은 있지만 그걸 제 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아요. A3

5) 늪과 같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일

A1은 “곧 떠날 일”이라는 인식이 분명하지만,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였다. 공연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30대로서 아르바이트 진입이 어려운 현실에서 선택지가 별로 없었다. 그는 현재 일하는 ○○○ 혹은 물류센터, 라이더 같은 플랫폼업체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하였다. 정규적인 일이라면 콜센터 일을 뽑았다. 그는 곧 떠나고 싶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일이라고 보았다.

저는 현실적인 편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어떻게 하지, 나 이제 서른 세 살이고. 특히 이번에 더 든 생각이 아르바이트를 제가 오랜만에 해봤다고 했었잖아요. 내 나이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잘 안 써주는 나이구나, 그럼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요새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나 이제 무슨 일 하지, 공연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아르바이트가 없네. 그럼 제가 갈 곳은 ○○물류센터, ○○플렉스, ○○커넥터, ○○라이더 이런 곳이겠죠. 아니면 콜센터. 콜센터밖에 없어요. A1

4. 미래와 사회인식

여기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지향성과 미래인식, 사회인식을 살펴해보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의 공통적인 삶의 지향점으로는 ① 윤

택하며 안정적인 삶, ② 비혼의 삶 등이 있었다. 이러한 공통적 지향과 달리 현 계층인식(서 있는 곳)에 따라 달리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중산층 대학생(A2, A3)은 명확한 계획이 있었고, 비교적 밝은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 둘 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원을 꿈꾸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자신을 저소득층으로 인식하며 과거에 다양한 실패 경험이 있는 이들은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사회에 대한 인식으로는 “① 치워진 사다리의 복구”, “② 개인의 자유와 사회발전에 대한 신뢰”,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는 “③ 미덥지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복지” 등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단절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치워진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개인의 자유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국민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험이나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는 “미덥지 않음”의 인식이 확인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는 필요하고,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표 4-2-3〉 플랫폼 노동 청년의 미래와 사회에 대한 인식

주제	개념
삶의 지향성	- 윤택하며 안정적인 삶에 대한 지향 - 비혼의 삶 선택
서 있는 곳에 따라 달리 미래를 인식	- 분명한 미래를 기대함 -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
사회에 대한 인식	- 치워진 사다리의 복구 - 개인의 자유와 사회발전에 대한 신뢰 - 미덥지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복지

가. 삶의 지향성

1) 윤택하며 안정적인 삶에 대한 지향

윤택하며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은 모든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A1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개그우먼을 꿈꿨던 것이 개그 무대에 서는 것이 너무 좋아서라기보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물론, 자신이 청소년기에 개그에 소질이 있었기에 그 일을 꿈꾼 것이지만, 그 일이 자신에게 돈을 충분히 벌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강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도 사실이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과연 자신이 무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하였다. 그는 무대에 서는 것보다 “안정적인 삶”을 희구한다고 하였다.

A2는 인공지능이 도래한 사회에서는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벌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A3에세는 빨리 돈을 벌어서 집을 사는 것이 중요한 지향점이었다. A4는 돈을 적당히 갖고 안정감 있는 삶을 생각하고 있었다. A5는 웹소설 작가를 하고 싶지만 그 일로는 돈을 벌어서 안정적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고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그는 보통 예술가들이 가난한 가운데 대작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해리 포터」와 같은 작품 역시 어느 정도 환경이 뒷받침되어 나온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A6는 큰돈을 벌기보다 “굶어 죽지만 앓는다면” 휴식을 선택하겠다는 인식을 보였다.

제가 원하는 무대에 서면서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집에 사는 거, 그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사실 개그우먼을 꿈꾼 것도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꿈꿨던 거니까. 사실 안정적인 삶을 꿈꿔요. 무대 위의 제 모습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바라요, 지금의 저는. A1

사실상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 AI가 나올 거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여덟 시간 일해서 10만 원 받았던 거 네 시간 일하면서 10만 원 받게 하자. 지금 또 흔하게 얘기 나오는 워라벨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맞출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얘기인 건데, 아마 그 얘기가 되게 이상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A2

그냥 빨리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싶고요. 집을 사서 독립을 하고 싶고, 돈을 번다면 부모님께도 드리고 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대학 등록금도 좀 보태줘야 될 것 같고. 아직 그런 계획밖에 없어요. 그리고 4, 50대에도 계속 일을 할 것 같아요. A3

저는 기본이 금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일단 경제적인 조건을 다 만족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더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고. 내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는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태도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A3

저는 좋아하는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약간 안정적으로, 금전적으로도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4

보통 작가, 예술가라고 하면 힘들 때 엄청난 작품이 나올 거라는 환상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해리 포터」 시리즈라든가. 그런데 보통 잘나가는 작가들, 대작을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작가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환경이 밀받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적인 안정이 있으니까 예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잖아요. 배고픈 철학자하고 배부른 돼지. 이걸 이럴 때 하는 말이 아니다. 하여튼 간에 심적인 안정이 있을 때 인간은 더 다른 것, 생존 이외의 것을 생각하기가 더 쉽죠. A5

굶어 죽지만 않는다면 돈은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되니까 휴식을 얻고 싶. A6

2) 비혼의 삶 선택

대부분 연구 참여자들(A2, 남성)은 결혼을 자의든 타의든 선택하고자 하지 않았다. A1은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 청년저축계좌 가입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혼할 여건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 상황이 슬프다고 했다. A3, A4, A5 등은 결혼 생각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뚜렷했다.

원래는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결혼 생각하는 남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배우였는데 지금은 취직을 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서른 살인데. 그 친구랑 결혼식은 안 올릴 것 같고요. 제 바람이라. 그냥 같이 살 것 같아요. 양가 엄마 아빠 인사나 드리고. 혼인신고 못해요, 청년저축계좌 때문에. 소득. 그건 좀 슬퍼요. 결혼을 하면 남편이 생겨서 소득이 같이 잡히잖아요. 그 기준을 넘어가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도 못해요. A1

결혼을 꼭 안 해야겠다는 건 아닌데 굳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A3

결혼은 할 생각이 없어요. A4

결혼 자체는 집안 내력이 결혼이 별로 해피엔딩이 없어서 결혼 자체는 생각을 안 해서 아마 결혼 쪽으로는 30대 이후로도 없을 것 같고 A5

결혼은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 맞고 서로 괜찮다 싶으면 빨리 결혼을 하고 싶는데 사실 지금 여자친구도 없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웃기고. 괜찮으면 빨리하는 거고 사람 생기면 빨리하는 건데 원래 사람이 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닌지라. 빨리하자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A2

나. 서 있는 곳에 따라 달리 미래를 인식

미래인식은 계층에 따라 갈렸다. 중산층 대학생(A2, A3)과 안정적으로

집에서 도움을 받으며 글을 쓰는 웹소설 작가(A5)는 비교적 분명한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며, 스스로를 저소득층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미래를 불투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단순히 계층인식이 미래에 대한 인식을 구획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효능감을 갖는 것이 과거 경험과 무관하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계층은 미래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공통적으로 참여자들은 고된 노동에 삶을 갈아 넣어야 하는 모습을 꿈꾸지 않았다. 고된 노동이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다. 돈 때문에 어딘가에 종속되어야 하는 삶은 가장 피해야 할 악(惡)이었다. 윤택함을 지향하면서, 그 윤택함 때문에 삶을 억압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즉, 윤택하며 안정적인 삶에 대한 지향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모두 공통적이었다. 결혼은 필수조건이 아님이 확인된다. 남성 참여자(A2)는 빨리 결혼하기를 희망했고, A1은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결혼하기는 어려웠다. 나머지 참여자들은 결혼 계획이 없었다.

1) 분명한 미래를 기대함

A2는 대기업의 식품 영업 분야에 취업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취업 후 3년 정도 영업직으로 일한 뒤 해외지부에서 일하거나 창업을 꿈꾸고 있다. 미래 모습이 구체적이었고 명확했다. 이를 위한 현재 준비도 구체적이었다. 회사에서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성공적으로 높은 순위 안에 들었고 목표로 한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첨삭 지도를 받고 있었다. A3는 A2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

다. 대학생으로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했고, 주택청약과 적금도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기숙사를 유지하기 위해 평점 3.9점을 항상 유지해왔다.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면서 공무원이나 기업 회사원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A5는 웹소설 작가로 데뷔하기 전 게임 관련 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비록 자퇴했지만 현재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소설을 집필하며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는 미래의 자기 모습은 일찍 퇴근할 수 있는 학교에서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인 웹소설을 쓰는 것이다.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 일한다면 정시 퇴근이 가능하기에 자신이 꿈꾸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기대가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마케팅 분야지만 일단은 영업 분야로. 지금 식품영업 분야 생각하고 있어요. (중략) 사실 지금까지의 제 계획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그 기업에 취업을 하고 3년 정도는 거기에서 영업적으로 일하면서 그 기업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사실 영업이라고 하면 속된 말로 밑바닥이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 밑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서 해외지부를 하나 세우는 걸 계획하고 있고요. 그 기업에서 해외지부 하나 세우면서 마케팅팀으로 넘어가서 마케팅팀에서도 배울 거 배우고 하면서 그렇게 5년 정도를 거기에서 배우고 일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 아마 창업을 할 생각이 있는데 그 창업도 사실 아예 그 회사에서 나와서 창업이 될지 아니면 그 회사 안에서 아예 프로젝트로 열게 될지 그건 그 회사 안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략) 그 회사에서 서포터즈라고 지원을 할 수 있어서 그 서포터즈를 지원했고 그 회사에 441명이 지원을 했는데 제가 6위 안에 들었어요. 6등인지는 모르겠고 최고의 여섯 명 안에 들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그 회사에서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회사에 갈 수 있을 때마다 자소서랑 포트폴리오랑 가서 계속해서 첨삭을 받고 있죠. A2

학점 3.9에서부터 그 위로면 기숙사 생활은 가능해요. 계속 그 성적을 유지했던 거죠. 아껴서 저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A3

수입이 100만 원 정도이고, 보통 한 달에 4, 50만 원 쓰는데 그 돈을 주택 청약이나 적금 같은 거 다 넣고 남은 돈은 모두 저금하고 있어요. A3

되도록이면 제가 여력이 되는 한까지는 1년에 한 권이라도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으로서의 단편을 얼른 빨리 넘기고 난 다음에 장편을 목표로 글을 쓰려고 계획 중입니다. 소설 외에 다른 계획으로는 지금 방통대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 준비도 겸사겸사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30살이 되기 전에 공무원이 어느 쪽이든 좋으니까 취직이 되는 것. 제일 베스트는 교육행정직에 취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씩 집필도 할 수 있는 거. 일단 퇴근을 하면 제 시간이니까요. -A5

2)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

A1과 A5에게 확인되는 것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인식이다. A1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안정한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다 코로나19를 맞아 불안정하기에 곧 떠나고 싶지만 늪에 빠진 것 같은 일에 들어와 있다. 삶의 여정에서 스스로 선택한 성취 경험이 적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인식이 뚜렷했다. A4는 수입이 적은 웹 일러스트레이터 활동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돈이 모이면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것 혹은 집을 사는 것 가장 먼저 떠올렸다. 그것이 미래의 이상적 모습이라고 하였다.

저는 사실 언제쯤 다시 정상화 돼서 언제쯤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예상이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A1

지금 수익이 너무 적다 보니까 계획이라는 걸 특히 계획이라는 것을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대신 같이 살고 있는 작가분이 있다 보니까 둘이 같이 모여서 돈이 모이면 지금 월세를 살고 있으니까 전세나 아니면 집을 살 수 있다면 살 수도 있는. A4

다. 사회에 대한 인식

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계층이동을 위한 사다리가 치워져 있기에 사다리를 복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개인의 다양성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한국 사회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인식도 확인된다. 아울러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는 것, 권리를 향유하는 것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일부 참여자는 한국 사회가 진보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사회보험과 복지 등에 대해서는 미덥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한 편이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무용한 것이 아니라 수정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1) 치워진 사다리의 복구

연구 참여자들은 가구 자산에 의해 어린 시절부터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으며, 실패하게 되면 그 실패가 고착되어 삶을 바꿀 수 없는 거라고 보고 있었다. A1은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대학에서 만났던 연기를 지망했던 이들 중 집안 형편이 괜찮은 이들은 무대에 섰다가도 언제든 다른 쪽 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A1의 표현에 의하면 “엄마, 나 돈 쥐, 3,000만 원만, 가게 좀 차리게”라고 했을 때, 집에서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삶을 크게 가르는 것이다. A3는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나 최선을 다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반칙으로 혜택을 얻는 것을 보면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였다. 결국 “모든 게 다 돈”으로 이뤄지는 상황을 보며, 경제적 여건에

따라 도전의 기회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A4 역시 “노력”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현실임을 지적하였다.

저는 가정환경이 화목했지만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재가 나보다 집은 잘 살지만 내가 재보다 잘 될 거야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이 와서 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때 너무 잘 살았던 친구들이 지금도 너무 잘 살아요. 저랑 똑같이 자격증도 없고 이 계통 일을 하다가도 그 친구들은 집에서 서포팅을 해주거든요. 지금 그 친구들은 아직도 더 잘 살아요. (중략) 제가 만약에 엄마, 나 돈 줘, 3,000만 원만, 나 가게 좀 차리게 그러면 저희 집은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 친구들은 엄마 나 이거 하게 돈 좀 줘 하면 3,000, 4,000 해서 그걸 자본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정말 잘 풀리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건 제 피해의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넘어질 일이 없잖아요. 저희는 넘어지고. A1

국가장학금도 있긴 하지만 다 따지고 보면 탈세해서 잘 사는 친구들도 1분위가 나와서 전액 등록금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나는 내 집이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분위 수가 안 나와서 돈을 많이 내고 대학교를 다녀야 된 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A3

일단 모든 게 다 돈으로 이뤄지잖아요. 대학교도 돈을 내야 갈 수 있고 자격증도 판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격증 신청비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따기 위해서 인강비도 내야 되고 교재비도 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다 금전적인 게 어느 정도 갖춰져야 도전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돈이 조금 부족한 집에 태어났으면 그 부분은 어쨌든 저나 제 가족이 충당 시켜서 그다음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갖고 도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시작점부터 다르다고 느껴져요. A3

사실 노력을 해도 그만큼 보장은 되지 않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가 일정 이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물론 노력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보상도 주어져야겠지만 최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복지가 많이 이뤄져야 되는 사회가 아닐까. 너무 상위 몇 퍼센트만 계속해서 부를 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게 재분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A4

2) 개인의 자유와 사회발전에 대한 신뢰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A2는 전 세계적인 극단적 대립, 그리고 한국 사회의 대립은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겨야만 하는 극단적 대립은 타자에게 오류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해결된다. “정반합”으로 수렴될 수 있는 토론을 위해서는 개인의 다양성 존중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A3는 다소 소극적 자유이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하였다. “약속 시간 지키기”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5는 “자유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였다. 하고 싶은 것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기 위해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 사회가 비록 사다리가 치워져 있고, 공정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회발전에 신뢰를 표현하였다.

물론 전 세계적인 흐름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미쳐서 점점 싸우고 있는 분야가 점점 넓어지는데 그 넓어지는 것도 그렇게 굳이 싸움까지 가야 될 부분인가 싶은 부분들도 되게 많은 것도 사실이고. 특히나 요새 같은 경우에는 진보 보수,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되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서로. 갑을로 나뉘어서 네 의견 아니면 내 의견, 내가 이 부분에서 양보해줬으니까 너는 이 부분에서 양보해줘야 돼가 아니라 진짜로 정반합으로 가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토론해보고 그러면서 맞춰볼 수 있는 부분은 맞춰 가는 게 그게 사실 다양성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A2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능력껏 잘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작게는 약속시간 지키는 거라든지 기한 지키기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그런 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시간약속 지키기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피해 안 주면서 내 일 잘하기. 그것만

지켜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만족스럽고. A3

자유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소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쓰냐고 사상검증 같은 게 들어와도 내 독심 있게 갈 수 있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웹소설 이외에 수익이 있어야 독심 있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공무원을 더 생각하는 거기도 해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안정적인 수익원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제가 쓰고 있고 좋아하는 이 웹소설이라는 직업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을 테니까. A5

저도 헬조선이라는 말을 농담 삼아 하긴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까지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세계적으로 상황이 안 좋기도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노력을 한다면 아마 변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할 테지만 저는 약간 스프링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뒤로 퇴보하는 것 같아도 스프링처럼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그런 퇴보와 수난을 반복하지만 그래도 2보 전진 한 보 퇴보 2보 전진 한 보 퇴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파예요. A5

3) 미덥지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복지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에 대해 미덥지 않다는 인식을 보였다. A1은 현재 차상위계층인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부정수급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 것을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복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예술인 복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이 시행되는 것을 보면, 공연 실적이 있어야 지원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공연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A2는 국비지원교육 프로그램을 알아보다가 교육의 질이 너무 낮아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본인이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비지원교육(청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용할 필요는 없었지만, 비용 부담이 적어서 알아본 결과 매우 기초적인 것만 진행되어 별 도움이 되지 않

는 서비스라고 보았다. A4는 복지지원제도의 까다로움, 즉 신청을 제한하는 제도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이 되는데 여러 조건들이 부합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자격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진입을 제한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많은데 사실. 저 지금 차상위거든요. 청년저축하려면 이것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데 이걸 부정수급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 부정수급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진짜 힘든 친구들이 많이 생겨야. 그리고 청년은 또 잘은 모르지만 청년이 부양하는 가족이 없으니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저희는 의료급여도 안 되고 주거급여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저처럼 1인 가구. 그리고 저는 나은 편이지 저보다 더 힘든 청년들이 많아요, 정말. 저희 계통뿐만 아니고. 그분들이 너무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요. A1

사실 이 와중에서도 어쨌든 공연을 지속하고 있어야 나중에 그 자료를 토대로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대요, 공연 쪽이. 그래서 지금도 대학로에서 다른 데서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연을 하고 있어요. A1

국비해서 컴퓨터프로그래밍, 영상편집. 그런데 제가 완전 수준급으로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굳이. 물론 도움 받는다는 건 되게 좋지만 지금도 이렇게 바쁘게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안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퀄리티가 높지 않았어요. A2

예술인지원사업 이런 게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좀 더 복지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림을 그리거나 그래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등록을 해야 그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술인 범위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A4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국민연금이 미덥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A2와 A3 같은 중산층분

만 아니라 다른 연구 참여자들도 공통적으로 낮은 신뢰를 보였다. 국민연금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서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기에 개인 투자를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인식(A2, A3),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한 불안(A1) 등이 확인된다. 부모 세대는 국민연금 가입을 권하지만, 본인이 과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은 A4에게도 보였다. 특히 국민연금 등과 같은 공적 사회보장체계보다는 복지의 책임을 개인이 갖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인식 A2, A3에게 포착된다.

국민연금 가지고 수익률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그게 다르다 보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같은 돈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국민연금은 내가 들어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로 더 한다면 아마 개인투자 쪽으로. A2

(국민연금 같은 것 대신) 제 스스로 (노후준비를 위해) 관리를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을 한다든지 펀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더 이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A3

언론에서 자꾸 나는 늙어서 못 받으니까 어차피 넣어 봤자다, 국민연금 배만 불리는 일이다, 어차피 끝났는데.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오래됐잖아요. 계속 불신이 쌓인 거죠. A1

사실 이걸 부모님도 자주 얘기를 하세요. 국민연금을 드는 게 어떨겠냐고. 그런데 저나 제 주변에 제 또래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당장 넣을 여유도 별로 없기도 하지만. 그래서 국민연금에 별로 신뢰도가 없는 것 같아요. A4

그러나 사회복지제도 자체가 무용하다는 인식은 드물었다. 앞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복지 자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통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A6는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가 복지체계가 다른 사적 보장체계(개인 투자 등)에 비해 더 믿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유지하

고 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득불평등과 공정 등의 회복을 위해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제도는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통적이었다.

일단은 저는 노후가 걱정되긴 하니까 연금이 하나 있긴 해야겠는데 그래도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찾아보면 나라가 망한다면 사기업 연금이 먼저 망하지 국민연금이 망하지 않을 거다 이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제일 안정적이고 연금은 하나 있어야겠으니까 넣었죠. A6

5. 플랫폼 노동 청년 분석 소결

플랫폼 노동에 참여 중인 청년 6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플랫폼 노동 경험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계층인식과 개별적 상황에 따라 진입 경로와 노동의미, 미래에 대한 인식 등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즉, “플랫폼 노동 청년”이라는 하나의 계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다양한 계층”의 청년이 존재하며, 그 다양한 계층은 플랫폼 노동 진입을 비롯한 향후 미래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더불어 20대의 기회가능성과 30대의 기회제한 등은 비록 2~30대를 같은 “청년”으로 구별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다르게 인식되며, 그에 따라 인식 역시 달라지고 있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플랫폼 노동을 아르바이트 혹은 좀 더 안정적 직장을 갖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장시간을 투자하는 일시적 직업으로 인식하는 것은 주로 20대 대학생과 숙련 노동자(창작 노동자)에게 확인된다. 20대의 정체성이 이러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공교롭게 이들이 중산층의 계층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이들이 30대 참여자들과 다른 인식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분명했고, 현재의 일 경

험은 미래입직을 위한 학습기회로 인식되고 있었다. A2와 같이 회사 취업과 직접적으로 무관한 아동 돌봄교사 역시 A2에게는 “다양한 사회 경험”의 기회자산이다.

반면, 30대 창작 노동자(A4)와 비숙련 노동자(A1)의 경우 현재의 플랫폼 노동 진입은 개인에 의해 선택되었으나 일종의 비자발성을 내포한다. 정규적인 일의 고됨은 건강 상태가 취약한 사람(A4)에게 감당하기 힘든 것이다. 끊임없는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분투해 오던 20대를 보낸 뒤 더 이상 선택할 곳이 없기에 불가피하게 그 일을 선택(A1)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현재의 일을 지속하고자 계획한 것은 아니나 “늙과 같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를 불확실하게 바라본다는 점에서 계층 및 30대 세대성은 이들의 현재 삶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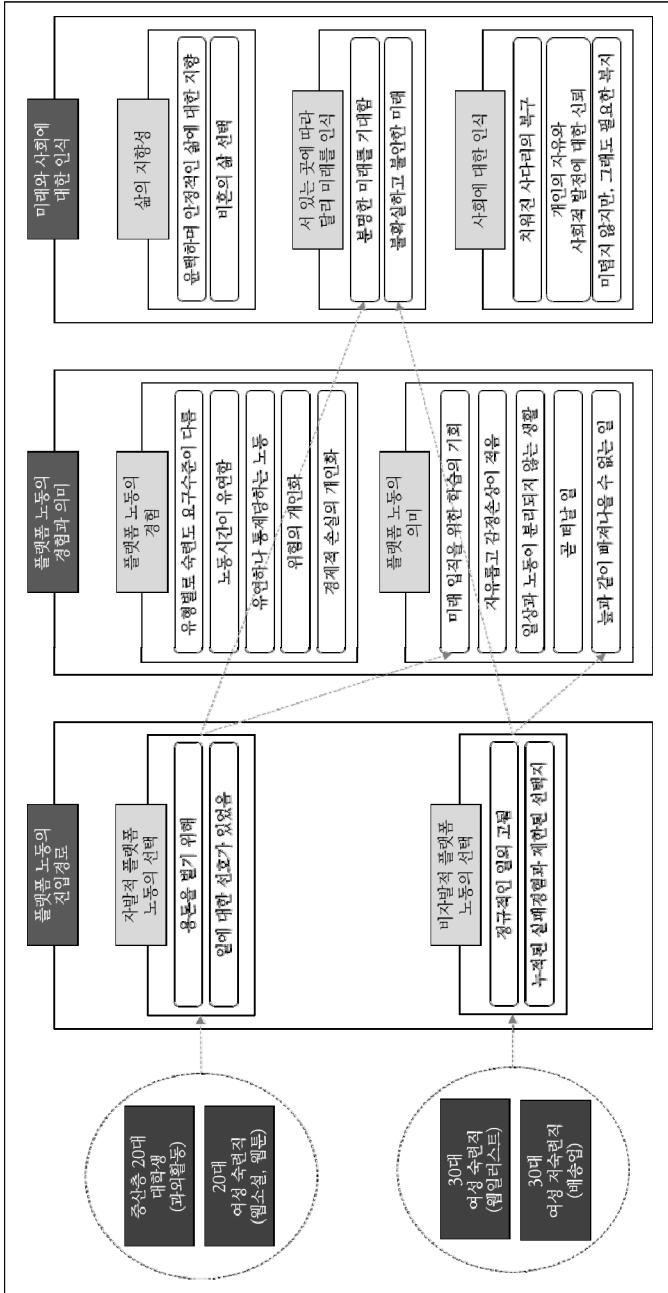
이들의 플랫폼 노동 경험은 계층 및 세대성과 달리 상대적으로 공통적이다. 유형별로 숙련도의 요구수준은 달랐으나, 전반적으로 노동시간이 유연하기에 자유롭고 감정손상이 적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러한 장점은 플랫폼 노동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소비자와 노동자의 노동제공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의 작업수행에 통제가 가해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과업의 지시가 직간접적으로 이뤄지거나, 평가를 통해 수당체계가 달라지는 등 사실상의 고용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나아가 작업수행 과정의 직간접적인 위협과 경제적 손실을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부당한 상황들도 확인된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 인식을 갖는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 중 일부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다수는 “블랙”(A1의 표현)을 먹지 않기 위해 직접적 해결을 회피한다.

이들이 바라는 삶은 윤택하며 안정적인 삶이며, 거기에는 경제적 안정

도 당연히 포함된다. A2(남성)를 제외한 5명의 참여자(여성)는 결혼을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고 있거나(A1), 결혼 생각이 없다. 그러나 서 있는 곳에 따라 미래인식은 구획되고 있었다. 중산층 계층인식을 갖는 자발적인 플랫폼 노동시장 참여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는 반면, 비자발적 참여자들은 불확실하고 불안하게 전망하고 있었다.

이들의 사회인식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 계층이동을 위한 사다리가지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산과 계층이 대물림되고 있어 실패하면 그대로 그것이 그대로 삶의 위치를 결정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는 중산층 이하의 계층인식을 갖는 참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은 치워진 사다리가 복구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아울러 중요한 시대적 가치로 “자유”를 꼽았으며, 그 자유의 의미는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는 것과 타인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울러, 비록 현재 상황이 불공정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확인되고, 일부 참여자들은 개인투자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인식했으나 전반적으로 복지는 미덥지 않으나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4-2-1] 플랫폼 노동 청년의 노동 경험과 사회인식



제3절 청년 초단시간 노동자

1. 개별 참여자의 특성

초단시간 노동 청년 6명의 개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B1(남, 26세)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월소득은 35만 원이다. 외식 조리학을 전공한 후 외식업계에서 잠시 일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퇴사하였다. 현재는 게임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국가 지원을 받으며 학원에 다니고 있다. 정부의 청년창업지원금을 받아서 게임 회사를 창업하는 것이 미래 계획이다.

B2(여, 33세)는 대학과 대학원(석사)에서 오르간을 전공했다. 기혼이며 세쌍둥이 딸, 목회자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현재는 교회의 오르간 반주와 종이접기·리본 강사 일을 하고 있으며 월소득은 59만 원이다. 코로나19 이후 어린이집 휴원으로 자녀들에 대한 돌봄 부담이 가중되었고, 교회 예배 중단 및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아르바이트 시간 감소로 월소득이 줄어든 상황이다. 낮은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나 사보험은 가입했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B3(여, 23세)은 대학에서 관현악을 전공하고 현재는 전공을 살려 플루트 그룹 레슨과 개인 레슨, 교회 연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월소득은 약 30만 원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레슨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졸업 이후에는 전공과 다른 공연 기획 쪽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공연이 중단된 현재 상황이 본인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B4(여, 23세)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부모, 할머니, 여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국숫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월소득은 36만 원이다. 병원에 취업하여 3~4년 동안 경력을 쌓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산골 마을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꿈이다. 부모와 친구들이 본인의 꿈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현재의 상황을 힘들어하고 있다.

B5(여, 21세)는 경찰법학을 전공하였으나, 경찰이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여 대학을 자퇴하고 현재는 학점은행제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다. 학창 시절에 본인의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다면 대학진학 후 진로를 변경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말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월소득은 40만 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문이 더욱 좁아지는 상황이 본인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B6(남, 20세)는 무역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현재 ○○에서 물품을 적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월소득은 40만 원이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고민이 생겼을 때 주로 아버지와 상의한다. 차상위계층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중국과 무역할 기회가 많은 상사 분야의 회사에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다. 다만, 본인이 좋은 대학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 입사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희망한다.

2. 초단시간 노동 경험과 의미

연구에 참여한 초단시간 노동 청년의 노동 경험과 의미는 노동의 불합리성, 노동의 불안정성, 노동을 통한 긍정적 경험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체화된다. 청년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

험했으나 이와 동시에 보람을 느꼈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노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일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3-1〉 참조).

〈표 4-3-1〉 초단시간 노동 경험과 의미(1)

주제	개념
노동의 불합리성	고객의 비합리적 요구와 이에 대응할 수 없는 무력감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 인격적 무시
노동의 불안정성	급여 미지급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노동을 통한 긍정적 경험	보람
	의사소통 능력 향상 기회

가. 노동의 불합리성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직면한 노동의 불합리성은 ① 고객의 비합리적 요구와 이에 대응할 수 없는 무력감, ②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 인격적 무시의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고객의 비합리적 요구와 이에 대응할 수 없는 무력감

청년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경험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구매 후 개봉한 제품이나 디저트 제품의 환불을 요구하는 소위 ‘우기는 손님’과 ‘진상 손님’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고객의 요구사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를 지적하여 고객과 마찰이 발생할 경우, 아르바이트를 지속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안 되는 걸 우기는 손님이라든지. 이미 다 뜯어 놓은 걸 어떻게 환불해줘요. 아무튼 환불해 달라고. 너네들 신고할 거라고 이런 말 하거나……. B1

진상손님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 디저트를 사갔는데 사서 집에 가다가 중간에 다시 돌아와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거 다시 환불해 달라는 손님도 있었고. 되게 별의별 손님들이 많았어요. 그 손님들을 응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기억이 있어요. 사회생활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B4

이처럼 청년들은 부당한 상황에 직면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무력감을 감내하며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부당한 상황에 대응한 결과가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불안이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상황에의 순응을 강화시킨 것이다.

아무래도 그런 것도 많아서 같이 목소리 내고 싸워봤자 되는 것도 없고 잘 못하면 덤벙이 쓰는데 중요한 건 정확한 증거죠. B1

쓸데없이 언성 높이면 잘리기 십상이고 심하면 블랙리스트에 등록돼서 그것과 관련된 다른 일을 못 구해요. 그렇게 되면 돈줄이 아예 끊기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B6

2)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 인격적 무시

특정 대상 또는 현상을 정의하는 방식과 내용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언어가 현상과 문제의 사실 자체보다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Schram, 1995). 이는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의 정서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무시하는 행동과 언어를 통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연

구 참여자들은 고객의 '행동'을 통해 무시받고 있음을 '느꼈고', 고객의 '언어'를 통해 인격적으로 무시받은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청년을 향한 무시의 언어는 '공부 안 하면' 하는 일로 아르바이트를 폄훼하는 동시에 해당 일을 수행하는 청년의 삶을 실패한 삶과 동일시하며 이들을 '부정적 준거점'²⁷⁾으로 평가하는 것이었다.

예전에 좀 나이가 있으신 남성분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개인 레슨 때.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더 어렸거든요. 더 어리고 조금 미숙하다 보니까 살짝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고……. B3

꼬마 손님이랑 오신 어머님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그거예요.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보이는데 학원을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상황이었어요. 음료수를 사주면서 이거 먹고 학원 가라고 달래고 있었는데 애가 음료를 먹으면서도 안 간다고 한 거죠. 공부 안 하면 여기 있는 언니처럼 빵이나 팔아야 된다고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B4

나. 노동의 불안정성

초단시간 노동을 하는 청년이 일의 과정에서 경험한 노동의 불안정성은 ① 급여 미지급, ②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년은 예고 없이 직면한 부당한 상황과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27)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민중계급의 유일한 역할을 '부정적 준거점' 개념으로 설명한다. 민중계급이 부정적 준거점으로 평가되면, 민중계급의 삶의 방식과 취향은 타락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에 대한 혐오감이 형성된다(Bourdieu, 2005, pp.115-117).

1) 급여 미지급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열정’을 강요한다. ‘열정적인 청년’이라는 사회적 상상(social imaginary)은 담론으로 진화하여²⁸⁾ 당연한 명제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청년을 고용하면서 열정을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을 의미하는 ‘열정 페이’라는 신조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²⁹⁾ 이 과정에서 청년은 일을 하면 임금을 받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용주에게 ‘호출’을 당하고 ‘도움’을 요구받아 추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다. 추가 노동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불공정한 시간이 축적됨에 따라 부당한 추가 업무 요구는 더욱 늘어났다. 이를 통해 청년의 노동이 착취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래도 교회다 보니까 유치부도 좀 해줘, 청년도 찬양팀도 해줘, 이런 부분이 많아서 힘들었었어요. …… 자꾸 그렇게 호출당했을 때는 제가 싫어했죠. 그것까지 내가 해야 돼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죠. 교회에서는 부흥회 있으니까 하루 더 나와서 반주해줄 수 있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는 못하고 한 것도 많아요. B2

차량운행을 갔을 때 애들이 있으면 봐줄 사람이 없어서 처음에는 그때만 봐주기로 하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쉬는 타임에만 애들을 봐주면 되는 거라서 그냥 알겠단 거라고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말기는 게 좀 많아지시더라고요. …… 도장에서 돈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B5

28) Taylor(2010)는 특정 시공간 내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사회적 상상(social imaginary)을 반영한 것을 담론으로 규정한다.

29) 신조어들은 사회의 특징을 예리하게 짚어내기 때문에 매체를 통해 한 번 소개되면 전국민적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박노자, 2016). 국립국어원은 개방형 사전인 ‘우리말샘’을 통해서 신조어를 소개하고 있다. 열정 페이 또한 개방형 사전에 등록되어 있다(국립국어원, 2020).

2)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은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초단시간 노동자는 부당한 사유로 해고를 당해도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부당 해고 문제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본인의 해고 경험을 ‘실수’가 ‘빌미’가 되는 ‘부당한’ 상황으로 설명했다. 실제로 다수의 청년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상황에서 노동하고 있다. 청년유니온(2020)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약 52.7%가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이 증가할수록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가 확대되고 법적 차별은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단시간 노동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할 수 있다.

제가 정시에 현장 복귀를 했는데 왜 더 빨리 복귀를 안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빨리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빌미가 돼서 제가 조그마한 실수를 했는데 바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좀 부당했어요. B6

다. 노동을 통한 긍정적 경험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의 긍정적 경험을 분석한 결과 1) 보람, 2) 의사소통 능력 향상 기회라는 두 가지 개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이 일을 지속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었다.

1) 보람

연구 참여자들은 ‘보람 있다’는 감정으로 일을 통한 긍정적 경험을 표현했다. 특히, 보람을 느낀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전공과 관련성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이는 일과 전공의 관련성이 높은 경우, 일에 투여한 시간과 노력을 소모적이라고 인식하지 않게 되어 아르바이트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보람 있어요. 오르간 반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못 느끼실 수도 있고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실 수도 있는데, 제 반주를 듣고 제 연주를 듣고 오늘 예배에서 더 좋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B2

어떤 시험을 위해서 학생이 개인 레슨을 잠깐 부탁했던 적이 있는데, 그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되게 보람을 많이 느꼈고, 가르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B3

2) 의사소통 능력 향상 기회

사회 경험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타인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학습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화하는 능력’과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아르바이트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모든 직업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현재 수행하는 아르바이트가 전공과 관련 없는 음식점 서빙(B4), 편의점(B5) 아르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타인과의 소통 경험을 제공하므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사람을 대하는 연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는 알바를 하기 전까지는 사람 대 사람 1대 1로 대응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의견을 말하기

도 힘들고 무언가 설명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알바 경험들을 쌓으면서 대화하는 능력을 키운 것 같아요. B4

모든 직업이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그래서 편의점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녹여 들어가서 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B5

3. 미래와 사회 인식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은 현재 그들이 하는 일을 최종 일자리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재는 미래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의 시간 동안 청년들은 미래와 사회에 대한 인식을 형성했다. 청년이 인식하는 미래는 불안했기 때문에 균형과 안정, 유연이 공존하고 공정한 미래를 기대했다. 사회보장제도와 청년지원정책을 통해 살펴본 사회에 대한 인식은 제도의 양적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질적 성장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4-3-2〉 참조).

〈표 4-3-2〉 초단시간 노동 경험과 의미(2)

주제	개념	
미래에 대한 인식	불안한 미래, 현실에의 순응과 불응 사이에서의 방향	
	균형과 안정, 유연이 공존하는 미래	
	능력으로 평가받고 평등이 실현되는 공정한 미래	
사회에 대한 인식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태도
		사회보장제도 시행의 전제 조건에 대한 거부감
		사회보장제도 지지기반 확립의 조건
	청년지원정책	지속적인 확대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시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한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 지원대상과 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 제안

가. 미래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청년의 인식은 ① 불안한 미래, 현실에의 순응과 불응 사이에서의 방향, ② 균형과 안정, 유연이 공존하는 미래, ③ 능력으로 평가 받고 평등이 실현되는 공정한 미래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구체화되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의 미래에 대한 인식에는 사회를 관류하는 성공과 성취, 여성에게 부여된 전통적 역할 규범에 순응하는 삶을 거부하는 태도가 배태되어 있었다.

1) 불안한 미래, 현실에의 순응과 불응 사이에서 방향하는 미래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의 확장 and 심화, 현재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운 감정에 직면하고 있다. 청년이 느끼는 ‘불안’하고 ‘막막한’ 감정은 ‘학교 생활’부터 ‘졸업 이후’를 거쳐 ‘미래와 삶’ 전반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었다. 청년들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부터 층층적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기적 고민은 아무래도 다음 학기 학교생활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졸업 후에 진로에 대한 준비가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B3

너무 막막한 것 같아요, 청년의 삶이라는 게. 미래를 꿈꾸고 싶은데 미래가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친구들과하고도 자주 얘기를 해요. 난 미래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사게 될지. 그런 게 너무 막막한 것 같아요. B4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취업 문이 좁아지는 것’에 대해 불

안을 느끼고 있었다.

미래를 생각했을 때 가장 불안한 건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어렵지 않을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뵙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취업의 폭이 좁아지 않을까 그런 게 있죠. B5

연구 참여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불안정한 현재의 삶이 미래에는 안정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변화의 원동력을 ‘취직’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의 영향으로 취직에 실패하여 아르바이트하는 인생을 ‘어떻게든 살아남는’ ‘비참’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확장되고 심화되는 상황은 그들이 기대하는 미래가 ‘없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취직이 안 되면 알바만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바만 하면 미래가 없고 비전도 없고 승진도 할 수 없고 승진을 못 하니까 돈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돈만 조금씩 벌면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인생이 좀 비참할 수도 있죠. B6

연구 참여자들은 미래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이상과 직면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경험하며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이들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현실과의 타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학원’을 다니며 ‘미래에 이루고 싶은 일을 배우고 도전’하고 싶은 이상은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므로, ‘부모의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충돌했다. ‘지방 병원’에 취업하여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이들에게 의료 봉사를 하고 싶은 이상은 ‘부모님의 반대’라는 현실에 부딪혔다. 청년들의 삶은 현실에 순응할 것인지, 불응하고 미래의 이상을 관철시켜야 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시간의 연속이

었다.

성인이 됐다고 하지만 내가 이루고 싶은 일에 대해서 배우고 도전해볼 만한 돈이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일. 열정은 앞서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든 해 봐야지라고 뭔가를 나에게 대해서 투자하거나, 그 일을 배우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든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게 되게. 부모한테 손 벌리기에는 눈치 보이고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뒤처지고 있는 것 같고, 계속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B2

저는 취업을 할 때 수도권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지방병원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지방병원으로 취업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걸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부모님의 반대가 시작된 거죠. 그전까지는 전혀 티를 안 내고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의견 다툼도 조금 있었고. B4

2) 균형과 안정, 유연이 공존하는 미래

생애주기 관점에서 청년기는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이자,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가정, 학교, 직장에서 기존 역할 수행과 동시에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고 있는 청년들은 ‘균형’과 ‘안정’ 그리고 ‘유연’이 공존하는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다.

먼저,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이 인식하는 미래를 분석한 결과 주요 개념으로 ‘균형’이 도출되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신조어인 워라벨은 한동안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인식되어왔다. 이는 성장과 효율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며 일과 회사에 집중했던 기성 세대의 삶의 방식과 달리 여가, 가족, 개인의 삶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삶의 핵심 가치가 일과 성장에서 가족과 여유로 이전된 상황은 “가족친화적인 직장”,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며 삶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변화시켰다. 이러

한 변화 양상은 연구 참여자들의 미래에 대한 인식에서도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는 '바쁜 것보다 여유' 있는 삶을 선호했다. 이때 여유는 경제적 여유가 아닌 '마음의 여유'를 의미했고,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과 '워라벨'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일과 가정의 비중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미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육아지원제도 확충 및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성, OECD 수준으로의 연간 근로시간 조정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³⁰⁾

저는 바쁜 것보다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거 말고 마음의 여유. 그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여유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겠는데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일도 해야 되고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워라벨이 중요한 것 같다고 하는 게, 아마 일하는 거랑 가정이란 비중이 개인마다 선호하는 비중이 아마 다를 거예요. …… 서로 상대적이겠지만 그걸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는 데에 뭘 하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B2

다음으로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인식 분석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개념은 '안정'이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 중 여성 청년은 결혼과 출산, 양육 문제가 미래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어렵게 할 것을 우려하며 돌봄의 사회화가 정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2019년 4월 기준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중 육아(38.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결혼(30.7%), 임신·출산(22.6%), 가족 돌봄(4.4%) 순서로 분석되며(통계청, 2019), 결혼과 출산이 여성 경력 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여성 청년이 목도하고 있는

30)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전년도에 비해 29시간 줄어든 1,792시간이다. 연간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독일(1,305시간), 일본(1,706시간), 미국(1,792시간)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근로시간이 긴 편에 속한다(통계청, 2019).

“여성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되는 사회”는 ‘아이를 가졌을 때’ ‘승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야기했다. 우리 사회는 육아와 양육, 돌봄정책을 확대하며 돌봄의 사회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청년의 문제제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육아와 양육, 돌봄이 청년이 당장 직면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청년이 계획하는 미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아이를 가졌을 때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아니면 승진 같은 걸 못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크고요. 아직 제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 정부의 저출산 지원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저출산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B3

마지막으로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인식 분석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개념은 ‘유연성’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이직 희망 이유를 비교한 결과, 더 나은 보수와 복지(-7.2%포인트), 더 나은 안정성(-3.7%포인트)은 감소한 반면, 개인 사업(5.2%포인트), 더 나은 근무환경(2.1%포인트)은 증가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이직 희망 이유의 변화를 통해 청년의 직업 선택 기준 또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이 기대하는 미래는 ‘행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은 원하는 일을 하는 삶을 의미했다. 불안정한 현재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삶은 중요했지만, 이때 안정은 ‘하고 싶은 일’이 전제된 ‘안정’이었다. 이를 통해, 청년지원정책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연한 직업 선택이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정되더라도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면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처음에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여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중간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전에는 즐거웠던 일이 힘들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바꾸지 않고 계속 쪽 이어가다 보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B4

안정만 강조되는 삶은 변화와 발전이 더디고, 유연성만 강조되는 삶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청년에게 요구되는 역할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안정과 유연을 동시에 추구하는 청년들의 선택은 이상적(ideal)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능력으로 평가받고 평등이 실현되는 공정한 미래

공정은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이다. 언론에서는 연일 공정을 논하고, 현 정부는 공정의 가치를 강조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미래에 대한 인식 분석에서도 ‘공정’ 개념이 대두되었다. 그렇다면, 청년이 생각하는 ‘공정’은 무엇일까? 청년은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공정한 미래이다.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란 ‘자기가 해낸 일’로 평가받는 사회를 의미했다. 반면, ‘신분’, ‘사내 정치’, ‘학벌’, ‘외모’, ‘돈’, ‘사회적 지위’로 평가받는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로 평가했다. 우리 사회는 부모 또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삶을 규정짓는 부의 대물림 현상을 수저 계급론 등으로 표현하며 문제시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 또한 ‘능력’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는 상황이 야기하는 ‘불공정’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실력에 대한 평가가 회사마다 공정해야겠죠. 회사 내부에서 다른 걸로 평가하면 안 되고, 회사에서 근무평가 있잖아요. 이런 게 잘 감찰 되어야 된다고 생

각해요. 가끔씩 회사에서 보면 신분이나 사내 정치 이용해서 무능한 사람인데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나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던 말이에요. 이런 게 불공정하고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B1

우리 사회는 아무래도 보이는 거 위주죠. …… 학벌 위주보다는 자기가 해 낸 일로 평가가 되어야지 외모라든가 학벌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런 걸로 평가되는 세상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B5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미래에 대한 분석에서 도출된 평등 개념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사회는 ‘출발선에서의 시작’이 가능한 사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정의는 기회의 평등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고 기회의 재분배가 중요하다는 측면(Giddens, 1998)을 고려했을 때 기회의 평등은 곧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는 ‘출발선에 가는 속도’ 차이는 인정하지만, ‘출발선에 왔으면 공정하다’는 인식을 ‘제한된 공정’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했다.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청년층이 느끼는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사회가 이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미래인 것이다.

출발선에 가는 속도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출발선에 왔으면 공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비 대출받은 학생도 있고 훨씬 더 떨어진 지방에서 공부하기 어려웠던 학생도 있고. 이런 게 출발선에 오는 게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출발선에서는 그래도 다 동일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공정하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공정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 출발선에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감됐다고 돌려보내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공정성에 있어서. B1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 또한 공정한 미래의 기준으로 도출되었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여 일정 수준의 “결과의 평등”이 담보될 수 있는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빈부격차가 심화돼서 잘사는 사람만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못사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골고루 잘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B6

나. 사회에 대한 인식

청년이 기대하는 미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노동을 수행하며 경험한 부당한 문제들, 미래를 준비하며 감내하고 있는 불안의 발생 원인이 해결되어야 한다. 즉, '직면하는 현실'과 '기대하는 미래'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년이 '현재'에 '직면하는 문제'와 '미래'에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한 대응기제인 사회보장제도와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평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1)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은 제도 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복지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긍정적 인식은 제도발전에 기여한다(Bonoli, 2000). 이를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사회적 위험을 '회피'하거나 '순응'하는 방식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사회보장제도 필요성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의무가입과 보험료 납부를 부담스럽게 인식하며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따른 증세에 우려의 입장을 보였다.

(1)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태도

사회보장제도의 최우선 목표는 사회구성원을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때, 국가의 역할은 '사회적'이라고 볼 수 있는 위험의 범위에 따라 잔여적이고 최소주의적으로 규정되거나 이와 반대로 포괄적이고 제도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Esping-Andersen, 2006). 연구 참여자들은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심지어 '제가 다칠 거라고 생각 안 한다'고 응답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위험 발생의 원인과 대응방식이 '사회'가 아닌 '개인'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자, 청년들은 '사회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협소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회적'인 문제 곧 '국가'의 문자로 간주하지 않으면, 국가 역할을 잔여적·최소주의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보장제도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으로 확장될 수 있다.

최대한 사고가 안 일어나게 제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B4

제가 다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내가 설마 다치겠어. 이런 마음도 있었고 다쳐도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좀 무심한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B5

아픈 것에 대해서는 저희 엄마가 차려주는 삼시세끼 집밥 잘 챙겨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다칠 위험에 대해서는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물레이션 하고 그 일대로 해서 다치는 것에 대비하고 있어요. B6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체계를 의미한다(윤홍식, 남찬섭, 김교성, 주은선, 2019).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는 청년들이 노동의 과정에서 경험한 부당함을 해소하고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체계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 가입 질문에 대한 응답은 ‘건강보험은 되어 있나?’, ‘사소한 것들은 기억이 안 나요’와 같이 불확실했다. 또는 ‘저까지 보험을 들기는 무리’였다는 응답을 통해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 건강보험은 되어 있나? B4

눈썰매장은 산재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아닌지 잘 기억이 안 나요. …… 사소한 것들은 기억이 잘 안 나요. B5

저희 부모님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저까지 보험을 들기는 무리였나봐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조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B6

(2) 사회보장제도 시행의 전제 조건에 대한 거부감

사회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사회보장제 납부에 대한 의무가 전제된다(윤홍식, 2012). 인터뷰를 통해서 사회보험에 전제된 두 가지 조건인 의무가입과 보험료 납부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부담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보험의 ‘무조건 가입’으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었다는 점은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거부감이 형성된 이유로 분석되었다.

보험을 자기가 받고 싶으면 보험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다 아니면 나는 돈 내는 건 싫어하면서 난 안 하는 걸로 선택할래 하면서 선택의 폭을 준다면 자신한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찬성입니다. 그런데 선택 없이 무조건 보험을 가입해 이진 좀 아닌 것 같아요. B5

보험료 납부 의무에 대한 부담감 또한 사회보험 가입의 거부감이 형성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짧기 때

문에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연구 참여자들의 임금 평균 또한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약 월 4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험료 납부에 따른 임금 감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분석을 통해,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차감되어 그들이 받게 되는 “현재의 임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아르바이트해서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또 보험료를 제하면 막상 제가 일한 것에 비해서 돌아오는 게 많이 없기도 하고……. B4

솔직히 저는 용돈을 벌러 간 입장에서는 보험을 하면 어쨌든 돈이 조금 줄어들잖아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렇게 다칠 것 같지 않은데 돈이 줄어든다 이게 조금 아쉽달까. B5

증세는 복지제도 확대에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이유로 복지 재원 형성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증세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합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Svallfors, 2012).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보장제도 확대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제도 확대에 전제되는 ‘보험료 감당’, ‘보험료 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청년 세대의 복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증세에 대한 우려가 컸다. 분석 결과,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둘러싼 주요 이슈인 “복지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증세에는 반대하는 늪프(Not Out of My Pocket, NOOMP)” 현상(현대경제연구원, 2012)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 과정 중, 젊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 문제가 부각되면서 발생한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의 세대 간 갈등”(김상호, 2007) 문제도 드러났다.

혜택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건 좋은 것 같은데 그 보험료를 누

가 감당을 할 거냐.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보험 받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그게 보험료가 총당이 많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노인들 많아져서 그걸 청년 세대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B5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의무가입 원칙,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이 공고해지면, 복지제도 확대에 필연적으로 전제되는 증세에 대한 저항이 높아질 것이고, 결국 복지 확대는 요원한 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복지제도에 대한 청년층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사회보장제도 지지기반 확립 조건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긍정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지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조건을 구체화하면 ① 복지체감 확대와 ② 사회보장제도 실행의 효용성 제고 노력이라는 2가지 대안이 도출된다.

복지체감은 개인의 주관적 인지 과정을 통해 결정되며, 제도에 대한 높은 체감이 형성한 신뢰도는 복지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Svallfors, 2012).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은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인식 분석에서 도출된 회의적인 시각과 달리,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지지했고 건강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의 근거는 높은 복지체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입원’, ‘감기’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병원비가 줄어드

는' 혜택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 높아진 복지체감은 '미국'과 같이 건강보험 부재가 부르는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확장되며,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다질 것이.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공감해요. 저는 다리 인대를 크게 다쳐서 입원하게 됐는데 그때 보험료가 아니었으면 금액이 엄청 크더라고요. 보험이 아니었으면.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의료보험이나 이런 게 막상. 비교되어서 나와요, 비포랑 애프터가. 이 금액이 정말 천지 차이구나. 고마운 줄 별로 많이 몰랐는데 한번 보게 되니까 이게 없었으면 참. 사실 어렸을 때 잔병치레도 많았거든요. 천식도 있었고. 힘들었겠구나. 미국이었으면 생각해보다가. B1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감기에 걸렸을 때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내게 되면 병원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늘리고 혜택 같은 걸 더 준다면 건강보험은 들 것 같고요. B5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 실행의 효용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조세공평성³¹⁾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연 우리에게 혜택으로 돌아올까', '증간에서 채가지 않을까' 등의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조세공평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기준과 보장성에 대해 '기준이 까다로워야' 하며, '많이 높게 줄 필요는 없다'고 응답했다. 사회보장제도의 실행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 설정과 적절한 보장수준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준을 까다롭게 하거나. 너무 많이 높게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하면. 기준이 까다로워야 될 것 같아요. B3

31) 조세공평성이란 조세수입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며 공정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의미한다(Martin and Gabay, 2012).

보험료 늘린 게 과연 우리에게 혜택으로만 돌아올까 아니면 누군가 중간에서 채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B5

2) 청년지원정책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양적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지원 과정의 불편함과 지원 대상 및 내용의 협소함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경험한 청년들은 정보 접근성 확대, 청년의 취약성 보완, 청년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등 청년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1) 지속적인 확대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분석 결과,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이유에서 지속적인 정책 확대 노력으로 수렴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는 노인 등 전통적인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으로 편향된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청년이 직면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허선, 김윤민, 한경훈, 2019).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이 직면한 사회문제는 더욱 다양화되고 심화되었다. 특히 코로나 19의 타격이 청년층에 집중됨에 따라 청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었고, 정부는 청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실제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평가했다. 청년에 대한 정부의 '고민',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이 정책의 양적 확대로 이어지는 상황을 목도한 것이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정책 같은 것도 계속 고민하는 말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은 많이 받아요. B3

(2) 시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한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부정적 평가는 ① 억제정책의 특성이 내재한 측면, ② 신청방법의 비일관성, ③ 제도 효용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으로 구체화되었다.

억제정책(deterrence policy)은 공식적으로 제도의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대해서 의도적인 낙인(stigma)을 부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급신청을 억제한다.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수급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서 복지지출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박광준, 2002). 청년지원정책에 관련된 정보를 ‘힘들게 찾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은 청년지원정책을 ‘주기 싫은데 생색내는’ 억제정책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청년지원정책에 억제정책의 특성이 있다는 인식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한 가지 드는 나쁜 생각은 주기 싫어서 이러나 그럴 정도예요. 힘들게 찾게 하는 게 약간 정말 주기 싫은데 생색내는 거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힘든 사이트도 있었어요. …… 정부 관련 홈페이지가 접근성이 정말 떨어져요. 일단은 홈페이지 자체도 요즘은 거의 익스플로러를 안 쓰는데 익스플로러랑 다른 거로는 켜지지도 않고 엄청 느리고 서버가 터진 것도 많고 사이트 자체가 어떤 메뉴 찾으려면 한 번에 절대 안 보여요. B1

연구 참여자들은 신청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발송 방법 등의 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상담사 재량’에 따라 변동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담당자의 행정재량행위는 신청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와 권한이 하부 기관과 담당자에게 이양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복지권력(정수남, 2014)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분석에서 확인되었듯이, 새로운 복지권력의 '재량'이 신청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보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책 시행 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야 되는 서류도 상담사별로 다르고. 국가기관에서 통일되는 게 맞는데 어떤 분은 그냥 인터넷상으로만 보내면 알아서 해주겠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직접 팩스로 다 손으로 써서 보내라 하는 분도 있고 혼란이 오는 것도 있고요. …… 이걸 받는 게 다 상담사 재량에 달려 있더라고요. B1

정책 효용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정책 시행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청년지원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형성된 이유를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인천국제공항 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설명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청년과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평가는 부작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만기공제금을 수령하기까지 소요되는 2년 동안 ‘숙련 노동자’가 되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2년 차가 됐을 때 다 이직’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정책은 ‘2년 뒤’ 더 나은 곳으로의 이직 수단인 ‘계단’으로 평가 절하되었다. 중소·중견기업과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사실상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직을 위한 가교 역할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평가이다. 이

는 정책 시행 전, 시행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시도가 다양한 측면에서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년차가 됐을 때 다 이직하는 것 같아요. 숙련 노동자가 됐으니까 …… 제가 느끼기에는 2년 받은 다음에 대기업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컷 키워놓고 맨날 다 가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나름 안 좋네요. …… 여기 타서 2년 뒤에는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주는 느낌이네요. B1

제도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는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진짜 필요한 걸 해주지 않는 느낌’으로 평가했고, ‘굳이?’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분석을 통해 청년지원정책은 청년에게 “진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진짜 필요한 걸 해주지 않는 느낌. 공무원 수를 많이 늘렸던 정책이 있었어요. 그것도 신경 써주는 느낌은 받았어요. 너희를 생각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그런 정책을 받는 입장에서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B3

(3) 지원대상과 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변화 제안

청년지원정책에는 청년이 직면한 문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일자리, 소득, 주거, 건강 등 다차원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청년지원정책 현황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대책인 2018년 3.15 청년일자리대책, 2019년 7.17 청년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일자리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적 편향성은 청년이 직면하는 문제에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한계를 노정할 수 있다.³²⁾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에서도 청

년지원정책이 일자리 중심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일자리 이외의 영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분석에서 확인된 청년지원정책의 변화 방향성은 ① 지원 대상과 내용 확대, ② 정보 접근성 제고, ③ 기존 청년지원정책의 수정·보완, ④ 청년의 취약성 보완, ⑤ 다양한 의견 수렴 기회 확충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청년지원정책은 지원 대상과 내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2019년 기준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 현황을 사업 분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관련 사업이 54.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정책이 고용에 집중되어왔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김기현 외, 2020b). 이처럼 청년지원정책이 고용에 집중됨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적성,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은 우리나라 교육체계 내에서는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 탐색해보는 기회가 부족하여 ‘안정된 직업’만을 추구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특히, 대학 진학 후에야 비로소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과 ‘생각’을 시작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청소년 대상 진로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대학생 대상의 다른 분야 경험 기회 제공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걸 없앨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청소년 때 진로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이게 되게 미비하더라고요. 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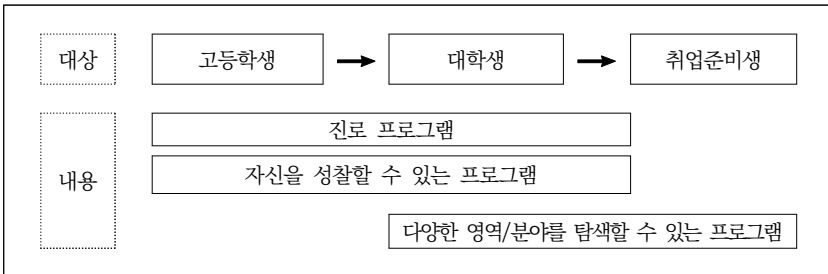
32) 물론, 문재인 정부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청년 문제를 고용에 국한하지 않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향후 청년지원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청년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에는 시기상조임을 감안하여 기존 청년지원정책들의 한계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저는 거의 한길로 계속 왔기 때문에 아예 다른 분야를 경험해보거나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B3

취업 이외에도 학교에서부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경우가 없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보지도 않았고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커왔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무조건 공무원 아니면 안정된 직업 이것만 원하다 보니까 돈 그런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 B5

연구 참여자들이 제안한 청년지원정책을 정리하면 [그림 4-3-1]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 진학 전에 적성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진학 후에는 전공 이외의 다양한 영역과 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청년지원정책의 대상과 내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림 4-3-1]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청년지원정책의 대상과 내용 확대 흐름



둘째, 청년지원정책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청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아진 관심은 「청년기본법」 시행, 청년지원정책 확대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청년이 직면한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년 당사자들은 이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 정책 체감이 낮은 원인으로 '홍보' 부족 문제가 도출되었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연구 참여자의 지적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가 정책 실효성과 직결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 청년들은 SNS를 주로 활용하다 보니까 SNS에 올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국가에서 하는 일이다 보면 방송 광고 같은 것도 많이 틀어주잖아요. 그런 걸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광고 같은 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테니까. 그 정책이 아무리 좋아봤자 홍보가 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B5

셋째, 기존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 중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변화시킬 방안을 제안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 역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 내 진단·경로 설정의 1단계, 의욕·능력 증진의 2단계, 집중 취업 알선의 3단계를 통하는 통합 취업지원정책이다. 연구 참여자는 1단계에서 진행되는 ‘상담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진로와 적성을 고민하는 청년 입장에서 1단계 집중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가 진행된 3~8주 기간이 현실적으로는 진로와 적성을 찾기에 짧은 것이다.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을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원래 잘 아는 사람만 도움이 되는 패키지’라고 평가했다. 2단계에서는 구직에 필요한 교육 지원 확대, 커리큘럼의 체계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세 단계를 거쳐 취업에 성공한 후 현장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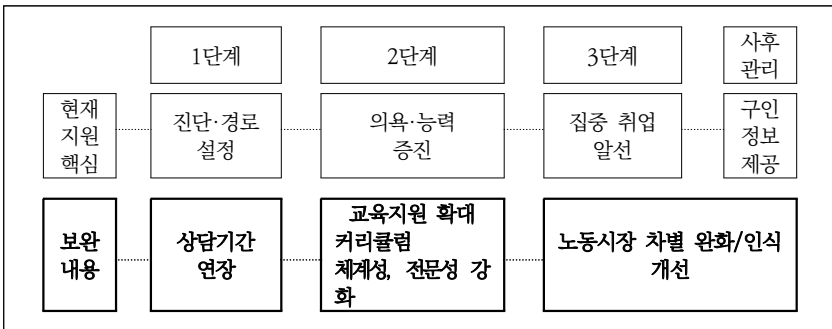
추가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열심히 한 다음에 바로 현장에 연결됐을 때 현장

내부에서 차별은 없어야겠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잘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이 정말 짱짱해야 해요. B1

상담기간이 너무 짧아요. 1단계 상담을 하고 2단계 가서는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1단계 상담기간이 너무 짧아요. 원래 잘 아는 사람이 가야 그게 도움이 되는 패키지 같아요. ……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세 가지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B5

현재 취업성공패키지는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역량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 부분이 취업 성공에 필수적인 요인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만, 분석에서 확인되었듯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문제의 예방과 해결이 병행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도출된 정책 변화 방향성을 정리하면 [그림 4-3-2]와 같다.

[그림 4-3-2]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취업성공패키지의 수정·보완 내용



넷째, 청년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규정한 청년

의 정체성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대'였으며, 취약한 부분은 '취업'이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청년지원정책의 고용 편향성은 청년의 욕구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고용정책과 함께 취업이 어려워지게 된 다양한 원인을 찾아 사전적이고 예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청년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지금은 취업하기 힘들다고 하나
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러
운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B5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장년층은 노후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만큼 정년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한 길은 더 좁
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B6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모두의 의견'을 더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이 원만하게 '조율'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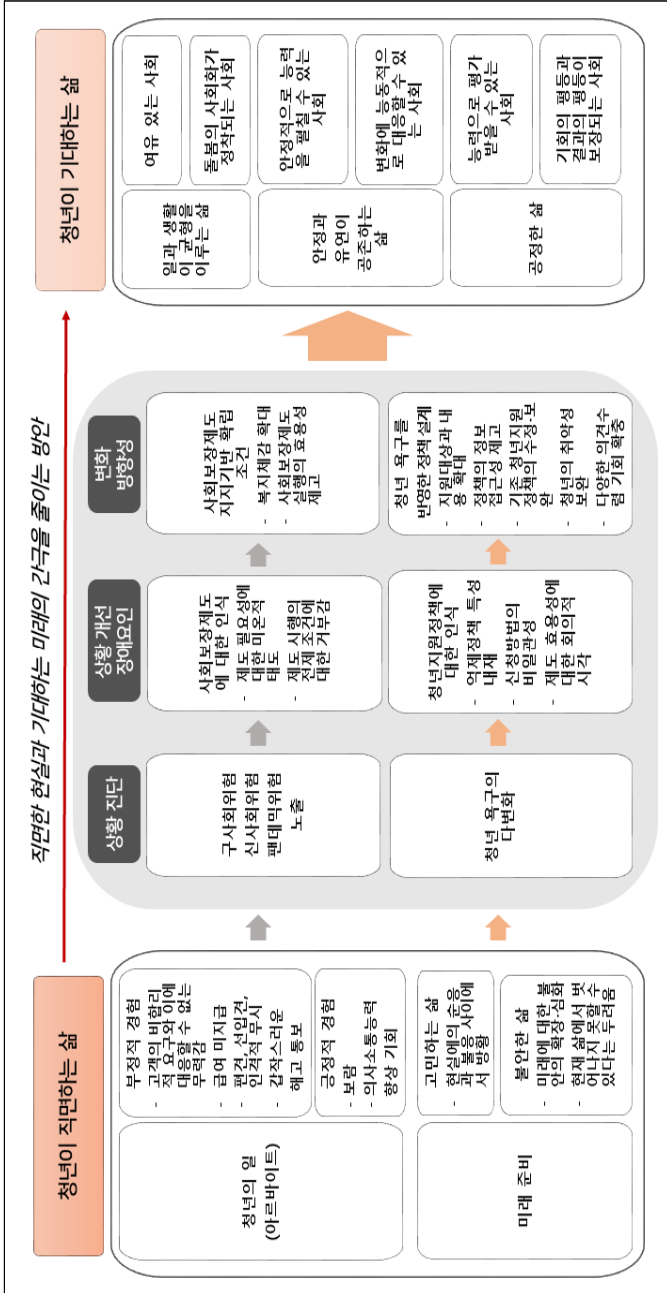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모두의 의견을 좀 더 검토를 많이 해보고 했으면 좋
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 정책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조
율하냐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좀 더 꼼꼼하게 했으면 좀 더 평화
롭게 되지 않았을까. (B3)

4. 소 결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의 '노동 경험과 의미', '미래와 사회
인식' 분석을 통해 청년이 직면하는 현실과 기대하는 미래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실과 미래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청년들
에게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정책적으로 열어주어야 한다. 청

년들이 현실에서 경험한 부당함과 불안함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해야 청년이 희망하는 일과 삶의 균형이 유지되는 미래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 동시에 안정적이지만 유연하며 공정한 삶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당함과 불안함에 유폐된 청년이 균형과 공정의 가치가 우선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과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보장제도, 청년지원정책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은 사회보장제도와 청년지원정책의 양적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전제되는 증세, 의무가입의 원칙, 제도 효용성에 대해서는 미온적 입장을 취했고, 청년지원정책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의 인터뷰 분석 결과를 도해하면 [그림 4-3-3]과 같다.

[그림 4-3-3]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의 노동 경험과 의미, 미래와 사회인식



제4절 청년 단시간 노동자

1. 참여자의 특성

단시간 노동 청년 6명의 개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C1(여, 21세)은 외제차 전시장에서 리셉션 안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충북 소재의 대학교 조형예술학과에 다니고 있었으나, 서울 소재 대학교로 편입하려고 현재는 휴학한 상태이다. 다른 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급이 세다는 점 때문에 리셉션 안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주말마다 하루 9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주중에는 편입을 위해 토익학원에 다니고 있다. 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는 자기 방이 없어 홀로 자취하고 있다. 리셉션 안내 업무는 시급 1만 원으로 월평균 70만 원 정도, 부모로부터 용돈 약 20~30만 원 정도를 보조받아 생활하고 있다. 직원들이 개인사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며, 성희롱 등의 문제로 계약 기간인 1년이 끝나는 대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려 한다. 일단 편입에 성공하면 교환학생 경험을 하고, 뮤직비디오 감독이 되고 싶은 꿈이 있다.

C2(여, 26세)는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 편집 업무를 맡고 있다. 4년제 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다니다가 더 좋은 대학교로 편입하길 원했던 부모의 바람에 따라 중퇴하고 편입과 공무원 준비를 하였으며 현재는 그만 두었다. 처음엔 영상 촬영을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휴강이 많아져 일자리가 없어졌다. 학원에서 영상 편집 일을 소개받아 현재 주 4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월 90만 원 소득과 부모로부터 월평균 50만 원 정도를 보조받는다. 부모에게 받는 돈은 월세와 관리비로 모두 사용하며, 공무원 준비를 함께했던 지인과 투룸에서 생활하고 있다. 일하지 않는 날은 작가로 데뷔하기 위해 글쓰기로 시간을 보낸다. 틱톡이 유튜브

편집도 공부하고 있다. 생업을 작가로만 하기엔 돈이 되지 않고,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 때문이다.

C3(남, 34세)는 배우를 하면서 연기 레슨과 작업실 공간대여를 하고 있다.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는 영화사 등에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 프로필을 제출하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작업실에서 연기 레슨 일을 하고 있다. 4년제 대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실제 연기를 하거나 연기 레슨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연기 레슨은 1:1로 이루어져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았지만, 공간대여는 줄었다. 월평균 소득은 약 180만 원 정도이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생활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 가장 큰 지출이 작업실 월세(40만 원)이다. 연기자라는 자부심, 만족도가 매우 높지만, 소위 좀 놀았던 학생처럼 인식하는 주변의 시선이 불편할 때가 있다. 일적으로 시간 사용이 자유롭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여기고 있으며, 자유로운 삶이 곧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다.

C4(여, 34세)는 극단에 소속된 배우이자, 지인의 아이를 돌보고 있다. 은행 여신사업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나, 영업 스트레스와 이혼이 겹쳐 은행을 그만두었다. 친한 선배가 자신의 아이 돌봄을 부탁하여 지난해 7월부터 월평균 130만 원 정도(최소 월 100만 원 보장)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시간 조율이 자유롭고 스트레스도 적은 반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맡은 일의 범위 외에 집안일까지 한다는 점이 단점이다. 2년제 대학 연극영화과에 입학하였으나 생각했던 학교생활과 달라 중퇴하였다. 이것도 못 버티면 어떻게 연극을 하려고 하느냐는 말과 함께 공공연히 들었던 성희롱적 발언은 대학 시절부터 공연 연습, 뒷풀이까지 이어져왔다. 죽을 때까지 배우를 하고 싶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40세에도 연기자로 자리 잡지 못하면 요양보호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

C5(남, 23세)는 경기도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며, 식당에서 홀 서

빙과 주방보조 아르바이트를 한다. 평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일하면서 시급 9천 원, 월 60만 원을 받았다. 4대보험 가입을 보장받았다. 일하지 않는 평일 낮에는 주로 대학 강의를 듣거나 과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코로나19로 인해 조사 즈음 식당이 문을 닫게 되어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었다. 재학 중인 2년제 대학 전자정보통신과에서 졸업작품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일을 자제해야겠다고 계획 중이었다. 가족들과 사이가 좋으며, 자식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부모의 성품 덕에 진로 관련 상담을 부모와 나눈다고 하였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공을 살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다가 창업까지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진로 준비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C6(남, 26세)는 4년제 대학을 다니다 주변 사람들(동기, 선배, 교수)에 대한 실망감으로 중퇴하였으며, 현재는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고 있다.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하지만, 물류창고로 가는 데 1시간이 더 걸려 실제로는 오후 5시에 나가 새벽 6시쯤 퇴근한다. 신체적인 피로로 매일 일하기 어려운 데다, 사측에서 수당 같은 문제로 동일한 창고에서 주 5회 근무를 못 하게 한다고 하였다. 주 3~4회 정도 일하면서 월평균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고 있다. 일은 하루하루 돈이 들어온다는 장점에 비해 미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택배 일을 하다 보니, 온라인 판매에 대한 관심이 커져 나중에는 온라인 판매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2. 단시간 노동 경험과 의미

〈표 4-4-1〉 단시간 노동 청년의 노동 경험과 의미

주제	개념
노동의 분리	정체성이 결여된 일
	자아실현을 위한 일
노동의 경험	지속적 근로를 보장받지 못함
	충분한 소득을 보전받지 못함
	부당한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이익
	권리 보장에 대한 청년 당사자의 관심 부족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차별 경험
노동의 의미	소모되는 노동
	불안과 소외의 시간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감

가. 노동의 분리

단시간 노동 청년들에게 일은 두 가지로 분리된다. 첫 번째는 정체성이 결여된 일이다. 정체성이 결여된 일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의 경력에 도움이 안 될뿐더러, 낮은 숙련도로 인해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이다. 또한 일하고 있는 조직 안에서 공동체성이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살기 위한 방편으로 정체성이 결여된 일에 참여한다. 반면, ‘자아실현을 위한 일’은 청년들이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이자 현재로서는 돈이 되지 않는 일이다. 청년들은 ‘자아실현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체성이 결여된 일’을 찾는다. 그러나 ‘정체성이 결여된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으며, 일부 청년들은 이 일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돈을 주는 일이란 돈을 안 주는 일이 있잖아요. 돈 주는 일은 돈 안 주는 일을 위한 수단으로. 먹고살 만큼 벌어도 남아야 제가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요. 돈을 꼬박꼬박 주는 일은 저한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 C2

1) 정체성이 결여된 일

청년들은 생계 유지나 센 시급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위해,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적 가치’를 위해, 원하는 대로 시간 사용이 가능한 ‘시간적 가치’를 위해 정체성이 결여된 일자리에 진입하게 된다. 정체성이 결여된 일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이다. 이러한 노동에서는 C1이 말하듯 금전적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

여긴 돈을 좀 더 줘요. 다른 알바는 최저가 8,600원인가 그렇잖아요. 여기 시급이 1만 2,000원이에요. 이 돈이면 거의 포차 알바 시급인데 밤에 남 토 치우고 술 진상 받느니 차라리 박세터라도. C1

또한 청년들은 관계성이 얇은 일자리를 선호한다. Jahoda(1982: 83)가 노동의 효과로 설명했던 사회적 관계의 확대나 집단적 목표의 달성과는 대비된다. 연구 참여 청년들은 직장에서의 관계가 피상적이길 원하며, 소속감을 얻기 원하기보다 직접적 접촉을 꺼린다. 이에 조직 구조를 갖춘 전통적인 고용 형태보다는 되도록 관계의 피로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야간에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별로 안 마주치고 싶어서. C2
지금 하는 일은 사람 상대할 일은 없죠. 회사생활에서 정치질과는 비교가 안 되지 않나. C6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 청년들은 시간 통제성이 높은 일자리를 선호한

다. 이러한 특징은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유사하게 관찰된다.

일어나고 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기도 하고 다음 날 큰 일정이 없을 때는 남들보다 일정을 자유롭게 짜서 그다음 날 오후에 일 있는 걸 좀 더 미뤄서 저녁에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C3

2) 자아실현을 위한 일

자아실현을 위한 일은 다른 가치보다 자아실현 가치가 우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체성이 결여된 일이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일은 '나여야만 하는 일'이다.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로 생각할 만큼 원하는 일이지만, 생계 유지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거나 미미한 도움만 될 뿐이다.

연기는 소득도 좋지만 평생 가지고 가고 싶은 일.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분야에 대한 자부심이나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마음, 계속하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C3

연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좋죠. 너무 좋다는 거 말고 단점은 페이가 적다. C4

자아실현을 위한 일은 상대적으로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며, 전공과 일 자리 일치도도 높게 나타난다. 이는 청년기 진입 전 청소년기부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로 교육의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표적으로 C3은 연극영화과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이를 활용해 무대와 연기 레슨에 사용한다.

저는 연극영화과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교수님한테 많이 배우면서 체득된 게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일들을 시작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연기도 하고 레슨도 하고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C3

나. 노동의 경험

1) 지속적 근로를 보장받지 못함

Standing(2014, p.29)이 말한 ‘고용 보장의 결여’는 자의적 퇴출로부터의 보호, 즉 지속적인 근로를 보장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 청년들은 대부분 해당 일자리에서의 계속 고용을 희망하지만, 이는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사측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까지 겹쳐 단시간 노동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원래 연말에도 공연이 잡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모르죠. C2

어디 창고가 코로나 터졌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창고에 나간 사람은 일을 아예 격리기간 동안 못 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C6

2) 충분한 소득을 보전받지 못함

연구 참여 청년들은 특정 직종에서 근로하기 때문에, 시급제이므로,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사회적 변화로 인해 충분한 소득을 보전받지 못한다. 즉, 직장에서의 ‘소득 보장이 결여’(Standing, 2014, p.24)되어 있다. 먼저, 문화예술 직종이나 자영업은 높은 소득 또는 안정적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해 필연적으로 투 잡을 펼 수에 없다.

작품마다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차비 정도 10만 원, 20만 원 받으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나라에서 지원하

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3, 4백씩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공연이 매달 있지 않으니까. C4

어디 소속이 되어 있어서 월급을 받거나 하면 수익이 좀 더 날 수 있는데 저는 자영업 개념이라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C3

시급제인 경우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C4는 고용인의 개인적 이유로, C1은 토익시험처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때 그만큼의 출혈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오롯이 피고용인인 청년의 몫이 된다.

경조사나 토익시험 때문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하루를 빼니까 출혈이 크죠. 말일이 되면 진짜 통장에 한 5만 원 이렇게밖에 없어요. C1

지난달 돌보는 아이와 엄마가 여행을 일주일 동안 갔어요. 그럼 그 일주일 동안에는 소득이 없는 거예요. 시급으로 받기로 되어 있어서. C4

아래 C5와 C3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청년들이다. 연구 참여 청년들은 예상치 못한 환경의 영향에 무방비한 상태이며, 수동적으로 상황을 수용하게 된다.

좀 더 많이 벌고 싶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별로 없다 보니까 11시에 끝나는데 10시에 끝나니까 소득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C5

대관을 하는 수입은 코로나 이전보다 확실히 줄어서. C3

3) 부당한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이익

근로계약 문제로 발생하는 불이익의 유형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비공식적 근로계약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것이

다. C4는 지인의 아이 돌봄을 하면서 근로계약을 구두로 하였으며, 그로 인해 처음 약속하지 않은 집안일까지 맡게 되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약속은 했어요. 계약서가 없다뿐이지 주로 하는 것은 아이를 케어하는 거고 아이 점심, 저녁을 먹여줘라. 시간이 된다면 집 정리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집안일이 주가 아닌데 무리하게 요구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가 몇 번 있었죠. 내가 하는 범위는 여기까지가 아닌데. 차라리 모르는 남이면 저 오늘 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지는 못했죠. C4

둘째, 고용주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C2와 C6 사례에서 보듯, 퇴직금이나 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 기간을 의도적으로 조정한다.

10개월짜리 계약서를 썼어요. 다시 계약하려면 두 달인가, 석 달인가 쉬었다가 다시 오면 받아주겠다고. 그게 몇 달이 지나고 나면 퇴직금을 줘야 되고 그쪽에서 뭐가 되게 복잡해지나 봐요. 프리랜서 꺾기 계약을 하는 거라. C2

5일 정도 하계는 못하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수당 그런 것 때문에. C6

셋째,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급여 및 처우가 다르다는 점이다. C3과 C4가 말하듯,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받거나 심각한 경우는 계약서를 썼던 회사가 없어지면서 급여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더 오래 근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계약서를 썼던 회사가 없어진대거나, 연극 쪽에는 그런 일이 좀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대표가 도망을 간다거나 해서 피해를 본 적도 있고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지켜주고 있는 편인데 옛날에는 촬영시간도 대충이 없었어요. C3

배우한테 100만 원씩 줬다고 계약서를 쓰고요.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80만 원 이런 식으로페이백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죠.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고. 10년 전만 해도 재능기부를 강제로 많이 당했죠. 만약에 지금 그런 극단이 있어도 아마 얘기를 못 하지 않을까요. 강제로 당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하고 싶은 일이니까. C4

4) 권리 보장에 대한 청년 당사자의 관심 부족

근로계약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 청년들은 자신의 노동 보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편이었다. 대표적으로는 C1과 C6 사례에서 보듯,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단시간 노동 청년들은 일자리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모두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집 정리하다가 계약서를 봤는데 계약기간 1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공지 안 해줘서. 연차를 쓰면 유급이니까 시급 받을 수 있는데, 저번에 토익시험 빠졌을 때 그런 거 없었어요. C1

제가 계약서를 쓰고 읽어보지를 않아요. 진짜 취직하면 읽어볼 텐데 여기는 일일계약서라 뭔가 그렇게 생각됐나 봐요. C6

관련하여, 연구 참여 청년들은 다양한 청년지원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청년은 거의 없었다. 제도인식은 공유되고 있지만 제도의 효용성이 낮은 것이다.

청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C5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들은 게 많아서 직접 알아본 건 있었어요. 청년지원사업들 중에 혹시 받을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C3

5)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차별 경험

노동시장 차별 경험은 젠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노동시장 차별의 유형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청년들은 주로 언어적 성희롱과 복장 등에 대한 요구를 강요받으며, 남성 청년들은 폭언에 시달린다. 그러나 어디에 피해를 호소해야 할지, 구제방법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피해는 일상화되어버린다.

일자리 진입 초기의 여성 청년들의 성폭력 피해는 언어 성폭력에 집중되어 있다. C1과 C4의 사례에서 보듯, 새로운 환경에 들어선 여성 청년들이 성폭력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여성 청년들은 무시하는 방법이나 오히려 더 세게 받아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갖지 못한다. 단시간 노동은 일시적인 노동이라는 점 또한 여성 청년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다. 그러나 해당 여성 청년이 다른 단시간 일자리로의 전환을 한다 해도 이 역시 일시적 방편일 뿐, 보호체계의 부족은 또 다른 피해 청년을 양산하게 된다.

저희 전시장에서 다 아저씨들이잖아요. 나랑 밥 먹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35살인데. 저는 22살이잖아요. 일하러 와서 왜 그만 걸로 관심 받는지 모르겠고 당황스러워서. 저는 약간 그런 걸 못해요, 받아치는 거. 일하는데 피부가 뒤집어졌네? 어느 때는 너 살이 좀 빠졌는데 난 예전이 낫다고, 너 지금 살 빠진 거 별로다 지금은 좀 독해 보여 이러는 거예요. 평일 리셉션에서 일하는 오빠가 너네 직원들이 엄청 훑어보는 거 아냐, 조심하라고 엮이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쳐다보는 것도 너무 싫어서. 차라리 포차에서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까지 했어요. C1

처음 연극영화과 교수하고 일대일 면담을 하는데 첫 질문부터가 너 처녀야? 그랬어요. 얼마 전애야 미투니 뭐니 나와서 그나마 여성들이 소리를 내는데 그땐 연극 하려면 이 정도는 버텨야지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질문에 그냥 아닌데요 했더니 다음 질문이 그럼 넌 어떤 자세가 제일 좋아? 이거였어요. 그땐 그것도 못 버티는데 어떻게 연극하려고그래?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면서 나도 다 받아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너무 불쌍해요. 연습이나 공연 끝나고 술자리가 많은데 거기서도 성적인 농담도 많고 그럴 때 저는 다 받아치고. C4

외모나 복장에 대한 복무규율이 존재하며 이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는 근로계약 피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외제차 전시장에서 리셉션 안내 직원으로 일하는 C1는 하청계약을 통해 화장, 머리, 신발, 옷차림과 관련된 복무규율을 전달받았다.

계약서에도 화장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하청 계약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화장을 해야 되고 머리 어피 아시죠? 승무원들 하시는. 그거 하거나 아니면 칼 단발을 하든지. 그리고 호텔 가면 호텔리어분들 신으시는 구두 있잖아요. 한 3센티, 5센티 되는 거. 무조건 그거 신고 스타킹 신어야 되고. C1

앞서 여성 청년들이 성희롱을 경험하는 것과 달리, 남성 청년들은 업무 현장에서 반말, 막말, 욕설 등 폭언이나 무시에 시달린다. C5나 C3, C6의 경우 고용주(또는 손님)으로부터의 폭언을 들은 사례이다.

관리자들이 무시하는 거죠. 거의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고 말투도 굉장히 깔보듯이 말할 때가 많고. 인격적인 모독 정도. 빨리해야 나가는데 그때 못 나가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뭐 해? 돼지새끼야? 이런 거 말고도 더 심한 얘기도 많이 하죠. C6

나이 드신 손님들이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무시하는 거. 반말은 기본으로 장착되어있고 가끔 욕도 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C5

연출이라든지 제작자라든지 제일 높이 위치한 사람들은 막 편하게 하는 얘기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게 얘기해줄 수도 있겠지만 포장 없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에서 인격적으로 상처를 받았던 적도 있었죠. C3

함께 일하는 다른 노동자로부터의 욕설에 대해 관리자의 보호는커녕

오히려 암묵적인 동의와 인정을 해줌으로써 다른 일자리로의 이동을 부추기는 사례도 있다.

같은 일용직이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 일 못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욕할 때가 있어요. 젊은 남성이나 여성들이 왔을 때 그런 아저씨나 남자들 때문에 나가는, 조금 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저도 처음 갔을 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안 그래도 자존감 낮을 때여서 굉장히 상처였지만. 지금 당장 먹고살아야 되니까 다른 창고로 옮겼죠. 그런데 관리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계속 꾸준히 나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방치하고. 방치를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C6

다. 노동의 의미

1) 소모되는 노동

C2가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고용주는 이익을 취한다고 말한 것처럼, 단시간 노동에 참여하기 원하는 새로운 청년들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동시에 소모되는 방식으로 청년들을 이끈다.

계약이 진행되는 걸 보면 어떻게든 노동법 안에서 다 뽑아가고 거기서 이익을 취하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나면 저의 시간을 팔아서 그 사람들한테 최저만 받고 그게 반복되는구나. C2

가끔 다른 전시장에서 땀방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가서 일을 할 수 있듯이, 그냥 알바. 약간 무수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C1

2) 불안과 소외의 시간

단시간 노동 청년에게 노동이란 불안과 소외의 시간이기도 하다. 정체성을 가진 일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아직 달성되지 않은 목표로 가는 과정

속에 놓인 청년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에서의 좌절과 상대적 박탈감(Standing, 2014, p.48)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일의 제일 안 좋은 점은 스스로가 느꼈을 때 미래가 없다. C6

40살까지만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제 자존감이 되게 많이 낮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어디 아파트를 사서 얼마가 올랐다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돈 욕심이 아예 없는 사람도 아니고, 나랑은 너무 먼 얘기 같고. C4

3)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감

부정적인 정서 외에도 연구 참여 청년들의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 즉, ‘자아실현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하는 긍정적 경향성 또한 발견할 수 있다. 많은 청년들은 노동 외 시간을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예비하며 보내는 시간은 청년들로 하여금 앞으로 더 나아질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동기를 부여한다.

제가 편입하고 싶은 대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토익을 본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침 9시 정도에 학원 가서 수업 듣고 밥 먹고 나면 2시, 3시 돼서. 그리고 10시까지 공부하다가 집에 가서 자고. C1

앞으로 하고 싶은 일(창업) 목표를 위해 물건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혼자 그런 걸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죠. 그게 미래를 위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시간). C6

작가 데뷔를 하고 싶어서 글을 쓰거든요. 일하러 가기 전까지 대부분 시간을 공모전에 낼 글을 주로 씁니다. C2

3. 미래와 사회 인식

〈표 4-4-2〉 단시간 노동 청년의 미래와 사회 인식

주제	개념
이상적인 삶의 조건과 지원 요구	원하는 일을 하는 삶과 진로 지원
	안정된 삶과 주거 지원
	자유로운 삶과 맞춤형 지원
사회에 대한 인식	노력에 응하는 제한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
	성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사회
	사회보장제도를 신뢰하기 어려운 사회

가. 이상적인 삶의 조건과 지원 요구

1) 원하는 일을 하는 삶과 진로 지원

연구 참여 청년들이 이상적인 삶에 대해 가장 많이 한 답변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이다. 이는 ‘자아실현을 위한 일’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단시간 노동 청년들의 삶의 지향은 어떤 지점이 아니라, 삶의 연속선 상에서 드러나는 궤적과도 같은 것이다.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삶. C5

저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C3

제가 원하는 삶이라는 건 사실 너무 많은데, 내가 좋아하는 일로만 수입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 C4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청년들은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먼저 C1에서 볼 수 있듯, 청년들은 진로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정

보를 원한다. 정보의 부재는 곧 대학 진학 이후 진로의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며, 전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진로를 선택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만족도 역시 떨어지기 때문이다.

막상 미대에 가면 뭘 할지 모르겠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나마 거기에서 자기 길을 찾아서 알아서 가는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저희 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상관없는 데로 많이 가세요. 막연하게 생각하고 미대에 가는 것보다는 뭘 하는지 더 자세하게 알려주면 좋겠어요. C1

특히 이러한 진로 지원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인 청소년 단계부터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저희 고등학교에도 좋은 선생님 되게 많으신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어떻게 그 학교에 가는지만 얘기했지, 그 학과에서 뭘 배우고 이런 건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솔직히 지퇴 같은 거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대를 잘 안 밀어주는 학교는 이런 것에는 관심이 잘 없으시고,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예체능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과가 어떻게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면, 제가 이 학과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C1

진로 지원의 또 다른 필요로 창업 지원의 필요성 또한 발견된다. 특히, 주변에 사회적·인적 자원체계가 부족한 청년의 경우 지원책을 알아보기 더욱 쉽지 않다.

창업 지원 관련된 것들이 어떤 전공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길이 없지 않나. 예를 들면 IT 분야라든지 IOT 이런 거 관련된 창업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막상 대학 학력 없이, 기본 자본금 없이 그러면 안 되죠. C6

2) 안정된 삶과 주거 지원

연구 참여 청년들이 원하는 이상적 삶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풍족하기만 한 삶을 바라기보다 자신의 일에 대한 적당한 대가를 원하며 그 대가를 바탕으로 삶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 것이다.

밖에 나가서 음식 먹을 때 돈 걱정 하지 않고 먹고 싶은 사람이랑 먹는 게 이상적인 삶인 것 같습니다. 진짜 외식할 돈이 없거든요. 그런데 음식점은 엄청 많잖아요. 음식 하나 먹는다고 삶에 지장이 생기면. 그게 너무 슬프겠죠. C6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돈 걱정 없이. 안정된 주거,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일에 대한 대가. 그런데 그 일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일 때.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C2

안정된 삶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 청년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욕구는 주거 지원 욕구이다. 본가에서 독립하여 자취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주거안정수준이 낮았다. 생활비 총액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40% 수준으로 높은 편이며, 앞으로의 주거지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C2가 밝히듯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으로 몰려든다. 청년 주거 지원이 확충되고 있으나, 청년들에게 주거 욕구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집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집을 서울에서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어그러지는 거라서. 지금 집 계약이 끝나간다는 사실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서울에 집이 있으면 일은 주겠다는 데가 있는데 집 없으면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고향으로 내려가면 거기서는 절대 촬영 편집 일을 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글로 돈 버는 일은 절대 없고. C2

전세자금대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전세도 많이 없고 주인들은 다 월세를 희망하기 때문에. 만 39세까지만이라도 어떤 조건이 정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금리로. C4

여성 청년들에게 특히 중요한 주거 조건은 '안전'인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청년들은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1은 파출소 옆에, C2는 대로변 상가 위층에, C3은 편의점과 마을 버스 정거장 근처에 주거지가 있다.

원래 ○○(지역)을 좀 무서워했었는데, 성범죄 알림도 설치해봤더니 여기 많이 살더라고요. 그런데 딱히 많이 없잖아요, 혼자 살 수 있는 데가. 일단 파출소 옆이고, 솔직히 많이 무섭기는 하거든요. 엄청 새벽에 안 나가고, 11시 이전에는 집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C1

대로변 빌라에 집을 얻었어요,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 집이 3층이고 1, 2층에 그동안은 상가가 없어서 오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안전했는데 요즘에 들어오려고 공사 중이라 앞으로 어떻게 모르겠어요. C2

다가구주택 투룸 사는데 너무 골목 구석진 데는 들어가기 싫었고 저희 집 바로 옆 건물이 마을버스 정거장인 거예요. 바로 거기에 편의점이 24시간 동안 있어서 여기로 이사를 온 거죠. C3

3) 자유로운 삶과 맞춤형 지원

자유로운 시간을 선호하는 청년들은 시간에 대한 통제감을 놓지 않고 싶어한다. 또한 단순한 선호를 넘어 일자리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간 통제에 대한 과한 몰입은 다른 영역에서의 실패를 시간 통제를 통해 회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 연기를 가르쳐주셨던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 선생님이 되게 자유롭게 사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더라고. 일하시면

서 자기 작업실에서 작업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C3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단시간 노동 청년들에게는 직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계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연구 참여 청년은 제도나 사업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증빙 서류를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다. 제도를 알고 있고, 신청도 해봤지만 조건을 갖추기 어려워 탈락하는 것이다. 단시간 노동 청년들은 소득의 불안정성, 4대보험에서의 배제, 비정규직 등의 사유로 관련 증빙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상자 선정 시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오히려 도움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는 신규 진입자 또는 저경력자들에게는 지원서류의 제출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니까 프리랜서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인 복지사업도 있는데 보면 사실 여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것조차도 증빙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 활동을 했다는 걸 증빙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기사에 나오고 우리가 알만한 그런 작업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진짜 나오지 않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까다로움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닌 것에 대한 아쉬움. C3

청년정책들 되게 많은데 저하곤 묘하게 안 맞더라고요. 일단 결혼 안 했으니까 신혼부부도 아니고, 중소기업 다니지도 않고 프리랜서니까. 증빙을 갖추려면 작가 데뷔나 활동도 해야 되고, 활동을 하려면 어딘가에 또 뽐혀야 되는데 그게 될 것 같으면 제가 지원해 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의 반복인 것 같아요. C2

청년통장이나 청년전세자금대출? 그것들을 보면 정규직 몇 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가나 4대보험 가입이 있어야 된다가나 이런 조건들이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는 건 받지 못했고. C4

청년통장 이런 건 안 됐고 여기는 월세인데 전세자금대출을 할 수도 있겠지
만 이게 또 상황이 안 됐습니다. 지원대상이 아닌 거. C6

나. 사회에 대한 인식

1) 노력에 응하는 제한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연구 참여 청년들에 의하면, 우리 사회는 노력에 응하는 보상이 주어지
긴 하지만 그 보상의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열심히 노력
한다면 어느 정도는 원하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들이 아직은 사회에 기대하는 바람이자 희망이다.

노력한 만큼 다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한 만큼 조금 더 벌 수 있
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C5

노력한 만큼 무조건 보답이 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잘살려고 하면 잘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저 스스로 경험도 있고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C6

저는 피부로 느끼기에는 많이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층이 뭔가
시작을 할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결혼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
고. 워낙에 주변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불평등하다고 피부로 와닿는 게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인
정책도 있고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계속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C3

2) 성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사회

성공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이 아닌 성공한 삶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한 청년도 있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
치가 본질적으로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 된다는 기준이 뭔지부터가 질문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전부터 들긴 했어요. 아르바이트하면서 저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너 언제까지 연극 한다고 그렇게 알바하면서 살 거야?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기분이 좀 나빴지만 과연 이렇게 살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연극 다 그만두고 일반적으로 취업을 해서 월 250에 많이 받으면 300 받는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200만 원씩 저축을 하고, 1년에 얼마씩 모아서 10년 동안 1억을 모았어, 그럼 된 건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 기준인지 그런 질문을 다시 하고 싶긴 했어요. C4

C4의 질문은 청년들뿐 아니라 기성세대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보인다. 이외에도 프리랜서에 대한 기성세대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C3나, 기성세대가 알고 있는 것을 더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 C6의 이야기를 들었다. 단순한 세대 차이라고 규정짓기보다 청년들은 기성세대로부터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프리랜서라는 게 너무 자유롭고 일하기 싫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예 제 또래나 어린 친구들은 프리랜서라고 하면 되게 능력 있고 자기 삶 찾는 멋있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50대 부모님 세대쯤 되면 게으르다, 일을 왜 안 하나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그게 확실한 격차가 심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충돌. 프리랜서로 정말 잘 지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시선 그런 게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C3

기성세대들이 본인의 돈줄 때문에 저희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주려고 하는 게 문제이지 않나. 사업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누가 알려주면 훨씬 좋잖아요. 진짜로 이걸 알 방법도 없고 사실상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없죠. C6

3) 사회보장제도를 신뢰하기 어려운 사회

연구 참여 청년의 절반은 나이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4대보험에 대

한 이해도가 낮으며, 또 잘 모르다 보니 4대보험 가입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현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주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4대보험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라요. 어떤 일자리에서든 4대보험 보장 이런 거 솔직히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전혀 안 봤어요. C1

고용보험은 안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 일을 계속 하긴 했는데 나가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런 걸 생각 못 했네요. C6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연구 참여 청년들은 기여한 만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보장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신뢰하기 어려운 사회보장제도에 돈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다. C1은 이거 떼가면 어디에 쓸지 모르다라거나, C3은 불신 때문에 꺼려진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청년 세대에게 4대보험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함을 반증한다.

국민연금 나중에 받는다는데 그때 가서 살아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산재도 조금씩 떼가는데 이거 떼가면 어디에 쓸까, 나중에 내가 이걸 받는 건가 이려고. 차라리 세금이면 그냥 세금이구나 하는데, 연금이라면 저는 안 받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 친구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국민연금이 5만 원이나 떼가냐. C1

불신이 없다고는 말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안 든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더 꺼려지는 것도 확실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C3

나아가, 연구 참여 청년들은 단시간 노동으로 적은 소득 및 소득의 불안정으로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의 소득으로는 지출을 감당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지불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올라가거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가 있다면 가입할 용의를 보인 청년들이 더욱 많았다. 단시간 노동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들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제 소득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지금 90만 원 받는 상황에서는 그냥 30만 원 저축 넣는 걸로 제가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대비가 끝인 것 같고. 100만 원대 후반, 200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사회부조니까 그럴 때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딱 최소한만 벌어서 쓰니까 사회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것까지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C2

지금보다 수익이 조금 안정적이 된다면 그때는 저도 가입을 할 용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면 아무래도 부담이 덜해지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을, 고려해볼 것 같아요. C3

제가 솔직히 급여가 적잖아요. 한 달 해서 80만 원, 진짜 운 좋으면 88만 원 이렇게 받는데. 체감되는 게 저는 진짜 크거든요. 월급 2백씩 받는 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당장 이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로 일주일 넘게 먹을 수 있는데, 5만 원 넘게 떼가면 굳이 그걸 드는 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C1

4. 소 결

단시간 노동 청년 6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현재 노동 경험과 의미, 미래와 사회인식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표 4-4-3>와 [그림 4-4-1]은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의 단시간 노동 경험과 의미는 노동의 분리와 노동의 경험, 노동의 의미로 범주화할 수 있다. 노동의 분리는 정체성이 결여된 일과 자아실현을 위한 일의 개념을 확인하였다. 정체성이 결여된 일은 경제적 가치와 관계적 가치, 시간적 가치에 대한 선호로 인해 진입하게 된 일자리이다. 연구 참여 청년들은 일에서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거의

발견하지 못한다. 반면, 자아실현을 위한 일은 위의 가치들을 고려하지 않을 만큼 앞으로 계속하고 싶은 일자리이다. 자아실현을 위한 일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체성이 결여된 일이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써 자리한다. 결과적으로 단시간 노동 청년에게 현재의 노동은 계속되기 보다 스쳐가는, 최종 일자리로 가는 궤도에 놓인 일인 것이다.

노동의 경험은 지속적 노동을 보장받지 못함, 충분한 소득을 보전받지 못함, 부당한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이익, 권리 보장에 대한 청년 당사자의 관심 부족,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차별 경험 등의 개념을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단시간 노동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받는 대우는 결코 친절하지 않다. 노동 관련 보장들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식적·비공식적 지지체계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지 못한다. 단시간 노동 청년들은 다른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는 현재의 일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 하지만, 사측의 고용 또는 해고 결정에 휘둘리기 십상이다. 소득에 대한 보전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고용 불안정과 소득 불안정을 높이는 공통된 요인은 코로나19의 영향이다. 예측할 수 없는 환경적 변화와 그로 인한 악영향에서 단시간 노동 청년은 보호받지 못한다. 근로계약 상 문제는 보다 다층적인데, 비공식 계약과 편법적 계약 기간 조정,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급여 및 처우 등으로 확인된다. 무엇보다 청년 당사자들 역시 이러한 부당함에 적극적인 관심이 부족하다.

한편, 단시간 노동 청년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경험은 젠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차별 경험이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남성 청년들은 폭언으로 인한 인격 모독 피해 경험을 보고하였다. 감내하고 수용하는 청년들의 태도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또 다른 청년 피해자들을 양산해내게 된다.

노동의 의미는 소모되는 노동, 불안과 소외의 시간,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감 등의 개념을 확인하였다. 정체성이 결여된 일과 관련하여서는 소모되는 노동이, 자아실현을 위한 일과 관련하여서는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두 가지 일 모두에서는 불안과 소외의 시간으로서 의미가 있다. 정체성이 결여된 일에서 청년들은 결정권을 갖지 못하며 경력을 위한 기반을 쌓아가기보다는 대체 가능한 부품처럼 소비되는 것으로 여긴다. 반면, 자아실현을 위한 일은 아직 희망이 있는 일자리이며, 이를 위해 청년들은 자신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지금과는 다른 삶에 대한 기대감과 동기가 청년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결여된 일과 자아실현을 위한 일 모두에서 청년들은 불안과 소외의 시간을 보낸다. 청년 스스로가 원하는 목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달성해버린 목표에 아직 한 발도 다가서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미래와 사회 인식은 이상적인 삶의 조건과 지원 요구, 사회에 대한 인식으로 범주화하였다. 먼저, 이상적인 삶의 조건과 지원 요구는 원하는 일을 하는 삶과 진로 지원, 안정된 삶과 주거 지원, 그리고 자유로운 삶과 맞춤형 지원의 개념을 확인하였다. 청년들이 이상적인 삶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하는 '일'하는 삶이었다. 즉 자아실현을 위한 일자리를 갖는 것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로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공과 진로의 일치도가 낮아 고등교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였으며, 높은 경우 현재 일자리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진로 지원은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청소년기부터 요구된다는 점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현실성 높은 창업 지원 역시 청년 대상 고용지원제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었다.

청년들에게 안정된 삶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이라기보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는 삶에 가깝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경제적 안정과 관련하여 소득 안정보다는 주거 안정에 대한 지원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전체 소득 중 주거비 지출수준이 높은 편이었으며, 여성 청년의 경우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로 하였다.

단시간 노동 청년들은 말 그대로 주중 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인 청년들이다. 아르바이트 성격의 일과 비숙련직, 투잡을 유지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터뷰 중 가장 많이 등장했던 용어는 '자유'였다. 청년들은 노동과 일상 모두에서 자신의 시간을 속박 없이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것이 충족되는 현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청년들에게는 맞춤형 지원이 요구되는 데, 저경력자나 신규 진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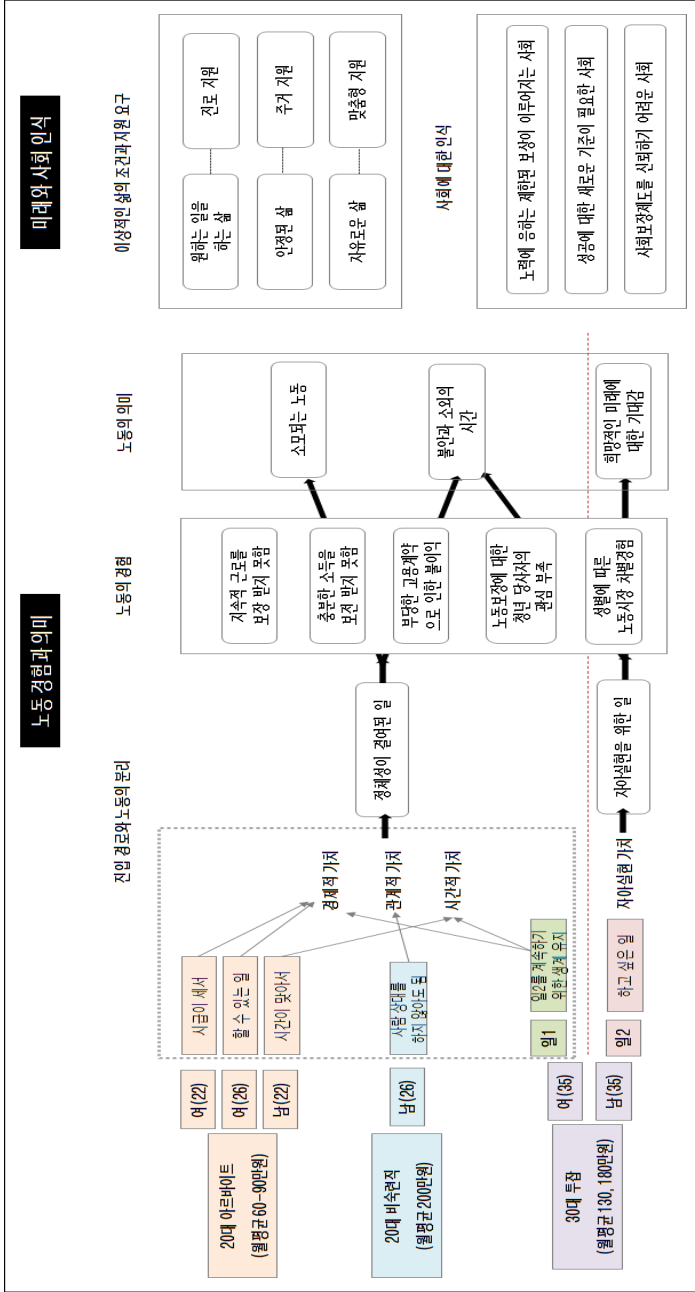
사회에 대한 인식은 노력에 응하는 제한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 성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사회, 사회보장제도를 신뢰하기 어려운 사회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청년들은 사회에 대해 일정 부분 기능한다고 여기면서도 변화의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단시간 노동 청년의 특징이라기보다 최근 20~30대 청년들의 사회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의 보상은 이루어지지만, 그 보상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표 4-4-3〉 단시간 노동 청년의 질적 연구 분석 결과

대주제	소주제	개념
단시간 노동 청년의 노동 경험과 의미	노동의 분리	정체성이 결여된 일
		자아실현을 위한 일
	노동의 경험	지속적 근로를 보장받지 못함
		충분한 소득을 보전받지 못함
		부당한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이익
		권리 보장에 대한 청년 당사자의 관심 부족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차별 경험
	노동의 의미	소모되는 노동
		불안과 소외의 시간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감
단시간 노동 청년의 미래와 사회 인식	이상적인 삶의 조건과 지원 요구	원하는 일을 하는 삶과 진로 지원
		안정된 삶과 주거 지원
		자유로운 삶과 맞춤형 지원
	사회에 대한 인식	노력에 응하는 제한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
		성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사회
		사회보장제도를 신뢰하기 어려운 사회

성공에 대한 기성세대의 관점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이 성공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는 것이 필요함 역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 및 비신뢰, 부담 등을 복합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1] 단시간 노동 청년의 삶과 노동





제5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제2절 정책 제언

제 5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2차 연도 연구에 따르면(김태완 외, 2019) 청년층 배제는 노동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또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품고 있던 상흔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에는 청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연구는 이러한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들에 주목하고, 플랫폼 노동과 시간제 노동을 하는 청년의 일과 생활을 살폈다. 플랫폼 노동은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와 가장 밀접하게, 가능성과 우려를 함께 안고 논의되고 있으며, 알바나 프리랜서로 표상되는 시간제 노동은 청년들이 가장 쉽게 접하게 되는 노동이며, 이러한 노동에서 청년의 증가세는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생계와 직결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또는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과 권력의 열세라는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으로 고용안정성과 사회보험 등의 보호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청년 플랫폼 노동자와 청년 시간제 노동자의 일과 삶을 양적·질적으로 살펴, 포착된 현상과 문제에 따른 정책적 쟁점과 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 청년정책 환경 변화와 일자리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여 청년 주변부 노동 현황을 파악했다. 3장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인 플랫폼(312명), 초단시간(304명), 단시간(313명) 노동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를 서베이 조사를 통해 진단하고 사회보험 가입의사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4장에서

는 1:1 인터뷰를 수행하여 플랫폼, 초단시간, 단시간 노동 청년의 일과 삶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했다. 5장 결론에서는 앞서의 분석을 종합하여 정책 제언을 시도했다.

2020년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의 시행과 코로나19로 인한 시대적 여건이라는 두 축의 환경 변화에 놓여 있다. 2020년 8월 청년기본법의 시행으로 청년정책은 장시간의 법적 공백기에서 벗어났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명시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논의들을 진척시키고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은 2020년 1~4차 추가경정예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 대응은 공급량의 확대에 의한 대상자 증가 자체가 정책 대응에 대한 기대를 키울 수는 있지만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나 장기 전략의 부재, 구체화되지 못하거나 실행된다 하더라도 실제적 변화를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 그 변화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2장 2절에서는 청년 불안정 노동의 실태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은 20대 청년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고용 유지에 집중되면서 노동시장에서 신규 진입한 청년에게 더욱 혹독한 노동시장 환경이 조성된 영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 노동의 경우, 초기 청년과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학/휴학 중 시간제 비율이 매우 높고 고졸 청년의 시간제 비율이 청년 초대졸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 시급을 분석하면, 30~34세 여성의 초단시간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시간제와 초단시간 노동은 청년에게는 질 낮은 일자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시간제 노동인 경우 전일제 노동보다 전반적으로 매우 낮고 15~24세, 25~29세 가입률이 매우 저조해 청년 사

회보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 청년층의 경우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시간제 노동을 선택하는 이유는 집단별 차이가 있었다. 특히, 고졸 청년의 경우 1/3이 전일제를 구할 수 없어서 시간제로 일한다고 응답했고, 25~34세 남자의 경우 이 비율은 과반에 이르렀다.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여 플랫폼 노동자를 분석한 결과, 남자의 비율이 과반이라는 점과 청년보다는 중장년층 비중이 높다는 공통적인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근무환경을 살펴보면 청년은 취업일 수가 많지 않고 하루 평균 근로시간 또한 35세 이상에 비해 짧은 편이다. 월평균 소득 또한 35세 이상에 비해 청년의 50만 원 미만 구간 비율이 높은 편인데 반해, 300만 원 이상 구간 비율은 낮았다.

서베이를 통해 플랫폼, 초단시간, 단시간 노동을 하는 청년의 일과 생활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년’ 플랫폼 노동이 다른 유형의 플랫폼 노동과 구분되는 측면은 우선 겸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의 경우 다른 일과 겸업하는 경우뿐 아니라, 학업과 겸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겸업이 많다는 청년 플랫폼 노동의 특성은 단시간 노동의 비율이 높다는 점으로도 확인된다. 그러나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근로시간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년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부분 플랫폼 노동의 근로시간 결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시간 관련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일감을 얻지 못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청년 플랫폼 노동자는 일의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느끼지만, 산재보험 같은 최소한의 보호막이 있어도 그 밖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권’이라는 측면에서도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이런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지만, 청년 플랫폼 노동자들의 접근성은 낮다. 총소득으로 보나 시간당 소득으로 보나 청년 플랫폼 노동

자의 소득은 낮은 편이다. 다소 뜻밖이었던 점은 시간당 소득이 직종의 숙련수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는 대부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이 주로 노동시간에 있다는 점과, IT/소프트웨어와 같은 업종에서 장시간 노동이 일반적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는 플랫폼, 시간제 노동을 하는 청년들의 소득과 일자리 상실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사회보장제도 밖에 있어서 소득이 감소해도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이들의 문제는 '실업'이기도 하지만, '소득감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존의 고용보험에 포괄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플랫폼, 시간제 노동을 하는 청년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 참여 욕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정 직종에 대한 훈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에 따르면, 연구에 포함된 청년들은 일자리에서의 부정적인 경험 비율뿐 아니라 업무상 상해 경험 비율이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일 경험이 있는 청년에 비해 높았으며, 사업장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의사가 높았다. 또한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소득 대비 부채와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은 높게 나타나 생활의 불안정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19~34세의 불안정 노동자 92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현황 및 각 사회보험 가입의사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정부 일반에 대한 신뢰, 고용보험의 경우 노조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정책과 비재정정책의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

다.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크기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본인 지불용의는 두 사회보험 공히 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제일 중요했고, 가입에 영향을 준다고 확인된 요인들은 오히려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4장에서는 플랫폼, 시간제 노동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삶과 일, 일과 삶의 연결성, 사회보장제도의 경험과 인식, 청년지원정책 경험과 인식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수행했다. 노동형태와 관계없이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일은 자아실현과 관계된 일과 그렇지 않은 일로 구분되었다. 불안정 노동이라 하더라도 자아실현과 관계된 일은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자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일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은 누적된 실패 경험과 그로 인한 제한된 선택, 그저 불안하고 소모되는 노동의 의미를 지녔다. 이는 정부에 의한 청년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불안정 노동자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졌으나 계층 인식과 개별적 상황(예: 연령)에 따라 청년들은 자신들의 일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청년지원정책을 경험한 청년들은 현재의 청년정책이 가진 한계, 특히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노동 관련된 서비스의 양과 질의 충분성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억제기제를 가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책임 회피,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급여, 처우와의 상이성으로 인한 열악함은 그대로 드러났으며, 청년들은 연대체의 부재와 낮은 경험치로 인해 폭언, 폭행, 부당한 경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제2절 정책 제언

1. 청년기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로의 포괄

연구 결과는 다음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을 사회보장제도 내로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권력을 갖기 어려운 청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에서 보듯, 청년의 일은 졸업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노동의 동기는 생계, 미래에 대한 탐색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 동기는 청년들이 불안정 노동으로 진입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청년을 소득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하고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되는 계기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권력을 갖지 못한 대상의 특성 때문에, 즉 고용주의 가입거부나 정보 부족으로 사회보험 가입으로부터 배제되고, 그에 따라 일을 잃은 경우 사회보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청년이 사회보장제도로 편입되고 경험을 통해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불안정한 일을 할 때가 아닌 안정적인 일을 할 때 가능해지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을 사회보장체제로 포괄하기 위해, 보험료의 지원과 함께 고용주 거부로 인한 미가입 문제에 대한 대처가 요구된다. 3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 분석 결과는 사회보험의 종류와 지원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같은 청년 노동자라 할지라도 20대 청년 노동자와 30대 청년 노동자는 사회보험을 인식하는 태도가 달랐다. 우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보의 제공은

사회보험 가입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정부 일반에 대한 신뢰, 고용보험의 경우 노조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정책과 비재정정책의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연대체를 통한 보호의 경험 제공 및 연대체 권한 강화

청년 불안정 노동의 문제는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과 노동으로 이어진다. 연구 결과는 남성 청년의 경우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여성 청년의 경우는 성적 폭력에 빈번히 노출됨을 보여주었다. 생애 초기 일, 더 나아가 사회에서의 폭력, 상해 경험이 청년들의 향후 노동 이행과 정신건강 등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은 연대체의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노동을 보호할 수 있는 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심층인터뷰에서 확인된 사업장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디지털 콘텐츠 창작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검토와 권리옹호를 위한 연대활동을 펼쳤고, 이를 경험한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이 연대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동조합 가입의사는 고용보험 가입의사와도 관계가 있었다.

문제는 협상력이다. 일각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보편적 소득보장이 협상력을 키울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별화된 불안정한 노동주체에게 현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고용안정성과 안전, 폭력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현금지원이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현실에서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연대체 구축과 실질적 교섭력 강화를 통한 불안정 노동자의 보호는 청년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연대체는 사업체를 배경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뿐 아니라 각 지역사회 청년센터, 협동조합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기성 노조와 노동법, 사회정책 유관자들은 이러한 시도들이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하는 청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하는 청년들이 이러한 연대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집단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그 목소리를 현장에 반영,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3. 교육훈련제도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양적·질적 차원의 정비

청년 불안정 노동자를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은 장래성에 대해 만족도가 낮고,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욕구가 청년 일반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의 이행기 노동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과 진로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특히 플랫폼 노동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은 플랫폼 기업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은 특정 직종에 대한 훈련을 가장 선호했는데, 이행기 특성상 직업 훈련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한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개발에 대한 욕구가 다변화해가는 사회환경 내에서 안정적으로 추구, 충족될 방안이 필요하다. 현실에서 발생 여부와 지속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이행기 청년의 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나,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 또한 강구될 필요가 있다.

심층인터뷰에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은 상담기간의 연장과 커리큘럼의 체계성,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즉, 현재의 고용서비스가 청년들이 요구하는 양과 질, 지속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청년들은 인터뷰를 통해 청년정책에 억제기제가 내재된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 포털 사이트의 접근성의 한계, 수급 자격의 까다로움과 증빙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책이 필요한 대상들이 묘하게 배제되는 문제는 사회정책을 설계할 때 나타나는 수요억제와 공급억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들의 일과 삶에서는 그리고 정세정 외(2020), 노대명, 정세정, 곽윤경, 이호근, 임지영, 이지혜(2020)가 수행한 연구들에서는 특정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서비스와 전달체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가 목도해온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일들은 서비스와 전달체계의 구축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구축하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돌보는 방식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효과성과 효율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4. 근로연령층 사회보장제도 재편의 필요성

넷째, 연구에서 확인한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근로연령층의 사회보장제도 재편의 필요성 또한 시사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청년 불안정 노동까지 빠른 시일 내에 포괄할 수 있는 방안뿐 아니라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논의와 작업은 각계에서 여러 방식으로 검토될 필요도 있다(노대명 외, 2020). 현재 근로연령층에

적용될 수 있는 소득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 고용보험이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청년층은 청년특례까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는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미취업자나 특정 산업(예: 지역 주력산업) 종사자에 대한 각종 수당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정책 수혜자를 늘리고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생애 1회 지원과 같은 조건들을 부과할 수밖에 없어 소득보장체계로서 기능하기에 한계가 있다.

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와 관련해서는 노대명 외(2020)가 제안한 기초보장제도, 근로장려금, 실업부조,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넘어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최저소득보장제도(근로장려세제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중 근로능력자 관련 부분을 통합하는 방안), 참여소득 논의(김정훈 최석현, 2018), 기본소득 논의(이승윤, 백승호, 박성준, 김태환, 2020) 등이 있다. 이러한 논의들에 앞서 분명히 주지되어야 할 것은 각각의 정책이 정책대상자들에게 갖는 의미에 대한 고민이다. 특히 높은 교육수준과 개별화된 정체성에 대한 뚜렷한 욕구를 지녔으며, 이행을 생애과업으로 하는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 무엇과 공통적 욕구를 파악하려는 강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심층인터뷰에서 확인된 청년들에게 일이 갖는 의미, 즉 일이 곧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돌아볼 때 이는 더욱 분명하다. 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 또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각 입장을 차별화하기 위한 불필요한 의견대립보다는 여러 유형과 지원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5.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 설계 및 추진

그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최종 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 산업정책으로 추진되어왔다. 관계부처합동(2020a)으로 발표된 한국형 뉴딜 청년에 대한 지원 내용 또한 청년의 IT 직무 활용, 일 경험 지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 대상 이공계 졸업생 매칭,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또한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확충, 민간 일자리 인건비와 보조금 지급, 민간 일자리로 진입한 청년에 대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연계시키려는 계획이 담겨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b). 이행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산업 중심의 정책 성격이 강하다. 이해관계자들의 성과를 보장할 수 있어야 얻을 수 있는 정책 추진동력의 현실적 문제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일은 자아실현과 관계된 일과 그렇지 않은 일로 구분되었다. 청년들은 다소 불안정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행, 즉 자아실현과 관계된다면 일을 통해 의미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 있는 곳, 이를테면 계층인식과 연령에 따라 청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다르게 인식하게 되고, 일이 갖는 실질적 의미도 달라진다. 이는 사회보장제도로 청년들을 편입시키려는 노력은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가리키기도 한다. 다만,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의 일의 성격에 따른 인식의 구분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설계, 제공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교육, 훈련 및 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청년 욕구를 파악해야 함을,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관계부처합동. (2020a).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관계부처합동. (2020b).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0. 9. 18. 보도.
- 고용노동부. (2019).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고용노동부. (2020a). 2020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 고용노동부. (2020b).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reclamation/list2.do>에서 2020. 9. 1. 인출.
- 국립국어원. (2020).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368665에서 2020. 11. 1. 인출.
- 국회예산정책처. (2019).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분석.
- 기획재정부. (2020a). 「'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 2020년 3월 18일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2020b).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0년 4월 30일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2020c).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0년 7월 3일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2020d).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0년 9월 22일 보도자료.
- 김규혜. (2020).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7(1), pp.285-317.
- 김기현, 차세영, 이승호, 김문길, 박미선. (2020).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김기현, 유민상, 변금선, 배정희, 이민정, 배진우, 차세영, 강정석, 이화진, 권향원, 이승호, 김문길, 박미선.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무조정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도균. (2019). 청년 국민연금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경기연구원.

- 김도형. (2016).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KDI focus 75. KDI.
- 김상호. (2007). 공적연금제도와 세대 간 갈등. 분쟁해결연구, 5(1), pp.37-53.
- 김성혁, 박장현, 이문호, 장진숙. (2019). 플랫폼 노동 보호와 조직화 방안 연구보고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김승섭, 이승윤. (2020). 코로나19 재난의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불안정 노동자의 삶과 건강. AC 6M, 직장갑질 119 발표자료(2020. 06. 22.).
- 김은경. (2020). 플랫폼 현동조합(Platform Coop). 공정경제의 출발. 이슈&진단. 400, pp.1-25. 경기연구원.
- 김유빈, 강민정, 고영우, 김영아. (2019). 청년 삶의 질 연구(II) -빈곤, 여성, 지역이동, 가족형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김종진. (2019). 웹기반과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 주요 특징과 정책과제. 플랫폼 노동 논의와 실태, 정책과제 모색 노동포럼 자료집. 서울연구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준영, 권혜자, 최기성, 연보라, 박비곤. (2018).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한국고용정보원.
- 김철식, 장귀연, 김영선, 윤애림, 박주영, 박찬임, 홍석만. (2019). 플랫폼 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김태완, 김기태, 이주미, 최준영, 강예은, 김보미, 정재훈, 안주영, 송치호. (2019).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체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진. (2016). 중·고령층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국민연금 가입에 관한 연구: 남성과 여성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3(4), pp.255-272.
- 남재욱, 김봄이, 크리스티나히슬. (2020).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 보장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남재욱, 이다미. (2020). 한국에서 '좋은' 시간제 일자리는 가능한가? 한국사회정책, 27(1), pp.187-211.
- 노대명, 정세정, 곽윤경, 이호근, 임지영, 이지혜. (2020).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

- 른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재린, 오유진. (2020).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현황과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 연구, 36, pp.137-162.
- 민숙원, 백원영, 박라인, 윤종혁, 윤혜준. (2020).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추적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광준. (2002).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마녀재판에서 복지국가의 선택까지. 파주: 양서원.
- 박노자. (2016). 주식회사 대한민국: 헬조선에서 민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한겨레출판사.
- 박정훈. (2020).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빨간소금.
- 박제성. (2016). 플랫폼 노동 혹은 클라우드 워크. 국제노동브리프, 14(8), 한국노동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브뤼노 팔리에. (2019). 노동시장 변화와 사회보호. 미래 환경 변화와 사회보장의 미래. 2019 사회보장 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 사회보장위원회. (2020). http://ssc.go.kr/stats/infoStats/stats010100_view.do?indicator_id=586&listFile=stats010200&chartId=2251에서 2020. 11. 1. 인출.
- 성재민. (2017).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신영전. (2019). 보건·복지·사회정책 분야 '하지 않는 연구' 또는 '언던 사이언스(Undone Science)를 넘어서. 보건사회연구, 39(4), pp.5-10.
- 신현태, 김은지, 김상현. (2018). 사회적 공간 내 정보와 준거의 작동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 임의가입 결정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11(2), pp.175-205.
- 오삼일, 이상아. (2020).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측정 및 평가. BOK 이슈 노트 No.2020-9. 한국은행.
- 유경준, 최바울. (2014).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 방안, KDI focus 38. KDI.
- 윤홍식. (2012). 복지국가 조세체제의 변화.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1), pp.195

-226.

- 윤홍식, 남찬섭, 김교성, 주은선. (2019).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이병희. (2020).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모색. 고용·노동브리프 제95호. 한국노동연구원.
- 이경미. (2019). [뉴스AS] 이 설문조항 하나로 '숨은 비정규직 50만 명' 찾아냈다. 2019년 10월 31일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5318.html#csidx8539fbedfcb226b9c677e44fd3332c에서 2019. 11. 1. 인출.
- 이승렬. (2011).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의향 분석. 노동정책연구, 11(4), p p.55-80.
- 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운영. (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pp.487-521.
- 이유진, 박다해. 2018. 기사 메갈 잘라라 한마디에, 게임업계 밥줄이 끊어졌다. 2018년 6월 25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0488.html>에서 2020. 11. 1. 인출.
- 이주희·정성진·안민영·유은경(2015). 모호한 고용 관계의 한국적 특성 및 전망. 동향과전망 (95), pp.252-289.
- 이호근. (2020).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사회보장법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26(1), pp.49-112.
- 일자리위원회. (2020).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 TF 논의 결과.
- 장지연, 박찬임 (2019). 사회보험 사각지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노동리뷰, 11, pp.9-19.
- 장지연, 김근주, 박은정, 이승윤, 이철승, 정슬기. (2017).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유형과 정책적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 이호근, 조임영, 박은정, 김근주, Enzo Weber. (2020). 디지털 시대의 고용안전망: 플랫폼 노동 확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 정민주. (2019). 플랫폼 노동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설문 방안 검토. 일자리기획단·한국노동연구원.

- 정성미. (2019).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의 특징과 비자발적 시간제 국제비교. 월간 노동리뷰, 2019년 3월호, pp.101-113.
- 정세정, 김태완, 김문길, 정해식, 김기태, 주유선, 강예은, 최준영, 송아영, 김용환.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수남. (2014). '잉여인간', 사회적 삶의 후기자본주의적 논리. 한국사회학, 48(5), pp.285-320.
- 정해식. (2020). 청년의 사회보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0년 6월호. p p.19-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청년유니온. (2020). 2020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 주휴수당 실태조사 분석 결과. <http://youthunion.kr/xe/pds/37044>에서 2020. 10. 1. 인출.
- 통계청. (2019). 사회조사. <http://kosis.kr/index/index.do>에서 2020. 9. 30. 인출.
- 통계청. (2020a).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www.index.go.kr/potal/stts/inde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495에서 2020. 11. 20. 인출.
- 통계청. (2020b).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
- 통계청. (2020c).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3에서 2020. 11. 9. 인출.
- 통계청. (2020d). 연령별 사회보험 가입률 데이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G02에서 2020. 11. 11. 인출.
- 한국노동연구원. 제21차 한국노동패널. <https://www.kli.re.kr/klips/index.do>에서 2020. 4. 23. 인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view?seq=1644>에서 인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허선, 김윤민, 한경훈. (2019). 저소득계층 소득지원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정책기획위원회.

현대경제연구원. (2012). 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냅프(Not Out Of My Pocket)’
현상. 경제주평, 통권 제483호.

황덕순·박찬임·박제성 ... M. A. Cherry. (2016). 고용 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Berg, J., Furrer, M., Harmon, E., Rani, U., & Silberman, M. S.(2018). *Di-
gital labour platforms and the future of work: Towards decent w-
ork in the online world*.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Bonoli, G. (2000). Public attitudes to social protection and political
economy traditions in Western Europe. *European Societies*. 2(4),
pp.431-452.

Bourdieu, P. (200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 최중철 옮김. 서울:
새물결. *La distinction: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De Stefano, V. (2016). The rise of the “just-in-time workforce”: On-deman-
d work, crowdwork and labour protection in the “gig-economy”, *Co-
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p.71.

Esping-Andersen, G. (2006). 복지체제의 위기와 대응: 포스트 산업경제의 사-
회적 토대. 박시중 옮김.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Social Foundatio-
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Eurofound. (2007). *Part-time work in Europe.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Eurofound. (2015). *New forms of employment*.

Forde, C., Stuart, M., Joyce, S., Oliver, L., Valizade, D., Alberti, G., & C-
arson, C. (2017). *The social protection of workers in the platfor-
m economy. Policy Department-Economic and Social Policy*, Em-
ployment and Social Affairs (European Parliament).

Giddens, A. (1998). 제3의 길. 한상진, 박찬욱 옮김. 서울: 생각의 나무.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 Gray, M. L. & Suri, S. (2019). *신동숙 옮김. 고스트 워크*, 서울: 한스미디어. *Ghost Work*.
- Jahoda, M. (1982). *Employment and unemployment: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shall, T. H. (2013). *시민권과 복지국가*. 김윤태 옮김. 서울: 이학사.
- Martin, I. W. and Gabay, N. (2012). Fiscal protest in thirteen welfare states. *Socio-Economic Review*, pp.1-24.
- OECD. (2010). *OECD Employment Outlook: Moving Beyond the Jobs Crisis*.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5a).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5120-en>.
- OECD. (2015b).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5-en.
- OECD. (2019). *OECD Employment Outlook 2019: the Future of Work*, OECD.
- OECD. (2020a).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Worker Security and the COVID-19 Crisis*,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20b). *YOUTH AND COVID-19: RESPONSE, RECOVERY AND RESILIENCE*. <https://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youth-and-covid-19-response-recovery-and-resilience-c40e61c6/>에서 2020. 10. 2. 인출.
- Prassl, J. (2018). *Human as a Service: The promise and perils of work in the gig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 Schmid, G. (1995). Is full employment still possible? Transitional labour markets as a new strategy of labour market policy. *Economic and Industrial Policy*, 16, pp.429-456.
- Schmid, G. (1998). *Transitional labour markets: a new European*

- employment strategy*. Berlin,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WZB).
- Schmidt, F. A. (2017). *Digital labour markets in the platform economy; Mapping the political challenges of crowd work and gig work, Good society-social democracy*, Friedrich-Ebert-Stiftung.
- Schram, S. (1995). *Words of welfare: The poverty of social science and the social science of poverty*.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anchez, D. G., Parra, N. G., Ozden, C., Rijkers, B. (2020). Which jobs are most vulnerable to COVID-19?. *World Bank Research & Policy Briefs*. No.34.
- Soysal, Y. N. (2012). Citizenship, immigration, and the European social project: rights and obligations of individualit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3(1), pp.1-21.
- Standing, G. (2014).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김태호, 옮김. 경기: 박종철출판사.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 Svallfors, S. (2012). *Contested Welfare States. Welfare Attitudes in Europe and Beyond*. Stanford University Press.
- Taylor, C. (2010).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상길 옮김. 서울: 이음. *Modern Social Imaginaries*.



[부록 1]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조사표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입니다.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과 생활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한 사회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일과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연구 참여 동의서 -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현재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총체적 삶을 일과 생활의 차원에서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차별화된 조사를 설계, 수행하여 청년 노동분야 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생명윤리위원회(IRB) 제2020-23호)를 받아 진행되며 응답해 주시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보장됨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동의서에 작성해주시는 귀하의 성함과 연락처는 조사에 대한 사례비 지급을 위해 활용될 뿐이며, 결과 분석이나 해석 시 귀하의 모든 개인적 정보 및 기타 정보는 코드화되어 오직 코드번호로만 식별됩니다. 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현황 등의 개인정보는 조사가 종료된 직후 폐기됩니다.

조사의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연구 책임자: 김기태 부연구위원 (044-287-8083)
- ◇ 설문조사 책임자: 정세정 부연구위원 (044-287-8130)
- ◇ 설문조사기관: 한국리서치

본인은 위 사항에 따라 조사 사실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으며, 조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후 조사참여에 동의합니다



선정질문 1

SQ1. 귀하는 몇 년 몇 월 생입니까?

_____년생 _____월 (1985년 6월생 ~ 2001년 5월생)

SQ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자
2. 여자

SQ3. 귀하께서는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세종

A. 노동시장

A1. 5월 마지막 주(5월 24일~30일)에 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 하였습니다가?

※ 장학금을 받고 하는 일(근로장학생, 행정조교, 연구조교 등)은 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 졸업 후 정식 일자리로 조교를 하는 경우에는 일자리로 파악합니다.

1.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 하였음 (※장학금 제외)
2. 직장은 있으나 잠시 휴직 상태임 (무급휴직, 병가, 일시휴업 등)
3.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가게)에서 '무급'으로 일을 돕고 있을 -> 설문종류
4. 전혀 일하지 않았음 -> 설문종류

A2. 5월 마지막 주(5월 24일~30일)에 귀하께서는 2가지 이상 일자리(직장)에 종사하셨습니까?

1. 그렇다 (주업 외에 부업 있음)
2. 아니다 (부업 없음) -> A3

A2-1. 귀하의 직업 중 4대보험에 가입된 일자리가 있습니까?

1. 있다 -> A2-3
2. 없다 -> A2-2

A2-2. 그렇다면 귀하의 직업 중 근로시간이 더 긴 일자리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모든 일자리의 근로시간이 동일하다)

A2-3. 그렇다면 아래 일자리를 귀하의 '주된 일자리'로 보겠습니다. 이후 모든 문항은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1. (A2-1=1) 4대보험에 가입된 일자리
2. (A2-2=1) 근로시간이 더 긴 일자리
3. (A2-2=2) 근로소득이 더 높은 일자리

A3. 5월 마지막 주에 주된 일자리(A2-3 값 제시)에서 총 몇 시간 일하셨습니다가?

(※일시휴직 상태이신 분은 휴직 전 평소 근로시간을 응답해주세요)

1주 동안 _____ 시간

A4. 주된 일자리에서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2. 자영업자, 고용주
3.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간 형태(특수형태고용종사자)(예: 학습지도사, 택배/배달기사, 방과후교사 등)

A5. 귀하의 주된 일은 모바일 어플이나 온라인을 통해 일감을 제공받는 일입니까?

(예: 어플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심부름, 배달, 대리운전, 번역)

※ 알바몬, 알바천국, 잡코리아, 사람인, 워크넷, 알바클, 잡플래닛 등 단순히 채용·구인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일자리를 구한 것은 '아니오'에 해당합니다.

1. 예 -> A5-1
2. 아니오

//로직 : A5=2 and A3 \geq 35 -> 설문종료//

//로직 : A5=2 and A4=2 -> 설문종료//

//로직 : A5=2 and A3(35 and A4=1,3 -> A6//

A5-1. 귀하의 일은 다음 중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1. 온라인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활용)
2. 오프라인 (일을 해야 하는 장소가 정해져있거나 누군가를 대면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

A5-2. 그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소프트웨어개발, IT 기술 지원
2. 온라인 전문 서비스 (예: 통역, 번역, 회계, 교육, 법률자문)
3. 창작 (예: 웹툰, 일러스트, 디자인)
4. 데이터 입력 (명함 정보 기입과 같은 컴퓨터로 하는 단순 작업)
5.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물 -> A3 \geq 35 또는 A4=2,3(자영업자, 특고)는 설문종료
6. 배달 및 운송 (예, 배달, 심부름, 대리운전, 택배)
7. 청소, 수리, 돌봄 등의 방문 서비스 (예, 가사도우미, 핏시터, 수리 등)
8. 오프라인 전문 서비스 (예, 교육, 상담, 뷰티)
9. 임대업 (에어비엔비) -> A3 \geq 35 또는 A4=2,3(자영업자, 특고)는 설문종료
10. 기타 ()

A5-3. 귀하께서 일감을 제공받기 위해 주로 활용하시는 어플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주로 활용하는 순서대로 3개까지 작성해 주세요.

_____ , _____ , _____

A5-4. 플랫폼에서 귀하가 수행한 일과 관련한 성과나 고객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별점 등) 제도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A6

A5-5. 평가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됨
2.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어들
3.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적어짐
4. 영향을 미치지 않음

A6. 귀하는 5월 마지막 주에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A7. 귀하가 5월 한 달 동안 주된 일자리(A2-3 값 제시)에서 받은 소득(세전)은 얼마입니까?

(※ 세금 및 4대보험을 떼기 전 소득으로 응답해주세요)

월 _____ 만원

B. 근로여건 & 사회보험

B1. 주된 일자리(A2-3 값 제시)에서 귀하는 노조에 가입했습니까?

1. 노동조합 없음 → B1-1
2. 노동조합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 B2-1
3. 노동조합 있고 가입대상이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음 → B2-1
4. 사업장을 배경으로 하는 노조에 가입했음 → B2-1
5. 사업장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노조에 가입했음(ex. 알바노조, 라이더유니온) → B2-1

B1-1. (사업장과 관계없이) 귀하의 권리보호와 노동 조건 개선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가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B2-1. 현재 주된 일자리에서 귀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가입여부를 잘 모름

B2-2. 현재 주된 일자리에서 귀하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가입여부를 잘 모름

B2-3. 현재 주된 일자리에서 귀하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가입여부를 잘 모름

B2-4. 귀하의 국민연금 가입 상태는 어떠합니까?

1. 직장 가입자 (특수지역연금 포함)
2. 지역 가입자
3. 임의 가입자 (※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4. 가입하지 않음
5. 가입 여부를 잘 모름

※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으시다면 '지역가입자' 상태에 해당합니다.
예) 예전에 4대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 직장은 4대보험 가입 혜택이 없다면 '지역 가입자'에 해당(지역가입자인데 보험료 납부 예외 또는 미납 상태임).
단,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임의가입자'에 해당

B2-5. 귀하의 건강보험 가입 상태는 어떠합니까?

(※현 직장과 무관하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혜택을 받고 계시면 '가입'에 해당합니다)

1. 가입 (직장가입, 지역가입, 피부양자 포함)
2. 미가입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
3. 의료급여 수급자
4. 가입여부를 잘 모름

B3. 유형 [렌덤: 각각 50%씩 조사되도록]

- 1. A 유형 → B3-1A
- 2. B 유형 → B3-1B

[A유형]

B3-1A. 귀하의 월 소득이 208만원이고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국민연금에 지역가입하면, (1) 월 18만7,2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2)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3) 만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4) 월 약 20만원-80만원의 연금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아래 박스 참고).

귀하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시겠습니까?

월 소득 208만원, 보험료 18만원 납부 시 가입기간 별 연금 급여액
• 가입기간 10년 : 매달 연금 약 23만원 수령
• 가입기간 20년 : 매달 연금 약 46만원 수령
• 가입기간 30년 : 매달 연금 약 68만원 수령
• 가입기간 40년 : 매달 연금 약 91만원 수령

- 1. 예
- 2. 아니오

B3-2A. 이제 위의 18만7,200원 중 당신이 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정책이 도입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예: 당신이 x만원을 내면 정부는 18-x만원을 부담). 이 경우 당신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료 18만원 중 얼마까지 낼 의향이 있습니까?**

월 _____ 만 _____ 천원 (로직: 응답값 %로 제시)

B3-3A. 귀하의 월 소득이 208만원이고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1) 월 46,8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2) 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 또는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3) 실업급여로 120~210일 동안 약 월 12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아래 박스 참고).

귀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월 소득 208만원, 보험료 46,800원 납부 시 가입기간 별 실업급여 수령 기간
• 가입기간 1년-3년 미만 : 4개월(120일) 간 월 124만원 수령
• 가입기간 3년-5년 미만 : 5개월(180일) 간 월 124만원 수령
• 가입기간 5년-10년 미만 : 6개월(180일) 간 월 124만원 수령
• 가입기간 10년 이상 : 7개월(210일) 간 월 124만원 수령

- 1. 예
- 2. 아니오

B3-4A. 이제 위의 46,800원 중 당신이 내야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정책이 도입된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이 x 원을 내면 정부는 46,800-x원을 부담). 이 경우 당신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료 46,800원 중 얼마까지 낼 의향이 있습니까?**

월 _____ 만 _____ 천원 (로직: 응답값 %로 제시)

//로직 : B2-4=1,2,3 응답자는 B4로 이동, B2-4=4 응답자는 B5로 이동, B2-4=5 응답자는 B6으로 이동//

[B유형]

B3-1B. 귀하의 월소득이 208만원이고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국민연금에 지역가입하면, (1) 월 18만7,2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 65세부터 연금 급여를 사망 시까지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1. 예 2. 아니오

B3-2B. 이제 위의 18만7,200원 중 당신이 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정책이 도입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예: 당신이 x만원을 내면 정부는 18-x만원을 부담).

이 경우 당신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료 18만원 중 얼마까지 낼 의향이 있습니까?

월 _____ 만원 (응답값 %로 제시)

B3-3B. 귀하의 월 소득이 208만원이고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1) 월 46,8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 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면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 또는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120~210일 동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귀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1. 예 2. 아니오

B3-4B. 이제 위의 46,800원 중 당신이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정책이 도입된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이 x원을 내면 정부는 46,800-x원을 부담).

이 경우 당신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료 46,800원 중 얼마까지 낼 의향이 있습니까?

월 _____ 만원 (응답값 %로 제시)

//로직 : B2-4=1,2,3 응답자는 B4로 이동, B2-4=4 응답자는 B5로 이동, B2-4=5 응답자는 B6으로 이동//

B4. (B2-4=1,2,3) 귀하께서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 1. 납부하고 있음 -> B6
2. 납부하지 않고 있음 -> B4-1

B4-1. 귀하께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자발적)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예: 기금 운용, 수급 불확실)
3.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노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 B6으로 이동

B5. (B2-4=4) 귀하께서는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자발적)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예: 기금 운용, 수급 불확실)
3. 사용자(고용주)의 가입 거부 때문에
4. 가입에 대해 생각해보는 적이 없다

B6. 현재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2	3	4	5
1. 소득					
2. 평균 근로시간					
3. 근무시간(출퇴근 시간, 요일 탄력성 등)					
4. 장래성					
5. 안정성					

B7. 귀하의 현재 주된 일자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1.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서
2.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3.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4.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5.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창업포함)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6.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7. 기타 ()

B8. 귀하의 주된 일과 관련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해당	비해당
	1	2
1.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2. 근로계약서 외의 계약서(하도급, 표준계약, 위탁계약서 등)		
3. 근로시간 임의변경 경험 (예: 알바취기)		
4. 임금체불 또는 비정상지급 경험		

B9. 다음은 귀하의 주된 일자리 업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가장 적절한 항목에 표시해주시시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1. 내가 원하지 않는 날이나 시간에는 일하지 않을 수 있다					
2. 갑자기 일(감)이 주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3. 일(감)이 줄어들까봐 걱정이 된다					

B10. 지난 1년간 귀하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용	있음	없음	해당 없음 9
	1	2	
1. 회사가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 교육			
2. 개인적으로(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는 훈련, 교육			
3. 동료나 작업감독자들이 담당하는 현장 훈련(OJT)			
4. 국가 지원제도(취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를 활용한 훈련, 교육			

B11. 귀하는 향후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내용	있음	없음	해당 없음 9
	1	2	
1. 회사가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 교육			
2. 개인적으로(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는 훈련, 교육			
3. 동료나 작업감독자들이 담당하는 현장 훈련(OJT)			
4. 국가 지원제도(취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를 활용한 훈련, 교육			

B11-1. (B11에서 하나라도 1 응답 시) 귀하는 다음 중 어떤 영역의 교육훈련을 받고 싶습니까?

1.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훈련
2. 창업교육
3. 어학
4. 교양
5. 기타 ()

B12. 귀하는 주된 일자리에 업무상 상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다치거나 사고가 난 경험)

1. 있다 → B12-1
2. 없다 → B12-2

B12-1. 그렇다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은 경우만 해당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치료비를 지원한 경우는 '아니오'에 응답)

1. 예
2. 아니오

B12-2. 주된 일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경험한 적 있음	경험한 적 없음
	1	2
1. 혼자서 일하면서 괴롭거나 무서운 감정을 느낌		
2.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를 든 경험		
3. 인격적 무시나 감정적 폭력		
4. 야간근로(밤10시-6시 사이)		
5. 나이나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		

B13. 졸업 여부에 상관없이 최종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재학, 중퇴 포함)

1. 무학 -> B14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전문대학
6. 대학
7. 대학원

B13-1. 최종 학교(B13값 제시)의 졸업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1. 재학
2. 휴학
3. 중퇴
4. 수료
5. 졸업

//로직 : B13=2,3 응답자는 B14로//

B13-2. (B13=4 응답자만) 다니신 고등학교의 계열은 어떻게 됩니까?

1. 일반계/인문계(종합고 인문계 포함)
2. 특목고(과학고, 외고)
3. 자율형 고등학교(공립, 사립)
4. 특성화고(상업계/공업계/농업계 등)
5. 예술·체육고교
6. 마이스터고교
7. 기타

-> B14로 이동

B13-2. (B13=5,6,7 응답자만) 다니신 대학(원)의 전공계열은 어떻게 됩니까?

1. 인문계열
2. 사회계열
3. 교육계열
4. 공학계열
5. 자연계열
6. 의약계열
7. 예체능계열

B14. 귀하의 교육수준에 비해 현재 주된 일자리의 수준은 어떤 편입니까?

1. 교육 수준에 비해 매우 낮다
2. 교육 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다
3. 교육 수준과 비슷하다
4. 교육 수준보다 높은 편이다
5. 교육 수준보다 매우 높다

C. 가구형태

C1.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미혼 → C2
2. 기혼 (유배우)
3. 별거/이혼/사별 → C2

C1-1. 귀하의 배우자도 일을 하십니까?

1. 그렇다 (맞벌이)
2. 아니라 (외벌이)

C2.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1. 없다
2. 1명
3. 2명
4. 3명
5. 4명 이상

C3. 귀하는 현재 혼자 살고 계십니까?

1. 예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셰어하우스, 기숙사 포함)
2. 아니오

C4. 귀하는 귀댁의 가구주이십니까?

- ※ 가구주란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 ※ 본가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자취를 하고 있다면 '가구주 아님'에 응답해주세요.

1. 본인이 가구주임
2. 가구주 아님

C5. 귀하께서는 귀하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D. 기타

D1. 귀하 본인의 경제적 지위를 평가하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1	2	3	4	5	

D2. 귀하 부모님의 경제적 지위를 평가하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1	2	3	4	5	

※ 다음은 귀하의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옳고 그름이 없으니, 귀하의 평소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D3. 제도와 민주주의

항목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	대체로 신뢰한다	강하게 신뢰한다
	1	2	3	4
1) 나는 정부를				
2)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더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D4. 공정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조금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1) 한국의 사회경제 시스템은 모두가 성공에 필요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2)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해서이다				
3) 부유한 사람들이 부유한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D5.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진보	중도				보수
1	2	3	4	5	

E. 경제

※ 앞으로 귀하의 경제상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E1. 귀하께서 5월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총 소득은 얼마입니까?
(※근로소득과 정부·가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적어주시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제외해주세요.)

한 달 동안 ()만원

E2. 코로나19 전과 비교하여 소득이 감소하였습니까?

1. 예 → E2-1
2. 아니오 → E3

E2-1. 그렇다면 코로나19 이전에는 월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월평균 ()만원

※ 코로나19 전과 비교하여 소득이 어느정도 줄어들었습니까? _____%감소 (자동계산)

E3. 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E4. 귀하 명의로 된 금융자산(예적금, 주식, 펀드 등)은 얼마나 됩니까?

※부채를 고려하지 마시고, 은행 예·적금, 주식/펀드가 있으면 모두 더하여 적어주시요.

()만원

E5. 귀하 명의로 계약되어 있는 주택이 있습니까? 있다면 주택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1. 내 명의의 전세 보유 → E3-1. 보증금 ()만원
2. 내 명의의 자가 보유 → E3-2. 현 시가 ()만원
3. 내 명의가 아님 (1,2 동시 선택불가)

E6. 귀하 명의로 된 가계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사업부채는 제외)

※ 학자금대출, 주택자금 대출, 전세를 주신 경우 돌려줘야하는 전세보증금 등

()만원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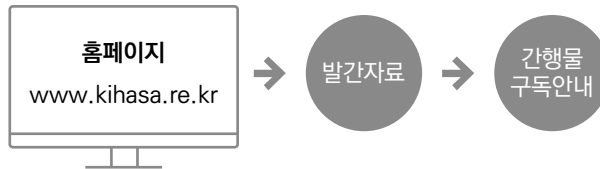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